

KINU 연구총서 11-04

북한의 부문별 조직 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당·정·군 및 경제·사회부문 기간조직 내의 당 기관 실태를 중심으로

정영태 · 김진무 · 안찬일 · 이영중 · 이윤걸 · 임을출 · 현인애

KINU 연구총서 11-04

북한의 부문별 조직 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당·정·군 및 경제·사회부문 기간조직 내의 당 기관 실태를 중심으로

정영태·김진무·안찬일·이영종·이윤걸·임을출·현인애



**북한의 부문별 조직 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당정군 및 경제·사회부문 기간조직 내의
당 기관 실태를 중심으로**

인 쇄 2011년 12월

발 행 2011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4 (팩시밀리) 901-2572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두일디자인 (02-2285-0336)

인 쇄 처 도서출판 오름 (02-585-9122, 3)

ISBN 978-89-8479-612-6 93340

가 격 ₩16,000

© 통일연구원, 2011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북한의 부문별 조직 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당·정·군 및 경제·사회부문 기간조직 내의 당 기관 실태를 중심으로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요약	xi
I. 서론	1
1. 문제제기	3
2. 연구 범위와 방법	9
II. 노동당 중앙위원회 및 본부당 조직 실태	15
1. 노동당 지도체계 변화 개요	17
2.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22
3. 중앙당 본부당위원회	38
4. 본부당위원회 조직 실태 변화분석	52
III. 보안기구(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의 당 조직 실태 ..	91
1. 보안기구 조직 개요	93
2. 평안남도 보안기구 당 조직	107
3. 황해남도 보안기구 당 조직	121
IV. 경제 관련 기관의 당 조직 실태	143
1. 경제부문 당 조직의 특성 및 조직 현황	145
2. 경제부문 당 조직의 개요	147
3. 경제부문 당 조직의 당원 생활 실태	159

**북한의 부문별 조직 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당·정·군 및 경제·사회부문 기간조직 내의 당 기관 실태를 중심으로**

4. 당 조직의 운영 실태	166
5. 경제부문 당일꾼 및 당 조직의 변화	175
V. 군대의 당 조직 실태	195
1. 북한군의 당 조직 개요	197
2. 북한군 인민무력부 산하 총정치국 당 조직	224
3. 북한군 사령부급 당 조직	235
4. 북한군 총정치국 예하 지도국급 당 조직	256
5. 북한군 총정치국 직속급 당 조직	275
VI. 근로단체의 당 조직 실태	283
1. 근로단체 조직 특성 및 현황	285
2. 근로단체 당 조직 문화 및 당 조직 운영 변화 실태 ..	312
VII. 종합 평가 및 결론	337
1. 부문별 종합평가	339
2. 결론	352
참고문헌	361
최근 발간자료 안내	367



표 목차

<표 I-1> 당 조직 구성	10
<표 I-2> 조직부 내 조직, 기능 및 성원 수	10
<표 I-3> 일반개인 및 초급간부 조직생활상	12
<표 I-4> 유급 간부 및 당 조직 지도 및 운영 실태	13
<표 II-1> 중앙당 조직비서 권력서열 변화 추세	20
<표 II-2> 중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의 기능과 각 부문기관 인원	37
<표 II-3> 본부당위원회 조직부의 구조와 기능에 따른 인원수	45
<표 II-4> 중앙당 근로단체부 초급당 조직의 구조와 기능 ...	48
<표 II-5> 중앙당 근로단체부 초급당위원회의 구조와 기능에 따른 인원수	51
<표 II-6> 본부당위원회 조직부의 조직생활 상황	53
<표 II-7> 본부당위원회 조직부의 당 조직 지도 및 운영 실태	64
<표 II-8> 중앙당 근로단체부 초급당위원회 당원들의 조직생활 상황	75
<표 II-9> 본부당 소속 근로단체부 초급당위원회의 조직 운영 실태	83

북한의 부문별 조직 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당·정·군 및 경제·사회부문 기간조직 내의 당 기관 실태를 중심으로

<표 III-1> 당 조직생활 변화 실태	114
<표 III-2> 당 조직지도 및 운영 변화 실태	118
<표 III-3> 당 조직생활 변화 실태	129
<표 III-4> 당 조직지도 및 운영 변화 실태	135
<표 IV-1> 경제부문 당 조직생활 변화 평가	161
<표 IV-2> 경제부문 당 조직생활 변화 평가	165
<표 IV-3> 경제부문 당 조직생활 변화 평가	167
<표 IV-4> 경제부문 당 조직생활 변화 평가	173
<표 V-1> 보직 및 진급심사를 결정하는 각급 부대 당위원회 및 발령권자	214
<표 V-2> 김정은 후계구도 시험 군 인사	217
<표 V-3> 인민무력부 산하 총정치국 내의 당 조직생활의 변화	226
<표 V-4> 인민무력부 산하 총정치국 내의 당 조직 지도 및 운영 실태의 변화	231
<표 V-5> 북한군 총정치국 예하 사령부급 정치부의 구조와 기능(보위부)	238
<표 V-6> 사령부 당 조직부 기능, 활동, 인원수	242



<표 V-7> 본부당위원회의 조직생활 상황	244
<표 V-8> 사령부급 당 조직 지도 및 운영 실태	250
<표 V-9> 북한군 총정치국 예하 사령부급 정치부의 구조와 기능(보위부)	260
<표 V-10> 지도국급 당 조직부의 구조와 기능에 따른 인원수	263
<표 V-11> 본부당위원회의 조직생활 상황	265
<표 V-12> 북한군 총정치국 예하 지도국급 당 조직 지도 및 운영 실태	271
<표 V-13> 북한군 총정치국의 구조와 기능(보위사령부) ..	279
<표 VI-1> 도청년동맹의 부서별 업무(평안남도)	291
<표 VI-2> 도청년동맹의 당 조직생활 실태	315
<표 VI-3> 도청년동맹 내 당 조직지도 및 운영 실태	320
<표 VI-4> 도직맹 내의 조직생활 실태	327
<표 VI-5> 도직맹 내의 당 조직지도 및 운영 실태	331
<표 VI-6> 3대 세습의 안정성 요소	334

그림 목차

KINU 연구총서 11-04

북한의 부문별 조직 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당·정·군 및 경제·사회부문 기간조직 내의 당 기관 실태를 중심으로

<그림 II-1>	노동당중앙위원회의 지도체계	19
<그림 II-2>	중앙당 조직지도부의 군대·당·국가·공안기관에 대한 부문별 순위	33
<그림 II-3>	중앙당 본부당위원회 내 당 조직지도체계	39
<그림 V-1>	선군정치 하 당·군 관계	209
<그림 V-2>	노동당 조직체계도	212
<그림 VI-1>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직도	286
<그림 VI-2>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조직구조	288
<그림 VI-3>	도청년동맹의 조직구조	290
<그림 VI-4>	군청년동맹의 조직구조	298
<그림 VI-5>	초급청년동맹의 조직구조	298
<그림 VI-6>	조선직업총동맹의 조직구조	305
<그림 VI-7>	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조직구조	306
<그림 VI-8>	평안북도 직맹의 조직구조	308
<그림 VI-9>	직맹초급위원회 조직구조	309
<그림 VI-10>	조선민주여성동맹의 조직체계	312
<그림 VI-11>	도청년동맹 초급당위원회 조직구조	313
<그림 VI-12>	도직맹위원회 조직구조	325

요 약

1. 서론

사회주의 체제에서 권력 증추적 기능과 역할을 담당해온 북한 노동당의 실태를 경험적 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그 실체를 판단하는 것은 가치 있는 연구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정태적 자료를 이용한 서술적 연구방법에 더해 북한에서 당 생활 경험을 실제 해온 당원 또는 당 관료 경력을 지닌 탈북자들의 증언을 기초로 북한 노동당의 실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당부문, 군대부문, 사회안전부문, 경제부문, 사회문화부문으로 나누고 이들 각 부문에 조직되어 있는 당 기관의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당 중의 당’으로 불릴 만큼 중앙당의 핵심조직인 중앙당 본부당 위원회, 군사부문의 정치기관인 군 총정치국,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또는 예하 사령부(또는 예하기관), 사회안전부, 경제조직(공장 및 기업소 등), 사회조직(근로단체) 내의 당 조직을 중심으로 노동당 조직의 실태를 연구한다.

시간적 범위를 거시적으로 김일성 시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자 한다. 김일성 시기 노동당과 김정일 시기 노동당의 기능과 역할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김정일시대 이벤트 중심으로 볼 때, 시기를 고난의 행군시기, 경제관리 개선 조치 이후 시기, 화폐개혁 이후 시기로 분류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1차적으로 기존자료(북한원전 등)를 활용하는 서술적 방식의 연구를 추진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당원 또는 당 관료 출신 해당조직 탈북자들의 면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당의 활동 및 기능 실태를 파악하는 경험적 연구를 수행한다. 탈북자 면담을 통한 분석판단의 체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질문 매뉴얼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2. 중앙당 본부당 부문

가. 당 조직생활 실태

본부당 당 조직 당원들의 생활은 외양적으로는 보기에는 충실한 조직원으로서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수령에 대한 충성도를 표현하는 1호 작품 관리 및 참가정형, 정치적 쇄뇌를 위한 정치학습(수목강연회 및 토요일정치 학습, 월간 자체 학습 및 정리 등), 충성도 함양을 위한 충성의 노래모임 그리고 당생활 총화는 1985년 이전과 차이없이 철저한 공식 이행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정치적 지침이나 방침을 이행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다. 육체적 심리적 부담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의례적 이행(ritualistic performances)만 하기 때문이다.

내적으로는 본부당 조직의 당 생활은 이중성을 띠는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식적으로는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내적으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의문시 하거나 반신반의’하거나 ‘당의 방침을 무조건 그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권력에 눌러 땀 흘리며 맹종맹동하면서 당의 방침과 어긋나게 하는 현상’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부당 당원들의 당 생활은 기본적으로 열정, 충실성, 진실성은 점차 퇴색되고 있는 반면, 형식주의, 이기주의, 부정부패, 허위 보고 등과 같은 부정적 행태로 채워지고 있다. 이것은 억압적 체제 하에서 개인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출세를 위한 최우선 전략으로 추구되는 이중성의 발로라 할 수 있다.

나. 당 조직 지도 및 운영 실태

본부당 위원회의 조직 지도 및 운영 실태는 비교적 정상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당원들의 의식 상태와 활동정형은 다소 약화되거나 비정상적인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당위원회는 잘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 질적으로 조금씩 저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이할 변화는 회의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정치 구호수준을 넘어서 현실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위원회 준비에 있어서는 열의가 결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부선발의 경우 그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충실성, 출신성분, 전문성이 본래의 순위였다면 이제는 국가를 위한 경제적 성취도가 최우선이 되고 이어 충실성, 출신성분, 전문성 순으로 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경제적 결핍현상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준다. 비공식적으로는 간부선발에서 뇌물이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 북한 당 조직 운영의 핵심은 보고체계가 어떻게 획일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잘 이루어지는가이다. 상부조직에 대한 보고 상황은 규정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3. 보안부문

가. 당 조직생활 실태

인민보안부 도 보안국 당원들의 당 조직생활 실태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북한 체제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1985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인민보안부가 김정일 정권의 보위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치학습, 생활총화, 아침독보회 등 보안국 내 당원들의 당생활은 과거보다 많이 해이해져 참석율도 매우 저조하고 거의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외적으로는 인민보안부가

김정일 정권 유지의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엄격성 때문에 보안국 내의 당생활은 비교적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인민보안부가 군과 같은 체제이기 때문에 당의 근간조직체계인 1호 작품 관리, 당 조직 보고, 당비 납부, 입당선호도, 충성의 노래모임 등은 과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당의 조직체계는 과거와 다름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실제 노동당이 체제를 유지하고 주민들을 지도하는 기능은 상당히 해이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노동당이 당원들의 충성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공포정치, 당원 개개인의 이해관계, 뇌물 등 사적인 이익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당 조직 지도 및 운영 실태

인민보안부가 정권과 체제보위의 근간조직으로서 북한 사회의 다른 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조직되고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민보안부 내 당 조직 지도 및 운영은 1980년대 이전보다는 해이해졌지만 그런대로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인민보안국 내 당위원회 운영이나 하부 조직 실태의 보고체계, 당 검열부서의 기능, 당재정 및 외화벌이, 파벌형성 등 당의 근간조직체계는 1980년대 이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 유지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인민보안부조차도 김정일이나 노동당에 대한 충성심은 거의 없고 뇌물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노동당이 존재하고 또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승진, 검열 등 조직 지도의 근간이 뇌물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은 당 조직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4. 군대부문

가. 당 조직생활 실태

군사부문에서도 여타 부문과 마찬가지로 수령에 대한 충성도를 표현하는 1호 작품 관리 및 참가정형, 정치적 쇠퇴를 위한 정치학습(수목강연회 및 토요일정치 학습, 월간 자체학습 및 정리 등), 충성도 함양을 위한 충성의 노래모임 그리고 당생활 총화는 1985년 이전과 차이 없이 공식적인 이행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1호 작품 관리는 김일성 사망을 기점으로 얼마 기간 동안 강조되기는 하였지만 고난의 행군시기를 거치면서 인민생활이 어려워지자 1호 작품에 대한 관리도 느슨해지기 시작하였다. 정치학습에는 점차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싫어하고 각종 핑계로 빠지려고 하며 참가하더라도 마지못해 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군대에서 노동당 입당선호도는 절대적이었으나 점차 입당에 대한 열의가 식어가는 형국이다. 사회진출에 있어 당원으로 굴레를 지고 가는 것보다 보다 비당원으로 외화벌이나 장사와 같은 자유롭게 경제적 이익이 많은 부문에 진출하기를 더 바라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군대의 당성은 일반인민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당비 납부 역시 정상적이다.

군대 당 조직 보고체에서도 형식적으로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고 있지만 과거와 비교해서 많이 느슨해 졌다. 관련 처벌이 많이 약화되고 뇌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 탓에 당 조직 보고체계는 어느 정도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노작방침지시 침투조직 관련, 형식적으로는 변한 것이 없지만 받아들이는 자들의 입장이 의례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나. 당 조직 지도 및 운영 실태

당위원회 조직 지도 및 운영은 충실성이나 참여도 면에서 과거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당위원회 회의 사전 준비는 예전만 못하다. 간부선발 또한 인맥이나 뇌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 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성 당원이 다수 승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이 군사부문의 경우 군대가 체제 지탱 세력이기 때문에 군대 내의 당 조직 지도 및 운영이 크게 변질된 것은 없다. 내용이 많이 축소되고 질이 떨어진 것뿐이나, 형태는 유지하고 있다.

5. 경제(기업소)부문

가. 당 조직생활 실태

사상교양사업은 가장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영역이다. 탈북자들은 당 조직부, 당 조직의 지도체계가 가장 안정되어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른 부문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곳이 많지만, 당 내부 사업만은 예외라는 지적이다. 특히 사상교양사업, 군중궐기 등의 내부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모든 당 활동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중성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나. 당 조직 지도 및 운영 실태

기업소의 당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각종 당대회 준비도 비교적 철저히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간부선발이나 당 책별 상여제도가 정상적으로 되기보다는 뇌물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당 검열부서도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만 이젠 그것도 돈이 좌우하

고 있다. 하부 조직 실패는 매주 보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그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과장된 보고, 그리고 거짓보고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공장은 다 폐허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부문 당일꾼들도 무기력 해졌다. 지침 전달은 형식화되어 버린지 오래다.

6. 근로단체부문

가. 도 근로단체조직의 당 조직생활

1990년대 중반 이후 조직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우선 조직생활시스템이 여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 청년동맹과 도직맹간부들은 외형상으로는 1970~80년대 초와 같은 당 조직생활을 하고 있다. 1호 작품 관리사업, 아침독보, 간부학습과 강연회, 생활총화 비판과 자기비판, 자신의 조직생활정형보고, 당비납부, 방침전달 등 1970년대에 만들어 놓은 당생활시스템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나. 도 근로단체조직의 당 조직 지도 및 운영 실태

북한의 도청년동맹과 도직맹의 당 조직 지도 및 운영은 당규범의 요구대로 진행되고 있다. 당위원회 운영 각종 당회의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으며 위로부터 방침을 제때에 전달받고 있고 그 집행정형에 대한 보고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당 조직 지도 및 운영도 많이 이완되고 있다. 당 조직 운영에서의 특징은 당 조직 운영에서 뇌물과 인맥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당재정이 약화되고 간부들의 생활조건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다보니 간부들은 자기의 지위를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당생활에 대한 통제도 실질적으

로 당원들이 당에 충실하라는 통제라기보다는 통제를 강화해서 뇌물을 바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면이 강하다.

7. 결론

북한의 각 부문의 당 구성원들은 진실된 감정이나 사상을 견지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에 대한 형식적 복종을 연출하는 의례만으로 당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경향이 짙어져 가고 있다. 이들 당원들의 의식에는 혁명성이 그 만큼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혁명이 단기간에 급속한 개혁과 변화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대중성과 역동성을 갖게 되지만 혁명이 특별한 성취물이 없이 그 구호만 한없이 지속될 경우 이미 혁명성을 잃게 되고 그 행위들은 일상으로 되어버린다. 혁명의 일상화(routinization)가 그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에서의 혁명은 이미 일상화되어 혁명적인 효율성이 지극히 약화된 상태에 놓여 있다. 체제내의 많은 정보에 접근하고 있는 노동당 당원들에게는 ‘항일유격대 빨치산 혁명전통’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역동성을 지니고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체제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북한의 형식적 강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의미하고 형식적이지만 반복하는 과정에서 북한 체제가 유지되어 가고 있다.

I. 서론



북한의 부문별 조직 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당·장군 및 경제사회부문 기간조직 내의 당 기관 실태를 중심으로

1. 문제제기

구소련이나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당은 영도의 핵심으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누려 왔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중국 공산당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의 영도핵심’(17대 중국 공산당규약)으로 규정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인민을 영도해 투쟁하지 않았다면 현재와 같은 중국의 독립과 역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중국 공산당의 영도성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다.¹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의 영도성이 견지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당을 ‘향도적 역량’으로 하는 영도체계를 공식화하고 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체계에서 향도적 역량”²이라고 한 김정일의 말이 곧 그것이다. 북한의 노동당은 노동계급의 당으로서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다른 모든 조직들(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직업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여성동맹 등)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최고형태’의 조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북한의 노동당은 각종 청년단체들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균형을 망라한 대중단체들과 군사조직뿐만 아니라 국가조직을 영도해나가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노동당은 다른 모든 조직들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활동원칙과 활동방향, 투쟁목표와 실현방도를 제시하며 모든 조직들의 활동 전반을 획일적으로 장악 통제하고 지도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북한 노동당의 기능과 역할이 구소련 또는 중국과는 달리 ‘수령의

1. 이도기, 『현대 중국 공산당의 이해, 역사·지도·영도』 (서울: 통일신문사, 2008), p. 245.

2.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칼 맑스 탄생 165돐 및 서거 100돐에 즈음하여 발표한 논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학회, 1983.5.3), p. 19.

유일적 영도' 체계하에 있다는 점이 부각된다. 북한에서는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수령의 사상과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직접 작전하고 조직하는 '혁명 참모부'로서의 노동당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수령을 노동계급으로 자리매김하고 노동계급의 수령이자 당의 수령이 되도록 함에 따라 당의 영도를 다름 아닌 수령의 영도로 만들고 있다. 북한에서는 노동당이 모든 사업을 조직하고 영도해 나가는 것을 수령 영도의 실현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수령은 영도를 오직 당을 통해서 진행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이 같이 당의 영도체계와 수령의 영도체계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은 '수령일인독재'를 정당화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당의 모든 기능과 역할이 수령에 대한 충성활동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노동당은 수령의 사상을 관철하고 수령의 영도, 즉 수령의 독재를 뒷받침하는 전반적 사업을 획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는 핵심적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김정일 유일지배체제를 지탱하는 유일적 정치기구가 북한의 노동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북한은 첫째, 전당과 온 사회에 오직 노동계급의 수령의 혁명사상 만이 지배하도록 하는 것과 둘째, 전당, 전군, 전민이 수령의 명령, 지시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고 그것을 무조건 철저히 끝까지 관철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수령에 의한 사상의 독재, 전당, 전체국가와 전민에 대한 유일독재 영도체계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 북한당국은 수령의 영도와 당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수령은 노동계급의 당의 유일한 최고 령도자이며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조직인 만큼 전당이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통일단결 될 뿐만 아니라 당의 모든 조직들이 수령의 유일적 령도 밑에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움직일 수 있게

되어야 만 당 조직 체계에서 전일성이 확고히 보장되고 당은
정연한 조직체계를 갖출 수 있다.³

이와 같이 북한당국은 조직체계와 조직구조를 갖추자면 ‘유일성’, ‘전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수령영도의 이행을 위한 당의 일체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김일성 사후 북한의 수령 유일영도체계의 핵심인 당 기관들의 부정 및 부패로 ‘혁명 참모부’로서의 ‘전일적’, ‘유일적’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현상을 노정하기 시작하였다. 당 중앙일꾼들의 직권남용과 비리가 공공연하게 확산되었고 권력실세 중심 멍치기, 특정 조직의 실무담당자들 간의 모임 구성 등, 조직적인 ‘그룹화’가 진행된다는가, 당중앙 내부에도 지도원, 부과장 중심의 소규모 ‘그룹화’가 진행되어 상호 ‘눈감아주기’ 직권비리 등이 자행된 바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당 내의 ‘비관주의’ 확산, 당 간부들의 동요와 변화요구 및 위기감 증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고 한다. 90년대 초부터 ‘이대로는 희망도 없고 얼마가지 못한다’는 비관주의의 당내 확산으로 ‘현상유지’, ‘자리 지키기’ 등의 행태가 보편화되어 갔다. 권력과 돈의 유착으로 당적 통제기능은 거의 마비되다시피 할 정도였다고 한다. 당 일꾼들은 당권을 이용하여 비리, 횡령을 묵인하고 뇌물을 수수, 부정에 직접개입하거나 적당한 선에서 처리를 하고 거짓보고를 일삼는 행위들이 자행되어 온 것이다.

김정일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군을 동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군에 의한 통치방식을 선군정치로 정형화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군대의 적극적 활용으로 정권이 공고화되어 감에 따라 군대의 사

³ 사회과학출판사, 『령도체계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9』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140~141.

I
II
III
IV
V
VI
VII

회통제 기능과 역할을 점차적으로 제한하면서 대신 당의 기능과 역할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들어 북한 당국은 당 조직의 활성화 또는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2007년도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가 김정일 정권 탄생 후 처음(13년 7개월) 개최된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의 기본 당 조직은 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기능과 역할은 상층부부터 하부말단까지 만연해 있는 부패와 권력비리로 크게 제한되어 왔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내부의 ‘사상적 오염’현상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억제를 위한 당의 조치들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지금 일부사람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사상 문화적 침투를 만성적으로 대하고 있는가 하면 지어 거기에 유혹 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사업과 생활의 이모저모에서 그 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자본주의적 요소들이 꼬리를 물고 계속 나타나고 있는 데서 표현되고 있다.’⁴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사회 전 조직에 대한 당의 사상교양사업 및 조직행사를 어느 때 보다 강화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간부들이 토요 학습에 특별한 이유 없이 자주 빠진 당비서, 행정책임자들을 시멘트 공장 노동자로 내려 보내 1개월간 무보수 노동을 시킨다든가 당·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조직행사를 통하여 충실성, 절대성, 무조건성 정신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정치행사와 사상교육 등과 같은 집체행사를 많이 하도록 유도하고 있기도 하다. 작년(2010년) 9월 28일 개최된 당대표자회는 김정일 정권보위 핵심조직인 노동당의 이 같은 기능과 역할의 재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이것은 권력안정 유지기에 요구되는 필수적인 조건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권력을 강화하고

4. “당의 방침에 대하여,” 『학습제강(당원 및 근로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2), p. 3.

공고화 하는 과정에서는 군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될 필요성은 있으나 군에 대한 의존이 장기화될 경우 군대가 권력의 위협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한다. 군대를 지속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충성의 ‘총폭탄’으로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에 의한 통제와 충성유도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2000년대 들어 당중심의 체제정상화 의도를 강하게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12기 최고인민회의의 3차 회의에서 과정에서 ‘당중앙위 정치국 제의에 따라 내각 총리 소환 및 선거’라고 보도하여 당 중앙위 역할 강화 움직임을 보였으며, 작년(2010년) 4월 14일과 5월 1일에는 ‘김정일을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가 재등장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당대표자 회의에서 30년 만에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여 당중심의 선군체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권력순위를 기존에는 당을 ‘최고형태의 혁명조직’으로 명명하고 권력순위를 당 → 정 → 군으로 내세웠으나 개정규약에서는 ‘가장 높은 형태의 정치조직, 혁명의 참모부’로 하고 당 → 군 → 정 순의 당중심의 선군정치 권력 체계를 재확인하였다. 그런데 북한 노동당은 더 이상 ‘맑스 레닌주의’당이 아닌 김일성의 사당(私黨)으로 공식 자리 매김 하였다. ‘계승성 보장’ 명사로 김일성 가문의 대를 이은 세습을 당연시 하였다. 김일성을 당·정·군 모든 조직의 설립자로, 김정일은 이를 계승발전 시킨 인물로 기술, ‘김씨 왕조’의 정통성을 인위적으로 고착시키고자 했다. 선군정치를 당의 기본정치방식으로 하고 북한군을 선군혁명의 핵심부대, 주력군으로 내세움으로써 군대의 정치적 활용을 본격화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위해 북한군 총정치국의 지위를 과거 도당 급에서 중앙당 급으로 상향조정된 것은 중앙당과 ‘군대의 중앙당 격’인 총정치국에 동급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군대에 대한 당적 통제

I
II
III
IV
V
VI
VII

를 한층 더 강화한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이 북한 당국은 ‘김일성 당 국가’를 공고화하기 위하여 전 방위적으로 당 활성화 노력을 강화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북한 당국의 이 같은 당 활성화를 위한 공식적인 노력에 따라 과연 북한의 주요기관 내의 당 조직들이 실제로 수령에 대한 충성구조 유지를 위해 잘 부응하면서 기능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제기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식량난을 포함한 경제난의 심화로 당의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이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거나 지도부의 당 기구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령에 대한 당원들의 충성도가 상당히 약화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노동당이 아닌 김일성 사당으로 변한데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과 태도가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김정일 군사적 유일지배체제, 즉 ‘선군독재’에 대한 충성도 약화현상은 없는지? 김일성 당의 정통성에 대한 회의감은 어느 정도인지 등의 의문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체제에서 권력 중추적 기능과 역할을 담당해온 북한 노동당의 실태를 경험적 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그 실체를 판단하는 것은 가치 있는 연구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존의 정태적 자료를 이용한 서술적 연구방법에 더해 북한에서 당 생활 경험을 실제 해온 당원 또는 당 관료 경력을 지닌 탈북자들의 증언을 기초로 북한 노동당의 실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당부문, 사회안전부문, 군대부문, 경제부문, 사회문화부문으로 나누고 이들 각 부문에 조직되어 있는 당 기관의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당 중의 당’으로 불릴 만큼 중앙당의 핵심조직인 중앙당 본부당위원회,⁵ 군사부문의 정치기관인 군 총정치국,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또는 예하 사령부(또는 예하기관), 사회안전부, 경제조직

(공장 및 기업소 등), 사회조직(근로단체) 내의 당 조직을 중심으로 노동당 조직의 실태를 연구하게 될 것이다.

2. 연구 범위와 방법

가. 시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를 거시적으로 김일성 시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자 한다. 김일성 시기 노동당과 김정일 시기 노동당의 기능과 역할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김정일시대 이벤트 중심으로 볼 때, 시기를 고난의 행군시기, 경제관리 개선 조치 이후 시기, 화폐개혁 이후 시기로 분류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나. 연구방법

1차적으로 기존자료(북한원전 등)를 활용하는 서술적 방식의 연구를 추진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당원 또는 당 관료 출신 해당조직 탈북자들의 면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당의 활동 및 기능 실태를 파악하는 경험적 연구를 수행한다. 탈북자 면담을 통한 분석판단의 체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 매뉴얼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5. 당중앙위원회가 북한전역의 당원들의 당생활을 지도하고 있다면 본부당위원회는 당 중앙위원회 모든 성원들의 당생활을 지도하고 있는 당 조직으로서 ‘당중에 당’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부당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안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간부들과 성원들, 이들 가족들에게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성일, “북한 노동당의 조직구조와 사회통제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p. 37~39.

I
II
III
IV
V
VI
VII

(1) 해당 조직 내의 당 조직 구조와 기능

정치부 혹은 당위원회 조직 정식명칭과 조직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예를 들면, 북한 북한군 ○○○군부대 정치부(사령부 직속 아니면 군단 정치부 직속 등) 등.

● 표 | -1 당 조직 구성

부서명칭 및 부서장	기능 내용	인원수
명칭		
조직부(구체적)		
선전부(구체적)		
간부부(구체적)		
행정책임자 당위원회 직위		
보위부(정치부 지도 및 관계여부)		

조직부 내의 조직, 기능 및 성원 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 표 | -2 조직부 내 조직, 기능 및 성원 수

부서 명칭	기능 내용(아는 것)	인원수
본부당위원회 (부문 혹은 세포 단위)		
당생활지도과 (혹 담당지도원)		
당원등록과 (혹 담당지도원)		

검열과 (혹 검임?)		
간부과(혹 검임?) (5과 담당?)		
신소처리과 (혹 검임?)		
종합과 (혹 검임?)		
기요과 (혹 검임?)		
10호실관련 부서 유무		

(2) 해당 조직 내의 당 조직 변화추세 판단

1974(1973년 조직비서 선출)년 2월(김일성주의화-유일사상체계 10대원칙 정립) 후계자 내정에서 1985년 10월 후계자 공식등장으로 이어져온 시기(1985년 이전 시기)를 북한의 일반적 사회생활에서 급변한 변곡점을 맞이한 시점으로 보고, 이 시기 북한의 당 조직생활 수준을 100으로 하여 이와 비교, 75%, 50%, 25% 및 완전이완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이 척도를 중심으로 인터뷰시 당 경력자의 개인평가를 종합하고 분석을 추진한다. 내용적으로는 당 조직 실태를 당원 개인의 조직생활 및 당 조직 지도 및 운영 실태 등으로 나누어 평가하도록 한다.

표 | -3 일반개인 및 초급간부 조직생활상

구분	1-100%	2-75%	3-50%	4-25%	5-0%
1호 작품 관리 및 참가 정형					
수목 강연회, 토요일정치학습					
월간 자체학습 및 정리수준					
아침 독보회 수준					
총성의 노래모임 ⁶					
생활 총화 및 월간총화진위 ⁷					
입당 선호도 ⁸					
당 조직보고체계 ⁹					
사회노력지원 및 정치적 자극					
당비 납부 및 재정상황					
노작방침지시 침투 조직사업					

⁶- 4.15, 2.16, 12.24, 1.8 행사 시 동원되는 관점, 평균 1달 전에 이 행사준비를 당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것을 100%로 보고 참가정형 및 태도.

⁷- 생활총화 및 월간총화 내용 빈도 수준과 진위조사, 매 2일 및 주 목요일 생활총화와 월간총화를 열던 a수준을 100%로 보고 특히 비판사업을 진심으로 하는지에 포커스를 맞춰 분석.

⁸- a수준을 입당하여 김정일이나 김일성에게 충실하면서 개인적으로 총성의 노래모임에 대한 관점 및 참가정형 발전하려는 의지가 높았던 것을 100으로 본다면 나머지 돈이나 위의 지시 혹은 암시가 얼마나 작용하는지, 실제로 당 조직규율을 잘 지키는 대중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을 기본으로 입당후보자가 추천되는지 등에 대하여 분석.

⁹- 세포비서나 입당보증인에게 매일 스스로 찾아가 보고하던 시기 a수준을 100으로 본다면, 그리고 출장을 가서 제대로 보고하는가에 포커스를 맞춰 분석.

● 표 | -4 유급 간부 및 당 조직 지도 및 운영 실태

구분	1-100%	2-75%	3-50%	4-25%	5-0%
당위원회 운영 실태					
각종 당회의 사전 준비 실태					
간부 선발 배치 정형 ¹⁰					
하부 조직 실태 매주 보고상황					
근로단체지도 정형작동상황 ¹¹					
당 책벌 및 상여기준 ¹²					
당 검열부서의 기능여부					
당 신소담당과의 기능여부					
당 재정 및 외화벌이 상황					
조직비서와 책임비서와 관계					
부서별 본위주의 및 파벌형성					
당 조직과 보안기관 상하관계					
마약이나 성문화 접근성향 ¹³					
선물시혜 정책여부					

- I
- II
- III
- IV
- V
- VI
- VII

¹⁰- 물질적 자극을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¹¹- 군대에서는 3대혁명붉은기 중대 및 오중흡7연대쟁취운동, 사회에서는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
¹²- 뇌물이나 돈이 중요한지, 안면이나 뺨이 더 중요한지 등에 대한 관점.
¹³- 마약이나 성문화의 간부들의 부패 관련 특이사항, 처벌경위 실례.

II. 노동당 중앙위원회 및 본부당 조직 실태



북한의 부문별 조직 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당·장군 및 경제사회부문 기간조직 내의 당 기관 실태를 중심으로

1. 노동당 지도체계 변화 개요

1973년 9월¹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¹⁵이 북한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1974년 2월¹⁶ 김정일이 당중앙위원회 제5기 8차 전원회의에서 후계자로 내정된 후 당정치국 정치위원으로 선거됨으로써 북한 핵심권력이 정치국으로부터 실질적 파위를 행사하게 되는 비서국¹⁷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모든 정책지도와 인사 등의 핵심적인 결정권이 당중앙위원회 비서국과 전문부서들로 이관되고 정치국 회의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등은 이를 추인하는 정도의 거수기 역할 기관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조직지도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정치는 1974년부터 시작하여 1985년 사이 김일성·김정일시대 정치국 위주의 당·국가 정책결정 체제로부터 1985년 이후 김일성 사망 때까지 비서국 전문부서 위주의 당·국가 정책결정체제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⁸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로부터 하부조직말단까지 김정일의 유일적 당 영도체계가 완전히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일의 권력이 김일성의 권력보다 실질적으로 앞서게 된

14. 이때 김정일이 북한 노동당 조직비서로 선출되었다고 전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신경환이 진술. 정창현, 『결에서 본 김정일』 (서울: 김영사, 1999). p.142.; 1973년 8월 30일 열린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김정일을 후계자로 결정하되, 우선 조직·선전부문에 대한 전권을 그에게 부여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를 보았던 것이다. 김정일의 임명사실은 당 내부문건을 통해 전체 하급단체들과 당원들 모두에게 하달되었다. 이찬행, 『김정일』 (서울: 백산서당, 2001), p. 355.

15. 1980년 제6차당대회 이전 '정치위원회'로 호칭

16.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pp. 500~503.

17.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은 필요시 당 인사 및 당면문제 등 당내문제를 토의, 결정하며 그 결정의 집행을 조직, 지도한다. 『조선로동당 규약』 제2장 제11조 2항, 2010. 9.

18.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선인, 2007), p. 281.; 손광주, 『김정일 리포트』 (서울: 바다출판사, 2003), p. 163.

시기가 바로 1985년 이후라 할 수 있다. 1985년을 기점으로 북한 내 당 조직들의 활동이 전성기를 거쳐 하강곡선을 그리기 시작하여 현재 북한 내 핵심간부들의 조직인 각급 당위원회들의 조직 운영 실태는 부분적으로 이완되어 가는 변화양상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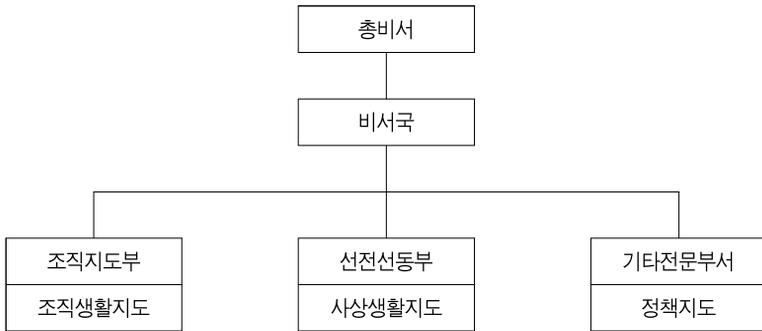
김정일은 북한권력의 핵심인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특히 전문부서 중에서도 조직지도부를 적극 활용하여 완전한 유일권력 장악¹⁹에 성공하였다. 김정일은 후계자로 내정되자 당 조직체계와 당 생활지도체계, 간부사업체계, 지도검열체계, 선전선동사업체계 등 전반적인 당 사업체계와 당기구체계의 개편과 정비에 착수하였다.²⁰ 북한에서는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영도적 역할은 당 생활지도와 당 정책지도로 구분된다. 당 생활지도는 다시 조직생활지도와 사상생활지도로 세분된다. 기본적으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의 직접적인 지도 아래 하부 당위원회들의 조직부가 당 조직생활지도를 총괄하고, 당 선전선동부는 당 사상생활지도를 각종 학습이나 강연, 강습같은 선전선동 형태의 활동을 통하여 담당하고 있지만 당내 모든 활동은 먼저 조직부의 지시대로 진행할 의무를 지고 있다. 당중앙위원회 국제부는 내각 외무성을, 군사부는 군부 인민무력부를, 행정부는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와 같은 안보기구를, 당중앙위원회 재정계획부는 내각 계획위원회를 담당한다. 이와 같이 각 당중앙위원회 전문부서들이 내각이나 사회 모든 부문들의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식으로 북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정책지도를 담당한다.

선전선동부의 경우 내각 산하 문화예술부,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등을 담당하지만, 당 조직지도부와 하부 당 조직들인 당

19. 이승열, 『김정일의 선택』 (서울: 시대정신, 2007), pp. 63~77.

20.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 중심으로』, p. 119.

●그림 11-1 노동당중앙위원회의 지도체계



「출처」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 중심으로』, p. 119.

위원회 조직부는 하부 각 당위원회들의 사업과 활동을 총괄담당하고 있다. 심지어 선전선동부의 활동상황까지도 조직지도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당 조직체계 개편은 북한 사회에서 당의 영도 밑에 모든 것을 진행한다는 원리에 기초한다. 조직부의 활동을 통하여 북한 사회의 모든 활동에 대한 보고 및 지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때문에 당중앙위원회 내의 당위원회, 즉 본부당위원회도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조직지도부 직속으로 있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김정일 등장 이전 김영주가 조직비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 당내에서 서열순위가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김정일 등장 이후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비서는 서열 2위의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현재는 총비서와 조직비서가 겹치수준의 서열 등치현상을 노정하고 있다. 당시 권력 2인자로 군림했던 김영주는 조직비서로서의 국가권력서열(주석 단배열순위)은 9위²¹ 정도로 알려졌다. 김일성, 최용권, 강량욱,²² 임춘

²¹-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 겸 조직비서로 사업했으며 실각 전 1973년 8월까지의 서

I
II
III
IV
V
VI
VII

● 표 II-1 중앙당 조직비서 권력서열 변화 추세

구분	순위	특징
1967~1973	김일성, 최용권, 강광욱, 임춘추, 김일, 박성철, 최현, 오진우, 김동규, 김영주, ²³ 김중린(공안) ...	- 김영주는 당시 김일성의 2인자로 되어 있지만 조직비서로서 국가권력서열(주석단 배렬순위)은 높지 않아 서열 9위 정도
1974~1985	김일성, 김일, 오진우, 김정일, 이종욱 ...	- 김정일은 당시 김일과 오진우 정치국상무위원 다음으로 권력 서열 4위
1986~1994	김일성, 김정일, 오진우, 이종욱 ...	- 공식석상에서 김일성 다음으로 호명되기 시작하면서 사실 상 조직비서의 지위가 맨 앞장에 놓이기 시작하였다고 봄. 일부 전문가들은 이때 김정일·김일성 공동정치 시대라고 부름.
1995~2009	김정일, 계응태(공안) ...	- 김정은이 공식 등장하기 전 김정일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겸 조직비서로서 서열 상 1위
2010~현재	김정일, 김영남, 김정은, ²⁴ 이영호, 최영림 ...	- 지금 조직비서는 공식 상 김정일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미 김정은이 대행하는 것으로 추정가능 함.

추, 김일, 박성철, 최현, 오진우, 김동규, 김영주²⁵ 순이었다. 이 시기는

열순위로는 강광욱을 제외하고 9위였다. 김갑식, 『김정일정권의 권력구조』 (서울: 한국학술정보(주), 2005), p. 189.

²² 사회민주당 위원장으로서 사실 노동당원이 아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노동당 당원이라는 추정도 있음.

²³ 김영주는 1959년 당 조직지도부장으로 임명된 후 1966년 10월 제4기 14차 전원회의에서 당비서로 선출되었다. 김영주는 정치위원회 후보위원장까지 꽤 조직문제를 완전장악하면서 급부상했다. 정창현, 위의 책, p. 100.

²⁴ 사실 김정은이 공식 등장하는 지난 제3차당대표자회 서열은 김정은이 최영림까지 당정치국상무위원 다음으로 호명되어 권력서열 6위였으나, 2011년 2월 15일부터 역전되어 이미 이영호 앞에서 호명되기 시작함. 뿐만 아니라 이미 김정은은 조직비서로서 가장 주요한 역할의 하나인 중앙당 조직지도부의 각 보고를 직접 관리하고 심지어 인사에도 일부분 관여하는 것으로서 사실 상 조직비서의 역할을 대행하는

대체로 김영주가 조직비서로 임명된 1967년부터 1973년 사이였다. 1974년~1985년 사이에 김정일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당 조직부 및 선전 비서직을 동시에 겸하면서 김일성, 김일, 오진우 다음 권력순위 4위를 점하게 되었다. 이후부터 현재까지 조직비서의 순위는 항상 총비서 다음 혹은 같은 순위로 되고 있다.

황장엽 전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 당중앙위원회는 당의 최고 지도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제기된 모든 정책안들은 모두 중앙위원회 비서국 집행부서들이 기본적으로 작성하고 정치국의 형식적 심의과정을 거치는²⁶ 중앙당 비서국 중심의 정책결정체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김정일의 권력이 강화되는 시기를 거치면서 정치국이나 당중앙위원회²⁷가 아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각 부서들이 당 정책안을 작성하여 담당 비서들을 통해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의 비준을 받는 형태로 당 내 모든 사업이 진행²⁸되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들과 부부장들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 역할을 해왔다고 한다.²⁹

것으로 파악된다.

²⁵ 김영주는 1959년 당 조직지도부장으로 임명된 후 1966년 10월 제4기 14차 전원회의에서 당비서로 선출되었다. 김영주는 정치위원회 후보위원까지 돼 조직문제를 안 전장악하면서 급부상했다. 정창현, 위의 책, p. 100.

²⁶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서울: 시대정신, 2006), pp. 244~261.

²⁷ 당원은 당 조직에 복종하며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며 하급당 조직은 상급당 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당 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 복종한다. 「조선로동당 규약」 제2장 제11조 2항. 여기서 절대복종이라는 함의는 대단히 중요하다.

²⁸ 이찬행, 『김정일』, pp. 407~408.

²⁹ 1970년대 초까지만 하여도 조직비서 겸 부장과 5~6명 정도의 부부장들로 구성되었던 조직지도부는 김정일 후계체제 하에서 4~5명의 1부부장과 10여 명의 부부장 등 300여 명으로 이루어진 거대 조직으로 확대·개편되었다. 조직지도부가 이처럼 비대해진 것은 김정일 후계체제하에서 유일지도체제 확립의 핵심부서로 되었기 때문이다.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 중심으로』, p. 144.

I
II
III
IV
V
VI
VII

실제 중앙당 비서국 부서들 중에서도 조직지도부를 직접 관장하는 ‘조직비서’ 김정일이 당중앙위원회 총비서 다음의 권력을 보유한 채 김일성 다음의 제2인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 김정일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과 군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올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을 ‘조직비서’로 호칭한 것은 중앙당 조직비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직위인가를 말해준다.

그런데 김일성 사후 김정일 유일시대에 접어들어 김정일 자신이 당이 군대보다 일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토로할 정도로 중앙당의 기능과 역할이 예전만 못하다는 측면이 지적되고 있다. 북한 당중앙위원회가 이전에 비하여 당 조직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와 통제를 잘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여 본장에서는 당중앙위원회의 주요 당 조직(조직지도부, 본부당위원회)을 중심으로 성원들의 당 생활 및 조직의 변화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2.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최근 북한은 김정일의 3대세습의 부상과 함께 내부에서 많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정보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다. ‘수령’ 개인에 의하여 유일적으로 지배되는 노동당을 중심으로 북한 사회가 조직화된 전일체이기 때문에 북한 노동당 특히 중앙당 비서국³⁰의 구조와 활동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변화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은 의

³⁰ 비서국은 사실 김정일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실질적인 집행부서보다는 북한 노동당의 권력 모두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또한 김일성의 권력을 정치국에 국한시키고 김정일 자기가 비서국을 확대개편하면서 자기 개인에 의해 철저히 움직이는 부서로서 김정일 후계 및 통치 시대에 급부상하게 된다.

미있는 일이다. 현재까지도 당적 영도원칙이 나름대로 확고하게 지배되는 당 우위의 정치체제 속에서 최고 권력집단인 중앙당 조직은 다른 조직들보다도 김정일과 각별한 ‘운명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 비록 ‘선군정치’ 하에서 군부 고위층들이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과 비슷하거나 우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하지만, 이들도 당원의 직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중앙당 비서국 조직지도부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다. 조직지도부가 노동당의 비서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서의 하나로 알려지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북한 전역 당원들의 당생활을 지도하는 것이 당중앙위원회라면, 당중앙위원회의 모든 성원들의 당 생활을 지도하는 본부당위원회가 있다. 당중앙위원회 본부 청사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비서들과 부장 및 부부장들, 기타 간부들과 성원들은 전부 핵심 노동당원으로서 중앙당 본부 내의 본부당위원회에 소속되어 당생활을 하고 있다. 북한 당 기관들의 전반적인 조직생활을 대표할 수 있고 그의 실상을 정확히 들여다 볼 수 있는 프리즘 역할을 하고 있는 본부당위원회도 중앙당 조직지도부가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의 구조와 기능

북한에서 당중앙위원회(이후 ‘중앙당’로 표기) 조직지도부는 ‘전당의 모든 당원들의 당생활을 지도하는 당 생활지도부서이며 당중앙위원회의 참모부서’³¹로서 권력의 핵심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의 군대

³¹ 김정일, “당사업에서 낡은 틀을 마스로 새로운 전환을 일궈내야(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74년 2월 28일),” 『김정일 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 94.; 김일성,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 경험(김일성고급당학교 창립 40돐에 즈음한 강의록),” 『김일성 선집, 제9권』

와 국가기구의 핵심권력조직 중에는 당원이 아닌 구성원이 있을 수 없으며, 김정일과 함께 모든 권력조직의 당원들은 자신이 소속된 당 조직에서 조직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소속 당 조직에 의해 그들의 정치적인 동향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생활 동향까지도 지속적으로 상위 당 조직에 각 당위원회의 조직부와 통보과³²에 의해 보고되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장악 및 통제되고 있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위 당 조직들 개념의 총 집합체로서 최종적으로 당 조직들의 보고와 통제 및 장악 그 자체가 집결되어 하부조직까지 그 권력이 실질적으로 전달되어 영향을 주는 곳이 바로 북한 중앙당 조직지도부이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이 보유하고 있는 ‘수령’ 권력을 제외하고 북한 권력의 피라미드 구조의 정점에 있는 최고위급(약 3천여 명)³³들의 인사문제를 결정하는 핵심기관이며 북한의 권력을 장악 통제하는 실질적인 기관으로서 중앙당 조직지도부는 북한 내의 어느 권력기관과도 비교하기 어려운 정도의 막강한 권한을 향유해 왔다.

김정일은 중앙당 조직지도부를 관할하는 실질적인 비서로서 사실 1973년 9월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로 임명된 이후 지금까지 북한 권력의 최고 정점에 서있다. 김정일은 후계자에 내정되고 당 조직비서가 되자 곧바로 당 조직체계와 당 생활지도체계, 간부사업체계, 지도검열체계 등 전반적인 당 사업체계와 당 기구체계의 정비에 착수하였다. 김정일은 조직지도부의 기본 기능인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조직생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지도부의 당 조직체계를 김정일 개인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 586.

32. 이찬행, 『김정일』, p. 419.

33. 이윤걸, 북한사회에서 사회주의적 중산층의 존재와 그들의 미래, 북한 ‘중산층’ 포럼 -탈북경제인으로부터 듣는 북한 중산층, 통일에 대한 대안 제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국회의원 박선영, 사)북한민주화운동본부, 2011.10.7), pp. 46~47.

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조직지도부를 체계적으로 확대·개편하였다. 조직지도부 당생활지도과³⁴를 확대개편하고 그 역할을 높이도록 하였다.³⁵ 당생활지도과는 사회 각 분야에 대한 당 조직들의 조직생활지도를 세분화하여 중앙기관 당생활지도과, 인민무력부 당생활지도과, 사법·검찰부 당 생활지도과, 재외분야 당생활지도과 등 10여개 이상으로 분할 개편되어 권한이 크게 강화되었다. 당생활지도과는 주요하게는 북한 전역에서 기존의 월 생활총화제도를 2일 및 주 생활총화제도로 전환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조직적 통제를 강화³⁶하였으며, 간부와 당원들이 업무와 사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당 조직에 의거하여 처리하는 강한 규율을 확립하기 시작하였다.

김정일은 조직지도부에 검열과³⁷를 신설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지도체제 확립 현황을 검열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하였다. 이로부터 검열과 역시 분야별 검열대상에 따라 검열1과, 검열2과, 검열3과 등 여러 개 과로 구성되었다. 당시 중앙당에는 이미 검열위원회라는 전문부서가 있었다. 그러나 김정일은 조직지도부의 권한을

34- 송봉선, “북한의 장기집권 요인에 관한 분석연구-신권체제 모형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7), p. 162.

35- 김정일, “당사업에서 낡은 형식을 버리고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1974년 2월 28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p. 71~74.

36- 손광주, 『김정일-북한의 최고 권력자 김정일의 모든 것』, (서울: 바다출판사, 2003), pp. 138~139.

37- 조직지도부에 중앙검열 1과(내각), 2과(군사), 3과(특수), 동부검열과, 서부검열과, 지방검열 1~4과를 신설했음. 또한 일상검열, 집중검열, 특수검열 등 세가지로 분류하여 검열을 체계화함. 한편, 3대혁명소조 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당적 지도사업에 대한 모든 검열권을 중앙당 조직지도부의 권한으로 집중시켰다. 이찬행, 『김정일』, pp. 416~417.; 김광용, “북한 ‘수령제’ 정치체제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pp. 118~119.



강화하기 위해 검열위원회는 당 내부만을 대상으로 충실성여부, 유일 사상체계 확립여부, 반당행위, 무규율 행위 등을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조직지도부 검열과는 당 기관을 제외한 국가기관들과 사회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세분화하였다. 그러나 김정일의 당권장악과 후계자로서의 당의 유일적 영도체제 공고화 과정에서 조직지도부 검열과의 권한은 당내까지 확대되어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는 조직지도부 검열과가 조사한 문제를 형식적으로 최종 처리해주는 역할만 담당하는 기능을 하게 되었다.³⁸

김정일은 새 당증교환을 통해 전당 당원들에 대한 장악사업을 새로운 궤도에 올려 세우는 과정에서 조직지도부 당원등록과의 역할을 크게 강화하였다. 특히 입당관련 추천권 배분에 대해서 오직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당원등록과의 권한 외에는 그 어떤 하부 당 조직기관도 관여할 수 없도록 하였다. 김정일은 통보과³⁹를 새로 설치하고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유일지도체제 확립⁴⁰을 기본으로 당중앙 예하 모든 당 조직들에서 사건사고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직보체계⁴¹를 수립하였다. 통보과의 신설로 김정일은 조직지도부 내에도 조직부와 통보과의 2중의 보고라인을 확보하여 하부조직과 상부 조직 간 경쟁과 상호견제의 구조를 수

38.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 중심으로』, pp. 120~121.

39. 통보과는 각급 당 조직, 즉 당 3호청사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대남정보와 군 총정치국, 인민무력부의 정찰총국 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당 조직이 있는 모든 단위의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송봉선, “북한의 장기집권 요인에 관한 분석연구-신권체제 모형을 중심으로,” p. 164.

40. 손광주, 『김정일 리포트』, p. 138.

41. 김정일, “정무원 위원회, 부 당 조직의 사업을 개선 강화할데 대하여(1974년 6월 10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 154.

립하였다. 당생활지도과와 전국의 모든 당 세포조직들을 통하여 각 급 당 조직들이 당원들과 주민들의 일상을 매일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조직부 직속 통보체계가 구축되었으며 이는 각급 당위원회의 조직지도부장의 관여없이 상급 당위원회의 통보부서로서 통보과만의 직보체계를 통해 주민들 속에서 임의의 시각에 발생하는 특이사항을 즉시 보고 장악할 수 있는 시스템⁴²으로 된 것이다. 이 같은 당 내 보고라인 외에도 김정일은 국가보위부와 인민보안부의 보고에서 올라오는 중앙당 행정부의 보고라인과 3대혁명소조 등 수많은 보고라인들을 통해 사회전반의 모든 동향을 사실 그대로 장악해 오고 있다.

조직지도부의 권한 강화의 핵심요소는 인사권의 장악이었다. 김정일 당권장악 이전 김영주 조직비서 시기에는 간부사업(인사사업)은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의 간부부 소관이였다. 뿐만 아니라 당 내 각 부서들과 정부의 여러 기관은 당중앙위원회 간부부의 지도 밑에 자기 부문의 인사에 대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까지만 하여도 북한에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사권자의 전횡과 독단을 막기 위한 제도, 즉 당 정치국과 비서국과 같은 인사합의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었다. 다시 말하여 간부부가 제출한 인사문제는 비서국의 합의를 거쳐 정치국에서 최종 결정되는 것이 정식 인사절차였다. 그러나 김정일은 인사권을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간부과를 통하여 자기가 직접 결제하는 제도의 확립을 위해 조직지도부에 간부과를 신설⁴³하였다.

⁴²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 중심으로』, p. 121.
⁴³ 김정일은 조직지도부 간부부부장을 새로 발탁하고 간부1과(중앙당최고위급간부), 2과(중앙당고위급간부), 간부3과(군대간부), 간부4과(사법, 검찰, 인민보안부, 국가안정보위부), 간부5과(6처와 같은 특수기관, 호위사령부 등), 간부6과(중앙위원회, 정무원의 정치·경제 부문), 간부7과(교육·과학·문화·예술·체육 부문), 간부8과(언론·출판·보도 부문) 등으로 세밀하게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각 단위들이 가지고 있던 인사 재량권을 조직지도부 간부과와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간부부로 집중시켜 비서국이 이를 합의토록 하여 김정일 자신에게 비준을 받도록 하였다. 결국, 당비서국 합의대상(모든 당 간부와 국가 및 정부기관의 국장급 이상 간부들-군당 위원회 이상 및 특급 기업소 정도의 책임비서급 당 기관 수장들과 행정 책임자들, 군부는 사단급-전방은 연대장 및 정치위원까지, 그리고 도 급이상 인민보안부 및 국가안전보위부 당 조직 수장들과 행정책임자들)들에 대한 인사권을 조직지도부 간부과로 이관시기에 이르렀다. 비서국 합의대상들의 인사는 자기에게 제출하여 재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비서국의 인사합의기능을 개인 1인의 결재시스템으로 전환⁴⁴하였다. 대신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간부부는 조직지도부 간부과가 맡은 간부들의 중하위급 간부들과 공무원들의 인사, 중앙대학 졸업생들의 사회배치인사만 전담하도록 하였다. 결국, 고위층의 인사는 조직지도부의 간부과가, 중하위층의 인사는 중앙당 간부부가 분담하는 2원화 체계가 수립되었다. 인사제도의 개편과 함께 김정일은 간부선발과 임명, 승진, 해임 등에 대한 기준과 합의 및 비준절차, 간부양성체계 등에 관한 지침과 규정을 담은 ‘간부사업지도서’를 작성하여 전당 관련기관들에 하달함으로써 간부들의 인사재량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인사권을 김정일 1인에게 집중시키고 김정일 외에는 그 누구도 인사권을 자의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질서와 규율을 확립하였다. 이처럼 김정일은 중앙과 고위급의 인사문제를 철저히 자신에게 집중시켜 처리하도록 한 반면, 지방과 하부 당 조직들의 인사권은 상당부분 약화시켜 상급당으로

44. 선전부도 김정일의 직속이라고 하지만, 조직부보다는 신임을 덜 받았다. 각급 당 조직들은 전부 조직부가 관리하고 각급 당위원회 간부의 임명도 조직부가 관장하고 있었다.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p. 230.

이양하거나 당위원회 집행위원회와 비서처의 집체적 합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화하였다. 이는 김정일 후계자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립하는데 방해될 가능성이 있는 인사문제를 개별적인 간부들이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의 하나다.⁴⁵

이로써 1978년부터 김정일은 당정치국 후보위원과 당 비서, 부장들에 대한 독자적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정치국 위원 등 최고 위급 인사추천에 대해서만 김일성과 상의하는 등 대부분의 인사권을 완전히 장악⁴⁶하였다. 이는 김정일 후계체제에 맞게 권력구조를 개편하여 나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미래 김정일의 후계자의 역할을 강화시킬 새로운 시도로 되었다. 이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조직지도부는 김정일의 직속부서로서 다른 비서국 부서와 다르게 ‘지도’라는 명목으로 중앙당 안의 당기관(본부당위원회)을 두어 당중앙위원회 내 모든 부서들을 직간접적으로 통제·감독하는 최상의 권력기능까지 수행하게 되었다. 당 조직 위계는 중앙당의 경우, 당중앙위원회 총비서 ⇒ 비서 ⇒ 부장 ⇒ 1부부장 ⇒ 부부장 ⇒ 과장 ⇒ 부과장 ⇒ 책임지도원 ⇒ 담당지도원 ⇒ 부원 식으로, 지방당이나 중앙당 하부단위 경우, 당위원회 책임비서 ⇒ 비서 ⇒ 부장 ⇒ 부부장 ⇒ 과장 ⇒ 부과장 ⇒ 책임지도원 ⇒ 담당지도원 ⇒ 지도원 ⇒ 부원 식으로, 초급당위원회 경우, 당위원회 초급당비서 ⇒ 부비서 ⇒ 담당지도원 ⇒ 부원 식으로 짜여졌다.⁴⁷

김정일은 중앙당 비서들과 정책을 결정하는 비서국회의가 진행되던 1990년대 전반까지 거의 모든 중요 회의들에 반드시 조직지도부 제1부

45-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 중심으로』, p. 122.

46- 위의 책, pp. 177~187.

47- 위의 책, p. 28.

I
II
III
IV
V
VI
VII

부장들을 참석시켜 결정권까지 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해당 분야의 조직지도부 부부장들(25여 명)⁴⁸도 참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조직지도부부장들은 공식적으로는 다른 비서들에게 예의를 차려야 하는 직급이지만 사실 그들의 권한은 조직비서를 제외하고는 실제적인 통제정점(기업들에서 경영기획부서 권한이상 수준)의 역할을 담당⁴⁹하고 있다.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는 2007년 6월 행정부문이 당중앙위원회 행정부로 독립하여 나가기 전까지 본부당(서기실)부문, 전당부문, 군사부문, 행정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본부당담당 제1 부부장, 군사담당 제1부부장, 전당담당 제1부부장, 행정담당 제1부부장, 서기실장 순으로 당 조직지도부의 실권을 갖게 되는 구조로 되었다. 그러나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내 행정부문이 행정부로 독립하면서 행정부장으로 김정일의 매제인 장성택이 임명되었다. 이에 따라 안보 기관들에 대한 당적 지도를 수행하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행정부문 산하 안보기구들인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 군 보위사령부들의 역할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행정부문이 장성택의 복귀와 동시에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서 독립적인 행정부로 떨어져 나가면서 북한 내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의 기능이 다소 축소 약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김정일 서기실의 지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권한이 커지는 방향으로 그 실권이 최고 정점에 있다고 한다. 서기실에는 실장 1명과 10여 명의 부부장들을 포함하여 70여 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8. 북한 호위사령부 출신 최고위급 ○○○에 의하면 2009년 현재 김정일의 측근으로서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의 직급을 가지고 있는 최고위급 간부들은 서기실까지 합하여 모두 25여 명이라고 하였음. 이한영의 『김정일의 로열패밀리』 (서울: 시대정신출판사, 2004) p. 80에는 1980년 경 20여 명의 부부장들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49. 현성일, “북한 노동당의 조직구조와 사회통제체계에 관한 연구,” p. 33.

본부당부문은 중앙당 조직지도부가 북한 전역의 당 조직생활을 지도한다면 본부당위원회는 중앙당 내부 모든 간부들의 당 조직생활을 지도한다. 때문에 본부당 책임비서는 김정일의 신임도나 권력의 견지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직책이 되고 있다. 중앙당 조직지도부 전당부문은 내각 각 위원회 및 성을 비롯한 모든 중앙부처기관들의 당위원회들의 당 조직생활을 직접 관리하는 중앙기관지도과, 각 도(직할시)당 및 시·군당 위원회들의 당생활을 직접 관리하는 지방기관지도과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특별히 여기에서 지방기관지도과에서는 공장, 기업소 지도과⁵⁰가 따로 있다. 1명의 제1부부장 밑에 3명의 부부장들이 있으며 중앙당 조직지도부 전당 부문은 사실 군대와 국가 안보기관들을 제외하고 북한의 민간분야 전반의 당 조직, 즉 국가기구와 사회조직 내 당 조직 그리고 지방당을 감독·통제함으로써 조직지도부 내 가장 권력이 큰 부서였다.

중앙당 조직지도부 군사부문은 북한군 총정치국이 관장하는 인민무력부 부 내 하부 단위들의 정치국 당위원회 조직들을 감독·통제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가장 강력한 조직지도부 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 현재 1명의 제1부부장과 5명의 부부장들을 포함하여 300여 명 정도이다. 총참모부, 인민무력부, 보위사령부, 호위사령부(수도경비사령부), 군수동원총국, 제131지도국, 1여단, 철도총국 등 군 체계와 관련된 모든 당위원회 산하 당 조직(정치국)들의 조직생활을 감독·통제한다. 단, 호위사령부와 당중앙위원회 6처 산하 정치부

⁵⁰ 북한 당위원회 사업권한은 아주 잘 켜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특급기업소라는 연합 기업소들과 북한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1급기업소들의 당위원회는 각 도당 및 시군당 위원회들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당중앙 조직지도부 공장·기업소 지도과의 지시를 받는다. 그러나 이들이 각 기업소들이 위치하고 있는 해당 도당 및 시군당과는 아예 독립적인 조직생활을 하지는 않고 동시 지도를 받고 있다.

I
II
III
IV
V
VI
VII

만은 북한 당 조직지도부 군사부문 제1부부장과 별도로 김정일의 직속으로 담당 부부장⁵¹이 따로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앙당 조직지도부 행정부문은 김정일에게 독자적으로 제의서를 올릴 수 있는 국방위원회 직속 주요기관들인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사회안전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상임위원회 직속 최고검찰소와 최고재판소 등의 해당 당위원회의⁵² 당 조직들을 직접적으로 관장함으로써 국가보안기관들에 정책적으로 관여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서이다. 특히 조직지도부가 관여하는 핵심기관들의 간부 당원들에 대한 간부인사권과 관련된 주민등록문건을 보관하고 이들에 대한 검열통제기능을 가지고 있는 북한 내 모든 안보기관들에 대한 당 조직생활을 감독 및 통제하는 지도기관으로서 실제로는 가장 큰 권력기관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가 북한에 존재하는 모든 핵심권력기관들을 지도 통제하는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은 바로 조직지도부를 통하여 북한의 모든 당·군·정 고위간부들을 비롯하여 그들의 지시를 받는 하위 경제부문 간부(당원)들까지 확고하게 장악하게 된다.

나. 중앙당 조직지도부 내의 권력역학 구조⁵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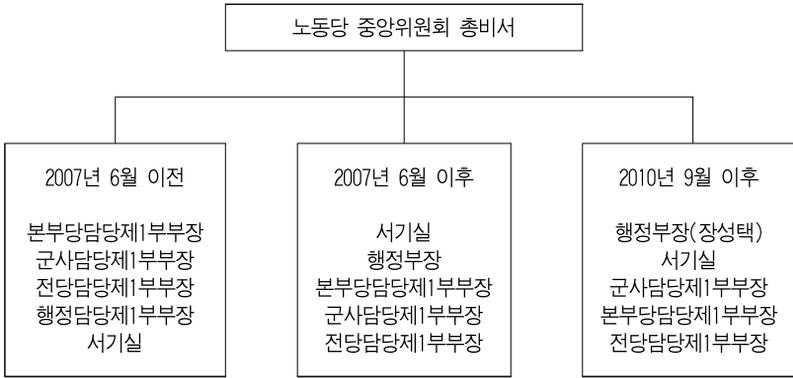
북한에서는 2007년 이전부터 벌써 후계자를 김정은으로 하는 3대권력세습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의

51. 북한에서 호위사령부와 6처라는 김정일 경호를 위하여 존재하는 관련부서들을 당직으로 연계하는 중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따로 있었다.

52. 현재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는 국방위원회에 직속되고, 최고검찰소와 최고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직속되어 있다.

53.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당위원회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자르씨의 인터뷰.

● 그림 11-2 중앙당 조직지도부의 군대·당·국가·공안기관에 대한 부문별 순위⁵⁴



중앙당 조직지도부 내에서는 일종의 권력투쟁이 존재하였다고 한다. 중앙당 조직지도부 본부담당 제1부부장 이제강과 중앙당 조직지도부 행정담당 제1부부장 장성택 간의 알력이 그것이다.

2007년 이전에 이미 북한 내에서 김정은에 의한 3대 권력세습과 관련한 움직임이 존재하였어요. 특히 고영희가 죽기 전에 이미 1990년대 전 기간, 그리고 고영희를 평양의 어머니로 모시기 위한 북한 군부와 당의 핵심간부들 중에서 당시 조직지도부 본부담당 제1부부장이었던 이제강과 그보다는 더 강한 실제권력을 행사하는 조직지도부 행정담당 제1부부장 장성택 간에는 일종의 파워게임이 존재했어요.

김정일은 중앙당 조직지도부 내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내부 권력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당 조직지도부 행정부문을 행정부로

⁵⁴ 광인수, “노동당 당적 지도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 41 수정 보완.

I
II
III
IV
V
VI
VII

독립·승격시키는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일은 중앙당 행정부를 통해 중앙당 조직지도부를 견제하고자 한 것이다.

김정일은 중앙당 조직지도부 행정부문을 독립시켜 행정부로 승격시키면서 중앙당 조직지도부를 견제하는 세력으로서 행정부를 이용하려고 하였다. 원래 중앙당 조직지도부 내 실질권력은 조직차원에서 본부, 군사, 전당, 행정, 서기실 순위이었다. 그러나 장성택이 행정담당 제1부부장으로 복귀하면서 김정일은 조직지도부 행정부문을 행정부로 2007년에 독립시켰고 북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 집중되어 있던 권력을 분산시키는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 같은 중앙당 조직개편은 김정일의 건강이상 발생하고 난 이후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어 이에 대한 실질조치가 취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장성택과 서기실로의 권력집중을 제한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당의 조직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8년 8월 17일 김정일이 뇌혈전으로 쓰러지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장성택과 서기실의 파위가 급상승하게 되면서 김정일의 김정일의 3대권력세습을 위한 조직개편 필요성이 전면 부각되었어요.

현재에는 지난 제3차 당대표자회 결과 후계자 김정은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가 상설기관으로 승격되고 본부당 담당 제1부부장의 지위가 군사담당 제1부부장의 지위보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전에는 뇌물을 줄때 본부당 애들에게는 \$1,000를 더 주어야 했다면 이제는 거꾸로 서기실이나 행정부 사람들에게 그보다

더 주어야 해요. \$1,000~2,000정도를 더 많이 주어야 일들이 진행되요.

지금 조직지도부에는 약 1,000여 명이 일하지만, 한때 1989년 즈음에는 1,300여 명이 일했던 적이 있을 정도로 조직의 역할과 기능은 막강 하였다. 조직지도부 내 성원들의 생활은 매우 철저한 보안상태에서 엄격한 규정 하에 유지되어 있다.

만일 가족 중에서 자식들이 일단 대학을 졸업할 나이가 되면 그 안에서 살 수 없다. 주위에는 4겹 정도의 보안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행사가 있어도 꼭 바깥에 나와서 진행되고, 일단 한번 성인으로 되어 나온 오직 직계 가족들은 부모들이 환갑이거나 사망된 경우에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통제가 완벽하다.

중앙당 조직지도부 본부당 부문은 중앙당 내 모든 조직들을 관할하는 조직으로서 제1부부장 밑에 당생활지도·검열·10호실·신소처리 등을 맡고 있는 책임부부장 1명, 간부·당원등록·통보·신소처리·총무·재정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내부부부장 1명, 그리고 선전선동부를 맡고 있는 부부장 1명까지 부부장들이 3명이 있다. 중앙당 본부당 조직에는 모두 300여 명이 있다. 책임부부장은 본부당위원회 조직비서, 내부부부장은 본부당위원회 조직부장, 선전선동부를 맡고 있는 부부장은 선전비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당부문은 부부장이 제1부부장 밑에 3명이 있다. 이전에는 중앙위원회를 담당하고 정무원과 같은 중앙기관만을 담당하던 부부장이 오늘은 상임위원회와 내각 산하 중앙기관만을 담당하는 책임부부장 1명, 지방기관 도·시·군을 담당하고 있는 부부장 1명, 지방의 특급 공장·기업소를 담당하고 있는 부부장 1명까지 합하여 3명의 부부장이 포함되

I

II

III

IV

V

VI

VII

어 총 이 부서에는 200여 명이 있다. 1985년 이전에는 본부당 부문을 제외하고 가장 ‘먹을알’이 있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당 자체가 공급이나 내주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당 조직의 쇠퇴에 의해 별로 힘이 없는 조직으로 되어 버렸다는 것을 누구나 실감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특급 공장·기업소 담당이 좀 괜찮은 것으로 전해진다. 중앙당은 이제 2일 공급체계도 무너지고 있다. 그나마도 꽤 괜찮다 하는 조직은 중앙당 농업정책검열부하고 재정정리부라고 한다.

이들은 아직 밑에 내려가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해주면 밑에서 조금이나마 고이는 것이 좀 있다. 다른 부서들은 정말 먹을 알이 없다.

조직지도부 군사부문은 사실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밑에 부부장이 5명으로 제일 많은 부서이다. 전체적으로 지금도 중앙당부서들 중 제일 권력이 많은 부서가 되고 있다. 총정치국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부부장이 1명, 호위사령부 정치부를 담당하고 있는 부부장 1명, 군수동원총국 담당하고 있는 부부장 1명, 1여단과 131지도국 같은 특수부대들을 담당하고 있는 부부장 1명, 또 민방위부 교도대나 노농적위대를 담당하고 있는 부부장 1명까지 모두 5명씩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당 최고 실세들은 뒤에서 쉬쉬하며 그래도 중앙당 조직지도부 군사부문 관련부서들이라고 말해요. 선군정치를 하면서 90년대 후반부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른 부서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물자공급이나 외화별이 같은 분야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 담당 부부장들은 중앙당 조직지도부 간부부서들이나 군사부와도 직접 연결되어 있다. 장성편제로 되어 있는 총참모부나 인민무력부, 민방위부 간부사업도 이곳에서 하기 때문에 애

네들 역할은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들보다 힘이 쥔 세요. 이 부문에도 전담부문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300여 명이 있는데 꽤 살만한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다.

조직지도부 행정부문에는 국가안전보위부 담당부부장 1명, 인민보안부 담당 1명, 최고재판소와 최고검찰소 담당이 1명으로서 모두 3명이 제1부장 장성택 밑에 있었다. 그러나 2007년 6월경 중앙당 행정부로 갈라져 독립하면서 지금은 중앙당에서 조직지도부 본부당 조직보다 더 영향력이 높은 기관으로 공식 인정받고 있다. 내부적으로 중앙당 안에서는 ‘장성택시대’라고 말하는 정도다. 행정부문에는 행정부로 떨어져 나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100여 명 정도 일하고 있었다고 한다. 행정

● 표 II-2 중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의 기능과 각 부문기관 인원

구분	부부장	부부장들의 구체적 담당기능	간부당원 총인원
서기실	10여 명	서기실장, 의전, 호위사령부와 6처, 가내 교육, ⁵⁵ 가내 재정 담당 등	70여 명
본부당 부문	3명	조직부 책임(당생활지도, 검열, 신소처리, 10호실 등 담당)부부장, 내부담당(간부, 당원등록, 통보, 신소처리, 총무 담당), 선전선동부담당	300여 명
전담부문	3명	내각 중앙기관, 지방기관도시군, 공장·기업소담당	200여 명
군사부문	5명	총정치국, 호위사령부, 군수동원총국, 1여단·131지도국 같은 특수기관, 민방위부 담당	300여 명
행정부문	3명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사법·검찰 담당	150여 명
합계	25여 명		1,000여 명

⁵⁵ 김정일과 그의 아들 등 가족들의 교육을 맡은 교사들 중에도 서기실 부원으로 있기도 한다. 1987년 ○○대학에서 간부사업으로 간 컴퓨터 관련 교수 정모씨 2010년 현재 서기실 서기로 사업한다.

부로 독립하고 난 후에는 150여 명으로 증가되었으며 최근에는 뇌물을 가장 많이 받는 제일 관찮은 기관이고 실제로 그 권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고려해 볼 때 중앙당 행정부문을 맡고 있는 장성택은 명실상부한 실무적 ‘파워맨’으로 치부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국가보위부나 보안성 애네들이 직접 국방위원회 직속기관으로 되면서 중앙당 행정부는 이 기관들의 일체 간부사업까지 관장하는 정책부서 권한까지 겸하고 있어 현재 북한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부서로 되고 있다. 특히 장성택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승진하면서 비록 이번에 정치국 위원으로 보선되지 못했지만 후보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까지 겸하는 것으로 사실 김정일을 제외하고는 북한 권력기관들에 모두 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김경희의 남편이 아니예요? 여기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3. 중앙당 본부당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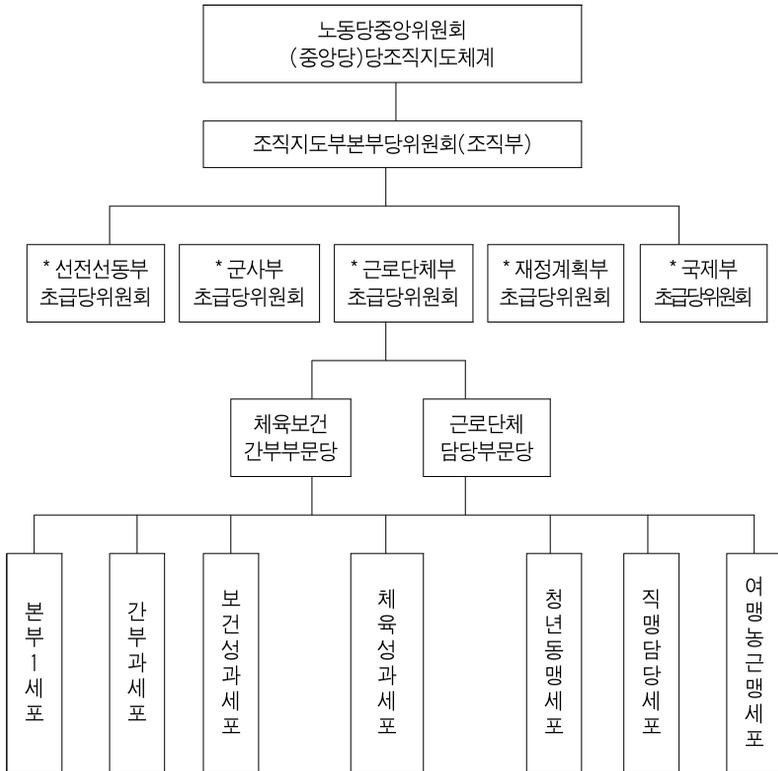
본부당위원회는 중앙당 일꾼들의 당 생활지도와 함께 이들과 가족들에 대한 감시와 정보수집 등의 역할을 한다. 중앙당 간부들 속에서 과오가 발생하면 본부당 총회에서 사상투쟁회의가 진행되며 김정일은 자기 집무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회의과정을 지켜보면서 본부당 책임비서를 통해 결론⁵⁶을 내린다. 이때 바로 사상투쟁회의 같은 역할을 진행하는 기본부서가 바로 본부당위원회 내 조직부이다. 이 조직부의 역할은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정도의 권력조직이다. 왜냐하면 사상투쟁회의가 진행될 때 이 회의를 집행하는 집행자인 조직지도

⁵⁶ 황장엽, 『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서울: 월간조선사, 2001), pp. 93~96.

부 본부당부문 제1부부장의 권력이 중요하다기보다 본부당위원회 제1부비서의 역할을 하고있는 사람이 바로 당중앙위원회 총비서 김정일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당위원회들에서 당위원회 제1부비서가 행정 기관수장이 하는 것처럼 중앙당 내 당위원회인 본부당 제1부비서는 바로 당중앙위원회 총비서 김정일이 직접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매 2일 및 매주, 매달 각종 생활총화나 강연회, 총회 등에 김정일은

그림 11-3 중앙당 본부당위원회 내 당 조직지도체계



* 는 조직지도부를 제외한 당중앙위원회 전문부서들 내 초급당위원회들을 생략한 것

I
II
III
IV
V
VI
VII

총비서뿐만 아니라 본부당위원회의 조직비서의 자격을 가지고 매번 참가하게 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중앙당 본부당위원회 내 당 조직지도체계는 본부당위원회 조직부의 지시를 선전선동부, 군사부, 근로단체부, 재정계획부, 국제부 등 모든 20여개의 각 전문부서 내 조직되어 있는 당위원회들의 활동을 직접 조직 지도하는 기관으로서 중앙당의 모든 각 분야에 대한 중요한 조직 지도 활동을 간접적으로 관장하는 북한 내 최고의 핵심기관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중앙당 조직지도부 본부당위원회 내 조직부 당생활지도과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전당부문과 군사 부문의 당 간부들의 조직생활을 전문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조직지도부 내 당 조직활동도 직접적으로 지도하고 통제한다. 이러한 본부당위원회 조직부는 예하 다른 당위원회에 있는 부서들처럼 당생활지도과, 당원등록과, 검열과, 간부와, 통보과, 총무과, 10호실, 재정과, 기요과 등이 있다. 또한 만일 당중앙위원회 당전문부서인 근로단체부안에는 중앙당 본부당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당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이 당위원회에는 당위원회 직속 1세포와 체육·보건·간부담당 부문당위원회 소속 3개의 세포와 근로단체담당부문당위원회 소속 3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지도부를 제외한 모든 당 전문부서들 내 당위원회들에도 마찬가지로 당 세포들이 구성되어 있다.

가. 중앙당 본부당위원회 조직부의 구조와 기능

중앙당 본부당위원회 각 부서들은 실제로 김정일의 집무실 옆 3호동 5층 건물에 있다. 모든 당 조직들의 기본 임무이지만 본부당위원회는 중앙당에 당적을 두고 있는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까지 당생활과 사생활까지 일별로가 아니라 매 시간마다 지도·검열·통제하는 당 조직이다.⁵⁷

본부당위원회 가족들은 중앙당 정문 앞에 있는 두 개 동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가족들까지 언제, 누가 무엇 때문에 찾아왔는지, 몇 시에 나갔다 들어왔는지 등에 대해 모두 경비실에서 체크하고 있다. 친척도 들어오려면 승인을 받아야 해요. 체크한 자료는 매일 본부당위원회 조직부 당생활지도과 가족담당부서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매달 내적으로 어떻게 경제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고 자료를 종합하고 매달 김정일 서기실을 통해 김정일에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앙당 조직지도부가 북한 전역의 모든 당 조직들의 당 조직생활을 지도한다면 본부당은 중앙당 내부의 당 조직생활을 지도한다. 본부당위원회 조직지도부 내 당생활지도과, 검열과, 10호실,⁵⁷ 신소처리과 사업 등을 담당하는 내부담당(책임)조직부부장 1명, 간부과, 당원등록과, 통보과, 총무과, 기요과,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부부장 1명, 본부당위원회 선전선동부문(충성의 노래모임, 강연·강습)을 담당하고 있는 부부장 1명을 포함하여 본부당위원회 각 부서들의 과장급 간부들까지 합하여 총 300여 명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표 II-2> 참고).

본부당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본부당위원회 책임비서로 있고, 나머지 부부장들은 3명이다. 본부당에는 대체로 총 인원이 300여 명 정도 일한다. 책임조직부부장이 본부당위원회 조직비서의 임무를 맡고

57.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본부당위원회 간부과에서 일하는 허B씨는 1997년 당시 간부(인사)문제로 개인집을 찾아 간 당시 북한 본부당위원회 직속기관에는 매일 경비실에서 그날 복도를 통해 나드는 개인들의 신상정보를 시간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황장엽은 “본부당은 중앙당 안에서 일하는 모든 당 일꾼들의 당 생활을 통제하는 김정일 직속조직이다.”, 위의 책, p. 228.

58. 원래 김일성과 김정일의 관련된 유언비어와 권위를 훼손시키는 모든 반김부자 행위에 대해 관여하는 노동당 조직지도부 내 부서로서 이들이 사실 비공식적인 남북이나 중요한 인질관리도 한다. 정식명칭은 노동당 조직지도부 본부당위원회 10호실이다. 일종의 이조시대의 ‘암행어사’기구에 비견된다고 볼 수 있음. 한영진, “노동당 10호실의 정체-철저한 주민감시 속에 변하지 않는 김父子 우상화,” 『北韓』, 2006년 2월호, p. 174.

I
II
III
IV
V
VI
VII

있고, 그는 당생활지도, 검열, 10호실, 신소처리와 관련된 부서들을 책임지고 있으며 나머지 간부과, 당원등록과, 통보과, 기요과, 총무과 사업 같은 내부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부부장이 본부당위원회 조직부장의 임무를 맡고 있다. 그리고 기본 강연·강습과 같은 선전선동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선전비서가 본부당위원회 선전선동부를 맡고 있다. 이 조직은 총체적으로 중앙당 기본 내부 사업을 하고 있으며 대체로 김정일에게 본부당위원회 통보과를 통해 직접 보고한다. 때문에 한창 잘 나갈 때엔 정말 ‘날아가는 새도 떨어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권력이 가장 쏠렸다. 본부당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은 비서처의 결정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김정일 방침으로 시작되고 방침으로 끝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매일 김정일의 ‘말씀’이 전달되고 아침 독보회에서 정식으로 발표된다. 김정일은 “본부당은 나와 운명을 영원히 함께 해야 한다”고 수시로 말하곤 하였다고 할 정도로 본부당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한다. 김정일은 수시로 본부당 안에 현지지도를 내려와 사업정형을 요해하며 관련 회의도 소집하곤 했다.

실제로 당중앙위원회 중앙당 내부 3,000여 명 구성원들을 포함⁵⁹하여 중앙당 부대시설 기관들까지 무려 10,000여 명⁶⁰ 당원들의 모든 조직사상생활을 감독·통제하는 당중앙위원회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당

59. 1989년 12월 당시 당중앙위원회 근로단체비서이며 당시 평양시 광복거리건설 총책임자를 맡고 있던 장성택의 비서 임모씨의 증언. 필자가 북한에 있을 당시 직접 대면을 하면서 들은 자료. 또한 1997년 당시 중앙당 38호실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중앙당 조직지도부 서기실 선물과와 연계를 가지고 있던 김모씨는 정확히 당시 당원들을 3,000여 명이라고 서기실 부원의 명단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60. 원래 당중앙위원회 부원(당시 지도원)들은 1980년대 후반에 3,000여 명이었지만 전체인원이 이렇게 많은 것은 전체 부원들의 부인들과 부모들도 예외 없이 당원이었고 심지어 이들 중 당중앙위원회 부속기관들의 당원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원들의 수가 이렇게 많게 되었다고 해석된다. 실제로 중앙위원회와 김일성의 주석부(금수산의사당경리부)까지 관할하였다.

안의 당 기관으로 인정되어 왔다.

중앙당 부원들은 원래 1980년대 후반에 3,000~3,200여 명 정도? 여기에 지금은 중앙당 부대시설기관까지 무려 10,000여 명의 당원들에 대한 조직생활을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인원이 이렇게 많은 것은 전체 부원들의 부인들과 부모들도 예외 없이 당원이었고, 심지어 이들 중 당중앙위원회 부속기관들의 당원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원들의 수가 이렇게 많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중앙위원회와 김일성의 주석부(금수산의사당경리부)까지 관할하였다. 그러니 금수산의 사당경리부 사람들만 해도 3천여 명이 넘는 데...

본부당위원회는 중앙당 일꾼들의 당 생활지도와 함께 이들과 가족들에 대한 감시와 정보수집 등의 역할도 한다. 본부당위원회는 중앙당 비서국 각 부서들, 실제로 간부부, 기계공업부, 경공업부, 군사부 등과 같은 정책부서들 내 조직된 초급당위원회 및 부문초급당위원회급 조직⁶¹들의 당생활을 조직하고 지도한다. 중앙당 부서들 중 조직지도부 다음 가장 큰 부서는 선전선동부와 국제부, 기계공업부, 간부부, 재정경리부, 경공업부 순이라고 한다. 이 조직들에는 초급당급 당위원회들이 있고 나머지 부서들에도 초급당급 당위원회들이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의외로 통일전선사업부나 35호실, 대외연락부나 작전부 같은 대남담당부서들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부서들에는 제일 작은 부서는 중앙당 비서국 근로단체부⁶²라고 한다. 본부당위원회 안에 조직부는 대체로 100여 명, 선전선동부는 60여 명, 재정부 20

61. 북한에서 당 조직원칙에서 30여 명 미만은 부문당, 30명 이상은 초급당위원회 급이다.

62. 2010년 탈북한 북한 노동당중앙위원회 모 부서 당책임일꾼이었던 모씨는 최근 중앙당 내 가장 힘이 약한 부서는 근로단체부이며 실제로 인원도 가장 적어 70여 명이라고 증언했다.

I
II
III
IV
V
VI
VII

여 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부당위원회 조직부는 대체로 다른 규모가 작은 당위원회 구성처럼 당생활지도과, 당원등록과, 검열과, 통보과, 신소처리과, 총무과, 기요과, 10호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당 생활지도과는 다시 1과와 2과로 분리되어 있다고 한다. 1과는 다시 조직지도부의 당생활을, 2과는 선전선동부와 다른 중앙당 정책부서들의 당 생활을 지도한다. 그러기 때문에 김정일은 사실 1과의 보고내용 같은 것은 매일 매 시각 직접 보고할 수 있는 통보체계를 갖추어 놓았고 수시로 챙겨보는 가장 중요한 보고의 하나로 여긴다. 중앙당 간부들 중에서도 조직부 부원들은 당 생활은 물론 기타 가족들의 감시와 정보 수집은 물론 6촌 내 친척들과 관련된 사항들도 6개월에 1번씩 검열한다. 이것은 당생활지도과와 당원등록과에서 공동으로 작성하며 이들에 대한 모든 신원요해 문건들은 모두 기요과에 보관된다.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은 서기실을 통해 김정일에게 직보된다.

2004년 한 번은 중앙당 최고위급 김모씨의 자식이 대동강 호텔에서 유학을 갔다 와 외국인 담당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호텔에서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유학을 하던 외국인과 그만 정분이 났다. 그러다 애까지 털컹 배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낸 본부당위원회 조직부 통보과에 의해 김정일에게 직보되었다. 그러자 김정일이 당장 그 사실을 확인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10일 정도 지나 이 사실이 정확하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 이후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그 아버지는 당 분기생활총화에서 처벌을 받고 외딴 곳으로 자식교양 잘못하는 죄 아닌 죄로 해임 철직되었고 이 부부는 혁명화를 하는 기간 엄청난 가정불화로 번져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⁶³

63. 2011년 탈북한 북한 노동당중앙위원회 근로단체 부서 당 책임일꾼이었던 모씨는 북한 당중앙 본부당위원회 이○○과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상위 사실을 증언했다.

● 표 II-3 본부당위원회 조직부의 구조와 기능에 따른 인원수⁶⁴

부서 명칭	기능 및 활동 내용	인원수
본부당위원회 조직부	- 중앙당 조직지도부 내 파위가 가장 세고 중앙당 내 모든 당원들의 조직생활을 조직지도 - 책임비서와 비서 3명, 각 과장들 10여 명(일반부부장이 본 부당세포비서, 본부당 조직비서는 간부담당부부장이 겸임)	본부당 총 300여 명 중 100여 명
당생활지도과	- 중앙당 내 선전선동부나 각 정책부서들의 초급당당생활 지도(당사업독본 발간), 2일 생활총화 정기적으로 진행 - 조직부 내 담당, 각 정책부서들의 당생활지도 2개	30여 명
당원등록과	- 중앙당 내 모든 당원들의 당생활 기록들과 신원요해 문건 업데이트 사업 조직 - 각급 중앙당내 부서들의 당원등록문건 보관	10여 명
검열과	- 중앙당 내 모든 당원들 검열보다는 김정일의 직접적인 비밀 지시대로 은밀히 움직이는 부서 - 필요한 인원들 임의로 차출권한 부여(지도검열지도서 준비)	5~6명
간부과	- 수령에 대한 충실성, 출신성분, 전문성 순으로 우열로 니누어 진행(간부사업지도서 발간) - 6처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담당 - 선발·임명·승진·이동·해임·양성교육 등을 시스템화	10여 명 (5과가 없음)
통보과	- 각 조직들과 당 생활지도과에서 종합된 보고서 직접 보고 체계 수립(전화나 팩스로) - 통보는 일반적으로 당, 행정, 보위 3선3일체계	4~5명
총무과 ⁶⁵	- 일체 모든 사업 기획하고 그에 대하여 내려온 방침과 보고서들에 대한 정리, 영구 보존화 및 홍보 - 타자수, 통신, 전화, 사무 등 관련 부서들	15여 명
신소처리과	- 억울한 상황이나 잘못 처리된 상황으로 인하여 신소 처리된 문건 관리 - 급한 것은 통보과와 협의하여 직접 김정일에게 보고하는 하라인 가지고 있음	3~4명
기요과	- 모든 비밀문건 관리, 특히 방침·지시 내용문서	2~3명
10호실관련 부서 유무	- 중앙당 조직지도부 본부당위원회 조직부 내에 10호실 존재, 유언비어 특별히 관심 - 실장과 부실장, 그리고 책임부원과 부원 등	8~10여 명

※ 10여 명 이상인 경우 과장과 부과장이 있고 그 이하인 경우 종합부원이 있음.

64. 이 구체적인 숫자와 자료는 2009년 4월 김정일 서기실 자자르씨에 의해 수집된

I
II
III
IV
V
VI
VII

나. 본부당위원회 근로단체부 초급당위원회⁶⁶의 구조와 기능

이 조직은⁶⁷ 내부에 초급당급 당위원회가 있고, 근로단체부에 간부과, 체육성담당과, 보건성담당과, 청년동맹담당과, 직맹담당과, 여맹담당과와 농근맹담당과로 나뉘어져 있다. 이 부서의 당 조직은 4명의 유급당일꾼들이 있고 이 당 조직의 전반적인 당 생활지도를 하고 실제로 본부당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비서 1명과 조직비서겸 제2부비서가 1명, 조직·간부담당 책임지도원, 선전부 담당 1명, 즉 초급당비서는 근로단체부의 초급당조직의 대표자로서 전반적인 당 조직생활을 조직 지도한다. 당위원회는 총 근로단체부 70여 명의 모든 각 과 당 세포들을 책임지고 있는 부과장들이 대체로 세포비서로 되어 있는 7개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또 이 7개의 세포는 다시 1세포를 제외하고 각각 3개의 세포가 부문당으로 나누어져 있다(그림 <II-3> 참고).

근로단체부 초급당위원회의 본부당 1세포는 당비서, 근로단체부장, 부부장 2명, 부비서 1명, 책임지도원, 선전부 부원 1명, 간부과장 이렇게 8명으로 되어 있다.

자료임. 그는 중국에서 필자와 만나 구체적인 물음에 대하여 답변을 했다.

65. 원래 김일성의 친필서명이 된 문건은 영구보존문건으로서 국고에 보관하기 위하여 총무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총무부는 중요한 문서들을 국고에 보관하는 일을 하고 있다. 현재도 김정일의 친필서명이 되어 있는 문건을 영구보존문건으로 편찬하고 국고에 보관하는 일을 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기서 논하는 총무과는 사실 본부당위원회 안에서 제기되는 김정일의 말씀이나 지시들을 선별하여 중앙당 총무부에 넘기는 사업을 한다.

66. 인터뷰 대상자는 올해 2011년 5월에 입국한 당중앙위원회 근로단체부 소속 초급당위원회 당 조직 책임자로 다년간 사업하였으며 올해 40여세이고 당원경력은 13년 정도이다. 실제로 이 조직에 참여한 당책임일꾼이었다.

67. 인터뷰 대상자가 일하였던 중앙당 근로단체부의 당 조직의 정식명칭은 중앙당 근로단체부 초급당위원회이며 이 당 조직의 상급조직은 바로 중앙당 본부당위원회였다.

근로단체부장 밑에는 체육·보건·간부담당부부장과 청년동맹·직맹·여맹·농근맹 근로단체담당부부장, 이렇게 2명 있고요. 근로단체부 초급당위원회는 실제로 유급당 일꾼이 초급당비서와 유급당일꾼 3명까지 합하여 본부 1세포, 그리고 간부와 10여 명이 있는 간부와 세포, 청년동맹담당과에 14명, 체육위원회담당과에 11명, 보건성담당과 12명, 직맹담당과에 7명, 여맹담당과에 5명, 농근맹담당과에 5명 정도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과에 당세포로 되어 있어 총 7개의 세포가 한 개 초급당조직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맹과 농근맹담당과는 합쳐져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고요.. 근로단체부장과 당위원회 유급일꾼인 부비서가 초급당위원회 부비서의 역할을 하고 나머지 조직 간부담당 책임지도원은 사실 다른 상위급 당조직의 조직부장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즉, 당생활지도와 간부와, 통보과가 하여야 할 사업을 전적으로 맡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선전선동 담당 부원은 이러한 초급당위원회 내 상위급 당조직의 선전선동부장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고 기본은 강연과 강습, 충성의 노래모임과 같은 부서 내부 사업을 조직하고 지도합니다. 즉, 본부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 내려오는 강연회와 독보회 등을 준비하지요.

근로단체부 초급당위원회(<표 II-4>)는 중앙당 본부당 소속 초급당위원회 유급일꾼 4명을 포함하여 다른 당 조직들과 같이 당비서, 근로단체부장이 제1부비서, 조직비서 겸 부비서가 제2부비서, 근로단체부부장 2명이 초급당위원, 그리고 간부과장이 초급당위원, 또한 초급당위원회 부원들 2명이 한 개의 세포를 구성되면서 사실 근로단체부 1세포로서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이 세포비서는 간부과장이 하고 있다. 특히 이 초급당위원회들에 소속된 유급당 간부들은 모두 본부당위원회에 속해있다.

근로단체부는 사실 중앙당 각 부서들 중에서 제일 약하지요. 구성으로 볼 때, 최룡해가 이 부문 담당 비서이지만 사실 군대 칭

I
II
III
IV
V
VI
VII

표 II-4 중앙당 근로단체부 초급당 조직의 구조와 기능

부서명칭 및 부서장	기능 내용	인원수
초급당위원회 및 본부 1세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 명칭은 중앙당 근로단체부 초급당위원회 - 이 당위원회는 중앙당 본부당위원회 소속 근로단체부 초급당위원회 - 초급당 1세포는 초급당비서, 근로단체부장 제1부비서, 조직비서 겸 부비서, 부부장 2명, 나머지 부원 2명, 간부과장으로 이루어짐. 	70여 명 8명
조직비서 겸 부비서와 조직간부 책임지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력 순 당생활지도과, 검열과 등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초급당위원회 부비서의 역할과 조직비서의 역할을 한다. 쉽게 조직부장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쉽게 이해됨. - 조직간부담당 책임지도원은 통보, 간부 등과 관련된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3명
선전선동 담당 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업무와 아래 단위에 내려가 강연, 강습을 진행 - 역시 초급당위원회 안에서 선전부의 권한은 제일 낮음. 	1명
행정책임자 당위원회 직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비서는 대부분 행정직으로 되어 있어 여기서도 역시 근로단체부장이 제1부비서, 다음 조직비서가 제2부비서, 간부과장이 초급당위원회 위원으로서 초급당 본부 1세포비서로 사업을 관장 	2명

년동맹을 이전처럼 관여하였다면 사실 조금 괜찮았는데... 1990년대 말에 북한 당 기관들이 군대 당 기관들을 관여하지 못해요. 초급당위원회에는 중앙당 본부당 소속 초급당위원회 4명을 포함하여 다른 당 조직들과 같이 당비서, 근로단체부장은 리영수 전 부부장이 하구요. 이번 당제3차대표자회 이후부터 부장을 하고 있구요. 당위원회 제1부비서도 겸직을 하지요, 조직비서 겸 부비서가 제2부비서, 근로단체 부부장 2명이 있을 거예요. 둘 다 초급당위원, 그리고 간부과장이 초급당위원, 또한 초급당위원회 부원들 2명이 한 개의 세포를 구성되면서 사실 당중앙위원회 근로단체부 1세포로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한 이 세포비서는 간부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초급당위원회들에 소속된 유급당 간부들은 모두 본부당위원회에 속해있어요.

중앙당 근로단체부에는 간부과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부과는 내각 산하 체육위원회, 보건부, 그리고 각 근로단체들의 행정 간부들에 대한 간부 선발·배치·해임·양성 등과 관련된 사업을 기본으로 조사하는 업무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하는 인사(간부)사업은 당 중앙위원회 (행정)간부부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산하 기관의 당 조직 간부들도 추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간부과에는 1명의 과장과 부과장, 지도원 8명으로 총 10명으로 조직되어 있다.

간부과에는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과장이 한 명, 부과장이 한 명, 그리고 지도원이 8명 정도. 이 사람들의 기본업무는 근로단체부 산하 행정 간부들의 간부사업, 이제 해외에 나가고 그다음에 노동자들보다 고위급의 간부사업을 먼저 하죠. 먼저 간부과에서 보기 위해서는 먼저 위원회(성)에서 보고 근로단체 간부과에서 보고, 그러니까 청년근로단체 간부들에 대한 해외 나가고 승진하고 일단 그렇게 테스트 합니다. 다음 여기서 본결 중앙당조직지도부에 보내고 또는 이것 다시 확인하는 일을 부부장 담화를 통해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성과 중앙 기관 산하간부들에 대한 간부사업을 이런 중앙당 각 부서들의 간부과에서 합니다. 이후에 중앙당 간부부 자체보다도 내가 이제 지배인 한다. 그때는 조직지도부 안에 근로단체담당이 따로 있던 말입니다. 원래 간부부 담당 있고 그 다음에 방침집행관찰담당이 있고 조직지도부 안에 근로단체부, 또 뭐 다른 부 담당, 이런 식으로 다 담당이 있던 말입니다. 당 기관 내부 안에... 간부과는 뭐 중앙당 다른 부서마다 다 있던 말입니다. 근로단체부 다른 부서들에 있는 이 사람들은 방침이나 당정책 관찰하기위한 부서고, 이 간부과 사람들은 간부 사업을 하기위한 부서이예요. 이 부류가 있던 말입니다. 그리고 조직부안에 근로단체부 담당도 있던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앙기관 산하 조직부담당. 우리로 말하자면 ○○○위원회 당위원회 조직부담당지도원이 있던 말입니다. 조직부 지도원이 있고 간부지도원도 있던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부사업이 이루어지면은... 실례로 선전부를 보면, 이거야 선전부 산하 근로단체 간부과는 있을수 있어도,

I
II
III
IV
V
VI
VII

이것도 근로단체도 단체니까. 선전부 산하 문화성이나 이런데는 간부과가 있겠죠. 근로단체부는 근로단체부 산하 단위들을 위한 간부과가 있고, 선전선동부 산하 문화성 당위원회도 여기서 정책적으로 관리할거 아니에요.

북한 내 모든 청년동맹위원회가 하는 사업들에 대한 당정책적 지도를 기본으로 진행하고 사업조직을 관여하는 중앙당의 부서로서 이 근로단체부 내에는 전문 청년동맹 담당과가 따로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 이 청년동맹담당과에는 과장과 부과장, 책임부원 1명, 내부부원 1명이 중앙기관담당, 각 도급 청년동맹 담당지도원 11명으로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평양시 담당 부원이 가장 영향력이 있으며 이 세포는 부과장이 세포비서로 되어 있다.

그리고 내각 산하 체육성이 진행하는 각종 각급의 체육행사, 중앙 및 도급 체육선수단의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당 정책적 지도를 진행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 김정은의 체육부문에 대한 관심으로 근로단체 내 사업이 주목을 받는 등 일정한 변화 예상되고 있다고 한다. 이 세포는 1명의 과장과 부과장, 부원 10명으로서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로 이 부문도 이전에는 각 군부 산하 군단급 및 사령부 산하 체육선수단도 관여했지만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직맹을 담당하고 있는 직총중앙위원회 산하 초급당위원회에 대한 당 정책적 지도를 하는 책임지도원과 이 간부들에 대한 간부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지도원들로 조직되어 있다. 초급당 밑 다른 산하기관들처럼 도급 담당 지도원과 중앙기관담당 지도원들이 있다. 과장과 부과장, 그리고 지도원 5명이 하나의 부서로서 한 세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여맹 담당 당 정책부서로서 과장은 모든 책임을, 그리고 부과장은

● 표 II-5 중앙당 근로단체부 초급당위원회의 구조와 기능에 따른 인원수

부서 명칭	기능 및 활동 내용	인원수
당위원회 및 1세포	- 유급 초급당비서, 부비서, 책임지도원, 부원 - 근로단체부장, 부부장 2명, 간부과장이 초급당위원회 위원으로서 초급당위원회를 구성 - 간부과장이 본부당 1세포비서역할을 하고 있음.	4명 및 8명
간부과	- 내각 산하 체육위원회, 보건부, 그리고 각 근로단체들의 행정간부들에 대한 간부 선발·배치·해임·양성 등과 관련된 성과를 기본으로 조사하는 사업진행 - 당중앙위원회 간부부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산하 당기관 간부들도 추천할 수 있음. - 과장과 부과장, 지도원 8명으로 총 10명으로 조직됨.	10명
청년동맹 담당과	- 청년동맹 내 모든 사업들에 대한 당정책적 지도를 기본으로 진행하고 사업조직 - 과장과 부과장, 책임부원 1명, 내부부원 1명이 중앙기관담당, 각 도급 청년동맹 담당지도원 11명으로 구성	14명
체육사업 담당과	- 각종 체육행사, 각급 체육선수단의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당정책적 지도 - 김정은의 체육부문에 대한 관심으로 최근 변화 예상 - 과장과 부과장, 부원 9명으로 구성	12명
보건사업 담당과	- 내각 보건부에서 올리는 보고서 직접 받아서 당 예방의학 방침 관철체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총화 검토 - 특히 중앙 및 도급 중앙병원들에 대한 행정적 지도성고가 일어나도록 당정책적 지도 조직진행	12명
직맹담당과	- 직총중앙위원회 산하 초급당위원회에 대한 당정책적 지도를 하는 책임지도원과 이 간부들에 대한 간부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지도원들로 조직되어 있음. - 초급당 밑 다른 산하기관들처럼 도급 담당 지도원과 중앙기관담당 지도원들이 있음. - 과장과 부과장, 그리고 지도원 5명이 있음.	7명
여맹담당과	- 여맹 담당 당정책부서로서 과장은 모든 책임을, 그리고 부과장은 여맹 간부들의 행정간부들에 대한 간부사업도 겸하여 보고 있음. - 3명의 부원들은 여맹 당 조직에 대한 지도사업, 3명 중 1명은 여맹 도급조직의 일반적인 행정사업에 대하여, 그리고 1명 부원은 도시군 지방조직들, 그리고 공장기업소들에 대한 지도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5명
농근맹 담당과	- 농업근로자동맹 담당과도 사실 여맹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과장과 부과장, 책임부원과 부원 2명으로 총 5명으로 구성됨.	5명
합계		70여 명

I
II
III
IV
V
VI
VII

여맹 조직 신하 행정 간부들에 대한 간부사업도 겸하여 보고 있다. 3명의 부원들은 여맹 당 조직에 대한 지도사업, 3명 중 1명은 여맹 중앙급 및 평양시 조직의 일반적인 행정사업에 대하여, 그리고 1명 부원은 도급 지방조직들, 그리고 특급 공장·기업소들에 대한 지도도 함께 하고 있다. 이들은 1개 세포로 되기에는 인원수가 부족하므로 이웃 농근맹 담당과와 합쳐 1개의 세포를 구성하고 있다. 농근맹담당과의 업무도 사실 여맹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과장과 부과장, 책임부원과 부원 2명으로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비서는 여맹 담당과 부과장이 하고 있다.

4. 본부당위원회 조직 실태 변화분석⁶⁸

가. 본부당 조직부 조직 실태 변화분석

(1) 본부당 조직부 당원들의 생활 실태

김정일은 당 조직지도부를 확대·개편하면서 어떻게 당 조직으로부터 임무를 받으며, 그 집행은 어떻게 하고, 보고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생활총화는 어떻게 하는지 등 조직생활과 관련된 모든 절차와 내용을 자세하게 규정했다. 각급 당 조직들이 매일 2시간 학습과 주간 집체 학습, 학습총화, 주간 강연회 참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당생활과 당 조직규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⁶⁹ 북한 당 조직 하부말단에

⁶⁸- 북한 당중앙위원회 급 당 조직에서 근무한 경력이 26년이 되는 ○○○의 인터뷰, 중앙당 모부서 당 책임일꾼으로 사업하다 2011년 입국한 ○○○의 인터뷰, 그리고 중앙당 본부당 및 김정일 서기실에서 사업을 한 경력을 지닌 김○○의 인터뷰 내용 종합

⁶⁹- 김정일, “전당에 새로운 당생활 총화제도를 수립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책임일꾼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3년 8월 21일),” 『주체혁명위업의』

서의 부패와 일탈현상이 1985년 김일성과 공동으로 통치하는 시대, 즉 김정일·김일성 공동정치 시대를 기점으로 그 이전 당 조직생활 수준을 100%로 보고 그 이후 어느 정도 이완되어 오고 있는지를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인터뷰 대상자는 당원들의 개별적인 당 조직생활의 변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대체로 1985년을 전후해 당 조직생활에서 이중성이 두드러지기 시작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당국에서는 당 조직생활을 강조하는 등 주민들을 정치적으로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수령 및 당에

● 표 II-6 본부당위원회 조직부의 조직생활 상황

구분	100%	75%	50%	25%	0%
1호 작품 관리 및 참가정형 수준	○			△	
수목강연회, 토요정치학습 수준	○		△		
월간 자체학습 및 정리수준	○		△		
아침 독보회수준		○		△	
충성의 노래모임수준	○			△	
생활총화 및 월간총화진위 수준	○				△
입당선호도	○△				
당 조직보고체계	○			△	
사회노력지원 및 정치적 자극			○		△
당비 납부 및 재정상황	○△				
노작방침지시 침투 조직사업	○		△		

※ ○ 조직의 지시에 의한 형식적인 상황, △ 조직의 지시에 대한 당원들의 내적 상황

완성을 위하여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p. 450.

대한 충성 활동은 형식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1호 작품 관리 및 참가정형 수준을 볼 때 이중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위의 표에서 1호 작품 관리는 형식적으로는 거의 100% 변화 없이 잘 유지되고 있으나 내적으로는 상당히 등한시(25%)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다. 유일사상체제로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이 정점에 달했던 1985년 이후 1호 작품 관리에 대한 충실성은 점차 형식에 치우치면서 내적으로 경시되는 행태가 표출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당원들의 개별적인 당조직생활의 변화에 대하여 우선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숙 등과 관련된 '모시는 사업'인 1호 사진이나 1호 작품에 대한 관리는 1985년 이전에 대부분 충성심이 그 대로 반영 되었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 주민들은 1호 작품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개인 집들에 있는 1호 작품 관련 '정성사업'에 대하여 이전처럼 진심을 들여 하기보다는 실지로 우러러 나오는 마음이 아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중앙당 본부당위원회 당원들에게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 본부당위원회 당원들조차도 1호 작품 관리에 대해서 이전(1985년)에는 자발적으로 달려가 정성으로 모셔왔으나 지금은 형식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으나 내적으로는 이전의 진심이 크게 퇴색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진심으로 모시고 있는 본부당위원회 당원이 25% 정도 밖에 안 될 것으로 판단한다.

중앙당 본부당위원회 당원들은 아직 형식적으로는 1980년대보다 큰 차이가 없다. 실례로 최근에도 당중앙위원회 청사 안에 있는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실에 무조건 아침이면 누구나 달려가 정성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중앙당 본부당위원회 청사 안에 들어갈 때 홀에 있는 김정일과 김일성의 벽화에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거나 실제로 누가 별로

보지 않는 자기 방에 있는 1호 작품 보관 및 정성 사업에서 대부분 진심의 마음으로 진행하였으나 지금은 이미 그런 마음이 떠나고 없다. 그것도 중앙당 본부당 간부들은 25%정도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본부당 간부들의 이러한 이중성 표출은 간부들 스스로가 다른 부문의 일반 당원들 보다 사실을 보다 많이 알고 있는 부류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 중앙당 간부들은 여타 부문 당원들에 비해 외부에 대한 정보에 더욱 밝아서 수령우상숭배와 같은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적 충성심 표현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1호 작품의 작품 관리 문제가 바로 정치적 민감성(정치범)을 의식한 행위로 이해된다.

사실 중앙당 간부들이야 말로 알아야 하는 것은 더 잘 아는 부류이기 때문에 더욱이 진심이 아닐 것이다. 자칫 이 1호 작품 관리사업이 정치범으로 갈 정도의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사업이니만치 자칫 마음이 탕개가 풀릴 가봐 형식적으로나마 잘 하고 있는 것이다.

당 조직생활에서 수목강연회나 토요학습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본부당 간부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의 하나가 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나마 정열적으로 임하는 듯 하는 행동을 취하며 참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연 또는 학습 장소가 수령과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배양하는 장소가 아니라 ‘인생 살아가는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시간적 공간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사실 참가해서도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강연을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나마 면식이 있는 친구들에게서 최근 돌아가는 정세에 대하여 서로 교환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전에는 그나마 외부정보를 들을 공간이

I
II
III
IV
V
VI
VII

많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개인들이 서로 비공식적으로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서 통하는 사람들끼리 ‘수다’를 떠는 유일한 공간으로서 토요학습이 활용되고 되고 있다. 최근에는 토요학습이나 강연회에서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문답식 학습경연 같은 것을 진행하는 것조차 내용이나 형식이 이전에 비해 훨씬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노작이나 방침들, 덕성실기 학습정형을 충화 받는 학습노트를 검열받기 위해 세포비서에게 외화식당에서 술이나 한 잔 사거나 그 정도의 뇌물을 주면 통할 정도로 검열방식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바쁘면 아내나 심지어 자식들에게 시키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을 정도이다.

아침 독보회는 출근시간 9시 30분 전에 매일 김정일 서기실에서 내려오는 최근의 김정일 지시나 방침, 중요한 노동신문 사설이나 정론 내용에 대해 세포비서(대체로 과장 아니면 종합부원 정도가 세포비서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가 낭독을 하거나 혹 세포비서가 출장을 가는 경우 과장(대체로 세포부비서)이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여튼 1985년 이전에는 1시간 전에 나와서 1호 작품 정성(관리)사업을 하고 간단한 운동을 하는 사람도 많았으나 근래에는 거의 독보시간이 되어서야 허겁지겁 도착하는 사람들도 꽤 늘어날 정도로 신심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아침 독보회를 하지 않는 현상은 거의 없다고 한다. 대신 김정일이 항상 옆 본청사에서 일하기 때문에 수시로 방문할 가능성이 있었던 1980년대보다는 김정일이 본청사에 사업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독보회 등 학습이 더욱 형식적으로 되어 간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열성도는 1980년대 잘 되던 시기에 비해 50% 정도로 보고 있다.

본부당이 한창 잘 나가던 1980년대시기에 본부당 직원들은 옆 본청사에 항상 김정일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다 언제 어느 순간에 본부당 청사에 올지 몰랐기에 누구나 긴장을 하고 살았다. 그러니 사업하나 하나도 대충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김정일의 건강이 나빠지기 전 김정일의 사업 공간이 본부당 옆 중앙당 본청사가 주업무지가 아니어서 그런지 최근에 모든 본부당 내 분위기는 1980년대에 비해서 그렇게 질서 정연하고 활기에 차있지 않다. 더욱이 아침 독보회나 중간 건강운동⁷⁰ 시기에 분위기가 이전과는 확연하게 차이나고 있다. 현재 실제로 정성도는 50%미만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충성의 노래모임 같은 행사의 경우 아직은 중앙당 본부당위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김정일이나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들과 모든 부부장들이 다 참가하는 합창 같은 것은 누구나 다 열심히 하고 있다. 한 달 전부터 본부당위원회 선전비서가 총책을 맡고 진행한다. 특히 김정일은 가끔 이런 공연에서 지휘도 하곤 한다고 한다. 이 뿐만 아니라 10월 10일 경에 항상 진행되는 중앙당 부서들 간 체육대회에서 조직지도부 대 다른 중앙당 전문부서들 경기는 정말 보기 드물게 잘 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물자부족으로 이런 분위기 자체가 축제분위기가 아니라 마지못해 진행하는 수준으로 전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10월 10일 경에 항상 진행되는 체육대회에서 조직지도부 대 다른 중앙당 비서국 정책부서들이 모두 합쳐 두 팀으로 나누어 대항하고 있는 데, 마찬가지로 모든 경쟁에서는 조직지도부 대 선전부를 주축으로 다른 정책부서들의 합동 팀 대항모형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이러한 충성의 노래모임 같은 것도 사실 그러

⁷⁰ 중앙당 내에는 197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오전 10시 반 정도에 20분정도 무조건 집체적으로 하는 인민보건체조운동시간이 있다고 한다. 근래에는 태권도로 바뀌었다가 건강운동체조형식으로 바뀌었지만 이것은 중앙당 조직지도부 청사의 모든 간부들이 지켜야 하는 규율이다.

한 경쟁구도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전 같지 않아요. 행사를 할 때 모두 각 부서 초급당 별로 진행하는 데 이전에는 김정일이 반드시 참가하였지만 최근 2008년과 2009년에는 거의 참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중간에 공급되는 후방 사업도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한마디로 흥이 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하게는 그렇다고 장악사업을 대충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활총화 및 월간총화도 사실 1973년 8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책임일꾼협의회에서 ‘새로운 총화제도를 도입’한 이후⁷¹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본부당위원회 산하 당생활지도과에서 직접 제의서를 올려 김정일이 생활총화 시범강습회도 조직한 첫 조직이다. 1980년대 이전 까지만 하더라도 생활총화에서 동지애에 기초한 조직 사상적 단결을 중심으로 하는 건전한 당 생활기풍을 마련하고자 진행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책임일꾼 중 많은 간부들은 생활총화를 주관하는 세포비서들이나 월간총화를 주관하는 부문당(조직지도부 본부당이 아니라 각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각 정책부서들의 부장들이 본부당 부문비서 겸직)비서들이 회의를 지도·장악하는 과정 그 자체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도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자아비판 형식은 기존 수준이나 호상비판 같은 것은 모두 당 생활문건에 남는 문서처리방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비하여 서로서로 눈감아주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요한 검열팀도 서로 눈감아주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한다.

71. 새로운 당생활 총화제도는 그들이 자기의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계속 지켜 나가게 하며, 당 안에 비판과 사상투쟁의 분위기를 세운다. 김정일, “전당에 새로운 당생활 총화제도를 세울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책임일꾼협의회에서 한 연설),” pp. 451~452.

몇 년 전에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모과장이 밑에 애들을 데리고 기계공업국 부서 애들과 함께 자강도 랑림에 있는 군수동원총국 산하 군수공장에 검열을 나간 적이 있는데, 그 군수공장에서 량정사업소에 공급되는 식량이나 군수물자와 같은 물품들을 그 공장 당 책임비서와 후방부지배인이 짜고 10톤 이상이나 떼먹었다는 거예요. 돈이 얼마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기계공업부 초급당 위원회에서 제기되고, 연관되지 않은 그 공장 조직비서가 책임비서 몰래 뒤로 신소처리과로 쓰아서 일어난 일이지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실 내려가 해당 부서 종업원들과 이 자료를 제기한 사람들에 대한 요해부터 해야 하는데, 내려간 사람 기계공업부 부원 중에 이 공장 당 책임비서의 처쪽면 친척이 되는 것을 은근슬쩍 튕겨준 사람이 조사 그루빠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검열사실에 대하여 그대로 김정일에게 보고해야 하겠는데 결국 당 책임비서를 살리는 방향으로 선회했다고 한다. 이것은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에요. 결국, 그들은 뇌물로 얼마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신소를 잘못 올렸다는 것으로 오히려 올린 조직비서 하던 자가 행정적 처벌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했던 적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실제로 북한 권력기관에서 보통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북한에서는 신소처리 그 자체도 잘못 하면 북한 내부 통일과 단합에 어긋나는 나쁜 행동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신소처리도 결국 누군가는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애꿎은 두꺼비가 떡돌에 치이는 격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만도 못한 것이 북한 현실입니다. 정말로 월간 총화는 월내 사상투쟁 성격을 띠도록 하게 되어 있으나 사상투쟁은 커녕 서로 감싸주기 하는데 무슨 이전처럼 당 생활을 양심적으로 하겠냐는 겁니다.

입당 선호도도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북한 본부당위원회 사람들의 입당선호도는 아주 높다. 그것은 본부당위원회 사람들이 입당을 해야 권력기관에 있게 되고, 그래야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제일 잘 알기 때문이다. 비록 모든 본부당위원회 당원들은 자식들에게도 입당을 추천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처럼 어렵고 힘

I
II
III
IV
V
VI
VII

든 곳에 보내 ‘혁명화’나 ‘로동계급화’를 통해 입당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쉽게 하도록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자기 자식들을 어렵지 않고 편안한 평양지역이면서도 배급이 보장되는 군 관련 기업이나 권력기관에 출퇴근시키면서 군사복무를 하도록 한다. 이것이 북한식 특권이 되고 있다.

입당 선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지금 이 시절에 입당을 위하여 이전처럼 자기 피와 살을 바치면서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모두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진실하게 하지 않지요. 당일 끈들 속에는 언제인가부터 ‘진실한 것과 명칭한 것 사이는 종이 장 차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진실하다고 하는 말은 명칭하다고 하지 못해서 하는 말로 통한다 이겁니다. 오히려 이런 방향에서는 중앙당 본부당 사람들이 더하면 더하지... 중앙당 본부당위원회 리성복 과장이 131지도국 모회사의 사장 조카를 도와주고, 이 모사장은 리성복과장의 아들을 도와주는 식으로 서로 자기 인연이 없는 자식들을 맡아서 봐주는 식으로 입당시키는 것입니다. 김정일이 방침으로 당 조직 같은 단위에 친척을 둘 수 없게 하는 원칙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이런 눈속이기가 생겨나게 되거든요. 당원이 아니면 북한에서 사람구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고, 실제로 당원이 되는 것이 최소 간부징표의 첫 걸음이나 같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본부당이나 조직지도부 같은 사람들 속에서 당원선호도는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나 다르지 않지요. 단, 이왕이면 손쉽게 해먹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원은 모든 사업에서 앞장서야 한다는 원래 김정일이 내놓은 당원의 충실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본목적이 탈색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진실한 당원을 찾아보려면 꽤 어려울 겁니다. 이전에 당원되기 위한 자격과는 너무나 판판입니다.

북한 당원들은 누구나 당 조직에 매일 그날 자기에게 있었던 일에 대하여 무조건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심지어 사생활까지 보고하도록 강요받는다. 그 중에서도 당 생활의 본보기라 할 수 있는 당중

양원회 조직지도부 본부당위원회 간부들은 신변의 사생활까지 무조건 보고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공식적인 시스템은 그런 당 조직 보고체계를 요구하고 유지하는 것 같지만 모든 당원들은 대부분 자기 결함이 되는 것에 대하여 거의 숨긴다. 실제로 있는 사실에 대하여 액면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될수록 걸리지 않은 것이 좋다는 입장과 태도를 취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걸리는 놈이 바보다’라는 은어가 성행하고 있다. 이전 1980년대 중반에 비하여 너무나 의식적인 형식주의적 당 생활방식이 이제는 거의 사라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모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노력지원이나, 관련 물질 지원 사업이 기존에는 진심으로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해 무엇인가 바쳐야 하는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으로 인해 당에 대한 충실성, 김정일에 대한 충실성이 북한 본부당위원회 성원들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최근 이것도 본부당 성원들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 형식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본부당 간부들이 최근에는 ‘걸리지 않고 길게 얇게 오래 사는 것이 그래도 걸리면서 짧게 굵게 사는 것보다 현명하다’라는 은어가 몰래가 아니라 공공연히 횡행하고 있는 수준 이에요. 검열을 하고 통제를 하여야 하는 사람들 머리가 이렇게 썩었는데 그들 검열이나 통제를 받는 하부단위 당원들은 오죽하겠는가? 요즘에는 금요 로동이나 사회적 노력지원 같은데 대부분 친구들이나 자기 권력을 이용하여 손쉽게 해먹으려고 해요. 특히 금요 로동은 김정일이 제정해준 간부들의 노동계급화의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은 그나마 나가서 일해야죠. 어차피 제정된 노동력의 몇 %는 무조건 보장해야 하는 규정도 또 있거든요. 주요한 것들은 이제는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보고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일단 모든 것이 문서로 남거든요. 그러나 당시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하지만, 일단 무슨 문제가 제기되면 이전에 생활총화나 보

I
II
III
IV
V
VI
VII

과 과정에 있었던 자그마한 일이라도 아주 쉽게 넘어가지 않고
연관성을 끄집어내 비판할 문제로 삼거든요. 하여튼 요즘에는
그대로 보고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머저리로 보죠.

본부당의 재정상황도 그리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한다. 매월 납부되는
당비는 사실 가치가 거의 없다. 당비는 원래 당 규정에 월급의 2%인데
최근 평균 중앙당 본부당 부원 급여수준으로 4,000원 정도인데 당비는
80원 정도다. 그러나 본부당 구성원들이 300여 명이라면 24,000원 정
도가 한 달 당비가 되는 셈이다. 현시가로 \$10도 안되는 가치다. 중앙
당 모든 성원들 3,000여 명이 다 모아도 \$100도 안된다. 이것은 북한
모든 당 조직의 상위급 조직의 재정상황을 엿보게 한다. 그래도 당비는
철저히 새 돈으로 내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유지되는
이유는 북한 사회에서 내려오는 모든 운영비가 당 조직들의 실질적인
운영비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력은 없다. 회의나 행사에 동원
되는 교통비나 인건비 등이 모두 공짜로 하기 때문이다. 본부당위원회
구성원들까지 북한에서 가장 권력이 강한 조직수준에서 조금씩 떨어지
는 변화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모든 당 조직들의 간부당원들이 상부의
지시를 형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
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본부당위원회 성원들에 대한 김일
성의 노작이나 김정일의 방침·지시 침투정형은 역시 형식적으로 끝나
고 있다. 위로는 아첨도 잘하고 밑에 내려가서는 잘못을 찾아내기 보다
는 대신 뇌물을 받아 챙기는 ‘살줄 아는 똑똑한 간부’가 되어야 살아남
을 수 있다는 간부생존원리를 터득해 가고 있다.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는 항상 이상과 같은 지시나 방침이 내려
와 이미 우리 부모들 세대에서 교양을 받아온 현 세대 간부들
속에서는 ‘살줄 아는 똑똑한 간부’가 되려는 습관이 통용되고

있어요. 즉, 보고와 검열에 대응해 문서적으로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검열에 내려오는 검열성원들에게 조금 낮가림될만한 ‘진상’(뇌물을 준다는 표현)을 하면 특별한 과오가 없는 이상 해임이나 철직으로 끝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역학의 4법칙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현재 살기 어렵죠.

(2) 본부당 조직부의 조직 운영 실태⁷²

당위원회 운영 실태는 사실 북한사회가 조직사회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 조직사회를 바로 각 분야의 핵심성원들인 당원들이 함께 모여 회의를 한다는 의미에서 이들에 대한 조직지도 및 운영 실태가 이전 1980년대 중반에 비하여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표 II-7>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본부당위원회의 운영 실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실제 회의에 참가하는 당원들의 의식상태와 활동정형은 이전에 비해 25% 정도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즉, 당위원회의 운영에서 대표적인 분기 당 총회나 매주 월요일에 진행되는 중앙당 내 각 부서 급 당위원들과 핵심당 조직책임자들이 모여 진행하는 초급당위원회는 역시 아직도 잘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조금씩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 내용이 추상적인 내용이나 정치적 구호 수준에서 실천인 내용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당 운영의 변화된 한 단면으로 받아들여진다.

월요일이나 목요일에 내려와 진행하는 김정일의 지시를 수행하기 위한 방도를 구체적으로 토론하는 본부당위원회는 지금도

⁷² 이를 위하여 본부당위원회 당사자였던 재정 관련부문 백○○를 인터뷰

● 표 II-7 본부당위원회 조직부의 당 조직 지도 및 운영 실태

구분	100%	75%	50%	25%	0%
당위원회 운영 실태	○	△			
각종 당회의 사전 준비 실태		○	△		
간부선발 배치 정형		○			△
하부 조직 실태 매주 보고상황			○△		
근로단체지도정형 작동상황			○△		
당 책별 및 상여기준			○	△	
당 검열부서의 기능 여부	○	△			
당 신소담당과의 기능 여부				○	△
당 재정 및 외화별이 상황	○				△
조직비서와 책임비서의 관계	○				△
부서별 본위주의 및 파벌형성	○			△	
당 조직과 보안기관 상하관계		○			△
미약이나 성문화 접근성향		○			△
선물시혜 정책여부		○		△	

※ ○ 조직의 지시에 의한 형식적인 상황, △ 조직의 지시에 대한 당원들의 내적 상황

잘 진행 되요. 그런데 이전과 차이가 있다면 이전처럼 실천에 맞지 않는 구호를 내두르지 않는 것 이에요. 이전에는 그냥 추상적인 구호만 있고 현실적인 구체적인 목표는 없었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사실 그대로 파악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수행할 방도가 그리 많지 않아요. 모든 것은 제대로 물자 보장이 안되는 것이 기본 이유이죠. 그러니 우리도 회의에 참여하는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죠.

이런 당위원회 운영이 나름대로 작동되고 있다면 이 당위원회에서 토의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못 박은 각종 당회의 사전 준비 실태는

어느 정도일까? 현재 회의 준비정형은 이전에 비하여 조금 떨어졌으며 (75%), 특히 실제적으로 내부적인 기대치에 비하면 훨씬 떨어진다고 (50%)고 답했다. 간부선발은 사실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전에는 간부기준이 충실성, 출신성분, 전문성 순위였다면 최근에는 경력에서도 국가에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남겼는가 우선순위로 바뀌고 다음에 충실성, 출신성분, 전문성 순위이라는 것이다. 김일성은 ‘조선로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이라는 노작에서 간부선발과 당 조직의 공고성의 중요성에 대하여와 간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며, 결국 간부의 선발배치와 간부들의 충실성과 연관시켜 다음과 같이 강조⁷³하였다.

당대렬을 조직적으로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은 당원들이 뭉친 조직적 부대입니다. 당대렬을 주체형의 혁명가들로 튼튼히 꾸리고 전당을 하나의 공고한 조직적 통일체로 만들 때에만 당이 인민대중을 령도하는 참다운 정치조직으로 될 수 있습니다. 당대렬을 조직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하여서는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려야 합니다. 간부는 당의 골간력량이며 혁명의 지휘성원입니다. 당은 간부들을 핵심으로 하여 조직되며 간부들의 역할에 의하여 당의 모든 활동이 보장됩니다. 결국, 간부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간부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간부를 선발 배치하는 사업을 잘 하는 것입니다. 간부의 첫째가는 표징은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반대의 양상을 띠고 있다. 그 주요인은 바로 북한이 처한 경제적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공식적인 간부선발 내부지침에는 없지만 실제로는 충실성보다는 뇌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실제로 각 간부 직급별로 어느 정도 돈을 주어야 진

73. 김일성, “조선로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 (서대숙 편, 『북한문헌연구』 제1권, 조선로동당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문제연구소, 2004.), p. 587.

I
II
III
IV
V
VI
VII

급할 수 있으며 또 그 정도 뒷받침 되지 않으면 이런 구실 저런 구실로 간부선발을 늦추는 경우가 다반사다. 일종의 먹이사슬 관계처럼 간부들과 간부로 승진하려는 사람 간, 고위급 간부와 중하위급 간부 사이에는 철저하게 이전처럼 충실성을 논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것을 사회적 통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태다. 총체적으로 간부선발 및 배치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듯하나 내적으로는 ‘돈 놓고 돈 먹기’ 위한 일종의 게임성 행위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관습이 본부당 내에까지 일어나는 행위로 자리 잡게 된 배경에는 김정일과 최측근들의 영향력과 떼어놓고 분석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은 증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⁷⁴

1995년 3월 경 호위사령부 산하 35려단(탱크를 위주로 하는 기갑부대)의 여단장 최상옥은 당시 여단의 군 간부들과 모의를 하였다. 이유인즉, “이번에 호위사령부 간부부에서 전갈이 왔는데 장군님께서 최상옥의 답을 한 번 보자고 하신다”는 지시를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간부담당 부부장에게 하였다는 것이다. 최상옥은 당시 소장계급이었다. 그 당시 호위사령부에는 김일성이 사망한 후 대대적인 조직개편사업을 하던 중이었다. 호위사령부 산하 전투려단(모두 기계화부대)들을 지휘할 일종의 ‘전투부사령관’ 직함을 새로 만들었고 이 직함에 오를 다수의 후보자 중 최상옥도 김정일에게 보고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최상옥은 려단이 사금채취를 통해 모은 사금 6.5kg을 김정일에게 ‘충성의 당자금’ 명목으로 올렸다. 또한 려단의 전 인원을 동원하여 당시(토산군에 주둔) 임진강 상류부근을 막고 잡은 30츠이상의 암수 자라(주변 노인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까지 임진강에서 잡은 가장 큰 것이라고 함) 한 쌍도 함께 김정일에게 선물로 올렸었다. 김정일의 건강과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의미에서였지만 내막은 실제로 ‘뇌물헌납’이었다. 김정일은 그것

74. 이 사실도 최상옥의 간부사업에 참여하였던 관련 본부당 부원이었던 리○○에게 직접 들은 간부사업내용이다.

을 보고 받고 “정말 최상욱이 내 배짱에 맞는다”면서 그의 승진을 비준하였다. 이에 최상욱은 북한 군부 간부역사에서 특수한 사람이 아니면 있을 수 없었던 ‘계급 뛰어넘기’를 하여 소장(별 하나)에서 바로 상장(별셋)으로 승진하면서 호위사령부 전투부 사령관이 되었다. 당시 전투부사령관은 호위사령부 서열 5위였다. 김정일이 이렇게 뇌물상납을 좋아 하는데 밑에 조직지도부 본부당위원회 간부선발은 어떻게 될지는 삼척동자도 잘 알 것이다. 90년대 중반에 이정도면 사실 2002년 7월 1일 경제조치가 취해진 이후에도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실제로 모든 자리가 ‘양반전’의 감투값처럼 이미 북한 모든 자리는 가격이 매겨져 있다고 보는 것이 좋다.

하부조직 실태 관련 매주 상부조직에 대한 보고상황은 규정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특히 보고 형식을 취하는 데 우왕좌왕한다는 것이다. <표 II-7>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하부조직 실태 보고는 거의 50%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형식적이든 내적이든 거의 일치하는 수준이다.

한때 김정일은 당일꾼들이 군대 정치일꾼들처럼 하지 못한다고 욕한 적이 있어요. 한 중앙당 조직지도부 간부 허씨가 보위사령부 도청에 걸려 정치범으로 잡혀가게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이 1997년도였을 거예요. 그때 본부당 일꾼들이 사는 아파트에는 도청장치를 함부로 보위사령부 같은 곳에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간부가 함경북도 화성이라는 중앙당 휴양소에 김정일의 배려로 한달 간 휴양을 가게 되었죠. 이때를 노린 보위사령부 수사팀은 이 간부의 동생이 ‘프른제군사대학사건’에 연루되어 잡혀 간 것을 아직 모르는 이 간부의 뒤를 캐기로 하고 이 간부가 묵는 화성중앙당 휴양소 침실에 도청장치를 해 놓았어요. 그런데 형식상 아무리 간첩혐의가 있어도 다른 기관은 몰라도 중앙당 조직지도부 간부와 관련하여 도청장치를 하려면 사실 관련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그러나 도청은 진행되었고 그 간부는 운운 중 당시 4.25명절을 맞으며 내려 보내는 김정일의 선물이 점점 질이 떨어진다는 말을

I
II
III
IV
V
VI
VII

전화로 하게 되었습니다. 평양에 있는 안해와 선물내용과 관련하여 얼마 무엇 무엇을 받았다 등 이런 저런 말을 하다 끝내면서 혼자 지청구 같은 소리로 하게 되는데 이것이 녹음파일에 잡히게 되었더라 말입니다. 보위사령부 수사팀은 이것을 끄트머리로 그 간부를 보위사령부에 연행할 근거로는 충분합니다. 당시는 군 보위사령부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시절이었죠. 문제는 이후에 일어났지요. 갑자기 허씨가 안보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김정일이 관련 라인으로 그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에 중앙당 조직지도부 본부당 관련부부장이 “장군님, 사실 허모는 지금 군 보위사령부에 잡혀있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김정일이 왜 그런 일이 있는지 당장 보고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김정일에게는 자기가 아는 당일꾼 사람을 자기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처리하는 보위사령부 원웅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해요. 또한 보고 형식자체가 혼돈을 가져오던 시절이었어요. 한 때는 김정일 호위도 군 보위사령부와 당중앙위원회 작전부에서 한 적도 있을 정도였으니까… 하여튼 지금 북한 당중앙위원회 보고체계는 사실 위에서 조금 혼선을 빚고 있으며 김정일의 내키는 성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조금 심해요. 또 보고 내용도 실속 있게 보내지 않고 ‘누가 봐도 욕이나 듣지 말아야지’라는 관점인 거예요. 그러나 위에 대한 뇌물상납은 철저해지고 있어요.

하부단위에 대한 본부당위원회 조직 운영 실태는 논할 가치도 없다. 중앙당 내 당원들의 가족들 중 근로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친족들에 대한 것으로서 사실상 북한의 현 상황에 큰 영향을 주는 기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본부당위원회 당 조직들의 책벌 및 상여기준은 대부분이 뇌물과 인맥으로 통하는 시대에 들어섰다. 즉, 아직은 공공연히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연(인맥)이 없을 경우 책벌을 받게 된다면 죄 값을 치루는 데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해도 먼저 당 조직에 보고되어 이슈화되기 전에 인맥이나 뇌물로 대책을 취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빠져 나올 수 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이제는 ‘걸리는 게 머저리다’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본부당 검열부서는 형식적으로는 지금 가장 악랄하다고 한다. 형식적으로는 이전과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사실 검열이 많으면 많을수록 개별적인 검열성원뿐만 아니라 심지어 검열부서의 위상이 더 높아진다. 특히 정기검열보다는 집중검열이 진행되는 때 모두 한 몫을 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본부당 신소처리과는 당중앙위원회 본부당위원회에서 가장 힘이 없는 부서로 소문이 자자하다. 북한 중앙당 내 당중앙 부원 이상 간부들의 애로사항, 고충, 해결하기 어려운 인간관계 문제 등을 처리하는 데 실제로 이러한 불만을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소를 하면 당 내부적으로 총체적으로 사회적 불만이 있는 것으로 찍히게 되어 특별취급대상에 들어간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소처리는 이전에 비하여 전혀 하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재정 및 외화벌이 면에서는 본부당위원회의 적지 않은 간부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엄청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⁷⁵

실제로 지난 2009년 8월 12일 김정일은 북한의 최대 수출원천 중 하나인 석탄수출 금지 명령을 전국 외화벌이 기관과 석탄관련 기관에 내렸어요. 그러나 이를 뒤인 8월 14일에도 2,000여톤의 무연탄이 신의주에서 출하되어 중국으로 판매되었는데 그 배후가 바로 중앙당 본부당 이제강의 후원을 입고 있는 군수동원총국 산하 용흥무역연합체 강모 사장이예요. 이후에도 이 회사의 수출이 지속되다가 9월 중순에 이르러서는 수출이 거의 막혔지만 그 회사는 계속 했어요.

75. 인터뷰 대상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북한에서 큰 무역을 하던 것으로 확인된다. 즉, 중앙당 조직지도부 검열과 이○○과장의 뒤를 밟고 무역을 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이 조치가 김정일의 순천과 북창지역 탄광 현지 시찰 이후 내려진 것 이예요. 최근 북한은 경제 분야에서 전성기였던 1980년대 중반 수준으로 인민경제의 각 분야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2012년을 목표 시한으로 잡고 노력해왔는데, 다시 말해 북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가 외화획득보다 내부 기반시설의 가동으로 목표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와중에 김정일이 북한 최대 탄광 지역인 순천과 북창 방문시 전력난으로 석탄 생산 설비들까지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임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주로 5,500cal/kg이상의 고품질 무연탄을 톤당 \$40~50로 수출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화력발전소에는 3,500~5,000cal/kg의 저질 무연탄이 공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전력 생산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었다. 이로 인해 북한의 주요 광산이나 생산시설에 공급되는 전력이 하루 12~13시간에 불과하고 전압도 불안정해 시설 가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구요. 또한 석탄을 생산하는 석탄채굴기업소들은 생산지에서 톤당 \$8~10의 가격밖에 받지 못합니다. 이는 생산자들의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비생산적 유통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악순환이 10여년 이상 존속되어 왔음에도 김정일이 최근에야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를 누가 직접적으로 제기하는 충신도 이제는 없습니다. 때문에 이번 시찰에서 김정일은 탄광 시설과 석탄유통의 문제점을 직접 접하고 몹시 흥분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북한 내부 공장과 기업소 등의 산업시설을 우선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해 김정일이 무연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석탄은 북한의 제1수출 품목인데 북한의 전체 수출에서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는데, 이것을 아예 막기야 하겠습니까? 2008년 북한은 280여만톤의 석탄을 수출하여 톤당 \$30~40로 거래, \$1~2억의 외화를 벌어들였다고 한다. 하여 지금 북한에서는 외화벌이의 핵심 품목이 사라져 달려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정일이 어려워지는 국제무역환경 속에서 내수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로 석탄수출금지를 내렸지만 그 속에서도 이런 수출을 하는 본부당의 후원을 입고 있는 자들의 권력은 사실 아마도 그만큼 파위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할 것 아닙니까? 김정

일이 하지 말라는 수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배짱이나 파워가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북한 권력이 이미 돈이나 뇌물로 다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즉 경제적 논리로 움직인다고 봐야 해요. 이리다 일단 걸리면 김정일에게 십만불 이상 현금을 ‘충성자금’으로 올리고 옆에서 좋은 말들을 해주는 김정일 최측근들에게도 최소 \$4~5천정도를 상납한다면 반체제적인 일을 하지 않는 이상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중앙위원회 본부당 자체가 외화벌이를 하는 것 같지는 않구요. 이런 식으로 무역회사나 상인들의 뒤를 봐주고 조금씩 수수료를 챙기는 식일 것입니다.

본부당 조직비서였던 당 조직지도부 책임부부장과 본부당위원회 책임비서 격인 본부당 제1부부장 사이에는 서로 좋지 않은 관계였다고 한다. 특히 본부당위원회에서는 제1부부장이나 책임부부장 모두 김정일과 직접 독대할 수 있는 관계라 서로 석연치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책임비서는 본부당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중앙당 모든 간부들에 대한 조직생활과 사상생활을 책임지고 있지만 바로 책임비서의 동향이나 모든 것을 상부인 김정일에게 직접 보고할 책임을 지고 있는 조직비서에게 함부로 대할 사이가 아닌 것이다. 이들의 관계는 사실 <표 II-7>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1980년대 후반 이전과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거의 100% 나쁜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부서별 본위주의와 파벌형성 면에서는 당중앙위원회 본부당 내에는 크게 없어 보이나 최근 각 부부장들 사이에는 파벌까지는 아니겠지만 서로 분명히 본위주의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특히 모든 당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중앙당 본부당위원회 내부에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재정부 등 관련 부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 부서들의 영향력에 걸맞는 본위주의는 파벌을 형성할 정도로 대립되어 있을 경향이 높다. 당 조직과 보안기관과의 상하관계는 조금씩 실제적인 파워 면에서 서

I
II
III
IV
V
VI
VII

로 지도하고 견제하는 관계이지만 원칙적으로 철저하게 본부당위원회 안에는 보위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평양시 보위부 산하 창광동 지역 보위부가 사실 중앙당 본부당 간부들 가족들을 통하여 반체제 및 반탐활동을 벌리고 있지만 이들과 상하관계를 논하는 것조차 있을 수 없다.

마약이나 성문화 접근 면에서는 조직지도부 내 본부당 간부들이 마약에 대한 접근 면에서는 이전과 차이가 없겠지만 성과 관련된 면에서는 이전에 비해 많은 경우 아주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 간부들 중에 성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없다. 대신 이러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본부당 간부들을 끼고 해외에서 마약을 팔아 돈을 벌려는 시도⁷⁶는 꽤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에서 해외에 파견되어 8년 째 거주하고 있는 룡라888경제연합체 임모씨는 아버지가 북한 중앙당 본부당 모 부부장의 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그는 돈을 더 벌기 위해 2010년 8월 중국의 대방 한국 친구를 통해 필로폰 최고품질 3kg을 팔아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시가로서 싸지만 북한에서는 결코 적지 않은 거금인 \$50만을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이들이 국가에 내야 하는 돈을 1년에 \$5만이라면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에요. 지금도 이들은 라인만 있으면 마약거래를 할 용의가 충분히 있고 원천도 댈 수 있다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리지 않는 일부 조선족들을 이용하여 한국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휘두르고 있는 고순도 마약을 북한에서도 역시 쉽게 얻을 수는 없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 본부당 간부들도 내심적으로는 마약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큰 불법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단편적인 증거입니다.

76. 룡라 888경제연합체 임모씨의 대방인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장모씨의 고백, 2009년 8월 인터뷰.

현재 김정일이 주는 선물은 점점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김정일이 주는 선물⁷⁷은 늘어 가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당중앙위원회 본부당위원회 간부들에게 직접 주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지 않지만 이제는 그러한 선물보다는 일정한 돈만 있으면 선물보다 더 좋은 상품이나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시장의 역할로 선물 시혜정책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올해 2011년 김정일의 생일 전 날인 2월 15일, 북한 보위부 요원들에게 김정일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선물이 하달되었다. 김정일의 생일인 1월 8일에는 주지 않았던 선물을 이번 김정일 생일을 맞이하여 ‘김정은 동지의 선물’이라는 붉은 종이 위에 금박으로 쓴 글이 적힌 선물명세서와 함께 선물 지함 3개가 전달되었다. 이번에 받은 선물 중 한 지함엔 북한산 녹용 1kg, 응답분 2통(99%순도 160g/통), 외국산 양주(헤네시 나폴레옹 코냑 35%), 칠면조 고기 3kg, 남성용 고급양복지 1벌 감등과 함께 여러 가지 과일과 식료품 지함이 두 개 있다. 가격으로만 봐도 최소한 \$1,500달러를 훨씬 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번에 준 선물은 보안기관이 아닌 다른 단위들에서는 김정일의 선물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어 국가보위부나 군 보위총국 고위급 요원들 한에서만 준 것 같습니다.

77. 이준은, “김정은 명의로 국가보위부 요원들에게 1500\$이상의 통 큰 선물,”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2011년 2월 25일, <http://www.nksis.com/bbs/board.php?bo_table=e01&wr_id=2>.

나. 본부당 소속 전문부서 당 조직 실태 변화분석⁷⁸

(1) 본부당 소속 전문부서 당원들의 생활 실태

중앙당 근로단체부 당위원회는 산하 내각 체육성과 보건성, 그리고 각급 청년동맹, 직업총동맹, 여맹, 농근맹 등 근로단체들에 대한 당정책적 지도부서이다. 때문에 이 산하 기관들의 당 조직들이 맡은 임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또 이와 관련한 당 조직과 당원들을 당 생활과 조직 운영 실태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 속해있는 본부당위원회 소속 근로단체부 당위원회에는 1개의 직속 세포와 두 개의 부문당 위원회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부문당에 속해있는 세포들 역시 결국은 각 담당한 분야들이나 부문들의 당 조직들이나 당원들의 모든 생활을 간접적으로 지도하고 통제한다고 보아야 한다. 실례로 보건성 담당과는 사실 조직지도부에서 내려 보낸 당 사업지도체계에 의해 매 담당부원들은 자기가 맡은 사업단위에 대한 당 조직들의 실태와 관련된 핵심간부들에 대한 사업들을 모두 조직에 보고하고 행동하며 특히 맡은 분공을 수행하면서 당 생활을 한다. 이에 대하여 그는 당 조직간부들의 당생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표 II-8>)하였다.

특히 이러한 맡은 담당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상시적으로 그 어느 당원이든 1호 작품 관리 같은 당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충실성사업을 표

⁷⁸ 인터뷰 대상자는 성명이 ○○○이고 1970년생으로서 전직은 중앙당 근로단체부 부원으로서 직속 초급당급 당 조직 당비서로서 2011년 5월에 입국한 가장 최근의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의 당 조직생활경력(1999년부터 입당하여 지금까지 13년째이다. 이 분이 책임지고 있던 당 조직은 중앙당 근로단체부 직속 조직으로서 실제로 중앙당 본부당위원회에서 근로단체부 당위원회는 초급당급 당 조직이었다.

● 표 II-8 중앙당 근로단체부 초급당위원회 당원들의 조직생활 상황

구분	100%	75%	50%	25%	0%
1호 작품 작품 관리 및 참가정형 수준	○			△	
수목강연회, 토요정치학습 수준	○			△	
월간 자체학습 및 정리수준	○				△
아침 독보회 수준	○		△		
총성의 노래모임수준		○	△		
생활총화 및 월간총화진위 수준		○			△
입당선호도			○△		
당조직 보고체계		○		△	
사회노력지원 및 정치적 자극			○		△
당비 납부 및 재정상황	○△				
노작방침지시 침투 조직사업		○		△	

※ ○ 조직의 지시에 의한 형식적인 상황, △ 조직의 지시에 대한 당원들의 내적 상황

면적으로는 그래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수준도 <표 II-8>에서 보여주듯이 내적으로는 이전에 비해 25% 수준이라고 표현된다.

우리는 해외에서 근로단체부가 맡은 외화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1호 작품 관리같은 사업은 아직은 1980년대 중반에 비하여 제대로 100%수준에 있죠. 한마디로 아직은 그 체계는 별로 변하지 않고 잘 진행은 되지요.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25%수준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비록 외부에 나가서 생활하지만, 매 당원들은 매 시간별로 조직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자기가 모시고 있는 초상회장까지도 어떻게 보관하며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외국에서 김일성, 김정일을 비방하거나 하여도 사실 조금 마음이 위축되는 경향이 자라지 않고 있는지

I
II
III
IV
V
VI
VII

등에 대하여 양심적으로 총화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사실 내면적으로는 잘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2010년 8월에만도 김정은이 내부적으로 그 어느 장소에 가서도 ‘초상회장’을 무조건 달고 다니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귀국시키라는 지시도 당중앙위 조직지도부 지시로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만큼 대부분 사람들이 잘 달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내려온 지시인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누가 보지 않는다면 사실 김정일이나 김일성에 대하여 이전처럼 무조건 따르는 경향은 많이 약해져 있어요.

수목강연회나 사상교양학습과 같은 토요학습에도 사실 형식적으로는 잘 진행되고 또한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더욱 학습할 내용이나 방침이 많이 내려오지만 만일 제대로 참가하지 않는 현상에 대하여 이전처럼 사상투쟁대상이거나 당장 해당 당위원회 조직부에 불려가 추궁을 당하는 현상들은 많이 없어졌다. 대신 이들에 대한 내부 장악사업은 더욱 철저하게 진행할 것을 상부조직이 지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세포비서들이나 과장들에게 담배나 술을 마시거나 뇌물로 해결되는 것은 보통이다. 오히려 그러한 ‘인사’(뇌물행위를 북한에서 그렇게 부른다)를 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이 더 당 생활을 잘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반체제적 성격을 띠지 않는 한 학습이나 강연회 참가 못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만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바로 당 생활 중에서도 이러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당 생활 경력을 종합하여 그 당원이 종합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비록 내심적으로는 당 생활을 잘 한다고 더 주는 것도 특별히 없고, 또 근로단체부 같은 곳에서 앞으로 더 잘되어야 어디까지 잘 될까 하는 안일한 태도로 일하는 사람들은 사실 마지막 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이전처럼 양심적으로 당에 충성을 다 하는 사례는 더욱 많지 않다. 월간 자체학습 및 정리도 이젠 본부당위원회 지도일꾼이라 해도

제가 제대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거의 없어 0% 수준)는 것이며 아침 독보회 수준도 이전에 비하면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목강연회나 사상교양학습과 같은 토요학습에도 사실 형식적으로는 잘 진행되고 또한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더욱 학습할 내용이나 방침이 많이 내려오지만 만일 제대로 참가하지 않는 현상에 대하여 이전처럼 사상투쟁대상이거나 당장 해당 조직부에 불리위가 추궁을 당하는 현상은 많이 없어졌다. 대신 이들에 대한 내부장악사업은 더욱 철저하게 진행할 것을 상부조직에서 위임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비서들에게 담배나 술을 마시거나 뇌물로 해결된 적도 많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반체제적 성격을 띠지 않는 한 허용되는 경향이 있으나 만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바로 당생활 중에서도 이러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을 종합하여 그 당원의 당생활이 종합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비록 내심적으로는 당생활을 잘 한다고 더 주는 것도 특별히 없고, 또 근로단체부 같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더 이상 승진하지 못하는 사실 마지막자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이전처럼 양심적으로 당에 충성 다 하는 사례는 많지 않아요... 이전 같으면 자기가 오히려 먼저 자체계획으로 1호 작품 관리를 자진하여 맡았지만 최근에는 1호 작품 관리대장에 먼저 이름이 들어가는 것도 별로 승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월간 학습총화나 자체학습목표를 정리하는 것 같은 사업은 아예 검열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정도이고... 아침 독보회도 같아요. 누가 이제는 거의 도맡아 시피하여 독보회도 세포 선동원이 있어 하던 방식도 이제는 거의 없어지고... 오직 세포비서나 부비서가 없으면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담당자들인 세포비서도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가 너무 오래 걸리다보니 알아서들 대충 얼버무리는 겁니다. 그럴 바엔 진짜 필요한 컴퓨터 인터넷하는 방법이나 타이핑하는 방법 같은 것, 정말 실생활에 써먹을 수 있는 것을 배우는데 더 관심이 있거나 이런데 시간을 더 투자하려고 하지요... 많은 것이 변해가지요...

충성의 노래모임 같은 사업은 진행은 되지만 한 달도 넘는 행사에

I
II
III
IV
V
VI
VII

참가하면서 자기의 일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 적지 않은 간부들이 제대로 참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도 사실 근로단체부 내 당간부들은 모두 소질이 뛰어난 예능인들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지만, 지금은 이전 같으면 이런 행사를 조직하면 나름대로 진심으로 참가하는 간부들도 많았지만 지금은 이런 저런 핑계를 내고 참가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충성의 노래모임 같은 사업은 진행은 그런대로 이전처럼 잘 진행되지만 수준은 이전에 비하면 내면적으로는 그리 달가워하지 않죠… 당장 이래 저래 할 일도 많고 또 이제는 돈맛을 들여 제기되는 일도 많은데… 무슨 흥타령인가구요. 그런 흥타령도 배가 부르고 근심걱정이 없어야 나오는 것이지… 이런 1달도 넘는 행사에 참가하면서 자기의 일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 적지 않은 간부들이 제대로 참가하지 못하죠. 그래도 사실 근로단체부 내 당간부들은 모두 소질이 뛰어난 예능인들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지만, 지금은 이전 같으면 이런 행사를 조직하면 나름대로 진심으로 참가하는 간부들도 많았지만 지금은 이런 저런 핑계를 내고 참가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왜냐면 이런 사업보다는 방침 관철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러나 오늘은 당위원회 비서나 부비서, 혹은 근로단체 영수부장령감이 참가할 것이라고 한다면 눈에 잘못 들지 않기 위하여 잘 참가하죠… 이제는 간부들이 진실로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익은 많이 취하면서도 잘 못뵈우지 않을까 하는데 만정신이 가있지요. 한 번은 직맹담당과장님이 장모가 지방에서 올라왔다고 하면서 충성의 노래모임에 참가하는 20여 명에게 계란 100알정도를 푼 적이 있는 데… 100알을 가지고 와서 중창 연습을 두 번씩이나 하고 휴식참에 한 알씩 좀 나누어 주면 좋겠건만… 나누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한 알씩 맛보면 안되냐고 했더니… 그 과장이 하는 말이 오늘 영수부장과 당비서가 나온다는 데 그때 나누어 주려고 한다는 것이예요… 원… 무슨 이런 개인적인 소위 ‘충성심’ 표현도 간부들이 나와야 주려고… 상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장난이랍니다. 간부들이 이 정도인데… 이들이 내려가 지도하는 하부 당조직들이 어떻게 잘

되겠어요... 위에서부터 이제는 진심어린 충성심 같은 것은 이제 “국 끓여 먹어 없어졌다”고 말들을 하죠...

2일 생활총화나 주간 생활총화, 그리고 일간총화도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는 더 잘한다고 한다. 그러나 <표 II-8>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아예 수준은 맨 밑바닥 수준이다.

한 번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2일 생활총화를 하는 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생활총화를 하고 나면 내일 모래 그 사이에 있는 일을 가지고 무슨 또 비판할 것이 있겠어요? 그리고 호상 비판은 더 하죠. 그리고 누구나 조금씩은 다 서로 눈을 감아주면서 밑에서 올리는 진상품(뇌물)을 먹고 근근히 살아가는 데,, 밑에서 왜 뇌물을 줄까요? 자기들이 조금씩 잘 못하는 것들을 눈을 좀 감아달라거나 자기 승진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건데... 그 사람들 역시... 뇌물을 주는 사람들도 간단치가 않아요. 잘못 다치면 내가 혁명화 할 판인데. 이제는 그 누가 말해도 내 살구명이 첫째라는 거예요. 굶으면 누가 쌀 한 톨 가져다 주나요... 그리고 더욱이는 비판하는 사람이든, 또 성근하게 비판하면 김정일이 선물을 더 잘 주나요? 이제는 이러한 간부생활의 노하우가 다 싸여서 어려워요... 속지 않지요. 생활총화도 이제는 호상비판같은 것은 사실 말도 되지 않는 것들만 골라 하지요. 그렇다고 특별히 죄로 되는 것들이 아닌... 행사에 왜 조금씩 늦었느냐 등 눈에 이미 두러난 것들을 가지고... 이전 같으면 사실 몰래 나타난 현상들에 대하여 마구 마구 비판을 하던 것들인데... 이제는 정말 그렇게 진실한 것들은 보이지 않지요.

입당선호도도 갑작스럽게 이제는 많이 내려갔다. 그러나 아직 50% 정도에서 입당은 하려고 하는 계층이 존재한다. 특히 당중앙위원회 간부들의 자식들이나 친척들은 아직 관심이 있다. 그러나 이들도 이전처럼 수령과 당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충성심을 가지고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사명감이 아니라 일단 당원이 되어야 자기 개인

I
II
III
IV
V
VI
VII

의 영달이 올 수 있고 승진도 할 수 있다는 조건적인 적응을 위한 관심 정도로 봐야 한다. 그래서 사실 당위원회 간부들만은 그래도 입당선호도가 <표 II-8>에서 보여주듯이 이전에 비하여 내적이든 형식적이든 50% 수준이라고 평가된다.

이제는 누가 힘이 들게 어렵게 입당을 하려고 하겠어요… 나도 한때는 힘든 일을 해보았다니까요. 그러나 요즘 애들은 절대로 힘든 일을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요. 참 내가 중국에 있었는데, 그때 한 당일꾼이 우리 식당에 한 번 와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했지. 그때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용광로 앞에도 서보고 …나는 70일 동안 모내기도 나가보고 … 필리핀에 황장엽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막 별동대를 무어가지고 암살하러 나가겠다는 전투원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는 그런게 먹히지 않아… 모르지, 그렇게 먹는데 보약인지… 정말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할 때만이라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누가 그때처럼 50kg짜리 돌집도 웃으며 지고 달리는 사람들이 나올까?”고 근심어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입당해서 나에게 무슨 큰 이익이 되냐는 것을 다 계산할 줄 알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당 조직 보고체계 같은 것이나 사회노력지원 및 정치적 자극에도 이제는 별로 관심이 적어지고 있다고 한다. 중앙당 일꾼들도 자기에 돈이 없다면 사실 어디서 담배하나 얻어 피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고위급 간부일수록 모든 회의나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가해야 한다. 그래도 중앙당 공급이 많이 떨어졌지만 식구가 굶지 않을 정도의 배급은 준다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어려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은 지금은 이러한 공간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뱃속을 채우려고 한다.

당 일꾼이라는게 사실 따져 놓고 보면 요즘같은 세상에서 좀

불쌍하지요… 제가 직접 나가 장사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뇌물을 바치라고 밑에 내려먹이기도 그렇지요… 그러니 행사나 회의에 잘 참가하지 않는 공간이 곧 뇌물을 챙기는 공간이란 말이예요… 가령 내가 항상 Seven star라는 외제담배를 피우는 데… 한 번은 우리 과장이 나에게 30곽 정도 부탁하는 것이예요. 그 담배값이면 쌀 50kg 정도 되는 적지 않은 량입니다. 그런데 그 과장은 담배를 피우고 싶어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장마당에 팔아서 생활에 좀 보태려고 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주긴 했지만 이후부터는 회의나 행사에 조금 빠져도 눈을 감아주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주었더니 아예 이후부터는 술 한잔 하는 자리에서 아예 자기가 뒤를 좀 봐 줄테니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더군요… 그래도 나도 서로 이속을 챙길 수 있으니 서로 상부상조했죠…

이러한 상황은 이제는 중앙당 상부조직이든 하부조직이든, 본부당위원회든 크게 차이가 없이 모든 사업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은 비슷하지만, 내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특히 방침관철 같은 모든 사업이 김정일에게 잘 보여서 칭찬 한 번 듣고 한 자리 승진하려는 아침이나 부패현상은 이제는 그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나타나는 현상이다.

언제인가 재작년인가… 하여튼 희천발전소 지원사업 때문에 희천발전소 지원에 필요한 식사를 한 번 조직하였던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회사의 한 친구가 (귀국자 출신인데… 지금은 돈만 있으면 중앙당 직속 외화벌이 회사에도 들어올 수 있어요…) 개인 돈으로 \$500를 내서 근로단체부가 할 1500인 식사 분량을 전부 맡은 적이 있는데… 후에 알고 보니 이것은 근로단체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위에 보고가 되는 정도이구요… 일보지도원이 말하길 아예 \$2,500어치의 량으로 보고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는 막가판이예요. 그러니 누가 이런 좋은 일을 할거예요… 참…

재정상황이나 당비납부 같은 것도 <표 II-8>에서 보여주듯이 그나마 일정하게 제일 잘 진행되는 사업인 것이다. 왜냐하면 당비납부야말로 3개월 치를 내지 않으면 자동출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며 내야 되는 당비 값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작이나 방침지시같은 것이 제대로 침투될리 만무하고 또 중요하게는 이런 지시가 내려가도 어떻게 해결할 방도가 없는 것이다. 때문에 형식적으로 75% 정도 노력은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러한 사업 때문에 일을 하라고 하면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할 수 없어 따라 해야 하는 핵심 간부들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실례로 청년동맹이 이번에 희천발전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지원과 후방지원을 해야 한다면 모든 하부조직들에게 돈을 얼마씩 내라고 강요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지시들은 이전에는 그래도 듣는 척이라도 했지만 지금은 이들에게 조직적 문제를 볼 만한 무슨 대책이 없기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게 된다. 그러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당위원회 일꾼들은 영향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본부당 소속 전문부서 당 조직 운영 실태

현재 본부당 소속 전문부서들의 당 조직들은 운영은 나름대로 이전과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정도로 진행된다. 그러나 당의 경제정책과 김정일의 현지지시를 제대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한다. 체육성이나 보건성 담당과들은 더욱 한심하다. 이들 중 많은 책임지도원들이나 담당지도원들은 지금도 한 달 중 20일은 현장에서 고심분투하고 있지만 이들이 얻을 성과란 자기 가족들을 먹일 필요한 양의 뇌물도 받기 힘들 정도이다. 병원은 병원마다 위에서 공급되는 약품이나 의료기구 같은 것은 이제는 생각도 못하고

모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모든 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정책적 지도이다. 그런데 이들이 자체의 힘으로 맡은 임무를 수행하려면 북한 내부 어떠한 생산 단위와도 협력하여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다 아는 조건에서 하부단위 당 조직에 지시를 주고 해결방도를 논의할 대책이 서지 않는다. 유일한 방법은 대외교류를 통해서 하여야 하지만, 잘못 지시하여 후에 이 일들이 잘못 번지면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야기되는 것이다.

● 표 II-9 본부당 소속 근로단체부 초급당위원회의 조직 운영 실태

구분	100%	75%	50%	25%	0%
당위원회 운영 실태		○		△	
각종 당회의 사전 준비 실태		○	△		
간부선발 배치 정형		○			△
하부 조직 실태 매주 보고상황			○		△
근로단체지도정형 작동상황		○		△	
당 책별 및 상여기준				○	△
당 검열부서의 기능 여부		○	△		
당 신소담당과의 기능 여부				○	△
당 재정 및 외화벌이 상황			○		△
조직비서와 책임비서의 관계		○			△
부서별 본위주의 및 파벌형성		○			△
당조직과 보안기관 상하관계		○			△
마약이나 성문화 접근성향		○		△	
선물시혜 정책여부				○	△

※ ○ 조직의 지시에 의한 형식적인 운영상황, △ 조직의 지시에 대한 당원들의 내적 욕구상황

I
II
III
IV
V
VI
VII

사정이 이렇다보니 누구나 자기 몸을 돌보느라 몸을 사리게 됨은 당연지사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보고는 아예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보다는 욕이나 듣지 않을 정도로 대충 거짓말만 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경우 잘 안되어 검열이 내려와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없다. 이제는 위에서 내려오는 물자나 설비 같은 것도 없으니 검열이 내려와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뷰 대상자는 당중앙위원회 전문부서 당 조직들의 운영 실태에 대한 지표에 대하여 <표 II-9> 같이 평가하였다.

당위원회가 열리기야 열리죠... 그런데 100번 해야 그거죠... 무엇이 있어요? 해낼 것이 있어요? 나에게는 사실 아무것도 안보여요. 특히 우리도 매일 총회를 열고 지원사업같은 것도 토의하는 데, 결국 이제는 이전에 준 선물 같은 것을 팔아서라도 돈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 당회의가 되었어요... 당의 강성대국 건설, 이제는 그런 것을 믿을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게 된다고 내한테 쌀 한톨 더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당정책관철 같은 당회의같은 것은 그냥 우리가 참가해서들어야 하는 정도... 그래도 체육성담당과는 좀 낫지요... 보건성은 아예 할 일이 없어졌어요... 의사들이라도 우선 제 밥벌이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깐요... 이들을 가지고 무슨 이전처럼 누구를 위해 '내 살도 떼내주고, 내 피도 바치는 정도'의 천리마 시대의 사람들은 이제는 구석기시대라고 비꼬아요.

각종 당회의 같은 것은 이제는 누가 참가하라고 해도 이전처럼 옷차림을 신경을 쓰면서 참가하던 습관도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조금 잘 입고 가면 '재는 무슨 수로 저렇게 잘 입고 다니느냐?'는 눈초리로 관련 부서 일꾼들의 뒷조사나 받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조금 어렵다는 형편을 표현하도록 입고 다니는 형식을 취한다. 간부선발에서도 이제는 돈이 없고, 수완이 없으면 간부 승진이나 선발에서 일종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다. 실례로 청년동맹담당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사실 청년동맹 산하 각 지역의 청년돌격대 여단 간부들 추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간부 선발에서도 사실 완전히 뇌물이 기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인이 직접 간부가 된 배경도 사실 뇌물이 일정한 정도가 없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간부선발에서도 이제는 돈이 없으면, 또 수완이 없으면 간부 승진이나 선발에서 일종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례로 청년동맹담당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사실 청년동맹 산하 각 지역의 청년돌격대 여단 간부들 추천하는 것이예요. 그러나 이러한 간부 선발에서도 사실 완전히 뇌물이 기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돌격대 산하에는 한 개 여단이 7,000~8,000여 명으로서 사실 70~80년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장되던 시기에 비해 훨씬 떨어지지않 그런 대로 위에서 식량배급이나 생필품이 조금씩 공급되는 유일한 민간단체의 하나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 자체가 사실 간부들에게 일정한 경쟁대상이 될 충분한 여건이 된다 이겁니다. 본인이 직접 간부가 된 배경도 사실 뇌물이 일정한 정도가 없다면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이예요. 이제는 그것을 논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할 정도입니다. 최근에 화폐개혁을 한 후부터는 아예 모든 것이 변하였지요. 다만, 겉으로 그대로 표현하지 않는 것 일 뿐입니다.

하부 당 조직 지도나 근로단체 지도 실태에 대하여 매주 종합적으로 보고하고 특이한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는 조직부 일보지도원과 통보과 지도원들 사이에 서로 담합하는 현상도 발로 되군 한다. 왜냐하면, 밑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하여 서로 다른 보고들이 올라가는 경우 사실 밑에 대한 검열은 두 곳 다 받기 때문이다. 먼지 털어 나오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표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이

I
II
III
IV
V
VI
VII

분야에서 내적으로는 아주 낮은 상태인 25% 이하인 것으로 평가된다.

하부 당 조직 지도나 근로단체 지도 실태에 대하여 매우 종합적으로 보고하고 특이한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는 조직부 일보지도원과 통보과 지도원들 사이에 서로 담합하는 현상도 발로 되군 합니다. 왜냐면 밑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하여 서로 다른 보고들이 올라가는 경우 사실 위에서 그러한 일이 발로된 것에 대하여 밑에 대한 검열은 두 곳 다 받기 때문이다. ‘먼지 털어나오지 않는 곳이 서로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러한 배경에는 바로 각 당위원회 조직부장과 내부 통보과장의 말없는 묵시, 즉 말없는 내부결탁이 없이는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즉, 간부들이 서로 싸고돌기 시작했던 말입니다. 그러니 회의를 하지 않은 것이나, 또 100% 참가하지 않고 서도 다 참가하였다고 한다든지... 등 많은 것들이 이에 속하지요...

위에서부터 이런 상황이니 이에 대하여 검열이 시작으로부터 끝나고 총화하여 책벌을 주는 상여기준이나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갈리 만무한 것이 현실이다. 표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당검열부서의 기능은 비록 나름대로 중간 정도이지만 이 결과 책벌이나 상여기준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뇌물이나 인맥으로 거의 모든 것이 결정되기도 한다. 특히 여맹이나 직맹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단체부 담당과들은 정말 생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권력 자체가 제일 하위 수준이므로 밑에 내려가 검열이라고 해도 그들이 위에다 바치는 ‘뇌물’ 그 자체가 아주 유지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이와 관련되어 밑에서 제기되는 신소처리를 직접 담당하는 당위원회 조직간부 책임지도원자체가 다른 부서들의 같은 급 지도원 중에서도 가련한 수준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신소처리 같은 것은 정말 있으나 없으나 한 현상으로 대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맹이나 직맹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단체부 담당과들은 정말 자기들의 생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권력 자체가 제일 하바닥 수준이므로 밑에 내려가 검열이랍시고 해도 그들이 위 에다 바치는 ‘뇌물’ 그자체가 아주 유치한 수준입니다. 그러니 이와 관련되어 밑에서 제기되는 신소처리를 직접 담당하는 당 위원회 조직간부 책임지도원 자체가 다른 부서들의 같은 급 지도원 중에서도 가련한 수준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신소처리 같은 것은 정말 있으나 없으나 한 현상으로 대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다. 기계공업부나 군사부 같은 쟁쟁한 부서들의 초급당위원회 책임지도원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 부서들을 동정하여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우리에게 양보하는 정도입니다. 정말 가련한 부서이라고 봐야죠...

당 재정이나 외화벌이 수준 자체도 <표 II-9>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50% 수준에 못 미치지만 내심적으로는 거의 밑바닥수준이다. 누구나 사실 한 해에 금 2g정도씩을 바치고,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사무직 직원들은 \$3만 정도씩을 바쳐야 하는데 실제로 이 계획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그런대로 50% 수준으로 진행된다. 내적으로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거의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밑바닥수준이라고 한다. 한 사람이 금 2g이면 시장에서 10~15만 원을 내고 1g씩 산다고 해도 30여만 원이 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월급 정도가 중앙당 일꾼이라해도 5천 원 정도인데 1년 월급을 다 풀아 바쳐도 위에서 하라는 외화벌이 계획을 수행하기 힘들데 그 만한 돈을 장만하기 어려운 정말 공급에 매여서 살고 있는 ‘고지식한 간부’들은 사실 너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은 계획이다. 만일 그것을 제대로 못한다면, 이는 바로 사상투쟁이나 월간 분기 당 총회 대상인 것이다.

I
II
III
IV
V
VI
VII

누구나 사실 한해에 금 2g정도씩을 바쳐야 하고, 해외에 나가있는 모든 사무직 직원들은 \$3만 정도씩을 바쳐야 하는데 실제로 이 계획을 수행하는 사람들 과연 몇 명일까요? 한 사람이 금 2g이면 시장에서 10~15만 원을 내고 1g씩 산다고 해도 30여만 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월급 정도가 중앙당 일꾼이라 해도 5천 원 정도인데 1년 월급을 다 쏟아 바쳐도 위에서 하라는 외화벌이 계획을 수행하기 힘든데 어디서 나서 그만한 돈을 장만할 것인가는 정말 공급에 매여서 살고 있는 고지식한 간부들은 사실 너무 아름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계획이다. 만일 그것을 재대로 못한다면 이는 바로 사상투쟁이나 월간 분기 당 총회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들 그런 자리에 나가 비판을 받기를 좋아합니까? 실제로 이제는 간부도 돈이 없으면 해먹기 힘든 시절이 왔다 그겁니다. 외화벌이 하러 나간 사람도 마참가지입니다. 조금 벌게 되는 눈치만 보아도 여기 저기서 검열이나 실사가 내려옵니다. 그게 밋하는 의미… 다 뇌물을 바라고 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오게 된 것도 결국 이러한 뇌물등살에 미쳐… 그렇게 되었다고 봐야죠… 한도 끝도 없는 것이 뇌물량입니다.

조직부비서와 당위원회 비서 사이 관계나 부서별 본위주의 및 파벌 형성은 한순간 있다가 없어지는 단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를 유도하는 조직지도체계로 이제는 모든 간부들이 서로 당연지사로 여기고 있다. 누구나 한쪽에 서야 하고 또 ‘줄을 잘못 서면 그만큼 대가를 치뤄야 한다는 것쯤은 다 잘 알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간부로 더 승진하려면 비서쪽에 서야 하지만, 큰 말썽이 없이 무난한 조직생활이 필요하거나 현상유지를 택하려면 조직부비서의 줄에 서야하는 것이 살기위한 원리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근로단체부 안에서는 이영수 부장파, 당비서파, 그리고 부비서파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나, 이영수 부장이 다른 당위원회의 행정부서장들의 지위에 비하여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 즉, 이영수 부장이나 최용해 비서, 문경덕 정치국위원, 그리고

선전선동부 지재룡 부부장이 모두 청년동맹 출신이므로 사실 그 파워가 일정한 영향력을 중앙당 내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누구나 한쪽에 서야 하고 또 간부들이라면 ‘줄을 잘 못 서면 그만큼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부로 더 승진하려면 비서쪽에 서야 하지만, 큰 말썽이 없이 무난한 조직생활이 필요하거나 현상유지를 택하려면 조직부비서의 줄에 서야하는 것이 간부로 살기위한 원리를 누구나 잘 터득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근로단체부 안에서는 영수 부장파, 당비서파, 그리고 부비서파가 실제로 존재하기 하나. 리영수 부장이 다른 당위원회의 행정부서장들의 지위에 비하여 차이나 훨씬 높습니다. 즉, 리영수 부장이나 문경덕, 그리고 선전선동부 지재룡부부장이 모두 청년동맹 출신이므로 사실 그 파워가 일정한 영향력을 중앙당 내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당기관이나 보안기관과의 관계는 사실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나 사실 이전에 비하여 형식적으로는 조금 떨어지고 내심으로는 밑바닥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중앙당 내부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사실 안보기관이 아니라 당 내 촘촘한 내부 감시망 조직들인 당위원회 조직부 라인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때문에 마약이나 성문화 같은 나태한 사건들은 사실 그 어느 부서보다도 근로단체부서들 내에 서도 나타나고 있다. 요즘 간부들치고 ‘애인’ 정도 없는 것이 더 이상하다고 한다. 심지어 이제는 따로 살림을 차리는 경우도 많다. 근로단체부 산하에 있는 청년동맹이나 직맹 조직이 관할하는 청년동맹회관, 청춘관, 직총중앙회관이나 다른 여맹중앙회관 내에 있는 기동예술선전대에는 이런 권력층과 같이 손을 잡고 승진하려는 간부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인 것이다. 그러나 마약을 공공연히 손을 대거나 하는 간부들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니 뒤를

I
II
III
IV
V
VI
VII

구체적으로 캐보면 아마 이것에 손을 대지 않은 간부를 찾아보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Ⅲ. 보안기구(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의 당 조직 실태



북한의 부문별 조직 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당·정·군 및 경제·사회부문 기간조직 내의 당 기관 실태를 중심으로

1. 보안기구 조직 개요

가. 국가안전보위부

(1) 설립 및 변천 과정

국가안전보위부는 1947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 보안국으로 출발하였다. 1948년 정권 수립과 함께 내무성으로 이관, 특수정보처에 이어 정치보위국으로 개칭하고, 1951년에 신설된 사회안전성 산하로 흡수되었다. 1952년 10월에 다시 내무성으로 이관되고 1962년 10월에 사회안전성으로 복귀하였다. 1973년까지 사회안전부에 소속되었으나 김정일이 후계자로 내정된 직후인 1973년 5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당시 정무원 소속 하에 있던 사회안전부의 기능 가운데 정치보위에 관한 기능만을 분리하여 독립기관으로 국가정치보위부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국가안전보위부의 설립은 1973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1982년 국가보위부로 개칭하였다가 1993년 지금의 국가안전보위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북한은 국가안전보위부의 창립일을 1945년 11월 19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김일성이 남포에 있던 보안간부훈련소를 처음으로 현지지도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2) 주요 기능 및 권한

국가안전보위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김일성 부자의 세습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사상과 동향을 감시하면서 반체제사범의 색출과 김일성 부자에 대한 비방사건의 수사를 전담하고, 이와 관련된 죄목으로 체포된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수용소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그 밖에 대간첩 업무와 해외정보수집, 해외공작 임무를 수행하며

국경경비, 공항, 항만 등의 출입통제 및 수출입품 검사와 밀수단속, 출입국 관리업무도 맡고 있다. 또한 한국의 대통령 경호실과 유사한 호위총국과 협조하여 김정일을 비롯한 당과 정부의 고위 간부를 경호하는 일도 한다. 또한 김정일의 특명에 의해 당간부나 국가기관에 대한 특별사찰도 수행하며, 각종 남북관계 행사시 정보수집 및 공작을 위해 행사요원으로 참가하기도 한다.

반탐은 국가안전보위부의 핵심 기능이며 반탐처에서 담당한다. 즉, 국내 및 해외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요소와 체제전복요소, 불만세력 등 체제유지와 정권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색출해내는 것이다.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도청과 신고원 활용이다. 한편, 반탐처에서 색출해낸 범죄자에 대한 수사와 예심은 수사처와 예심처에서 담당한다.⁷⁹

또한 군대 내에 설치된 조직은 군대 내의 장비 및 전투준비 감독, 군사기밀 보호, 범죄예방 및 수사처리, 간첩적발과 대간첩작전 참여, 부대원에 대한 정치적 내사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안전보위부는 해외 북한인 감시 및 통일전선 구축 등 각종 정보수집과 공작을 위해 외교관 및 상사원 등의 신분으로 요원들을 외국에 파견하고 있다. 외화별이를 위해 중국 등 해외에서 40여개의 국영식당도 운영하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 부자 독재를 위한 강령인 ‘유일사상체제 확립을 위한 10대원칙’에 근거한 10가지 범법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김정일 체제 보위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안전보위부는 아무런 법적 절차도 밟지 않고 용의자를 구속하고 재판 없이 처단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북한 내에서 도청, 감청, 미행, 체포, 처형에 이르기까지 무제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

79. 김영희, “거미줄처럼 짜여진 체제지킴이(탈북인사대담 87, 2004년 12월), 『통일한국』, p. 83.

있다. 특히 국가안전보위부는 북한의 모든 간부들과 주요 인물, 외국공관, 체류 외국인 및 유학생에 이르기까지를 도청, 촬영, 미행하며 북한 내부에서의 반김정일, 반정권 모의나 조직을 사전에 적발할 수 있는 능력과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단 국가안전보위부에 체포된 사람들은 재판 없이 보위부 내의 지하감방에서 철저한 심문을 받게 되며, 6개월 정도 심문을 받게 되면 거의 반죽음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예심기간 6개월을 거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즉결 처형되는데 때로는 공개총살형도 하지만, 대부분 처형 전에 죽거나 이미 죽은 송장을 처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편, 누구도 보위부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오직 노동당 조직지도부에서만 보위부 사업 내부에 대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검열, 지도할 수 있으며 모든 결론은 김정일에게 보고되고 타인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과거에는 보위지도원의 권력남용행위가 만연하였으나, 김정일은 1980년대 초반부터 국가안전보위부에 간첩, 반혁명에 관련된 일에만 집중하고 일반 범죄사건에는 일체 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3) 지휘체계와 조직

국가안전보위부는 1982년 6월 국가주석 산하 중앙인민위원회 직속이었으나, 1992년 4월 중앙인민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 직속기관으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현재는 김정일의 직접 통제 하에 있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후계자 김정은이 부장에 임명되었다고 알려졌으나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의 중앙기구는 부장 아래 6명의 부부장이 있는데 조직, 선전, 인사, 감시, 후방지원, 보안 등 기능별로 되어 있다.

I
II
III
IV
V
VI
VII

국가안전보위부 본부의 경우 7~8개국(16개국과 4개처라는 주장도 있음)⁸⁰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타 부설연구소와 대남공작부서가 따로 있으며, 각 도(직할시) 안전보위부 및 시(구역), 군 안전보위부와 군대 내에도 보위부를 두고 있다. 하지만, 자세한 사항은 근무했던 사람들도 잘 모를 정도로 기밀이며 명칭과 역할도 자주 바뀐다. 각국의 책임자는 국장이 아닌 부장으로 불리며, 부장 밑에 부부장이 있고 의사담당 정치 부장 밑에 조직비서, 선전비서가 있다. 이들의 계급은 상좌나 대좌이며 부장의 계급이 소좌이고 부부장부터 대좌-상좌이다. 5국은 행사 또는 외화별이, 당 자금 조달에 관여하고 있다. 7국은 정치범 수용소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2국은 국가안전보위부의 핵심조직이며, 실무 전반을 담당한다.⁸¹ 2국 산하에는 반탐, 수사, 통신, 일보, 자료분석실, 기요실, 예심, 초대소, 차향, 피복수리소 등 10여개의 처로 편성되어 있으며 반탐처, 수사처, 통신처가 가장 핵심적인 부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반탐처는 국내 및 해외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요소와 체제전복요소, 불만세력 등 체제유지와 정권에 방해되는 모든 세력을 색출해 내는 것이다. 그리고 수사처와 예심처는 반탐처에서 색출해낸 범죄자에 대한 수사 및 예심을 진행하는 곳이다. 국가안전보위부 내에 당 조직은 의사담당 정치부장 밑에 조직비서, 선전비서가 있다.

그리고 국가안전보위부는 행정체계에 따라 직할시와 도, 시, 군 등 각 지방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리 단위까지 보위부원이 상주하고 있다.

⁸⁰ 조창현, 『북한의 권력구조의 특징에 관한 연구』 (서울: 육군교육사령부, 2000), p. 14; 김화식, “북한 공안기관의 특성과 향후 전망,” 『통일과 법률』, 2010년 5월호, p. 8.

⁸¹ 국가안전보위부 조직에 대해서는 김선호, “국가안전보위부의 실제 (상),” 『자유』, 통권 440호, pp. 46~48.

각 도급 및 시(구역, 군)급 보위부에는 당위원회와 수사처, 반탐처, 예심처, 통신처, 총무과, 후방처, 차량처, 자료분석실, 외사처, 청년사업부 등의 부서들을 가지고 있으며, 각 부서들은 보위부장 및 책임비서의 지시와 국가안전보위부 상급기관의 지도를 받는다.⁸²

한편, 최말단 지방조직으로는 각 지역 주민을 인민반으로 묶어 인민반 몇 개에 담당 보위지도원이 있으며, 농촌의 리까지 담당 보위지도원이 상주하고 있는 등 철저하게 짜여진 주민정보망을 가지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군중감시를 위하여 정보원을 이용하고 있다. 보위부원 한 명은 약 15~30명의 정보원들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보원 고용과 교육은 각급 보위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교육을 시켜 실천에서 정보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보위부는 시외지역에 정보원 교육을 위한 아지트를 운영하고 있다.

그 밖에 다른 기관이나 기업소를 비롯하여 인민무력부 산하 각 중대에 이르기까지 보위부요원을 파견하여 동태를 감시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각 대학에 전임 담당보위원을 배치하고 밀정을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는 핵심권력기관이 일하는 중앙당, 성, 내각 안에도 국가보위부 직속 보위원들이 파견되어 간부들까지 감시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많은 무역회사들을 산하에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이나 러시아, 동남아 등지에서 마약, 위조달러의 유통에도 관여하기도 한다.

북한은 매기 최고인민회의의 1차 회의에서 새로운 국가기관의 개편내용을 발표하고 있으나 국가안전보위부만은 여기서 제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인적구성의 변동도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다만, 국가안전보위부장은 1987년 8월 이진수의 사망 이후 후임을 임명하지 않고 있으

⁸² 김영희, “거미줄처럼 짜여진 체제지킴이(탈북인사대담 87, 2004년 12월),” pp. 81~82.

며, 김정일이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근 후계자 김정은이 국가안전보위부장에 임명되었다는 정보가 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군복을 입고 근무하며 계급체계는 북한군과 같다. 보위부원들은 내부에서 군복을 입고 밖으로 외출할 때는 군복을 벗는다. 내부에서는 거수경례로부터 시작해 군 내무규정을 준수하고 하루 일과를 수행하는데, 이는 간첩을 잡는 기관이 군율이 없다고 보고 취한 김정일의 조치이다. 보위부의 대외 명칭도 ‘조선인민군 ○○부대’로 북한군 대호와 똑같다.

(4) 국가안전보위부원

국가안전보위부는 북한에서 김정일의 체제유지와 정권유지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찰기관으로 출신성분을 비롯하여 까다롭고 복잡한 자격기준을 통하여 인원을 선발한다. 북한은 어떤 회사에 취직하거나 대학에 입학하려면 가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일을 하려면 직계가족은 물론 8촌까지 가족 중에 문제있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본인은 물론 처가의 가족까지도 출신성분이 확실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원을 선발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줄이기 위해 아버지가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일하였던 가족의 경우 자식이 대를 이어 계승해야 할 책임이 따르게 된다.⁸³

국가안전보위부는 5년제 국가안전보위부 정치대학(보위대학)을 설치하여 정규요원을 교육시키고 있다. 보위대학은 정치학, 군사학, 심리학, 인간사회철학, 사회주의 경제학 등을 배운다. 보위부원은 현직 국가안전보위부 일꾼의 가족 및 친척들을 대상으로 중앙보위부원은 보위부

⁸³ 위의 글, p. 82.

당위원회 간부부가, 지방보위부원은 지방보위부 당위원회 간부부가 적격자를 선발하여 국가안전보위부 보위대학에 입학시켜 양성하며, 보위부원은 당원이어야 한다. 또한 사회 각 기관단위에서 주민동향 파악을 위해 정보원으로 활동 중인 요원이나 제대군인출신, 보위부 군부대 종사자 중에서도 일부 선발하여 보위대학에 입학시켜 정식 보위부원으로 양성하기도 한다. 이외 군대나 일반 대학생 중에서 특기자들을 정기 선발하여 1년제 단기 특별반을 만들어 교육하여 배치하기도 한다. 총 요원수는 5만 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성된 보위부원은 중앙의 국가안전보위부 중앙조직을 비롯하여 각 도, 시, 군 단위의 보위부 지부 및 동, 리 단위의 행정기관에 배치 또는 파견되고 있다. 특히 출세지향적인 40세 이하의 젊은 층은 보통 각 도, 시, 군 보위부에 배치되기를 선호하는 반면, 나이가 많은 보위부원들은 농장, 공장, 기업소 등을 관할함으로써 물질적 이득 추구가 쉬운 리, 동 단위에 파견되는 것을 선호한다. 보위부원들은 군인과 같은 수준의 물질적 대우를 받고 있으며 정보활동에 필요한 정보비와 장비를 지원 받는 등 북한에서 상당히 대우가 좋은 직업으로서 선호의 대상이다. 이들은 가족, 친척 등의 입학 및 직장 배치에 있어서도 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며 통행증 없이 보위부 신분증만 있으면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 현재 전체 보위부원들의 약 80%가 가족 및 친인척들로 이루어져 있을 정도이다.

보위부원들도 핵심권력층과 마찬가지로 북한 체제의 유지가 자신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 체제가 붕괴되면 김정일의 녹을 먹던 자신들도 성치 못할 것이라는 공포감을 가지고 있어 이들은 ‘김정일과 한 운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보위부원들에 대한 교양 사업은 일반 주민들과 다르다. 1990년대 소련과 동유럽이 붕괴되던 때

I
II
III
IV
V
VI
VII

에도 간부들 속에서 일고 있던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 차우세스쿠 루마니아대통령의 최후를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내부적으로 돌려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이라크전쟁을 담은 비디오를 북한군 장교들과 같이 보위부원들에게도 상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양보와 투항은 곧 죽음’이라는 의식을 심어주고 있다.⁸⁴

나. 인민보안부

(1) 설립 및 변천 과정

북한은 1945년 10월 노동당을 창당하고 곧 이어 정치보안국을 창설하여 치안을 전담시켰다. 정치보안국은 1948년 북한정권수립과 함께 내무성의 1개국으로 존재하다가 1951년 3월 사회안전성으로 독립되었다. 사회안전성은 1952년 10월 다시 내무성에 흡수되었다가 1962년 10월 다시 분리되었으며, 1972년 사회안전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후 1998년 9월 다시 내각 산하의 사회안전성으로 개칭되었다가 2000년 4월 내각 산하의 인민보안성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2010년 4월에는 인민보안부로 격상되었다. 인민보안성이 인민보안부로 승격된 것은 국방위원회 산하의 인민무력부와 국가안전보위부와 같은 북한의 최고 권력 기관으로 부상했음을 의미한다.

⁸⁴ 백영규, “권력의 시녀 국가안전보위부의 정체(상),” 『북한』, 2007년 10월호, pp. 129~138.

(2) 주요 기능 및 권한⁸⁵

우리나라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북한의 기관으로서 인민무력부, 국가안전보위부와 함께 김정일의 3대 직속기구이다. 인민보안부의 기본임무는 ‘사회의 안전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와 인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수행하는 임무는 ‘사회주의 건설에 방해되는 요소를 적발하여 제거하며, 노동당 독재를 강화하고 전체 주민을 통제하는 일이다.

따라서 인민보안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령인 김정일을 옹호 보위하여 북한 정권을 수호하는 것이다. 인민보안부는 체제와 정권 수호를 위해 반국가, 반혁명행위를 감시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임무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인민보안부는 김정일의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호위사령부와 국가안전보위부를 지원하여 수령 호위사업을 수행한다. 인민보안부는 수령 옹호보위를 위하여 김일성 사상 연구실, 김일성 선물 사적관, 김정일 온실 등을 직접 운영관리하며,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업적을 선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둘째, 인민보안부는 당과 국가의 보안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인민보안부는 국가기관의 기밀문서 보관 관리 및 운반(문서수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인민보안부 경비훈련국에서 도 및 시급 당 청사 등 국가 주요시설물에 대한 경비와 당간부, 내각 간부들의 사택 등 주요 인사들의 호위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전시 주민 및 공장기업소 소개 및 관리업무와 평시에 전시대비 주민대피훈련, 반항공 및 반화확훈련 등을 실시한다. 인민보안부는 북한 중앙은행권 발행 공용화폐를 제작

⁸⁵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제기구 고찰－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03-14, 2003), pp. 23~29을 참조하여 작성.

하는 임무도 수행하며, 공장기업소, 협동농장 등에서 국가경제정책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해외주재 대사관에 보안원을 파견하여 해외주재 북한인을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셋째, 인민보안부는 기본기능인 치안질서 유지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즉, 각종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을 수행하며,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자본주의 성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위부와 합동으로 ‘비사회주의요소’ 적발을 위한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교통질서유지 및 단속, 교통사고 처리, 운전면허, 자동차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넷째, 주민의 사상동향 감시업무를 수행한다. 인민보안부는 북한 주민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주민 성분분류, 주민의 거주이동 통제, 공민증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섯째, 국가 주요 시설물 건설 및 도로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인민보안부는 산하 지방조직을 통해 국가의 주요 시설물을 직접 건설하며 도로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김일성, 김정일의 특각(별장) 등 주요 국가 시설물이나 비밀기지의 건설도 직접 수행한다. 또한 주요 도로를 건설하고 이를 보수하는 등 도로 관리 업무를 비롯하여 강, 하천 관리, 산림보호, 수자원보호 등의 환경 및 국토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여섯째, 인민보안부는 일반 경찰업무 이외에도 소방관리, 지진관리, 지하철 운영관리, 교화사업, 자체 외화벌이 사업, 주소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북한 전역에서 운행되는 여객열차의 안전 및 여행 질서를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북한 전역의 교화소와 노동교양소를 지도 통제 감독하는 등 일반 범죄자들을 수용 관리하는 교화업무도 수행한다.

일부 자료에서는 전시에 노농적위대를 지휘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확실하지 않다. 북한인민내무군의 지휘계통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인민보안부와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1996년 한국에 표류한 북한인민내무군 하사들을 북한에 송환했을 때 이들에 대한 환영식에서 백학립 당시 사회안전상이 참석하였다는 점에서 북한인민내무군이 인민보안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3) 지휘체계와 조직⁸⁶

원래 인민보안부는 형식상 내각의 소속이나 실제로는 인민무력부와 국가안전보위부와 함께 북한 권력의 최고 핵심기관인 당과 국방위원회의 지휘를 받아왔다. 사실상 무력기관이어서 내각과 분리하여 운영해왔고 북한군 대장이 수장을 맡아온 것에서 짐작하듯이 명칭만 다른 내각의 산하기관처럼 성으로 되었었다. 그러다가 2010년에 다른 국방위원회 직속의 권력기관처럼 조직명칭을 ‘부’로 변경한 것이다.

인민보안부의 간부들은 정규군과 동일한 군사칭호(군계급)를 받고 간부 중 일부가 정규군 부대와 순환 근무를 한다. 또한 전시 북한군 총참모부의 직접 통제를 받는 무장조직인 북한인민내무군이 인민보안부 소속으로 되어 있다.

인민보안부의 중앙조직은 인민보안부장, 참모장, 10여 명의 부부장, 30여개 부서로 편성되어 있다. 먼저 당 조직으로 정치국과 보위부가 있으며, 참모부서는 감찰국, 수사국, 작전국, 예심국, 교화국, 호안국, 경비훈련국, 주민등록국, 통신국, 병기국, 재정국, 후방국, 건설국, 자재관리국, 금강관리국, 종합지휘실, 총무국, 경제감찰국 등이 있다. 또한

⁸⁶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제기구 고찰-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pp. 31~51을 참조하여 작성.

I
II
III
IV
V
VI
VII

인민보안부의 독립처로는 외사처, 교육처, 운수처, 군의처, 반항군처, 경리처, 상표인쇄처, 기술감정처, 기술감정처 이외에도 파악되지 않고 있는 7~10여개의 처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직속기관은 독립부서인 철도보안국, 지하철도로관리국, 7총국(공병총국), 8총국(도로총국) 등이 있다. 또한 산하 직할기관은 인민보안부 정치대학, 공병대학, 압록강 체육단, 사격단, 화폐공장, 권총공장, 심사소, 검차대, 자동차수리소, 제1 및 제2병원, 기동순찰대, 답사관리소, 기요연락소, 전자계산기연구소, 지진연구소, 경비대, 간염병원, 기술연구소 등이 있다. 직할 보안부로는 중앙기관보안부, 창광보안부, 제2경제위원회 보안부가 있다. 그리고 기타 선물공장, 출판사, 봉화협주단, 선물관, 군견훈련소, 메아리음향사, 73병기관리소 등이 있다.

인민보안부의 지방조직은 특별시, 직할시 및 도 보안국, 시와 군 및 구역의 보안부, 동, 리의 보안소 등으로 구성되며, 이외에 인민보안부 철도안전국 소속의 각 시도 보안부와 각 시도 사업소 및 관리소가 있다. 인민보안부 산하 보안국은 총 12개인데, 평양직할시, 남포직할시, 개성직할시,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강원도, 자강도, 양강도에 있다.

평양직할시 보안국은 인민보안부 산하 최대규모의 보안국으로서 보안국장(중장), 참모장(소장), 정치부장(소장), 부국장 5명(대좌 편제, 주민등록담당, 후방담당, 교통담당, 행사안전담당), 참모조직으로는 일반감찰처, 경제감찰처, 수사처, 예심처, 호안처, 경비훈련처, 병기처, 후방처, 주민등록처, 외사처, 교통안전처, 종합처, 반항공처, 통신처, 국토관리처, 2부 등이 있고, 직속부서로는 경비대, 기동순찰대, 소방대, 기요연락대, 병원 및 산하 18개 구역 보안서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총 인원은 약 2만 명으로 추정된다.

각도 보안국의 조직편제는 국장(소장-중장), 참모장(대좌), 부국장 3명, 정치부장 등과 함께 참모조직으로 감찰처, 수사처, 예심처, 호안처, 교통처, 통신처, 후방처, 주민등록처, 총무처, 경비훈련처, 반항공처, 2부가 있고, 산하조직으로는 경비대, 기동순찰대, 정치학교, 병원, 심사소, 전파감시소, 군견훈련소, 화학대, 병기관리소, 지진연구소 등이 있다. 통산 각 도 보안국 인원은 2,000~3,000명으로 추정된다.

인민보안부 산하에는 시, 군, 구역에 200여개의 보안부가 있다. 그리고 각 시, 군, 구역에 따라 보안부의 편제가 약간 다른데, 호안과(호안과와 교통과 업무 통합), 작전과(종합과, 반항공과, 경비훈련과의 업무 통합), 경리과 내지 후방과(후방과, 경리과, 총무과 업무 통합)로 편성되어 있다.

보안소는 인민보안부의 최일선 단위조직으로 전국 리, 동, 노동자구단위에 4,000여개 설치되어 있다. 보안소에는 보안소장(소좌-중좌), 세포비서 겸 부소장(대위-소좌), 담당지도원 등 20~30여 명이 근무한다.

(4) 인민보안부 당 조직⁸⁷

북한의 모든 기관과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인민보안부 내의 당 조직의 경우에도 부장, 부부장, 정치국장(당 책임비서) 등 당과 행정, 근로단체 간부들과 당원 대표들로 구성된 집단지도체제로서 당위원회와 당비서 등 전문 당일꾼들로 구성된 상설 당기관으로서의 당위원회, 즉 정치국으로 구분된다.

인민보안부 당위원회가 집단지도기관으로서 주로 전원회의, 총회 등

87. 이성현, “북한 인민보안성 당위원회와 정치국의 조직체계와 역할,” 『북한조사연구』 제6권 2호 (2002년 12월) pp. 34~68을 참조하여 작성.

I
II
III
IV
V
VI
VII

대표자회의 등을 통해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집행을 위한 대책을 토의하고 결정을 채택하는 정책결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정치국은 휴회기간 상시적으로 정책집행을 감독하며 당원들의 당 생활을 장악, 통제하는 실질적인 당기관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른 기관과 달리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등 기관소속 당원수가 수십만 명에 이르는 거대집단의 경우에는 상설 당 조직을 정치국으로 호칭하고 있다. 인민보안부 당위원회 산하에는 각 부서들과 각 시도, 군 및 구역들의 보안서들에 초급당위원회 및 세포 등 하급 당위원회들이 구성되어 있다.

인민보안부 내 당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조직은 정치국이다. 정치국은 인민보안부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지시를 따르며, 인민보안부의 업무감독권과 인사권(간부사업)을 장악하고 있는 인민보안부 내 최고의 핵심권력 부서이다. 정치국은 전 보안원에 대한 당 조직, 사상생활지도 및 감독, 인민보안부 내 직무수행 감시 및 감독, 간부사업(선발, 해임, 승진, 표창 등 인사업무), 인민보안부 산하 보안국, 보안서 및 직속기관의 정치국(부) 사업 지도 및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치국은 인민보안부 본부청사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직편제는 정치국장, 부국장 2명(조직담당, 선전담당)이며, 조직부 안에는 조직 제1부 부장(종합지도과, 신소과, 통보과, 25처), 간부 부부장(간부처, 행정간부처), 당생활담당 부부장(당원등록과), 본부담당부부장(1~3과), 중앙기관담당 부부장(1~2과), 각 시도담당 부부장(1~2과) 등 6명의 부부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선전부에는 선전부국장과 그 밑에 조직부처림담당 부부장이 아니라 과로 조직되어 있다. 선전부에는 종합지도과, 사적과, 행사과, 당 강습과, 예술과, 선동과, 출판과, 강연과, 3대혁명붉은기지도과 등 7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선전부 산하에는 선

물과, 김일성·김정일·김정숙 혁명역사연구소, 창작사, 답사관리소, 협주단, 군악대, 봉화예술극장, 회관, 압록강체육단, 문화기재공급소 등이 있으며, 생산부서로는 선물공장, 인쇄소, 메아리음향사, 출판소, 상표인쇄공장 등이 있다.

인민보안부의 당 조직은 사회주의 경찰의 특성인 정치사업을 수행한다. 정치사업은 인민보안국 정치국에서 총괄하며 지방조직의 정치부에서 담당한다. 정치국(부)에서 수행하는 정치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령옹호보위 및 조선혁명전통(김일성-김정일 업적) 교양, 당정책 선전 및 선동, 공산주의 교양 등이다. 이를 위해 인민보안부 산하 각 단위 별로 매주 월요일 생활총화, 화요일 정치학습, 수요일 강연 및 학습, 목요일 강연회, 토요일 생활총화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민보안부 정치국은 김일성혁명사상연구소, 선물사적관, 미술창작사, 문예창작사, 도서실, 출판물보급소, 김정일화 온실, 사적관리소, 인민보안부 협주단, 기동예술 선전대 등을 직접 운영하며 선전 및 선무활동을 하고 있다.

2. 평안남도 보안기구 당 조직: 인민보안부 평안남도 보안국 당 조직 실태⁸⁸

가. 평안남도 보안국 당 조직 구조와 기능

인민보안부 산하 도 보안국의 당 조직은 정치부로서 정치부장이 책

⁸⁸ 이 부분의 연구는 인민보안부에 근무한 탈북자의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담 대상자 ○○○는 인민보안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노동당원 경력은 약 8년이며 2006년에 탈북하였다. ○○○는 인민보안부(성) 산하의 평안남도 보안국에서 근무하였다.

임자이며 예하에 조직과, 선전과, 간부과가 있으며 각과에는 과장을 비롯하여 약 10명 미만의 과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치부의 임무는 당 조직의 당원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국 내 모든 성원들을 관리한다. 다만, 당원들이 우선적인 관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인민보안부는 남한의 경찰조직이 아니라 정치조직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정치부가 도 보안국 내 모든 성원들을 관리한다는 것이다.

당원들만이 아니라 다 관리를 합니다. 근데 당원들이 우선적인 대상이지요. 당원들이 핵심역량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권력이라는 것이 계급이 올라갈수록 감시가 더 투명하지요. 그러니까 통치자 입장에서는 노동자 농민보다는 간부들이 우선적인 입장입니다. 따라서 당원부터 감시대상이지요. 보안부는 대부분이 당원들입니다. 이것은 여느 조직과 다른 것이 반 정치조직이라는 거지요. 그냥 행정경찰이 아니고 반 정치조직이거든요. 보위부와 보안부라는 정치조직이에요. 개념적으로는 정치군인 집단이지요.

인민보안부와 예하 도보안국 등의 기간조직에는 비상설 집단지도기관으로 당위원회가 설치되어 상급 당의 정책 또는 지시를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또 제기된 의제들을 심의 결정한다. 인민보안부 당위원회는 보안부장, 정치국장, 그리고 각 도(시) 보안국장 등 책임 간부들이 망라되며 정치국장이 책임비서가 된다. 따라서 실질적 당권을 가진 당위원회 위원장은 정치부장이며, 보안국장은 당위원회의 일개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치부장은 당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책임비서라고 부른다. 그리고 정치부장이 당위원회 책임비서가 되는 이유는 당원들의 당 조직 및 사상생활에 대한 장악과 통제, 모든 인사권의 행사, 입당 비준, 당위원회 소집과 정책 토의 결정

등에 관한 실무적 사업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정치국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당위원회 집행위원회는 당위원회의 핵심으로써 인민보안부의 경우 부국장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 보안국의 경우 부부장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 보안국 당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당위원회가 비상설로 설치되어 있는데, 당위원회 위원장은 정치부장이다. 그리고 도 보안국장은 당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따라서 인민보안부와 같이 도 보안국도 정치부장이 실질적인 당권을 장악하고 있다.

한편, 국가안전보위부가 북한내 모든 국가 기간조직에 요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인민보안부에도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이 파견되어 있다. 그러나 도 보안국의 정치부와 국가안전보위부와는 별도의 조직으로서 보위부가 정치부를 지도하는 등의 관계가 없다. 인민보안부에 파견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의 임무는 인민보안부 간부나 직원들에 대해 대열보위 차원(반체제)의 감시를 하는 것이 주 임무이다. 따라서 보위부 요원이 인민보안부의 정치부 업무에 대해 지도하거나 간섭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는 다 같이 보안조직으로서 중앙당과 직접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이 인민보안부 간부들을 직접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에는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이다.

정치부 사람들을 원칙적으로 감시는 하지 않는데 하다가 나오면 보고는 하지요. 즉, 잡히면 보고는 하는데 일부러 하지는 않고 될수록 이면 행정일군들만 보는거지요. 근데 행정일군들과 일이 연계되면 보고는 하지요. 가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보위부 사람들과 얽히는 경우 정치조직들이 아닙니까. 보위부 사람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행정일군이란 말이죠.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이지요. 때문에 자기네 해당보위부조직의 정치부와

I
II
III
IV
V
VI
VII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니까 거기다가 협조를 요청하지요. 보위부 사람들이 정치부사람들을 터치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합니다. 잘못하면 그 사람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데 자신을 컨트롤 하는 자기 조직의 정치부 상급선과 연관이 되어 있던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정치일군은 특수한 신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경찰도 있고 보위부도 있지만 이 두 조직을 감시하는 것이 정치부예요.

인민보안부 내 정치국은 조직부와 선전부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조직부는 당생활지도과, 당원등록과, 검열과, 간부와, 신소처리과, 종합과, 기요과 등이 있다. 도 보안국에는 조직과내에 해당분야 지도원이 담당하고 있다. 우선 당생활지도과(또는 담당 지도원)의 기본 임무는 당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 집행 여부를 감시하는 것인데 매일 저녁에 각 부서에서 당생활지도과(또는 담당 지도원)로 보고하게 된다. 그러나 당생활지도과(또는 담당지도원)는 도 보안국은 물론 예하 시·군 보안서 당원들의 일상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당위원회는 조직이 해야 될 계획을 승인을 하는 곳이라면 거기서 결정된 것을 집행을 해야 하잖아요. 그것의 집행은 지휘관, 즉 중대장이면 중대장 과장이면 과장, 국장 등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집행의 계획을 제대로 집행하냐는 것을 감시하는 기관이 여기 당 생활 지도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매일 일과를 보고를 합니다. 조직부에서 종합을 합니다. 매 과장, 처장을 통해서 보고를 합니다. 즉, 실무자에게 보고를 하고 부장은 총체적인 보고를 받는 것이지요. 예컨대 오늘 오후에 행정부서에서는 무엇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박사들도 정치위원회나 당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몰라요. 그게 뭐냐하면 동향감시입니다. 또 감찰이구요.

당원등록과(또는 담당 지도원)는 입당 및 진출입 관리 등 행정업무를 취급한다.

당원등록과는 그냥 입당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곳이에요. 서류 심사를 하고 행정업무를 서포트하는 것이지요. 또 자기조직에서 입당하는 사람들에게 행정업무를 써포트하는 곳이지요. 예컨대 심사는 어떻게 하고, 뭘 준비하라, 등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서 당원등록과는 힘이 높지가 않아요.

검열과(또는 담당 지도원)은 감찰업무를 담당한다. 즉, 당생활지도과는 일상적인 당생활 등 동향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하며, 검열과는 특정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감찰업무를 수행한다.

검열과는 감찰이지요. 당 생활지도과는 동향이고 검열은 감찰이고요. 검열은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고 당 생활지도는 일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찰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이지요.

간부과(또는 담당 지도원)는 인민보안부 또는 도 보안국 내 인사를 담당한다. 신소처리과(또는 담당 지도원)은 고충처리 또는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신소과는 일반적으로 신문고입니다. 즉, 고충처리이지요. 일반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관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그러지 말고 바로 오라는 것이지요. 애로사항이나 신고할 것이 있으면 계급에 장애받지 말고 와서 해결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신소과는 잘 안되지요. 잘 해결이 안되니까... 왜냐하면 다 자신의 상관들에 대한 신소이니까, 즉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상관들을 다 잡아넣을 수는 없고 그러다보니까 가끔은 거꾸로 당할 수도 있어요. 다 거기서 거기 사람들이니까요.

기요과는 문서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도 보안국 조직부에는 김정일 일가를 담당하는 10호실 관련 부서가 없다.

I
II
III
IV
V
VI
VII

10호실은 특정사안을 다루는 곳이에요. 다 조직절차를 밟아서 보고를 하는 것인데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조직절차를 밟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로열 패밀리에 대한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은 조직절차를 밟지 못하게 되어있어요. 10호실은 다이렉트로 보고를 하는 거지요. 중앙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 조직들에 있어요. 왜냐하면 최대한 전파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으면 여러 사람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은 규정상 다이렉트로 와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지요. 즉, 어디서 들었는지, 어떤 내용인지 등... 로알 패밀리는 김정일의 가계지요. 이에 관련된 내용을 들으면 바로 10호실로 달려가야 돼요. 특별히 별도로 전문 보는 것이지요. 조직부와 10호실은 관련이 없고, 10호실은 자신들의 고유한 업무만 하는 거지요.

인민보안부 당위원회는 비상설 조직이며 정치국 조직부 당위원회의 상설 비서처에 해당된다. 당위원회는 주로 상급당의 지시를 집행하기 위한 방안, 등을 결정하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토의하고 결정을 한다. 실질적으로 정치부가 하는 일을 당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

남쪽에는 그 상설조직이나 비상설조직이나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당위원회는 회의만 하고 없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당위원회 비서처를 정치부라고 해요. 근데 원래 당위원회가 정치부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의미가 없다고 해서 나도 알기까지 상당히 어려웠는데 정확히 따지면 당위원회는 비상설 조직으로 만나는 것이고 거기에 비서처를 구성하는데 그 비서처의 구성원은 정치부구성원으로 구성되는 것이고 그래서 당위원회 비서처가 정치부다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이예요. 당위원회 위원들이 국장도 들어가고 부국장도 들어가고 행정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포함이 됩니다. 직업적인 정치 일꾼들이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믹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위원회를 만드는 거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위원회가 열리고 그래요. 여기로 말하면 이사회 성격이예요. 정치부에서 대충 만들어진 것을 당위원회에 회부를 할 것이고

당위원회에서는 그냥 두드리고 끝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능성도 있고, 이것은 별로 상관없는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의 업무와 관련된 것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무와 관련해서는 실무 책임자들의 힘을 받잖아요. 그런 업무를 직업적인 정치 관료들은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요.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직업적인 실례를 들어서 작전을 세우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니까... 제대로 큰 틀에서 탈선을 하는지 보는 것이예요. 그런 부분은 실무자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이제 검토를 하다가 괜찮을 것 같다 싶으면 최종 입심을 누가 내냐는 거지요. 아이디어나 계획은 실무자들이 낼 수가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당 책임비서가 해야 된다는 거지요. 당책임자들이 이사장입니다.

나. 인민보안부 당 조직문화 변화 분석

(1) 당 조직생활

본 연구는 당 조직 문화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1985년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즉, 1985년 이전의 당 조직생활 수준을 100%라고 한다면, 그 이후 어느 정도 이완되었는가를 평가해 보는 것이다. ○○○은 인민보안부의 당 조직생활의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먼저 김일성, 김정일 등과 관련되는 사진이나 작품인 1호 작품에 대한 관리는 1985년 이전에는 대부분 충성심에서 정성을 들여 관리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1호 작품에 대한 관리가 허술할 경우 조직 간부나 담당자가 처벌을 받기 때문에 관리는 되고 있으나, 과거와 같이 정성을 들여 관리하기 보다는 대충 관리되고 있다.

수목강연회나 토요일학습정리는 1985년 이전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듣고 실천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최근 경제난

I
II
III
IV
V
VI
VII

● 표 III-1 당 조직생활 변화 실태

구분	100%	75%	50%	25%	0%
1호 작품 관리 및 참가정형		○			
수목강연회, 토요정치학습			○		
월간 자체학습 및 정리수준			○		
아침 독보회 수준			○		
충성의 노래모임			○		
생활총화 및 월간총화진위			○		
입당 선호도	○				
당조직 보고체계		○			
사회노력지원 및 정치적 자극		○			
당비 납부 및 재정상황	○				
노작방침지시 침투 조직사업	○				

이 악화되고 사람들이 먹고살기 어려워짐에 따라 강연회 내용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오히려 학습내용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게 되고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조직생활이 인민보안부 내에서 각 개인의 진급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인민보안부 내 직원들은 형식적으로 참석은 한다. 그렇지만 강연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연을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면서 강연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매우 지루한 시간이었다.

월간 자체학습 및 정리는 각 당원들이 1개월간 김일성 및 김정일의 노작 등을 공부하여 발표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학습한 내용들을 정리한 노트들에 대한 검열이 실시된다. 1985년 이전에는 사회주의를 발전시키고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이 높아 열심히 공부하는 편이

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김일성, 김정일의 노작들 자체가 북한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내용이어서 거부감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열심히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인민보안부 내에서는 자체학습을 형식적으로는 하지만, 최근에는 아내나 부하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대필을 시키거나 남의 노트를 베끼기도 한다. 또한 자체학습을 정리한 노트를 검열하는데 이 또한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침 독보회는 매일 출근시 그날의 노동신문(주로 사설)이나 노동당에서 발간한 책자 또는 상부의 정책이나 지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서 한사람이 낭독하고 부서 내 다른 구성원들이 청취하는 것이다. 1985년 이전에는 당원들이 열성적으로 아침 독보회를 실시하였으나 최근에는 거의 형식적이며, 아침 독보회를 하지 않는 날이 더 많다. 다만, 부서의 책임자나 담당 지도원이 매일 아침 독보회를 한 것처럼 일지를 정리하고 있다.

충성의 노래모임은 부서 내 모든 사람이 참여하여 함께 정치적인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서 부서 내 사상, 정치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 또한 1985년 이전에는 거의 빠짐없이 예정된 대로 실시되었으나, 최근에는 거의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실시한 사항을 형식적으로 일지에 정리하여 검열에 대비하는 수준이다.

생활총화 및 월간총화는 자아비판과 동료비판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와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제고하는 동시에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인민보안부 내에서는 생활총화와 월간총화가 서류상으로만 하는 경우가 많고, 서류 정리도 계속 미루다가 일주일 또는 열흘 만에 정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생활총화를 실시한다고 하여도 과거와 같이 체제나 조직을 위한 진지함이 없고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측면이 크며, 동료비판의 경우 동료를

I
II
III
IV
V
VI
VII

비판하기는 하지만, 동료들 도와주는 ‘구원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월간 자체학습, 아침 독보회, 생활 총화 등은 주무 담당 지도원이 계획은 수립하지만, 실시사항은 허위로 작성한다. 즉, 실시한 일시, 장소, 학습 내용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작성된 내용을 대상 부서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검열에 대비한다. 즉, 학습 등을 실시는 안하고 서류로만 작성해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학습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대규모로 하지 않고 참석이 가능한 소수의 인원만 모여 실시한다. 아침 독보회 같은 경우 매일 실시하는 것이 귀찮기 때문에 제목만 적어서 실시한 것처럼 꾸며놓는다.

노동당 입당선호도는 인민보안부에서는 매우 높다. 인민보안부가 군대식 조직이기 때문에 인민보안부 직원들은 진급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진급을 위해서는 당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민보안부 내 비당원들은 당원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인민보안부 내에서는 노동당 입당 선호도는 매우 높다.

당원은 진급과 상관성이 있습니다. 저기 북한은 당원이 아니면 진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진급을 하려면 입당하는 것이 먼저 선임코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로비도 하고 공개적인 조직을 관리하면서 외적인 로비도 하면서 입당을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진급과 상관되기 때문이에요.

당 조직 보고체계는 매일 상급 기관에 일보 형식으로 보고한다. 인민보안부에서의 당 조직 보고체계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실제사항을 보고하기 보다는 형식적으로 꾸며서 보고한다.

농번기 등을 위한 사회노력 지원은 상부의 지시에 마지못해 따르고 있다. 그러나 돈이나 음식으로 대납하면 빠질 수 있으며, 사회지원에 동원되는 다른 구성원들이 돈이나 음식으로 대납하는 사람을 환영하는

편이다. 사회노력지원은 힘든 작업인데, 돈으로 내거나 음식을 제공할 경우 노력지원에 동원된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노력지원을 면제 받는 대신 개고기를 제공하는 경우 동원된 구성원들이 오랜만에 개고기를 포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비 납부 및 재정상황 부분에서는 당비는 월급의 1%이며 인민보안부 내 당원들은 당비를 철저히 납부한다. 당비 납부와 같은 당 생활은 진급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당비를 안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월급의 1%를 초과하여 당비를 납부할 수는 없다. 그리고 당의 재정상황은 인민보안부의 경우 중앙당에서 당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재정상황에는 문제가 없다. 특히 당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회의비 등 행정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존 인민보안부 조직 운영에 들어가는 인건비 등만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민보안부 당 조직의 재정상황에는 문제가 없다.

노작방침지시 침투조직사업은 일종의 정훈교육이다. 인민보안부 내 당원들을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상부의 지시를 교육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학습과 같이 계획과 실시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며 실제로 실시하는 경우는 드물다. 즉, 계획과 실시를 제목과 실시내용을 허위로 서류상에 정리해 놓고 해당 구성원들에게 알려서 검열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2) 당 조직 지도 및 운영 실태

본 연구는 당 조직 문화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1985년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즉, 1985년 이전의 당 조직 지도 및 운영 실태 수준을 100%라고 한다면, 그 이후 어느 정도 이완되었는가를 평가해 보는 것이다.

● 표 III-2 당 조직지도 및 운영 변화 실태

구분	100%	75%	50%	25%	0%
당위원회 운영 실태		○			
각종 당회의 사전 준비 실태		○			
간부선발 배치 정형			○		
하부 조직 실태 매주 보고상황		○			
근로단체지도정형 작동상황			○		
당 책별 및 상여기준			○		
당 검열부서의 기능 여부	○				
당 신소담당과의 기능 여부			○		
당 재정 및 외화벌이 상황	○				
조직비서와 책임비서의 관계	○				
부서별 본위주의 및 파벌형성	○				
당조직과 보안기관 상하관계		○			
마약이나 성문화 접근성향		○			
선물시혜 정책여부			○		

○○○는 인터뷰에서 인민보안부의 당 조직 지도 및 운영 실태의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먼저 당위원회 운영 실태는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과거와 같이 운영되는 것 같다. 인민보안부와 도보안국의 경우 공안기관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비교적 기강이 잘 잡혀져 있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각종 당회의의 사전 준비 실태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에서 행사 준비는 항상 잘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담당자들은 그런 면에서

달인들이다.

간부 선발 및 배치는 크게 두 가지가 결정한다. 먼저 국가적 경제 지원에 성과를 내는 것이다. 둘째는 뇌물이 많이 작용한다. 인민보안부가 인민들을 통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상 주민들로부터 뇌물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하급 부서에서 받은 뇌물이 상납되는 먹이 사슬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뇌물을 많이 받아야 상급자 또는 상급기관에 뇌물을 많이 바칠 수 있으며, 따라서 뇌물을 많이 받는 사람이 뇌물을 많이 바치고 승진하고 또한 좋은 자리에 배치받게 된다.

하부 조직 실태의 매주 보고상황은 제도에 규정된 대로 실시되고 있다. 보고 형식을 갖추는데 주력하며 내용 자체는 대부분 부풀려지고 거짓이 많다.

근로단체지도 정형 작동상황은 인민보안부 내에는 청년동맹 밖에 없으며, 제대로 지도되지 않는 것 같다.

당 책별 및 상여기준은 대부분 뇌물이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모범부대 표창은 부서원들에게 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대장에게만 플러스가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부대장이 표창을 받기 위해 부서원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부서원들은 부대 표창을 받는 것을 오히려 싫어한다. 부서원들은 표창을 주려면 개인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개인 표창은 진급에 유리하다.

당 검열부서는 1년에 한 번 정기검열과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비정기 검열을 실시한다. 당 검열부서의 검열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그 이유는 당검열부서는 열심히 검열해야 뇌물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 신소담당과는 인민보안부 내 직원들의 애로사항, 고충 등을 듣고 해결해주는 부서이다. 과거에는 당 신소담당과는 제대로 작동되었으나,

I
II
III
IV
V
VI
VII

최근에는 사람들이 신소과를 잘 이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상급자에 대한 불만 등을 신소과에 얘기하면 신소과에서 해당 상급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신고자에게 압력을 가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당 재정 및 외화별이 면에서 인민보안부는 과거에는 외화별이를 하지 않았다. 경제난 이후에는 인민보안부도 외화별이를 한다. 매년 각 기관들은 부족한 예산을 매년 계획하여 김정일에게 올린다. 그러나 김정일은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등 특수기관이 정권 보위에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여 준다. 따라서 인민보안부가 재정상황을 걱정하여 외화별이를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조직비서와 책임비서의 관계는 조직비서가 책임비서의 동향을 상부에 보고하는 임무를 갖고 있으나, 정치국(부)의 업무와 관련해서 책임비서의 결재를 받고 지시를 이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도 하다. 따라서 상호 견제의 입장에 있기는 하지만, 책임비서가 상급자이다.

부서별 본위주의와 파벌형성 면에서는 인민보안부 내 파벌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당 조직과 보안기관과의 상하관계 면에서는 인민보안부가 보안기관이기 때문에 인민보안부 내에는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이 상주해 있다. 그러나 인민보안부는 치안을 담당하고 보위부는 방첩이 주 임무이다. 보위부는 인민보안부 담당인 일반 치안사건을 간첩사건으로 몰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종종 마찰이 있기는 하다. 그 외에는 인민보안부와 보위부 사이의 관계를 상하관계로 볼 수 없다.

마약이나 성문화 접근 상향 면에서는 인민보안부의 말단 요원들은 일반 주민들과 접촉하며 마약 등에 관련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나 상급기관에서는 잘 모른다. 그러나 옛날보다는 많아졌다고 생각한다.

선물시혜 정책 여부 면에서는 북한에서 선물이라는 단어는 김정일이

주는 것을 말한다. 보통 기관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것은 기념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과거와 달리 김정일이 주는 선물은 양도 줄었고 질도 많이 떨어진다. 따라서 인민보안부 내 구성원들은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3. 황해남도 보안기구 당 조직: 인민보안부 황해남도 보안국 당 조직 실태⁸⁹

가. 황해남도 보안국 당 조직 구조와 기능

황해남도 보안국장은 소장이며 대령 계급의 부국장 4명이 있다. 각 부국장은 보안, 호안, 주민, 후방 등을 담당한다. 그리고 보안국장 직속에는 예심(조사), 총무 그리고 김정일의 의식주 생활을 위해 조달을 책임지고 있는 8·9호실이 있다.

군대나 보안국이나 시스템은 같아요. 도보안국이라고 하면 인민보안성이나 시스템은 같아요. 행정부분과 당 부분으로 갈라져 있어요. 행정부분이라고 할 때에는 보안서장이 소장이었어요. 그 밑에가 네 명의 부국장이 있어요. 즉, 대령편제이지요. 행정부터 먼저 살펴보면, 보안부국장, 호안부국장, 주민 부국장, 후방부국장 이렇게 네 명이 있어요. 여기에 보안국장 직속이 들어가요. 부국장 지시를 받지 않는 직속인데 예심이라고 해요. 여기로 말하면 조사 같은 거예요. 그리고 총무가 들어가고 또 김정일이의 8·9호, 원래 우리 경제 감찰에서 했었는데 2007년도에 넘겼어요. 즉 김정일이의 식생활, 모자, 옷, 약재, 등을 조달하는, 감시통제 속에서 진행되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여기서 차례로 내려가면 여기서 제 1부국장이 보안부국장이예요. 보안

⁸⁹ 인터뷰 대상자는 황해남도 보안국 경제감찰처 종합부원이며, 계급은 소좌, 당 조직 경력은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약 11년이다.

I
II
III
IV
V
VI
VII

부국장이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다 호신용총을 가지고 다니게 되어 있는데 그 직속이 종합처가 있어요.

황해남도 보안국의 당 조직은 정치부이며 정치부장은 소장으로서 보안국장과 계급이 같으며 책임비서라고 한다.

정치부장, 소장급이지요. 정치부장하고 국장사이에는 반급차이예요. 행정일군이 반급이 높죠. 대소장 편제니까 정치부장이 대령 단 사람도 있어요. 황해남도도 계급이 같다는 거죠. 계급이 낮아도 보안서장 등 행정일군 같은 것을 쥐락펴락하지요. 누가 감히 집권당에 맞서요. 이렇게 보시면 되요. 김일성이 아주 잘 말했었는데 배로 말한다면 행정일군은 추진기, 즉 발동기와 같고 정치일군은 방향타와 같다는 말이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일인독재를 없애기 위한 감시체제로 사용되지요.

황해남도 보안국 정치부는 조직부와 선전부, 간부부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부는 보안국 내 당원 동향과 당원들의 인사를 총괄하며 조직비서가 책임비서이다. 선전부는 김일성 가문의 위대성 선전이 주요 임무이며 선전비서가 책임자이다. 간부부는 황해남도 보안국 내 모든 직원들의 인사를 책임지고 있으며 간부부장이 책임자이다. 조직부와 선전부는 100여 명이 되며 간부부는 50여 명이 된다. 당위원회에서 황해남도 보안국 국장은 부비서가 된다.

책임비서라는 말은 당에서만 쓰는 단어라는 거죠. 책임비서 밑에 조직비서가 있고 선전비서가 있고, 간부부장이 있어요. 조직비서 밑에 조직부가 또 따로 있어요. 정치부장이 있고, 즉 세 갈래로 나뉘면 조직비서, 선전비서, 간부부장으로 되어 있어요.

국가안전보위부에서는 도보안국에 한 명의 요원을 파견하고 있는데, 보안국 내의 반탐, 즉 반체제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국가안전보

위부는 원래 인민보안부 내 조직이었다가 분리 독립하였기 때문에 인민보안부와 국가안전보위부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아니다.

원래 우리 보안국 안에 반탐과 즉, 정치보위부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76년도에 갈라져서 출근할 때 너는 이쪽으로 나는 저쪽으로 너희는 이제부터 보위부야 해서 나갔어요. 다시 말해 보위원들이 우리 보안서 안에 출입을 하게 된 것이 96년 심화조 사건 이후부터 들어가게 되었어요. 심화조 사건이 2000년도에 끝났잖아요. 최문덕 사건, 즉 제가 그 심화조 참가자인데 그 때부터 들어왔어요. 2000년 전에는 인민 보안국에는 보위부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동급이었는데 지금도 사회에 나가면 보위원 보다는 보안원이 권한이 더 높지만 보위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내가 간첩이 아니면 되지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안 걸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보위원들이 보안부의 독단적인 행위에 대해서 너희가 감시를 하라고 즉, 최문덕이도 간첩이니 까 그 안에 간첩이 있을 수도 있다는 명분하에 보위부를 넣어놓고 또 쓸데없는 검찰서 사무처가 감시를 해요. 이거는 법적으로 감시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체포영장을 발급하면 검사와 합의 볼 듯이 말이에요. 웃기는 것은 도당 책임비서가 우리 보안기관의 별 받은 사람들을 떼기는 힘들지만 검사 같은 것은 말 한 마디에 끝나는 거잖아요.

단,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은 보안국 내에 비밀리에 정보원을 임명하여 보안국 직원들의 반체제 활동을 감시한다. 도 보안국 직원들은 국가안전보위부의 정보원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강제로 임명장을 만들어 통보하고, 정보원으로 임명된 보안국 직원은 어쩔 수 없이 정보원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렇게 임명된 정보원들이 적극적으로 보위부를 위해 일하는 것 같지는 않다.

보위부는 중앙당 당 기관들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보원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한 30명 중 하나 정도를

I
II
III
IV
V
VI
VII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시끄럽죠. 정보원들은 서로 자존심 대결이다 보니까 “네가 뭐데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해”하면서 대결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 사람이나 이름을 지명을 하고 그것을 보위부에서 승낙을 받고 내려와서 바로 그 자리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이라면서 이리이러해서 우리 정보원으로 쓰게 되었다고 하면 말 한마디 못하지요.

정보원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우리 보안국에서는 정보원을 안전소조원이라고 하고 보위부는 정보원이라고 하거든요. 사회에 대한 안전소조원을 제가 35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들은 공장기업소 인민반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경제자료라든가 동향자료들, 즉 우리 지배인이 돈을 뜯어 먹은 것 같다, 또는 어떤 사람이 이 나라 확 망하라고 했다는 식의 자료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들여와요. 그 자료를 보고 나쁜놈 같으면 보위부에 넘겨요. 경제범과 일반범은 우리가 처리를 해요. 보위부 역시 잡아보았는데 간첩이 아니라 일반 범이라면 이것을 다시 보안서로 넘기지요.

그 사람들이 보안국 내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보안활동을 합니다. 생활총화라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그 총화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즉 어느 사람은 어디 가서 돼지 잡아먹고, 또 누구는 술을 먹었는데 라는 식의 자료로 업무를 보는 거지요. 그것은 보위부 소관이 아니기는 아는데 정보원들이 하는 것은 일단은 사회의 재산을 약취하거나 불순 언사를 던졌거나 등의 일들을 포함해서 하라는 것이지 딱 간첩, 즉 파괴분자만을 잡아서 처리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누가 그런 것을 합니까.

황해남도 보안국의 당위원회는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당위원회는 도 보안국 내 모든 당원들이 속하게 되며 약 300여 명으로 3개월에 한 번씩 당위원회를 개최한다. 한편, 부문 당위원회는 보안국 내 각 부처별로 구성된 당위원회로서 각 부문당위원회는 약 50여 명으로 구성되며 15일에 한 번씩 당위원회를 개최한다. 마지막으로 세포당위원회는 도 보안국의 최하 단위 당위원회로서 보통 1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주일에 한 번씩 개최된다. 세포 당위원회 중 최고세포

당위원회는 당위원회 집행위원회라고 하기도 하는데, 조직비서, 선전비서, 간부부장을 비롯하여 보안국 행정부처의 부문당 비서 등 10여 명으로 구성되며,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한다. 최고세포당위원회는 보안국 내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지금까지 말 한 것이 본부당위원회예요. 정치부장, 부국장, 행정부비서, 선전부비서, 간부부장 이 사람들이 부자 역할을 하고 여기에 부문 당 비서들이 있어요. 처마다 부문당비서가 있어요. 종합처 부문당비서, 경제감찰처 부문당비서, 감찰처 부문당비서, 수사처 부문당비서, 즉 처장이 있고 부문당비서가 있는 것이지요. 각 행정부처에 있는 것이고, 즉 행정부처가 많으니까 부문당으로 나아가지요. 다시 말해 행정일군이 있고 당 일군이 있는 거지요. 당원들의 동향, 간부들을 총괄하는 곳이 조직부이고 선전부는 김일성의 가문의 위대성을 홍보하기 위한 부서예요. 조직부에 있는 시·군 담당이 따로 또 있어요. 이것은 선전부 시·군당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시·군으로 내려가서 김일성의 연구실이 훼손되지 않았는지 예컨대 먼지가 쌓이지는 않았는지 보는 것이예요.

한편, 황해남도 보안국 정치부 내 조직부의 구조는 조직비서 예하에 내부부부장과 하부부부장이 있으며, 부부장들은 상좌 계급이다. 내부부부장 밑에는 당간부과, 총무과, 종합과가 소속되어 있고, 하부부부장 밑에는 시·군 당생활지도과, 당원등록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 보안국 조직부 내에는 검열과와 10호실 관련 부서는 없다. 먼저 시·군 당생활지도과는 황해남도 보안국 예하 시와 군 단위 보안서의 당원들의 동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황해남도에는 20개 시와 군이 있으며, 25명의 당생활지도과 지도원들이 한달에 20여일 출장을 다니며 시와 군의 보안서에 소속된 당원들의 당 생활을 지도 또는 동향을 감시한다.

당생활지도과는 도 보안국 예하 단위들에 사람을 파견해서 당

I
II
III
IV
V
VI
VII

원들을 감시 하는 기구가 바로 당생활지도과 예요. 즉, 시·군 당생활지도과예요. 한 달에 20일 정도 지방에 내려 보내고 당생활지도과의 인원은 20개 군이니까 정확히 25명 정도가 되는 거지요. 거기에 또 종합부원, 즉 내무를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려가서 사람들이 당 생활은 어떻게 하나, 강연회는 얼마나 참가했냐, 사람들의 동향은 어떻느냐, 또 그 해당일군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살피죠. 조직부는 별의별 일들을 다 해요. 선전부의 일도 침범해서 하기도 해요. 한 군에 나갔다 하면 그 군 보안서 안에 당원만 동향을 감시해서 보는 거지요. 그 군 시민들은 보지는 않아요. 그건 군당, 시·군 담당 지도과가 또 있어요.

당원등록과는 과장과 내부 및 외부 담당의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원등록과는 입당, 출당, 전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즉, 비당원의 입당과 당원의 출당, 그리고 당원들의 전출입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이다.

조직부 내 간부과는 황해남도 보안국의 당원들의 인사를 담당한다. 간부과가 당원들의 인사를 위해서는 신원조회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약 1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안국 예하 시와 군의 보안서에는 간부지도원이 당원들의 인사를 담당하고 있다.

해당 시, 군 보안서에 당일군이라고 하면 정치부장, 정치부부장, 그리고 간부지도원이라고 해서 3명이 있어요. 이 세 명의 당일군에 대한 배치를 해주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 간부과예요. 간부과에 인원은 한 10명 정도 되요. 왜냐하면 인민보안성에 왔다 갔다 해야 하니까, 또 우리는 이중지도를 받거든요. 성 지도와 도당지도를 받아요. 도당지도는 행정 쪽으로 받고, 즉 정치부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도 당 책임비서 등에 대해서 지시를 받는 것이지, 다시 말해 보안원에 대한 폭행이나 인권행위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소를 하거든요. 신소과에 접수가 되면 나가서 처리를 하는 거지요. 당간부과가 왜 10명이냐면 여기에 선전부 간부들과, 간부부 간부들도 배치하고, 중앙당, 당 기관, 신원조회, 등과 연계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기 예하 내에 당 간부들을 관리하는 거니까.

신소처리과는 보안국 내의 당원들에 대해 제기된 외부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이다.

보안원의 폭행이나 인권행위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소를 하거든요. 신소과에 접수가 되면 나가서 처리를 하는 거지요. 당원들이 자신들의 불평불만을 이야기하는 문제 등은 자기 세포에서 즉, 세포비서라든가 부분 당 비서라든가 또는 초급당 비서 등을 통해서 해결을 하지 이런데 까지는 신소를 하지 않아요. 즉, 외부에서 들어오는 당원들의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지 내부에 것은 안해요.

종합과는 통보과라고 하기도 하며 상부의 지시를 접수하고 지시사항에 대한 집행 결과를 상부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예를 들면, 중앙당의 지시 사항 중 범죄 단속을 강화하라는 지시는 도안국 내 행정종합과에서 접수하며, 당원들의 학습을 더욱 강화하라고 하는 중앙당 지시는 조직부 종합과에서 접수하여 해당 부서에 전파하고 해당부서로부터 집행 결과를 통보받아 상부에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종합과라는 것은 중앙당에서 지시가 내려와요. 예컨대 무전이 내려오면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범죄자들에 대한 통제를 잘하라고 하면 행정종합과로 내려갑니다. 당 종합과는 당 기관에서 당원들의 사상 정신 상태에 대한 지시가 내려오면 당 정책과에서 내려와서 받아가요. 중앙당 지시든 김정일이 지시든 당 기관에 대한 지시는 당기관에서 받고 행정기관에 대한 지시는 행정기관에서 받고 그러는 거지요.

총무과는 기요과라고 하기도 하며, 당의 문서를 보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당의 문서 중 대외비 이상의 문건을 보관하고 대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I
II
III
IV
V
VI
VII

기요과는 총무과예요. 정치부 총무과라고 해요. 지금까지 내려와서 보관했던 당 문서들, 즉 김정일이 내부에서 명령하는 내용. 예컨대, 김대중이가 내려왔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식으로 그런 내용의 도서들을 보관하는 것이 여기지요. 비밀문건 등을 보관하는 거지요.

나. 인민보안부 당 조직문화 변화 분석

(1) 당 조직생활

본 연구는 당 조직문화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1985년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즉, 1985년 이전의 당 조직생활 수준을 100%라고 한다면, 그 이후 어느 정도 이완되었는가를 평가해 보는 것이다. ○○○는 인터뷰에서 인민보안부의 당 조직생활의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황해남도 보안국 당원들의 조직생활의 변화정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1호 작품 관리 및 참가 정형은 대체적으로 과거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체제가 불안정해지면 질수록 1호 작품 관리에 더욱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이다.

1호 작품 관리를 과거보다 소홀히 하는 것은 없고 더 장려하지요. 달라진 것은 연구실에 높이 10m정도의 지하를 뚫어요. 폭탄이 떨어지면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를 참대통에 싸서 지하실 밑에 보관한다는 의미에서 2004년도에 생겼어요. 보안서안에 연구실에는 100% 병커를 파놓았어요.

김정숙의 석고상을 관찰하고 검사까지 하고 가져다가 놓았는데 이튿날 보니까 금이 갔어요. 그래서 다 숙청시키고 난리 났었죠. 수리를 하러 평양에 보내졌는데 200kg짜리 석고상을 넣을 수 있는 통을 만들고 기증기를 가져다가 날라서 실으려고 했죠. 근데 일반 화물차에는 덜렁거려서 못 실어서 화물차에 폭신폭신했던 것을 깔아서 평양으로 가져가서 수리를 해가지고 내려오는

● 표 III-3 당 조직생활 변화 실태

구분	100%	75%	50%	25%	0%
1호 작품 관리 및 참가정형	○				
수목강연회, 토요일정치학습				○	
월간 자체학습 및 정리수준			○		
아침 독보회 수준		○			
총성의 노래모임	○				
생활총화 및 월간총화진위			○		
입당 선호도	○				
당조직 보고체계	○				
사회노력지원 및 정치적 자극		○			
당비 납부 및 재정상황	○				
노작방침지시 침투 조직사업	○		○		

데 한 달이 걸렸어요.

그 전보다는 지금 그 관리가 더 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처음에 연구실에 와서 보니까 난방을 하루에 한두 번을 땀어요. 사람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주민들은 추워서 난방에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2002년 후부터는 부서별로 연탄을 넣으라고 해서 몇 톤씩 들어왔어요. 저희가 한 15톤 정도를 가져왔거든요. 한 순간도 불을 때지 않으면 당원의 마음에 흠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을 땀어요.

토요일정치학습 문제는 토요일 8시간 동안 토요일정치학습을 진행한다. 토요일정치학습은 문답식으로 진행되며 매주 거의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 대부분의 당원들이 지겨워서 아프다거나 업무를 핑계로 12명 중 5명 정도만 참석하는 등 과거보다 많이 약화되었다.

- I
- II
- III
- IV
- V
- VI
- VII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하는데 기존에 사람들은 잘 참가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갔다가 오면 고양이 담배라도 주고… 우리 세포가 12명이었는데 12명 중에 5명이 참가하면 잘 참가하는 거지요. 기존에는 12명이 다 참가했거든요. 지금은 40%정도만 참가하는 거지요. 참 이 당위원회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지겹지요. 매주 토요일 8시간 동안 앉아서 아침 생활 총화부터 시작해서 문답식 학습, 김정일 침투, 중앙당 침투, 김일성교시 위대성 강연 등 8시간을 앉아있죠. 매주구요. 수목 강연은 일반 근로자들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나눠서 하는 거지요. 당원들도 다 다르지요. 보안국에서는 토요일날 했어요. 즉, 일을 하지 않지요. 수요일은 수요일 강연회, 금요일은 금요일노동일이 있지요.

월간 자체학습 및 정리수준은 자체학습은 당원들이 매우 지켜워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빠지려고 한다. 단, 검열을 위하여 자체학습 내용을 거짓으로 정하고 정리는 잘 해 놓는다. 예를 들면, 정리는 밤에 아내를 시켜서 정리하기도 한다.

월간 자체 학습은 과제를 줘요. 당 십대원칙을 암송해오라 또는 문답식 경연을 붙여요. 예컨대 1항 일조가 뭐냐는 등의 식으로 되지요. 사람들이 이제는 지켜워서 하지를 않고 그 시기가 오면 아프다고 빠지고 사람들이 슬슬 뒤꽂무니로 빠지고 그러니까 한 50%나 참가하지요. 정리는 저녁에 집에 가서 확 해 놓지요.

아침독보회는 매일 아침 노동신문 사설 등을 정리해서 각 부서별로 아침에 모여서 한 사람이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인데 아직은 그런대로 진행되고 있으나 과거보다 정성이 떨어진다.

독보회는 매일 하는데 사건 때문에 즉, 보안기관 특성상 사건 때문에 나가는데 한 70%정도는 참가한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한 20~30%정도가 변화되었다고 봐야지요. 제가 말씀드리

고 싶은 것은 과거에는 10명 정도 참가했다고 하면 지금은 7명
이나 5명이 참가한다고 보시면 되요.

충성의 노래모임은 일 년에 3~4회 진행되는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
숙의 생일 등에 주로 진행된다. 가장 큰 충성의 노래모임은 12월 24일
로 김정숙의 생일인 동시에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에 취임한 날이다. 한
달 전부터 연습을 하며 당원들은 빠짐없이 참가해야 한다. 불참하면
정치적으로 매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충성의 노래모임은 안 참가할 수가 없어요. 이런 데 참가하지
않으면 죽지요. 출당되요. 일 년에 김 부자 생일, 김정숙의 생일
등 세네번을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매장되기
때문에 그거는 참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즉, 변함이 없지요.
준비는 한 달 전부터지요. 그 중에서 최고명절은 12월 24일이지
요. 김정일의 어머니의 생일이고 김정일이 제일 좋아하는 날이
기도 하기 때문에 그날에 제일 크게 하지요.

생활총화는 세포 단위에서는 1주일에 한 번, 부문당위원회별로는 1
달에 한 번, 당위원회 단위에서는 3달에 한 번 실시한다. 당원들은 가능
하면 생활총화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며 세포비서에게 담배를 뇌물로
주면 참석으로 처리해주곤 한다.

당 생활총화는 세 가지로 봅니다. 세포, 부문당, 당위원회 초급
당총회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날 하는 것은 세포고
서로 비판하는 거지요. 그리고 부문 당은 월간총화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초급 당 분기는 세 달에 한 번씩 합니다. 한 100여
명 모여 놓고 하지요. 근데 사건 때문에 나간다고 하면 참가하
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사건이 있었으면 하지요. 또 아프
다고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생활총화를 참가했는지 어졌는지 다 기록에 남지만 병결로 취급

I

II

III

IV

V

VI

VII

을 하거든요. 아픈데 뭐라고 하겠어요. 생활총화 참석이 진급과 관련이 되는데 2002년 이후에는 당에 대한 충실성보다는 뇌물과 돈에 의한 척도가 충실성을 평가하는 시대가 되는 거지요. 제가 참가를 하지 않아도 세포비서에게 담배나 술을 가져다주면 참가한 것으로 해주고 충실성이 높은 사람으로 취급을 해줘요.

황해남도 보안국 내에서 노동당에 입당을 선호하는 정도는 매우 높다. 도 보안국 내 장교 중에는 당원이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이며, 병사들 중에 당원이 많지 않다. 당원은 진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병사들은 입당을 매우 선호하고 있다.

그 때 어린 나이에, 즉 28살에 소좌를 받고 있었는데 공화국에서는 몇 명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올라가게 된 것이 충실성보다는 제 부친이 영웅이거든요. 제가 원래 농업대학졸업생인데 졸업하고 경제 감찰에 들어가면서 바로 입당하고 들어갔지요. 들어가서 있으면서 중앙당 행정간부부 사람들에게 뇌물을 바쳤어요. 제가 그 때 외화벌이 단속을 나가서 달러를 가져다가 집들에 봉지로 나눠주고 바지락도 몇 개 씩 간부들의 집에 나누어 주었지요. 제 입당보증은 뇌물이에요. 저의 제대명령이 올라가서 제가 한 번 봐주면 안되냐고 하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대되면 조직비서동지도 다칠텐데 하니까 맘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를 저어서 연평도로 들어왔죠. 병사들은 입당 못한 사람들은 과반수인데 별을 단 장교들은 입당을 못했다고 하면 보안국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입당을 하기 전에는 군 보안서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입당을 하고 올라 온 거지요. 입당을 못하면 진급을 못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선호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도 티오가 있어야 하니까 힘들죠.

입당하려면 자기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는 한 2천 달러 정도를 줘야 해요. 외화벌이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토대가 걸려서 한 만 달러는 줘야 입당이 되지요. 근데 다 갖춘 경우에는 한 천 오백 달러면 되요. 우리 보안서 안에서는 자동으로도 입당이 되요. 근데 그 시간을 단축해야 하니까 돈을 쓰는 거지요.

당 조직 보고체계는 통보과에서 담당하며 상부의 지시사항을 접수하여 담당 부서에 전파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담당부서의 집행결과를 받아서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당 조직 보고체계가 마비된다면 정치적으로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과거와 다름없이 당 조직 보고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당 조직보고는 세포비서들이 해요. 시종일관 잘 되어야 해요. 내용면에서 보강되면 보강되지... 의견이 있으면 종합해서 당위 원회에서 풀어주고 그러지요.

사회노력지원은 보안서에서 경작하는 밭이라든가 도내 건설현장에 노력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돈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돈으로 때우고 참석하려고 하지 않는다. 돈 있는 사람들은 노력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멘트, 휘발유, 술, 고기 등을 제공하고 그 대신 노력동원을 면제 받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노력지원은 전당 전국인 총동원하자고 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지요. 즉, 새벽에 나가서 일하고, 보안서 밭에 나가 일하고, 또 보안서 아파트 건설을 해요. 달라진 것은 없는데 2002년 이후에는 자신의 노동력보다는 돈으로 노동을 대신하죠. 예컨대 내가 시멘트나 기름을 줄게 일하러 나오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해요. 이런 것을 더 좋아하지요. 또 술을 주고 고기를 줄게 하지요. 그러니까 힘없이 일만 하는 사람들보다는 저같은 사람들이 더 평가를 받아요. 이제는 뇌물화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지요. 한 50%센트 더 되지요.

당비 납부는 모든 당원들은 월급의 2%를 당비로 내야하며 당비를 석 달 안내면 출당 조치된다. 따라서 모든 당원들은 당비를 반드시 내야 한다. 특히 당원들은 당비를 내기 위해 새 돈을 구해서 내기도 할

I
II
III
IV
V
VI
VII

정도로 정성을 들인다.

당비는 2002년 이후에 월급이 올랐으니까 오르지요. 일반 노동자들은 한 2천 원을 받거든요. 근데 저는 4천 5백 원을 받았거든요. 거기서 2%를 내요. 그러니까 한 100원 정도를 내는 것이지요. 안낼 수는 없지요. 당 규약에 이것을 3달만 안내면 책벌이고 6달만 안내면 출당이예요. 이와 같은 당비는 월급에서 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새 돈으로 골라서 내야해요.

당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충성의 당 자금이라고 해서 명절만 되면 금을 사서 올려요. 저희가 216g을 사서 계속 올렸어요. 김정일이 생일이면 올렸거든요. 이거를 살 돈이 없으니까 우리는 호소를 합니다. 당 충성의 자금 때문에 그러니까 세포에 분담을 주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자신의 돈이라도 바치지요. 그리고 산삼을 캐러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게 기존 보다는 세배로 더 많아졌어요. 가난하면 가난 할수록 세금부담은 세배로 더 많아졌다는 거지요.

김정일은 불고기가 맛있다고 해서요. 우리 보안국에서 그물포를 만들어서 천등오리를 잡으러 간척지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216만 마리를 잡아서 올렸어요. 그게 2000년부터 2005년까지 216만 마리를 채우면 그만둔다고 해서 했어요. 최영수라는 양반이 아침을 하느라고, 즉 2월 16일이라는 것에 맞춰서 하려고 했지요. 이에 김정일은 불고기가 맛있다고 했지 내장은 싫다고 해서 그 내장을 우리가 다 뽑았지요. 근데 말이 216만 마리지 설마 진짜 그 액수를 채웠겠어요?

당 재정은 필요할 때마다 끌어서 쓰면 되는거지 별로 필요하지는 않아요. 또 하나 웃기는 것은 2005년도에 김정일이 황개, 즉 눈이 노랗고 털이 노란 그 개의 보신탕이 맛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없는 사건인데 인민보안성에서 처음으로 평성에 개사육장을 만들었어요.

(2) 당 조직 지도 및 운영 실태

본 연구는 당 조직 문화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1985년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평가

하였다. 즉, 1985년 이전의 당 조직 지도 및 운영 실태 수준을 100%라고 한다면, 그 이후 어느 정도 이완되었는가를 평가해 보는 것이다. ○○○는 인터뷰에서 인민보안부의 당 조직 지도 및 운영 실태의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먼저 당위원회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북한 사회가 뇌물로 움직이는 사회라는 점에서 당위원회를 개최하면 할수록 간부들에게 더 많은 뇌물이 주어지기 때문에 당위원회 개최는 거의 정상적으로 개최되고 운영된다.

● 표 III-4 당 조직지도 및 운영 변화 실태

구분	100%	75%	50%	25%	0%
당위원회 운영 실태	○				
각종 당회의 사전 준비 실태			○		
간부선발 배치 정형					○
하부 조직 실태 매주 보고상황		○			
근로단체지도정형작동상황			○		
당 책벌 및 상여기준				○	
당 검열부서의 기능 여부		○			
당 신소담당과의 기능 여부		○			
당 재정 및 외화벌이 상황	○				
조직비서와 책임비서의 관계	○				
부서별 본위주의 및 파벌형성	○				
당조직과 보안기관 상하관계	○				
마약이나 성문화 접근성향					○
선물시혜 정책여부	○				

I
II
III
IV
V
VI
VII

그 사람들은 만 가동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뇌물이 차려지니까 안 할 수가 없지요. 한 명이라도 잡고 늘어져야 더 많은 뇌물을 얻지요.

각종 당회의의 사전 준비 실태는 형식상으로는 잘되어 있다. 그런데 각종 당회의에는 당원들의 60%는 참석하지 않으며 40%만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정도이다. 단, 서류상으로는 대부분이 참석한 것으로 꾸며 놓는다.

당 회의는요. 형식상으로는 잘 되요. 왜냐하면 인원이 60%가 빠지는데 당 규약 상으로 볼 때 한 40%가 참석하면 당 회의를 한다고 해요. 즉, 형식상에는 진행을 한다는 거지요. 이것이 이 전보다는 못하지요.

간부 선발 배치 정형은 과거에는 당에 대한 충성심과 희생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최근에는 거의 뇌물에 의해 승진, 배치 등이 결정된다. 더 많은 뇌물을 바친 사람이 더 좋은 곳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뇌물이 많고 적음에 대한 뇌물 경쟁이 치열하다.

뇌물에 의한 충성심이 척도의 기준을 정하니까 뭐…… 원래 90년대 고난의 행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충성심을 먼저 보았어요. 근데 지금은 90%센트가 바뀌었죠. 예전에는 공짜라도 충성심을 보고 갔었는데 지금은 경쟁 심리로 뇌물을 더 많이 내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지요.

하부 조직 실태 매주 보고상황에서도 뇌물이 주로 작용한다. 하부조직은 매주 상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보고하지 않고 뇌물로 적당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시·군당생활지도와 부원들이 내려와서 하부 조직 실태를, 즉 정치부장과 서장은 무엇을 하는지를 시간별로 장악을 해서 매일 보고를 해요. 아무래도 내려왔다가 올라 갈 때에는 돼지 몇 마리 쌀 몇 가마니 고기 뭐 이런 것을 가져가니까 눈 감아 주는 것이 있지요. 그러나 반당적인 행위는 용서 못하지요. 용서해주는 사람이 죽어야 해요. 내가 알아도 그 사람이 나한테 천 달러를 가져다 줘도 훗날에 또 다른 곳으로 가서 하나까...

근로단체지도 정형 작동상황은 보안국 내에는 청년동맹이 있는데, 보안국 내 각 청년동맹 세포들을 당원 한사람이 지도하는 권한을 받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당원들의 청년동맹 지도가 잘되지 않고 있다.

당원과 청년동맹은 관계가 있는데 당원은 청년동맹의 불씨이고 불길은 청년동맹원이라고 하잖아요. 청년동맹의 생활을 우리가 지도를 할 수가 있어요. 당원은 근로단체의 모든 조직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이 제도가 잘 되어도 50%정도예요. 과거에는 관습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먹고 살기 힘들니까 그런데 까지 나서려고 하지 않죠. 즉, 생활의 변화가 정치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이지요. 우리가 계속 청년동맹 비서를 앉혀놓고 “너희 생활총화를 진행해”라고 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회의를 주재했지 그럼 너희가 해라”는 식으로 되었지요. 3대 혁명 붉은 기 정치운동은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삼대혁명사상은 그 단위에 대한 충성심이라든가 문화와 같은 운동을 옛날에는 삼대혁명 붉은기 쟁취를 한다고 하면 것발도 주고 상금도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것은 말로만 존재하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지요.

당 책별 및 상여 기준은 뇌물에 의해 거의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상여 기준은 뇌물에 의해 100% 결정된다.

책별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 뇌물행위를 하는 것, 구타를 하는 것, 그러나 심화조 사건이후부터는 절대로 때리지 못합니다. 이

I
II
III
IV
V
VI
VII

제는 뇌물에 의한 용서제도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열 번을 체벌을 줄 것을 두 번밖에 안줘요. 밑에 사람이 잘못해도 위에 사람들이 함부로 처벌을 못합니다. 뇌물을 받았으니까… 근데 뇌물이 없으면 당해야지요. 간부들 집에 명절마다 한 200달러 주는데 정말 입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28살에 그렇게 진급을 한거지요.

당 검열부서가 기능은 하지만, 검열 결과에 대해 돈 있는 사람들은 뇌물로 무마하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은 검열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북한에는 세 가지 검열 부문이 있는데 당 검열, 행정 검열, 법 검열이 있어요. 당 검열은 출당 철칙이 되는 것이고 이것도 무서워 하지만, 행정 검열은 그냥 욕이나 먹는 것이고요. 그러나 법 검열은 무조건 교도소로 가야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로 출당이니까… 그런데 이 법 검열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더 무서워해요. 비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무가내인 것도 있어요. 본인이 입당도 못했고 농장에서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교도소로 넣으라고 하거든요. 그니까 이것을 계층별로 볼 수 있어요. 또 당원들에 대한 검열에서도 사람들이 무서워하거든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검열을 두려워하지 않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당 신소처리과는 일반 주민들의 당원에 대해 제기된 민원을 처리하는 곳이나 과거와 달리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경제적인 이유로 봐주는 경우가 많다.

신소를 했는데 처리가 불투명하다고 하면 그 담당이 책임을 저요. 그니까 변함이 없어요. 신소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많아요. 말하자면 경제적인 요인이 작용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하거든요. 옛날에는 당에서 이것 저것 주는데 왜 법을 어겼어 라고 강하게 처벌을 했다면 요즘은 주는 것도 없으니까 한 70%는 봐 준다는 거지요. 신소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지방 신소는 부패되었지만 김정일에게 직접적으로 올라가는 신소가 있는데 이런 것은 100% 원칙대로 해야 해요. 김정일이 그거 알아보라고 하면 끝이거든요. 신소에는 별의별게 다 있지만 우리 보안서에 보편적인 신소방식은 그렇다는 거지요.

당 재정 및 외화벌이 상황은 황해남도 보안국의 경우 바지락양식 등을 통해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 보안국 내에서는 뇌물 상납이 일상화되어 있어 최말단부터 뇌물을 상납하는 뇌물 사슬이 형성되어 있고, 결국 이러한 뇌물이 당재정으로 사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황해남도 외화벌이는 바지락 양식을 하고 해삼도 하고, 전복, 소라, 주로 해산물이지요. 모래에 대해서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일대가 황해남도 부포 봉우리 사이에 모래 독이 있는데 여기에 바지락양식장과 미역양식장이 있는데 독이 무너져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부포 수산사업소 지배인 염한선이 김정일에게 신소를 올렸어요. 남조선에서 가져가는 것이 나라의 수산자원을 고갈시킨 역적행위이다. 근데 이것을 한국과 연관시켜주는 것이 25국 외화벌이 지배인인데 이 사람이 영웅칭호를 받았어요. 이에 김정일이 염한선이란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이 너희에게서 나오는 미역은 새발에 피야 했거든요. 그래서 염한선이 군에 보내는 미역 몇 만 톤을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니까 김정일이 하는 말이 “못 하는 것이 어디 있어. 자력갱생을 몰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을 다 놀리면서 한 달에 100달러씩 가져오라고 한거예요. 수산사업소 자체가 운영이 안 되고 돈을 받아서 장마당에 가서 사서 대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겉으로 보면 괜찮은 것 같지만 종업원을 세 부담시킨다는 의미에서 걸리게 되어 있어요. 법이라는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죠. 그게 97년도인가 그랬어요.

당 재정은 좋아졌어요. 이게 좋아질수록 주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리는 거지요. 그리고 백두산건설을 하는데 그게 참... 천지에서 2kg 내려오는 계단에 화강석으로 층층계단을 만드는데 우리가 하는 거예요. 원래 그 백두산 삼지연지구를 김정일의 고향이라고 해서 그 일대를 천년만년이 가도 이 도시를 따라올 수 없

I
II
III
IV
V
VI
VII

는 도시로 만들라고 해서 삼지연에서부터 150리 떨어진 백두산
까지 그 주변 도시를 다 허물고 아파트를 짓고 난리예요. 그 공
사를 20년 잡고 해요. 심지어 백두산 천지에서 물까지 내려가는
것이 2kg거든요. 그 구간에 천 삼백 개의 화강석을 등짐으로
날라서 하는 작업을 우리가 했어요. 중국 쪽에서 보이는 그 흰
계단이 우리 인민보안성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98년도부터 했
어요. 그게 대리석이에요. 그 2kg에 천 삼백 개가 들어갔어요.

조직비서와 책임비서의 관계는 보안국 조직상으로는 보안국장이 최
고 책임자이나 당위원회 집행위원회(최고세포위원회)에서는 조직비서
가 책임비서이며 보안국장은 부비서가 된다. 또한 보안국장과 조직비
서가 다 같이 소장 계급이다. 이러한 직제는 보안국장과 조직비서를
상호 감시관계를 형성하게 하여 조직의 동요를 막고 충성을 보장하려
는 것이다.

조직비서는 최고세포비서고 책임비서는 부비서예요.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가지면 독재가 나오고 자기가 하고 싶은 요구를
모두 내리먹이면 안되니까. 조직비서와 책임비서는 서로 감시
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명 쿠테타 막기예요. 이것이 예전보다
더 강화되었으면 되었지 약하지는 않지요.

부서별 분위주의와 파벌형성면에서는 보안국 내 파벌은 없으나, 부
서간의 갈등은 상당하다. 특히 정치부 내에서 조직부와 선전부 간의
갈등은 첨예하다. 조직비서와 선전비서 간에 싸움도 종종 있는 일이다.

정치지도원 라인, 정치부장 패, 조직비서라인, 국장라인 등이죠.
또 인맥으로 되죠. 나는 조직부장에게서 입당을 받았으니까 나
는 조직부장 패지요. 조직부는 하늘이고 선전부는 땅 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지요. 조직부와 선전부비서와 관계가 안
좋아요. 싸우고 때리고 그래요. 그 밑에 있는 당일근들도 같아

요. 서로 깔보면서 싸워요. 또 조직부와 간부부가 사이가 좋아요. 이것이 예전보다 경제난이 심하니까 또 갈등이 심하지요. 북한에서의 급변사태라든가 이런 것은 정치적 영역에서 시작되겠지만 벌써 경제적 영역에서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당 조직과 보안기관과의 상하관계는 보안국과 국가안전보위부의 관계인데 특별한 상하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국가안전보위부에서 황해남도 보안국에 1명의 보위부원을 파견하여 보안국 내 직원들의 사상 및 반체제 동태를 감시하는 것일 뿐이다. 마약이나 성문화 접근성향으로는 먼저 성문화는 아주 문란하며 당 간부들 중에 내연의 여자가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마약은 하지 않는다.

고난에 행군, 즉 경제난에 시달리면서, 즉 90년대 초에는 간부들이 여자 한 번 건드렸다고 하면 처벌을 받았는데 인제는 간부들이 여자들을 다 데리고 있어요. 또 여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김정일이 기쁨조를 좋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처벌을 하지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생활이 너무나도 막 되어 있지요. 일반주민들은 너무 가난하다니까 여자들도 이런 간부들한테 붙어서 살려는 것도 있지요. 마약 같은 것은, 즉 간부들은 하지 않고 불량배들이 하는 거지요. 여자들의 문제는 빠르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보안국 같은 경우도 교환원에게 청소를 해야겠다고 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입당을 해야 하니까 알았다고 하고 막 하지요.

선물시혜 정책은 김정일이 핵심간부에게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한다. 김정일 선물의 대상은 아주 극소수로서 전국적으로 몇 만 명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며 1개 군에 약 5명 정도이다. 황해남도 보안국에는 보안국장과 정치부장의 2명 뿐이다. 선물은 담배 20갑, 대평술, 통조림, 당과류, 보약 등이며 1년에 한 번 1월 1일에 준다.

I
II
III
IV
V
VI
VII

선물은 중앙당 비서국을 대상으로 해서 내려와요. 군이라고 할 때에는 군당책임비서, 조직비서, 선전비서, 인민위원장, 경영위원장, 보안서장, 보위부장밖에 없어요. 특정 근로자든가 공로자들은 아래에서 위에 이 사람은 선물대상입니다라고 올리면 되지요. 저는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는 선물대상이지요. 선물정책은 변함없고 우리 보안국에서는 정치부장과 국장밖에 없어요. 선물은 담배 20갑, 대평술, 달력, 통조림, 당과류, 보약, 그리고 젤리, 초콜렛, 꽃감, 꿀을 비롯해서 외국에서 수입한 것들, 즉 고급들을 골라서 줘요. 선물 대상은 매 군에 5명, 한 개 군이 우리 황해도에서 20개 군이니까 200개 군으로 보면 되요. 그러니까 천명이지요. 천명에다 우리 도 직할시 만해도 한 70명이 받아요. 10명으로 하면 7백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명되지요. 군부에 나가는 것은 연대장까지 주거든요. 군부도 보안국에 주는 것이 한 5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7,000~8,000명되죠. 거기에 공로자, 영웅들까지 다 합치면 한 2만 개정도 되지요. 이것 하나의 가격을 보면 한 \$300달러 정도고요. 이 선물은 설날에 한 번씩 줘요. 설날에는 공통적으로 주고 높은 사람들은 김정일이 생일 때 주는 것은 공로자들한테 꿀 한지함 이라든가 통조림 한지함을 주고 그러지요. 국가에서 재정은 안주고 너희 사무소에서 알아서 줘 라는 것이거든요. 그니까 자기 것으로 자기가 먹는 거지요. 주민들에게 주는 선물공급은 제로로 보면 되요. 인민반에 기름주고 그 돈을 받으러 가요.

IV. 경제 관련 기관의 당 조직 실태



북한의 부문별 조직 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당·정·군 및 경제·사회·부문 기간조직 내의 당 기관 실태를 중심으로

1. 경제부문 당 조직의 특성 및 조직 현황

북한에서 ‘경제부문’은 주로 각 공장·기업소, 탄광, 외화벌이 기업소 등을 지칭한다.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성진제강연합기업소, 청진제강소 등이 대표적인 공장기업소이다. 대표적인 탄광으로는 개천, 덕천, 북창, 경원, 온성, 명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등이다. 그리고 대외무역회사 및 기관도 경제부문에 포함된다. 여기서 당 조직은 모든 경제부문의 지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노동당의 조직상 특징은 지역을 단위로 당 조직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역단위의 조직이 도(직할시) 당위원회와 시·군(구역)에 조직되어 있는 당위원회이다. 여기서 시·군(구역) 당위원회는 중앙과 도(직할시) 당위원회의 지시를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집행기관’이라 한다. 여기서 시·군(구역) 당위원회는 해당지역 각 공장기업소에 조직되어 있는 초급당 위원회 및 직속 세포 등을 지도하기도 한다. 따라서 각 공장기업소 당 조직은 소속된 시·군 당위원회의 지시를 받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한편, 업무 성격이 비슷한 생산업체들로 구성된 연합기업소에 만들어진 당 조직이 있다. 이는 ‘연합당위원회’라고 불린다. 이 위원회는 인사권과 입당권을 행사하는 등 시·군 당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단지 기구와 편제 인원수만 상대적으로 적다. 노동당의 말단 조직에는 초급당위원회와 당세포가 있다. 초급당위원회는 당원 31명 이상의 지역 및 생산단위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고, 지역단위에는 동(읍, 리)당위원회가 있고, 기관 및 생산단위에는 초급당위원회가 있다. 당세포는 당원 5~30명이 있는 단위에 조직되어 있는데, 지역 또는 생산단위의 초급당위원회 산하 혹은 시·군(구역)당위원회 산하에 조직되어

I
II
III
IV
V
VI
VII

있다. 한편, 초급당위원회의 규모가 큰 경우, 예를 들면, 특급기업소나 1급 기업소의 경우 당 생활지도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초급당위원회와 당세포 사이에 분초급당위원회를 조직하기도 한다. 많은 경우 부문 당조직위원회를 조직해 초급당위원회와 말단 당세포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⁹⁰

노동당의 당적 지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문이 기관 기업소 및 협동농장 등 말단 단위의 경제관리 및 경영에 대한 당적 지도이다.

해방직후부터 1950년대 말까지 내각의 경제관련 부서에서 산하의 기관·기업소를 직접 지도하고, 기관·기업소 내에서는 내각관련 부서에서 임명하는 지배인이 경영활동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지배인 유일관리제’를 실시해왔다. 따라서 당의 역할은 거시적인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그 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정치적 지도를 수행하기는 하지만, 경제관리의 직접적인 주체는 아니었다. 그러나 김일성은 1950년대 말 ‘천리마 운동’으로 일컬어지는 노력동원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점차 경제관리에 대한 당의 지도적 역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경제부문에 대한 당의 지도는 1961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4기 2차 전원회의에서 당이 직접 경제관리에 대해 책임을 지는 체계로 개편하도록 결정한 이후 제도적으로 정착하게 된다. 이 회의에서 김일성 주석은 도당위원회에서 관할 지역내 공장·기업소들에 대한 자재보장, 기술지도, 노동행정 및 후방공급 사업에 대한 지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⁹¹

기관·기업소의 당위원회는 대안의 사업체계 요구에 따라 해당 기관

⁹⁰-곽인수, “조선노동당의 당적지도에 관한 연구,” pp. 28~29.

⁹¹-김일성, 『김일성 선집, 제2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p. 167.

기업소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을 부추겨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당 조직과 당원들을 조직 동원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초급당 비서는 당위원회 의장으로서 지배인, 기사장 등으로 구성된 당위원회를 운영하며 지배인, 기사장 등이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원칙적으로 당위원회는 해당 단위의 집체적 지도기관으로서 지배인이나 기사장 등 행정경제일꾼들의 독단을 막고, 집체적 지도를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⁹²

기본적으로 경제부문 당 조직의 주요 사업들은 큰 틀에서 분류하면 사상교양사업, 정치사업, 후방(복지)사업 등으로 요약된다. 이에 따라 북한 당 간부들은 새해 첫날 꼭두새벽부터 각종 행사 참석, 산하 단체 종사자 격려, 신년 공동시설 관철 대책 수립 등 업무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다.

2. 경제부문 당 조직의 개요

이 장에서는 탈북자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주요 경제부문 당 조직의 개요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함경도 경제부문 관리 구역당위원회⁹³

경제부문 당위원회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따라 해당 기관, 공

⁹² 광인수, “조선노동당의 당적지도에 관한 연구,” p. 85.

⁹³ 인터뷰 대상자 인적사항: 인터뷰 대상자 ○○○는 구역당위원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노동당원 경력은 약 15년이며 2010년에 탈북하였다. ○○○는 함경도 ○○○구역당 ○○○과에서 근무하였다. 공장기업소의 당 조직에서도 수년간 근무했다.

I
II
III
IV
V
VI
VII

장기업소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을 발동하여 맡겨진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당 조직과 당원들을 조직 동원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당중앙을 중심으로 그 아래에 도당위원회, 시당위원회가 있다. 군당 위원회에도 구역당위원회가 있고 리당이 있다. 또한 ‘기관당’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다. 리당을 제외한 도당, 시당, 군당이 모두 기관당이다. 기관당은 중앙당(또는 중앙위원회)과 비슷한 부서, 과 등의 기구체계를 모두 갖추고 있다. 간부부, 조직부, 근로단체부 등이 있고 이 부서 안에 과(科)가 있다. 노동당이 집권당이기 때문에 중앙당 기구체계가 바뀌게 되면 도·시·군당의 하부조직의 체계도 바뀌게 된다.

경제부문을 비롯해 모든 부문들이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가 만든 내부사업의 지도체계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당 내부사업 내용은 비밀이기 때문에 각 당위원회 조직부 당생활지도과 외에는 이 지도체계를 다 알 수가 없다. 예를 들면,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한 사상교양과 사상동원 및 김 부자 우상화와 주체사상 선전 등을 담당하고 있는 당위원회 선전부 등에 소속된 당일꾼들도 내부 사업내용은 잘 모른다는 것이다. 이는 여전히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가 노동당에서 핵심 부서라는 점을 재확인시켜준다.

당 조직의 정식명칭과 조직구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기업소의 당 조직에서 조직부는 단연 우위에 자리 잡고 있다. 구역당위원회 조직부의 경우에도 기관당 내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12개의 많은 과를 보유하고 있었다. 조직부는 모든 구성원들의 사회활동을 지도하고 통제하는 기구체계를 갖추고 있다. 조직부 안에서는 사법 검찰도 영향력 아래 들어있다. 간부를 선발, 임명하고 해임하는 간부사업도 조직부에서 하기 때문에 기업소 당 조직 내에서도 가장 막강한 권한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조직부 내의 여러 과 가운데서도 당규약에 제시된 당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당생활지도과가 영향력이 가장 크다.

따라서 이 과에 소속된 책임지도원들은 중앙당의 책임 있는 자리로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구역당에 소속된 책임지도원이 있다면 보통 시당을 거쳐서 도당, 중앙당으로 단계를 밟아 인사조정이 된다. 그러나 구역당에 있더라도 당사자가 조직부 당생활지도과 책임지도원이라면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중앙당에서 뽑아간다. 또한 조직부 당생활지도과는 사법, 검찰, 재판기능까지 행사하고 있다.

조직부는 기관당 내에서 제일 크고, 12개의 제일 많은 과를 가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조직부는 모든 사회 사람들이 사회활동에서 이뤄야 할 걸 움켜쥐고 있는 기구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한은 법치국가기 때문에 맘대로 못하지만, 조직부 안에서는 사법 검찰도 다 모아 쥐고 흔들게 돼 있습니다.

간부사업도 다 조직부에서 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그 누구도 범접을 못하는 부서란 말입니다. 김정일도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 있다가 올라갔습니다. 조직지도부를 통하지 않으면 간부사업도 못한단 말입니다.

구역당 조직부 인원은 32명입니다. 당생활지도과 책임지도원은 감시, 통제 등 모든 걸 거머쥐고 있습니다. 실례로 책임지도원은 간부부장이 나쁘다고 하면 그 사람을 뒷조사해서 칠 수 있는 권한이 있던 말입니다. 암행어사와 같습니다. 조직부에는 과가 많은데 당생활지도과 업무만 놓고 보면 방침집행과 단속을 맡으면서 노동자 반향 등을 장악 통제하여 처벌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선전부는 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당기관 안에는 구류장이 없는데 조직부 당생활지도과에는 검토과라고 구류장이 있습니다. 이 구류장에서는 기관당의 간부부장의 자료까지도 검토할 수 있고 사법, 검찰, 재판까지 다 포함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I

II

III

IV

V

VI

VII

구역당위원회의 조직부 안에는 당생활지도과를 비롯해 간부 5과, 간부 6과, 조직부 3과, 통보과, 간부등록과, 당원등록과 등 12개과가 배치되어 있었다. 5과의 사업은 두 가지인데, 김정일한테 올려 보내는 독신여성(과부대상)과 관리일꾼(미혼여성)을 선발하는 것이다. 독신여성은 35~45살로 특각이나 초대소에서 일하게 된다. 미혼 여성(처녀)은 19~22살로 봉사일꾼으로 뽑아서 화초관리, 미용사, 피아노 닦는 관리원, 애완용품 관리 등을 시킨다. 남한에서 '기쁨조'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기쁨조라는 말이 없고 5과의 봉사일꾼을 가리킨다. 6과는 김정일이 현지시찰 나갈 때 충을 쥐고 서 있는 호위대원, 즉 친위대를 뽑는 사업을 한다. 남자 학생인 경우 중고등학교에 내려가서 키는 깎이고, 인물은 어떠한가를 보고 뽑는다. 호위대원은 해마다 각 도, 시, 구역 군당마당 인원수가 할당된다.

당 조직 내 부서 간에는 서로 비밀을 엄격하게 지키고 서로 경계하도록 되어 있다. 기관당 내에서 특히 당생활지도과는 방음이 잘되는 스위스산 전화기를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 특히 5과, 6과 사업은 '비밀 중의 비밀'로 간주된다. 5과, 6과는 중앙당 조직지도부 65과와 연결돼 있다고 한다.

간부부는 조직부 안의 간부과와는 별도로 존재한다. 조직부의 간부과는 초급당비서, 세포비서를 비롯해 기관당에 있는 모든 당일꾼에 대한 간부사업을 관장한다. 반면 간부부는 행정일꾼에 대한 간부사업을 관장한다. 기관당 내에서는 '간부부'와 '조직부 간부과'를 구분한다. 이러한 내용은 기관당 안에서만 알고, 일반 사람은 당기구 체계 안에 들어가 있는 구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모두 같은 간부과로 알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리고 '간부부'에는 과가 없고 부장, 부부장, 지도원 등 인원이 세 명 밖에 없었다.

선전부에는 선동과, 교양과, 지도과 등 3개과가 있다. 선동과는 말그대로 선동사업을 주로 한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 ‘위대한 장군님만세’ 같은 구호도 써놓고, 영화에 관련한 문헌(김정일 교시)도 홍보하고, 학습도 조직하고, 군중집회 같은 선동사업을 집행한다.

교양과는 매주 노동자학습반, 간부학습반, 연구실을 조직하면서 교양사업을 한다. 동사무소 여맹원을 교양하기도 한다. 지도과는 각 공장기업소 생산단위에 조직부 당생활지도과 책임지도원과 같이 내려가서 자기 선전사업업무를 진행한다. 선전사업 업무란 선전부에 떨어지는 김정일의 지도·방침을 집행한다는 의미다. 각 공장기업소에는 보통 조직부 당생활지도과 책임지도원과 선전부 지도원이 같이 있다.

김정일의 지시·방침이 중앙당에 떨어지면 다시 담당 부서가 나뉘지게 된다. 예를 들어, 김정일이 ‘지금 학생들 속에서 남조선 문화를 따라 배우는데 대한 당사업 검열안’을 친필지시로 내렸다면 ‘학생’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교육부가 집행해야 되고, 만약 ‘각 공장기업소, 동, 리 당생활 조직지도체계’라는 지시가 떨어지면 조직부 쪽에서 맡는 식이다.

김정일이 매주 목요일마다 주는 방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폐적이고 색정적인 불량녹화물이 많이 유포되는 것을 맹아 단계에서 짓밟기 위한 당사업 대책안’이라는 방침이 나오면 각 공장기업소의 당간부, 지배인에게 포치(지도)가 떨어지고 그 건 조직부 당생활지도과의 몫입니다.

유급당일꾼은 당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는데, 기요과는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지시문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관리하는 부서이다. 또 당 조직에는 ‘10호 책임지도원’이라는 제도가 있다. 중앙당에서 도당, 시당에 이르기까지 기관당 내에서 독립된 책임지도원은 39호 책임지도원과 조직부 10호 책임지도원 두 명뿐이다. 중앙당에서 도당, 시당에 이르기

까지 ‘10호 책임지도원’이 한 명 있다. 10호지도원은 국가보위부, 도보위부, 구역보위부의 당생활을 장악 통제하고 다스린다. 보위·안전·검찰을 당에서 지도하는데, 10호지도원은 보위부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10호지도원의 또 다른 사업은 김정일·김일성 초상화, 초상휘장 오손·훼손을 막고 파손된 경우 회수하고, 초상휘장을 팔거나 하는 것을 통제한다. 또한 10호지도원은 ‘10호 대상’을 감시하고 미행을 붙인다. 10호 대상이란 정치범 교화소에 가 있는 사람의 가족을 가리킨다. 정치범의 경우 가족들도 대체로 교화소에 가지만, 간혹 나온 사람도 있다. 10호지도원은 한 명이지만 이 사람이 보위부를 담당하기 때문에 보위지도원한테 감시 임무 등을 맡길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경제부문 관리운영에 대한 당적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공장·기업소 지배인을 비롯한 다른 조직과의 협력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일까. 북한에서는 공장·기업소 관리에서 생산활동에 대한 행정기술적 지도 뿐 아니라 당적 정치적 지도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이는 김일성 주석이 1961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2차 전원회의에서 도당위원회에서 관할 지역 내 공장·기업소들에 대한 자재보장, 기술지도, 노동행정 및 후방공급사업에 대한 지도를 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⁹⁴ 이 지시는 1961년 12월 15일 당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로 불리는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로 구체화되었는데, 주목할 대목은 50여년이 지난 현재도 이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모든 경제 관리운영이 ‘대안의 사업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당비서의 절대적인 조언 아래서 합의를 보게 돼 있습니다. 지배인유일관리제, 관리위원장의 유일관리제가 아닌란 말입니

⁹⁴- 김일성, 『김일성 선집, 제28권』, p. 167.

다. 지배인과 당비서가 당위원회의 지도 밑에서 경제 관리운영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당위원회의의 의장은 보통 초급당비서가 맡고, 지배인, 기사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며, 지배인, 기사장 등이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공장앞에 맡겨진 생산계획 수행과 공장의 전반적인 운영사업에 대해 책임지며, 이것을 직접 지도하는 당위원회 지도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대목은 이 제도의 취지는 당위원회가 해당 단위의 집체적 지도기관으로서 지배인이나 기사장 등 행정경제일꾼들의 독단을 막고 집체적 지도를 실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당간부들이 당 조직의 권위를 악용하여 지배인을 제쳐 놓고 생산관리 및 공장관리를 독단적으로 처리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는 점이다. 즉, 원래 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당비서가 앞에 나서지 말고, 행정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으면서 당사업만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비서가 전면에 나서서 지배인을 좌지우지하고 흔들기 때문에 지배인은 허수아비나 같다.

군대에 대대장이 있고 정치지도원이 있는 것처럼 각 공장기업소에는 당비서와 지배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발공장에 유급당비서와 지배인이 있다면, 유급당비서는 구역당에서 장악 통제하고, 지배인은 인민위원회에서 장악 통제합니다. 지배인은 회의를 가도 인민위원회에 가고, 지지도 인민위원회에서 받습니다. 반대로 초급당비서는 당에서 지시를 받고 당에 보고한 단 말입니다. 이처럼 정부를 대표하는 건 인민위원회이고 그 밑에 당이 있는데, 실제로는 당이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사실 당비서와 지배인은 서로 협력해야 경제관리 및 경영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당 규정에도 '3인 일체'라고 해서 지배인, 기사장,

I

II

III

IV

V

VI

VII

당비서가 서로 싸우지 말고 협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협력보다는 갈등, 경쟁 관계가 더 두드러지게 표출되고 있다. 당비서와 지배인간의 긴장과 갈등 관계는 기본적으로 당비서가 자신의 권한과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 하고, 또한 그래야만 생존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당비서와 지배인이 자주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공장단위의 ‘진과쟁탈’이란 말입니다. 누가 더 많은 사람을 자기주위에 끌어당기는가 하는 겁니다. 조선 사람의 병(약점)이 남이 잘되는 것을 못 보는 겁니다. 워낙 당비서와 지배인은 동등한 급이고, 지배인이 경제 관리운영을 다 합니다. 예를 들어 사탕을 생산한다면 지배인이 자재부터 생산까지 책임을 지는데, 지배인이 혼자 인사차림하고 당비서는 앉아서 글만 쓰면 사람들이 따르지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권한을 가지고 싶어지니까 당권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려는 겁니다.

나. 황해도 외화별이 기업소 담당 〇〇〇 당위원회⁹⁵

본 사례 연구에서는 원래 약제 및 식료품을 생산하는 기업소였으나, 나중에 외화별이 사업소로 전환한 기업소의 지배인을 통해 경제부문 당 조직의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기관 규모에 따라 다른데 당원 100명 이상일 경우 한 명이 유급이고, 당원이 200명 이상일 경우는 부비서, 지도원, 지배인까지 유급입니다. 유급 당일꾼은 우리 기업소에서 돈은 주지만, 우리 계좌에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당에서 당원들 당자금으로 주는

⁹⁵ 인터뷰 대상자 인적사항: 인터뷰 대상자 〇〇〇는 황해도 〇〇〇위원회 산하 기업소에서 지배인으로서 10여년 근무했다. 노동당원 경력은 40년에 이르며, 2009년에 탈북하였다.

것인데, 도급은 도당, 시급은 시당에서 기업소 구조로 로임을 넣어줍니다. 유급당일꾼은 다른 일을 하지 않는 전문 당일꾼인데, 지방에서 당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는 드뭅니다.

제가 지배인으로 있던 기업소는 도 ○○위원회 산하기업소로 공식 명칭은 ○○○회사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에 판매소를 가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도○○위원회 ○○○사업소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기업소는 노동자만 당원이 아니지 사무기관은 모두 당원이었습니다. 당원이 700명이고 도○○위원회 초급당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유급당일꾼만 12명이 있었습니다. 초급당위원회에서 기업소가 큰 곳은 부문당, 그 다음에 직속세포, 초급당으로 갈라지는데 초급당, 부문당, 직접 세포까지 포함하면 당원이 몇천 명은 됩니다.

당 조직 구조는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다른 공장기업소의 그것과 거의 같다.

당비서가 제일 높은데, 당비서는 도당책임비서보다 낮지만 급수는 같습니다. 당비서 밑에 조직비서, 선전비서가 있고 간부과는 따로 있습니다. 간부과는 책임지도원, 지도원이 있고 조직부에도 책임지도원, 지도원이 있습니다. 선전부에도 책임지도원, 지도원 있으며 보위부는 별도입니다. 도○○위원회 조직부 인원은 5명, 선전부는 2명, 간부과는 2명이 있었습니다.

조직부는 당 조직생활을 전반적으로 다룬다. 신소처리과도 있지만 제 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간부과, 기요과 등의 기능에서 다른 당 조직과 별다른 차이점은 없다.

조직부는 말 그대로 당 조직생활에 대한 걸 총체로 다룹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조직부가 기본입니다. 조직생활은 당 생활에 대한 겁니다. 조직인사는 간부과에서 합니다.

‘도당신소과’라는 게 있지만 계도 가재편이라고, 가서 얘기하면

I
II
III
IV
V
VI
VII

“나라가 곤란한데 뭘 어떻게 해주겠는가”하면서 내가 문제를 제기했다면 도리어 “당신네 사람이 여기 와서 제기하는데 똑바로 통제하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기요과는 유급당일꾼은 당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는데, 기요과는 증명서를 발급해주주고, 지시문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당일꾼과 행정일꾼의 관계는 좋을 때보다 나쁠 때가 더 많다고 한다. 당일꾼은 당을 내세워서 주도권을 쥐려고 하고, 행정일꾼은 돈을 버는 목적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긴장과 충돌이 일어난다. 하지만 북한은 유일사상체계에 따라 당적 지도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당일꾼이 행정에 간섭하지 말라는 건 있는데, 행정일꾼도 당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니까 의가 상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도당 위원회에서 예성강 발전소를 지원하는데 디젤유, 자재 몇 돈을 방조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면 행정일꾼은 그만한 돈을 벌어야 하는 겁니다. 당으로 가는 건 일체 공짜이기 때문에, 그만큼 벌지 못한 경우에는 당에서 계속 사회동원을 하라고 하니까 행정일꾼이 힘들단 말입니다.

제가 있던 ○○회사는 도 인민위원회를 위한 별이기관과 같습니다. 본청사 뒤에 우리 청사가 있는데, 우린 인원이 많으니까 본청사 정문이 아니라 뒤로 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본청사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당비서가 보면 책상에 와서 앉기 전에 벌써 전화가 와서 “최할머니, 본청사 들어왔됐는데 어디 왔됐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당비서한테 갔다 왔다면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이 전화가 오니까 이런 게 정말 속상하단 말입니다.

당 조직이 우위에 있다보니 당일꾼에 대한 차별이 솜방망이와 같다. 심한 경우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무마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북한에서 당일꾼이 좋은 것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행

정일꾼은 경제적으로 잘못하면 교화도 가지만 당일꾼은 살인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처벌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탄군당 책임비서는 사람을 죽이고도 무사했습니다.

당 조직과 지배인 사이의 긴장 관계가 유지되다보니 서로 감시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배인이 경영과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가 없고, 눈치를 보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우리 기업소에서 일하는 처녀들 몇백 명 중에는 보위부·당·행정 스파이가 다 있는데, 누가 스파이인지는 모릅니다. 누가 나를 찾아왔거나 같이 식사를 하거나, 누가 왔는데 뭘 들고 나갔다거나 하는 게 일체 다 보고되니까 일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처녀들 보고 “일에 대한 지도는 내가 하지만, 내 생활에 대한 건 너네가 한다”고 했습니다.

보통 지배인들은 당비서뿐만 아니라, 보위부 간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공을 들이는 경우도 많다. 특히 외화벌이를 하는 기업소의 지배인들은 신변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권력자의 보호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평소에 당 간부나 보위부 간부에게 뇌물을 바치거나, 다른 생활의 편의를 보장해주기도 한다.

외화벌이를 하는 사람을 ‘벌이꾼’이라고 하는데, 벌이꾼 중에서 충실당한 사람들은 대체로 보위부를 쥐고 있지 못해서 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당일꾼들을 쥐고 있어야 위협에 처했을 때 나를 건져준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비서한테 충실한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급담당보위부장을 대상으로도 사업을 좀 했습니다. 그 보위부장이 강반석의 오빠인 강재석 동지의 손녀딸(강영란)의 남편이었습니다.

책임자는 연대책임을 지니까 만약 내가 잘못되면 자기도 좀 위태롭겠으니까 당이나 안전부 등에서 나에게 대한 말이 나오면 미리 말해주는 겁니다. “도당에 가니까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 중

업원 누가 안전부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좀 잘해라”하는 얘기를 해 줬습니다. 내가 탈북한 다음에 그 보위부장이 타격을 받은 것 같지만, 그래도 김정일의 6촌 매부니까 뿌리가 든든합니다. 그리고 벌이꾼들은 보위부, 안전부 승인을 받아야 어디를 다녀도 다닐 수가 있으니까 될 수 있는 한 이 사람들하고 갈등을 안 생기게 노력합니다.

당비서가 행정경제일꾼들의 업무에 불필요하게 참견하는 것은 자신들의 위상이 점차 흔들리고 있다는 불안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한다. 이제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 노동당원이 이전과 달리 매력적인 직업이 아니라는 점도 행정경제일꾼과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입가공을 기본으로 했는데 생산에 제동이 걸릴 때가 많습니다. 중국에서 조선옷이나 칠보옷 같은 걸 안 입으니까 뻘히 우리가 작업한 옷들이 남한으로 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당에서는 막말로 당비서가 행정일꾼보다 더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동을 거는 겁니다.

그전엔 당비서를 더 우대했지만 지금은 입당할 일이 없으니까 당비서 보다는 행정일꾼을 더 우대합니다. 행정일꾼한테 잘 보이면 기름 1kg이라도 얻어먹지만, 당일꾼은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일꾼이 자꾸 행정일꾼한테 깔지락거린단 말입니다. 국내에서 일하는 지배인들도 당에 평점이 잘못 들어가면 검열이 들어오는데, 우린 중국을 다니니까 당비서는 내가 중국 가서 뭘 잘못했나 하는 것만 챙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국 갔다 오면 당비서는 자기부터 만나야 편안해 한단 말입니다.

지배인은 당비서가 약점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인원이 많아서 명절 같은 때는 돼지도 직접 몇 십 마리

를 잡습니다. 처녀 아이들한테는 고기를 1kg씩 주지만 위원장, 보위부, 안전부 당일꾼들에게는 적어도 3kg 이상은 줘야합니다. 이런 걸 조직하느라 바빠서 늦게 찾아가면 초급당비서가 벌써 당위원회에다 벌써 뭐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비서를 찾아가면 “늙은이가 고생도 하지만, 초급당비서한테서 이런 게 제기된다”고 한단 말입니다. 뺨이 꼴리지만 참아야지 할 수 없습니다.

3. 경제부문 당 조직의 당원 생활 실태

가. 함경도 경제부문 관리 구역당위원회

당 조직 당원들의 생활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부문이 사상교양사업이다. 이는 가장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당 조직부와 당 조직의 지도체계는 상대적으로 가장 안정되어있다고 한다. 다른 부문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곳이 많지만, 당 내부 사업만은 예외라는 지적이다. 특히 당원 및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상교양사업, 군중궐기 등의 내부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당조직부는 거미망은 한 사람까지 다 장악하게 돼 있던 말입니다. 모든 게 운영이 안 되지만, 당 내부 사업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일이 중국방문, 러시아 방문을 한다면 조직부에서 행사를 조직하고 군중궐기를 조직합니다. 김정일의 말씀 중에 “오늘 당장 지구가 깨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한이 있어도 당 내부 사업은 배고 죽어야 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 지시문이 있던 말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내일 당장 전쟁이 터져도 당 내부 사업은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당 내부 사업이라는 게 지도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당생활총화, 모시는 사업, 학습 등이 당 내부 사업입니다. 이걸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학습, 학습총화, 문답식 학습경연이 하기 싫어서 비서들한테 담배도 고이고 뇌물을 주면서 좀 빠지게 해달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I
II
III
IV
V
VI
VII

물론 일부 사람들은 사상교양학습에 참여하지 않기도 한다. 문제는 이럴 경우 사상투쟁대상이 되어 비판을 받거나, 심할 경우 철직, 추방을 당하기도 한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당 내부사업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 사람들은 “(사상교양학습장에) 돈도 안 주고 쌀도 안 주는데 뭐 하러 나가느냐”고 하는데 그게 바로 사상교양사업 대상이란 말입니다. 직장에 무단결근하거나 제대로 안 나오고, 그리고 살기 힘들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나”하는 소리를 하게 되는데 주위에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개가 어떻다, 뭐라 했다”고 보고하면 사상투쟁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체적으로 사상투쟁회의라는 것도 조직해서 비판을 하게 합니다. 누구나 살기 힘들니까 비판을 안 하려고 하지만, 당에서 사상투쟁회의를 조직해서 마지막에는 철직, 추방을 보내자고 하기도 합니다. 이 회의에서 “이 사람을 출당 주는데 의견 있는 사람 손드시오”하고 말하지만, 당비서가 손을 안 드는데 누가 감히 손을 듭니까. “의견 없는 사람 손드시오”하면 당비서가 손들고, 그 밑에 사람은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서 당원들은 당적분공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 당원은 당적과제를 무조건 주 한 번씩은 집행해야 한다. 항목별로 당 조직생활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부문 당 조직의 생활 및 조직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1985년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평가하였다(아래 <표 IV-1> 참조). 즉, 1985년 이전의 당 조직생활 및 조직 실태를 100%라고 한다면, 그 이후 어느 정도 이완되었는가를 평가해 보는 것이다. ○○○은 경제부문의 당 조직생활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 표Ⅳ-1 경제부문 당 조직생활 변화 평가

구분	1-100%	2-75%	3-50%	4-25%	5-0%
1호 작품 관리 및 참가 정형	○				
수목 강연회, 토요정치학습		○			
월간 자체학습 및 정리수준		○			
아침 독보회 수준		○			
충성의 노래모임 ⁹⁶		○			
생활 총화 및 월간총화진위 ⁹⁷		○			
입당 선호도 ⁹⁸			○		
당조직 보고체계 ⁹⁹		○			
사회노력지원 및 정치적 자극		○			
당비 납부 및 재정상황		○			
노작방침지시 침투 조직사업	○				

당원의 의무로서 ‘충실성 사업,’ ‘1호 작품 관리’라는 것들도 있는데 이 사업 들은 “100%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매주 수, 목요일에 열리는 강연회와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토요정치학습 등도 정상적으로 열리고

⁹⁶- 4.15, 2.16, 12.24, 1.8 행사 시 동원되는 관점, 평균 1달 전에 이 행사준비를 당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것을 100%로 보고 참가정형 및 태도.

⁹⁷- 생활총화 및 월간총화 내용 빈도 수준과 진위조사, 매 2일 및 주 목요일 생활총화와 월간총화를 열던 a수준을 100%로 보고 특히 비판사업을 진심으로 하는지에 포커스를 맞춰 분석.

⁹⁸- a수준을 입당하여 김정일이나 김일성에게 충실하면서 개인적으로 충성의 노래모임에 대한 관점 및 참가정형 발전하려는 의지가 높았던 것을 100으로 본다면 나머지 돈이나 위의 지시 혹은 암시가 얼마나 작용하는지, 실제로 당 조직규율을 잘 지키는 대중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을 기본으로 입당후보자가 추천되는 지 등에 대하여 분석.

⁹⁹- 세포비서나 입당보증인에게 매일 스스로 찾아가 보고하던 시기 a수준을 100으로 본다면, 그리고 출장을 가서 제대로 보고하는가에 포커스를 맞춰 분석.

I
II
III
IV
V
VI
VII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월간 자체학습 및 정리, 아침독보회, 충성의 노래모임, 생활총화 및 월간총화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다만, 형식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실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질적 수준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처벌 강도의 약화와 무관치 않다.

수목 강연회, 토요일정치학습 그건 정상적입니다. 특히 토요일정치학습은 김일성 김정일이라도 교양실 연구실에서 학습할 때는 찾을 수 없다는 친필지시가 있습니다. 선전부 교양과 같은 데는 그 말씀을 붙여놓습니다. 이걸 뭐냐 하면 조직근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생산은 안 되지만 집체적으로 학습시키는 건 끊으려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학습, 금요일은 간부학습반, 월간 학습, 아침 독보회는 물론이고 ‘충성의 노래모임’도 옛날보다 많이 감소됐지만 하긴 합니다. 옛날에는 충성의 노래모임을 빠지면 사상투쟁 무대에 올리고, 어떨 때는 구류장까지 집어넣었는데 이제 그런 건 없단 말입니다. 이젠 빠지겠으면 빠지고, 말겠으면 마는 것이고 그건 초급당비서 몫입니다.

당조직 보고체계도 철저하게 유지되고 있다. 당비도 모두 납부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과거에는 일반 주민들에게 노동당원이 되는 것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제 입당은 젊은이들의 최대 목표가 아니다. 오히려 당원을 부담으로 느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다.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당비를 내는 것도 부담스럽고, 당원으로서 짊어지는 각종 의무들도 거추장스럽게 인식한다. 그러나 여전히 입당은 출세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권력기관에 근무하려면 입당은 여전히 필수적인 조건이다.

사람들이 5~6년 전부터는 입당하기 싫어합니다. 당원이 되면 시끄럽단 말입니다. 당생활총화에 참석해야 하고, 어디 가자고 해도 마음대로 못가고, 당비 납부를 비롯해서 당적으로 제기되는 게 많으니까 입당하겠다는 사람이 50% 이하입니다. 조선로동당이 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향이 있나하면 당에서 제명되기를 바란단 말입니다. 당 내부 규정에 자동 이탈시키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풍을 만나서 언어장애가 있거나 할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오로 안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나한테 담배 열댓 갑을 가져 와서 제명시켜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 받아먹고 제명시켜 준단 말입니다.

그래도 입당을 하려는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젊은 애들하고 사로청 생활이나 직맹생활을 하면서 총화 하는 게 망신스럽다고 생각하니까, 자식 때문이라도 입당을 하려 합니다. 그리고 당원이 아니면 간부를 못하니까 그쪽으로 발전하고 싶은 사람들은 입당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노작방침지시는 없어지면서 김정일의 친필지시, 친필관철 집행대장 등이 이를 대체하고 있다. 김일성 주석의 생존 시에는 노작, 방침, 정책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책학습장도 없어지고 노작학습장도 없어졌다는 것이다. 어쨌든 침투조직사업은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로작이 없습니다. 정책도 없고 오직 친필지시 관철만 있습니다. 김일성이 있을 때는 로작, 방침, 정책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책학습장도 없어지고 로작학습장도 없어졌습니다. 김일성 때는 말쓰록, 친필지시록, 방침록이 있었지만 김정일은 부실해서 그런 걸 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없어진 겁니다. 지금은 오직 친필지시, 친필관철 집행대장밖에 없습니다. 김정일은 머리가 좋지 못해서 오직 수표만 하는 겁니다.

I

II

III

IV

V

VI

VII

나. 황해도 외화별이 기업소 000 당위원회

본 인터뷰 대상인 000은 1호 작품 관리 및 참가 정형, 수목강연회, 토요일정치학습, 월간자체학습, 당 조직 보고체계 등은 “모두 철저히 운영되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1호 작품 관리 및 참가 정형 같은 경우, 그거 못하면 그 나라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 것이고 그걸 잘못했다가는 정치범에 걸립니다. 1호 작품이라는 게 초상장, 초상휘장입니다. 초상휘장은 길에서도 규찰대가 단속합니다. 그리고 그루빠가 조직 돼서 집에 있는 1호 작품의 먼지 상태도 보고, 액틀이 혈면 다시 하라고 하고, 유리에 티 하나도 들어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건 철저히 합니다.

수요 강연회는 당에서 조직해서 간부들이 하는 거니까 계속 합니다. 토요일학습도 당원근로자 학습이니까, 그걸 안 하면 그 나라 운영이 안 되죠.

월간 자체학습, 당 조직 보고체계, 충성의 노래 모임, 사회노력지원 및 정치적 자극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월간자체학습이 토요일학습이나 같은 겁니다. 토요일마다 하니까 토요일학습이라 하죠. 학습제강이 위에서 내려오는데 순전히 정치학습입니다. 김정일의 사상학습을 하는 겁니다. 한쪽귀로 듣고 한쪽귀로 나가더라도 앉아서 출석을 확인해야지 안 그러면 사상투쟁, 비판대상이 됩니다. 이런 건 경제부부이나 다른 부분이나 다 같습니다.

충성의 노래 모임도 합니다. 이걸 김정숙 어머니 탄생일 같은 때에 조직하는 겁니다. 특히 4.15 때는 전국이 나서서 굉장합니다. 물론 생활총화, 월간총화도 합니다. 당조직 보고체계는 철저히 하고, 사회노력지원도 여전합니다.

입당선호도는 확실히 예전과 다르다.

● 표Ⅳ-2 경제부문 당 조직생활 변화 평가

구분	1-100%	2-75%	3-50%	4-25%	5-0%
1호 작품 관리 및 참가 정형	○				
수목 강연회, 토요정치학습		○			
월간 자체학습 및 정리수준		○			
아침 독보회 수준		○			
총성의 노래모임 ¹⁰⁰		○			
생활 총화 및 월간총화진위 ¹⁰¹		○			
입당 선호도 ¹⁰²			○		
당조직 보고체계 ¹⁰³		○			
사회노력지원 및 정치적 자극	○				
당비 납부 및 재정상황	○				
노작방침지시 침투 조직사업	○				

그러나 입당은 이전에 비해서는 10%도 안 됩니다. 그전에는 20살만 되면 종업원들이 모두 입당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는 당증을 주고 돈을 꺾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제는 “당증 이거 본전 따 뽑았는데 누가 안 살라냐”하는 정도입니다. 당의 위신이 그만큼 떨어졌단 말입니다.

^{100.} 4.15, 2.16, 12.24, 1.8 행사 시 동원되는 관점, 평균 1달 전에 이 행사준비를 당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것을 100%로 보고 참가정형 및 태도.

^{101.} 생활총화 및 월간총화 내용 빈도 수준과 진위조사, 매 2일 및 주 목요일 생활총화와 월간총화를 열던 a수준을 100%로 보고 특히 비판사업을 진심으로 하는지에 포커스를 맞춰 분석.

^{102.} a수준을 입당하여 김정일이나 김일성에게 충실하면서 개인적으로 총성의 노래모임에 대한 관점 및 참가정형 발전하려는 의지가 높았던 것을 100으로 본다면 나머지 돈이나 위의 지시 혹은 암시가 얼마나 작용하는지, 실제로 당 조직규율을 잘 지키는 대중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을 기본으로 입당후보자가 추천되는 지 등에

I
II
III
IV
V
VI
VII

하지만, 일부 계층에게는 당원이 권력을 쥐는 것이고, 이는 금전적 수입을 더 얻을 수 있는 기회와 연결되기 때문에 입당 선호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

입당은 이제는 누가 크게 신경을 안 쓴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대군인이나 부모가 간부인 사람들은 입당을 하려고 합니다. 남한은 돈만 있으면 권력을 쥘 수 있지만, 북한은 권력만 쥐면 돈이 들어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권력을 쥐기 위해서도 입당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당원이면 누구나 당비를 내야 한다.

당비 납부도 철저히 합니다. 당비는 자기 기본노임에 기준해서 내긴 하는데, 노임을 못 받아도 당비는 내야 됩니다.

당 조직의 침투 조직사업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로작방침지시, 침투 조직사업은 학습에도 있고 방침, 침투가 때때로 내려오는 게 철저합니다. 사상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면 그 나라가 무너집니다.

4. 당 조직의 운영 실태

가. 함경도 구역당 경제부문 당위원회

본 연구에서도 경제부문 당 조직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대하여 분석.

¹⁰³ 세포비서나 입당보증인에게 매일 스스로 찾아가 보고하던 시기 a수준을 100으로 본다면, 그리고 출장을 가서 제대로 보고하는가에 포커스를 맞춰 분석.

1985년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평가하였다(아래 <표 IV-3> 참조). 즉, 1985년 이전의 당 조직 운영을 100%라고 한다면, 그 이후 어느 정도 이완되었는가를 평가해 보는 것이다.

함경도 인민위원회 산하 기업소 지배인 ○○○은 경제부문의 당 조직 생활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 표 IV-3 경제부문 당 조직생활 변화 평가

구분	1-100%	2-75%	3-50%	4-25%	5-0%
당위원회 운영 실태	○				
각종 당회의 사전 준비 실태	○				
간부 선발 배치 정형 ¹⁰⁴	○				
하부 조직 실태 매주 보고상황	○				
근로단체지도 정형작동상황 ¹⁰⁵	○				
당 책벌 및 상여기준 ¹⁰⁶			○		
당 검열부서의 기능여부			○		
당 신소담당과의 기능여부			○		
당 재정 및 외화벌이 상황		○			
조직비서와 책임비서와 관계			○		
부서별 본위주의 및 파벌형성			○		
당조직과 보안기관 상하관계	○				
마약이나 성문화 접근성향 ¹⁰⁷			○		
선물시혜 정책여부	○				

I
II
III
IV
V
VI
VII

최근까지 당위원회 운영, 각종 당회의 사전 준비, 간부 선발 등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선로동당 조직부나, 당회의, 기관당 등은 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간부선발, 배치 같은 것도 다 돌아갑니다. 당기관에서 하는 학습, 선발, 간부대상 부류사업, 선전문제 등은 다 됩니다.

하부 조직 실태에 대한 매주보고도 당 조직에서 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면, 근로단체에 대한 지도도 정치 사업으로 간주되고 있다.

북한사회는 여전히 당조직이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까지 조직체계망은 거미줄처럼 늘어져 있어서 한 사람도 못 빠지게 돼 있습니다. 동에 내려가도 동당비서, 동사무장이 있고 인민반장도 있습니다. 일본의 치안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사람도 못 빠지게 하는 겁니다.

당 책벌과 상여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다만 뇌물과 압력이 갈수록 더 작용하고 있는 점이 발견된다. 당검열부서도 제 기능을 하지만, 이제는 금전적 요소가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고 한다. 당기관에서 상을 주는 것은 없지만 검열위원회 검열과에서 지배인, 지도원, 기관당 내 부장들에게 당처벌을 주고 있다. 심지어 검열위원회에서 도당위원회 책임비서까지 처벌을 줄 정도로 검열과는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

104. 물질적 자극을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105. 군대에서는 3대혁명붉은기 중대 및 오중흡7연대쟁취운동, 사회에서는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

106. 뇌물이나 돈이 중요한지, 안면이나 뺨이 더 중요한지 등에 대한 관점.

107. 마약이나 성문화의 간부들의 부패 관련 특이사항, 처벌경위 실패.

뇌물을 받든 안 받든 그건 별개로 작동은 한다는 것이다.

신소처리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김정일 위원장이 최대한 인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면서 “노동자 농민이 신소처리를 무기명으로 해도 된다”고 지침을 내렸다. 각 기관당 안에 신소부와 신소과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신소처리가 뇌물뿐 아니라 각종 인간관계에 좌지우지되는 등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어느 리당비서나 구역당 책임비서의 비행에 대해서 중앙당 신소과에 제기하면 명령이 떨어져 내려와서 신소과에서 처리해 줍니다. 만약 보안원이 날 때렸다고 당기관 신소처리과에 제기하면 신소과에서 검토해서 이게 구역당 책임비서, 조직비서한테 반영돼서 조직부가 당생활지도과에 띄워줍니다. 당생활지도과 책임지도원이 나가면 보안서 지도원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조직비서와 책임비서의 관계는 대체로 갈등관계에 있다. 공장기업소 지배인과 당비서의 관계와 비슷하다. 책임비서는 총책임을 지는 것이고, 조직비서는 책임비서 밑에 있지만 기관당 내의 초급당비서와 같다. 조직비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 총화를 할 때 당생활지도과와 함께 진행한다. 책임비서와 상호비판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책임비서가 형식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지만 실제 조직비서와 책임비서는 대등한 관계이다. 오히려 조직비서가 책임비서를 압도할 때도 많다고 한다. 이는 조직비서가 12개 과를 모두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비서와 책임비서의 관계는 나쁩니다. 그건 지배인과 당비서의 관계로 생각하면 됩니다. 책임비서는 총책임을 지는 것이고, 조직비서는 책임비서 밑에 있지만 기관당 내의 초급당비서와 같습니다. 조직비서는 생활 총화를 할 때 당생활지도과에서

같이 생활총화를 합니다. 책임비서와 호상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직비서와 책임비서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오히려 상급은 책임비서이지만 조직비서가 압도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직비서가 12개 과를 모두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비서가 만약에 일보지도원 한테 “이제부터 책임비서 자료를 묶으라”고 하면 일보지도원은 책임비서 자료를 묶게 돼 있고, 그걸 중앙으로 올려 쏘는 겁니다.

부서별 본위주의 및 파벌형성과 관련해, 경제부문 당 조직 내 파벌이 형성된 사례는 발견된 바 없다고 한다. 조직부가 압도적으로 우월적인 권력을 행사하다보니 다른 어떤 부서는 조직부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한다.

당기관은 군대보다 더 강한 규율을 세울 데 대한 김정일의 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부부는 조직부를 어찌지 못합니다. 기관당 내에서는 조직부가 제일 파왕입니다(쌈니다). 조직부가 제일 크기 때문에 누구도 엇서지(맞서지) 못하고, 교육부·경제부·농업부 등은 맥을 못 춥니다.

공장기업소에는 보안기관도 나와 있는데, 당 조직은 보안기관보다 상위에 있다. 보안부서 내 당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들도 당일꾼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이다.

보안서장이 있으면 정치부장이 있는데, 정치부장이 당일꾼입니다. 분주소에는 분주소장이 있고 세포비서가 있는데, 세포비서가 당일꾼입니다. 어디나 당이 위에 있습니다.

북한에서 당비서 등 당일꾼들의 윤리의식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난 등으로 당일꾼들의 사기도 점차 떨어지면서 이탈 현상도 부분적으로 목격되고 있다.

당비서는 완전 정돈(정비)됐죠. 어떻게 보면 되냐 하면, 북한에 있는 구역당, 군당 정도의 당일꾼 수준은 남한사회 일반 노동자들의 문화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많이 정돈되고, 대인관계도 잘 가지면서 겸손합니다.

불량녹화물을 보다가 사상투쟁회의에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남한 드라마, 영화 등 외부 영상매체에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기업소 지배인, 외화벌이 일꾼 등도 주요 검열대상으로 꼽힌다.

불량녹화물 같은 건 사상투쟁회 정도가 아닙니다. 101호 그루빠가 3~4년 전에 새로 생겼는데 사노청, 직맹, 당, 안전부, 검찰, 보위부가 동원돼서 불순녹화물을 전문 검열하는 곳입니다. 109 그루빠는 TV통로를 고정했냐 안 했냐를 보는 게 기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사상교양사업에서 불순녹화물 보지 말라는 내용이 자주 나온다. 하지만 웬만한 경우는 안면이나 뇌물로 무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회의 때마다 얘기하는 게 불순녹화물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적발되더라도 돈을 팍팍 먹이면 무마 될 때가 많습니다.

선물시혜 정책도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김정일, 김일성 생일인 2.16, 4.15 때 김정일이 선물로 아이들에게 갖다주라고 과자 500, 사탕 500g씩 선물을 줍니다. 중앙당에 ‘선물제작과’가 있는데 거기서 백돌상 같은 것도 줍니다. 그런데 ‘선물’이라는 명칭 자체는 김정일 명의를 아니면 붙일 수가 없습니다.

I

II

III

IV

V

VI

VII

나. 황해도 외화별이 기업소 담당 〇〇〇 당위원회

우선 이 기업소에서도 당위원회의 운영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간부 선발의 경우 뇌물의 영향을 갈수록 많이 받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당위원회도 철저히 운영됩니다. 간부선발 배치는 당조직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도 이젠 누가 얼마나 고였냐 하는 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하부 조직 실태에 대해서도 매주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

하부 조직 실태 매주보고는 당조직에서 하는 거니까 그대로 합니다. 근로단체 지도정형도 정치 사업이니까요.

당 책벌 및 상여제도도 이전과 다름없이 유지되고 있지만 이 제도 역시 뇌물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

당책벌과 상여도 그대로 진행되는데, 뇌물과 압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연탄군당 책임비서는 사람 죽이고도 일이 없었습니다.

당검열부서도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만 마찬가지로 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당검열부서도 기능을 하지만 이젠 그것도 돈이 많이 좌우합니다.

당 재정 상황은 지배인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당비를 꼬박꼬박 내고, 외화별이를 통한 재정 충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 표Ⅳ-4 경제부문 당 조직생활 변화 평가

구분	1-100%	2-75%	3-50%	4-25%	5-0%
당위원회 운영 실태	○				
각종 당회의 사전 준비 실태	○				
간부 선발 배치 정형 ¹⁰⁸			○		
하부 조직 실태 매주 보고상황		○			
근로단체지도 정형작동상황 ¹⁰⁹		○			
당 책벌 및 상여기준 ¹¹⁰			○		
당 검열부서의 기능여부		○			
당 신소담당과의 기능여부			○		
당 재정 및 외화별이 상황	○				
조직비서와 책임비서와 관계		○			
부서별 본위주의 및 파벌형성		○			
당조직과 보안기관 상하관계	○				
마약이나 성문화 접근성향 ¹¹¹			○		
선물시혜 정책여부		○			

있다고 한다.

당 재정이라는 게 당비 들어가고 이런 거니까 운영이 된다고 봐야죠. 당재정에 국가외화별이도 다 속하는 겁니다.

^{108.} 물질적 자극을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109.} 군대에서는 3대혁명붉은기 중대 및 오중흡7연대쟁취운동, 사회에서는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

^{110.} 뇌물이나 돈이 중요한지, 안면이나 뺨이 더 중요한지 등에 대한 관점.

^{111.} 마약이나 성문화의 간부들의 부패 관련 특이사항, 처벌경위 실태.

조직비서와 책임비서의 관계는 서로 권력과 능력을 과시하는 갈등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조직비서와 책임비서의 관계가 좋아야 일이 잘되는데, 대체로 좋기가 힘듭니다. 아무래도 내부관계는 조직비서가 많이 좌우하는 거니까, 능력에 따라 갈립니다. 조직비서가 능력이 있으면 조직비서한테 밑에 사람이 많이 붙고 그런 식입니다.

파벌형성을 목격한 사례는 없다. 다만, 부서별 본위주의는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건 자연적으로 있게 되죠. 도당에서도 배급을 못 주니까 자기 부서의 특성에 따라 어디 가서 구해다 먹고 합니다. 조직부나 이런 데서는 중앙당 국제부 같은 사람들을 그다지 당일꾼으로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반대로 국제부에는 외국도 다니고 하니까 돈이 많은 걸로 생각합니다.

당 조직과 보안기관 상하관계는 역시 당 조직이 우위에 있다. 공장기업소 내의 보안기관도 당 조직의 지휘를 받는다는 것이다. 당 조직 일꾼들도 각종 치료 명분으로 이전과 달리 마약을 즐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옛날에는 마약이나 성에 대한 건 세계 통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간부들이 빙두를 대체로 많이 합니다. 감기나 뇌출혈 후유증 같은데도 빙두를 많이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남녀문제 같은 경우는 먹고살기 힘드니까 누가 개의치 않습니다.

5. 경제부문 당일꾼 및 당 조직의 변화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제부문 당 조직의 전반적인 당원 생활과 당 조직은 외견상, 형식적 측면에서는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평가는 달라진다. 당일꾼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데다, 규율도 느슨해지면서 부정 및 부패와의 적나라한 공생관계가 발견된다. 형식적 측면에서의 경제부문 당 조직의 정상적 운영행태와 달리, 실제적 측면에서는 적지 않은 일탈과 균열 현상이 포착되고 있는 것이다. 본 장에서도 앞서 살펴본 경제부문 당 조직의 간부일꾼과 기업소 지배인의 증언을 통해 생생한 변화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가. 함경도 구역당위원회 당간부의 사례

경제부문 당일꾼이라고 해서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는 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는 어렵다. 적은 보상을 받고도 국가사업에 헌신한다는 측면에서는 당일꾼들은 여전히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 기둥이라고 해도 지나친 평가는 아닐 듯하다. 실제로 일부 당일꾼 출신들은 북한에서 경험했던 당간부로서의 자긍심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당일꾼은 여전히 북한에서 특권층이다.

당일꾼이라는 게 쌀을 받는 것도 없고, 생활비도 적어서 힘들다. 그리고 1년 12달 명절도 없이 사무실에 나가야 합니다. 당일꾼에게는 딱 한 가지, 궁지밖에는 없습니다. 유급당일꾼이나 전문직 당일꾼만 되면 법도 개입을 못합니다. 일반 유급일꾼만 돼도 검찰, 보안, 보위부가 구속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궁지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차타고 가다가 교통위반을 했다고 해도 당 증명서만 내놓으면 무사통과입니다. 그런 걸 당일꾼의 특권이

I

II

III

IV

V

VI

VII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꾼 집이라면 가택수색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가 구역당조직부 지도원이라고 하면 인사하고 그냥 돌아섭니다. 그저 이거 하나 때문에 일하는 겁니다. 우리 처도 말하는 게 아니고 20년간 살면서 제일 궁지 있다는 게, 다른 집은 검열이 많지만 우리 집만은 검열이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당내부 규정에 보안, 안전, 당일꾼 집은 검열을 마음대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권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 당일꾼들은 돈벌이에 관심이 많고, 각자의 능력과 수완에 따라 부정행위 등을 통해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 말단기관의 당조직은 허수아비나 같습니다. 당비서에게 배급이나 월급도 못주는 형편이니까요. 그리고 지방산업공장이나 생산공장의 99%가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하자면 아무것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자체로 해내는 게 그 무엇도 없단 말입니다. 당일꾼들도 이제는 먹고 사는데 기본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당일꾼 부인들은 대체로 일을 안 하고, 당일꾼 자체는 부정을 해서라도 먹고 삽니다. 우리 기업소도 당비서는 무조건 먹고 살아가게 해줘야 한단 말입니다. 노동자들에게 쌀 10kg를 준다면 당비서에게는 50kg는 준단 말입니다.

경제부문 당일꾼들이 개인 상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면서 적지 않은 이익을 챙긴 사례는 많이 발견된다.

당일꾼뿐 아니라 누구라도 시장에서 사먹게 돼 있으니까 관계가 있죠. 북한에서는 간부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어떻게 벌었냐면, 고난의 행군을 시작할 때까만 해도 지방산업공장이 2~3년은 돌아갔단 말입니다. 북한은 국정가격이 대단히 싸기 때문에 기업소 간부와 싸고 그걸 국정가격에 사서 장마당에 되파는 식으로 간부들이 돈을 번 겁니다. 예를 들어 신발이라면 천으로 된 편리화, 비닐구두가 많은데 국가에서 나오는 천편리화는 3

원~3원 30전입니다. 그걸 장마당에 팔 때는 5,000~6,000원 하니까, 3,000~4,000원에만 넘겨도 백배는 이익을 보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 이전에는 빈부격차가 극히 없었는데, 고난의 행군 이후에 이렇게 부자가 된 간부들이 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집도 개인 집이 아닌데,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국가 배려로 좋은 집에 있던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걸 돈 받고 파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안전부, 보위원 사람들은 큰 장사꾼들을 꼭 끼고 있던 말입니다. 장사꾼들이 회수당하거나 단속됐을 때 뒤를 돌봐주면서 돈을 받아가는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자신은 굶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있는 공장기업소를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겠다는 국가에 헌신적인 단일꾼은 찾기 어렵다. 더구나 구조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활동은 불가능하다.

그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은 인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가 없던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검열을 해서 제껴 버리기 때문에 인민을 위한 혁신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오래된 관행이지만 김정일 위원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과장된 거짓 보고는 여전하다.

김정일에 바치는 모든 자료제출을 일보보고라고 합니다. 당생활 지도과에 일보지도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인민이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운 것, 애로 되는 걸 듣고 싶어 한다지만, 그게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서 부를 창조했다, 어디서 외화벌이를 많이 해서 국가에 많은 이득 줬다든가, 합영 합작 회사 등 크고 웅장한 걸 세웠다든가 하는 내용을 좋아하죠. 김정일 특각 건설, 부지와 면적 그리고 경치 좋은 곳을 확보해서 올려 보내는 걸 제일 좋아하죠. 모든 경제 분야에서 경제 실적을 보고하는데, 한 개를 생산했어

도 열 개를 생산했다 하고, 겨우 하루 이틀 생산하고는 크게 과장해서 김정일한테 보고합니다. 하루 이틀 생산할 때만 김정일을 오라고 해서 구경시키고, 군부대도 일체 다 갖춰놓고 군대들을 이렇게 먹인다고 김정일한테 보여준단 말입니다.

김정일 위원장도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고 한다. 부패 공생구조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런 건 김정일도 알고 있습니다. 서흥에 있는 양어장에 열대메기 견학을 갔을 때 김정일이 “이 메기도 나를 따라다니느라 고생 합니다”하고 말했다는 겁니다. 메기가 자기가 가는 곳마다 보이려고 따라다닌다는 소리나 같지 않습니까. 눈가림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김정일 혼자서 그걸 어떻게 하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밑에 사람들은 김정일의 부패한 생활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걸 아버지가 못된 짓 하면, 자식들을 통제 못하는 거나 같습니다.

한편, 당간부들은 남한 등 외부 미디어, 정보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다. 외부 세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의미다.

표현은 못해도 간부들이 더 많이 압니다. 보위부장도 한국 드라마를 본단 말입니다. 내가 보위부장 집에 수시로 드나들었는데 “남조선 걸 알아야 통제를 하기 때문에 보게끔 돼 있다. 어디 가서 말하지는 말라”고 한단 말입니다.

경제부문 당 조직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 가운데 하나는 경제정책 및 지침을 전달하고 이를 관철시키도록 독려하는 일이다. 당 조직 내 당생활지도과에는 책임지도원 15명과 정책지도원, 10호지도원, 종합지도원, 일보지도원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일보지도원과 정책지도원이다. 일보지도원은 한마디로 ‘계슈타포’(비밀경찰)라고 할 수 있다. 일

보지도원은 자기 책임비서나 조직비서는 물론이고 인민위원장, 최고검찰소장, 안전보안서장 등 높은 지위에 있는 일보대상들을 미행하고 감시해서 비리를 캐는 일을 한다. 그런 뒤 김일성·김정일한테 직접 월단위로 몇 통씩 일보자료를 올려 보낸다고 한다. 정책지도원은 중앙당에서 당중앙위원회 지시문, 김정일 친필지시, 노상문건 등을 받아서 포치하고 집행을 장악해서 올려 보내는 사업을 한다. 정책지도원이 공장기업소에도 들어가서 집행여부를 다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공장·기업소의 가동이 중단된 지 오래되면서 할 일이 없어졌다. 예를 들어 중앙당에서 지방산업 공장에 계획지표가 내려와도 중앙에서 자재를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근로자들은 출근은 해도 국가를 위한 각종 건설사업에 동원되거나, 개인 장사 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방공장은 다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식료공장 종업원이 출근해서 하는 일은 식료를 생산하는 게 아니다. 그저 언제든지 장군님이 오시면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로공사나 국가대상 건설 등을 위한 집체적인 동원에나 내보낸단 말입니다. 그리고 북한주민들이 공장에 출근한다고 쌀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무보수 노동입니다. 오히려 공장기업소에 한 사람당 얼마씩 돈을 내야 되는 형편입니다. 무슨 애긴가 하면 무직으로 직장을 안 가면 구류장, 교화소, 단련대를 보내니까 직장에 적을 걸어놓고 돈을 내고 안 나간단 말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당일꾼들도 무기력해졌다. 정책이나 지침 전달은 형식화되어 버린 것이다. 따라서 정책이나 지침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았다고 한다.

제가 23개 공장기업소를 담당했는데 초급당 비서에게 “왜 노동

자들이 출근 안 하나”고 하면 초급당 비서는 내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는 “지도원 동지는 뭐 먹고 삽니까. 국가에서 돈을 안 주고 쌀을 안 주는데 공장에 출근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할 소리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저 형식적일 뿐이니까 스스로 당시업을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경제부문 당 조직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신년 공동사설에 나오는 경제목표라고 한다. 그러나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제시된 경제목표가 해마다 비슷하고, 핵심 내용이 없다고 본다. 그저 수사에 그칠 뿐이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김일성 주석 생존 시에는 신년사를 중심으로 경제목표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과 지시가 나오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있었지만 김정일 집권이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런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신년 공동사설에 나오는 경제목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년 공동사설 관련 꺾기행사 등이 모두 형식이란 말입니다. 김일성이 생존했을 때는 직접 신년사를 하면서 년총화를 짓고, 년과업과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신년사에 기초해서 전국이 움직였던 말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사망한 뒤에는 공동사설이란 말입니다. 김일성은 말씀도 있었는데, 김정일은 제 머리는 안 쓰고 다 신하들이 써놓은 걸 수표만 해주고, 다른 사람이 써놓은 걸 발표하는 겁니다. 경제와 관련해서 공동사설을 가만히 분석해 봐도 알맹이가 없습니다. 올해 공동사설을 국정원에서 봤는데, 공동사설의 내용 구도가 5년 전이나 올해나 같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내용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쓰는 사람 자체도 맥이 빠졌겠죠.

경제부문 당 조직들은 연말 경제실적 목표 달성을 독려하는데 힘을 쏟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생산에 활력을 불어 넣는 동시에 공장·기업소 등 생산단위별로 부과된 연간 생산계획 목표를 달성할 것을 독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생산목표 수치는 대부분 조작되고 과장되고 있다.

공동시설에 여러 가지 목표달성 수치가 나옵니다. 만약 석탄을 1톤 캐다면 그게 국영기업소나 화력발전소로 가겠죠. 그런데 1톤을 캐놓고 3톤으로 불러서 보고한단 말입니다. 쌀도 농장에서 10톤을 생산했다면 13톤으로 보고합니다. 북한은 허풍이 만연화 돼서 위에 보고는 다 이렇게 부풀리는 겁니다. 각 지방산업공장이 멎은 상태에서 생산이 이뤄졌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군만 봐도 ○○구역에 44개 지방 산업공장이 있는데 월 계획이라든가 액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 것도 생산한 게 없단 말입니다. ○○사업소 ○○수리공장이 있는데 선박을 수리에서 국가에 바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생산한다고 해도 자기네가 먹지 국가에 바치지 않습니다. 지금 사회주의 구조 체계는 다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연말 경제실적의 목표를 달성하라고 독려하는 사진도 나오지만 김일성이 사망된 1994년 이후로는 천리마 운동, 락원의 봉화운동 같은 게 지금까지 다 마비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목표를 설정하는 등 각종 요식행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일까. 인원 통제를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다수의 주민들은 수입의 일부를 지불해서라도, 당 조직이 앞장서 추진하는 각종 동원행사에 참가하려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당일꾼들도 이런 현실을 잘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와 통제는 형식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공동시설이 나오면 전국에서 도별로 쫓기모임을 하는데 그것은 분위기 조성입니다. 농촌을 지원하자고 동사무소에 모여서 똥배낭을 메고 출발하지만, 정작 농장에 도착하면 두세 명밖에 없습니다. 핼과리치고 출발은 좋은데 목적지에 가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북한의 현실입니다.

I
II
III
IV
V
VI
VII

당일꾼 ○○○는 북한 사회가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아닌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좋은 소리는 하는데 결과가 없단 말입니다. 이젠 2004년도부터 북한이 스스로 자본주의화 되어 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김일성이 살아 있을 때만 해도 돈을 몰랐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돈 맛을 알고 장사를 합니다. 군대도 민간도 돈이 아니면 사람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은 무상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술이라도 하면 걸으려는 무상치료라지만 돈이 몇 배가 든단 말입니다. 의사들도 국가에서 보장을 안 해주니까 자기도 살 궁리를 하는 겁니다. 맹장수술을 했다면 요오드를 사라든가 약을 암거래하면서 의사가 약 판매원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현실은 공장기업소도 마찬가지다.

공장기업소도 같습니다. 각 공장기업소에 '덧벌이 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덧벌이 과제는 공장기업소가 생산을 못해서 운영을 못하니까 1년 12달 가운데 국가에서 6개월은 식량보장을 하고, 6개월은 공장에서 보장해주라는 겁니다. 국가에서 인민이 살게끔 방법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덧벌이 과제'를 수행해서라도 종업원들한테 풀어서 먹고 살라는 얘깁니다. 예를 들면,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두부라도 만들어서 팔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장기업소에 땅을 떼 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생산한 쌀의 몇%는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는 종업원들이 먹으라는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경제부문 당 조직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른바 '후방(복지)사업'이다.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고, 각 생산단위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 재정이 고갈된 상태이다보니 대부분 공장기업소가

자체적으로 자본주의 방식으로 경제관리운명을 해서 창출한 수입을 통해 근로자들의 복지를 지원한다.

공장기업소를 자본주의식으로 경제 관리운명을 하는 공장지배인, 당비서들은 ‘덧벌이 과제’를 많이 수행해서 1월 1일을 비롯한 명절에 종업원에게 술 한 병이라도 줍니다.

경제부문 당 조직이나 당일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최근 사건은 2009년 11월에 단행된 화폐개혁이었다. ○○○는 “이번 화폐교환으로 당의 권위가 다시 세울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추락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북한에서 그동안 화폐교환을 많이 했지만 이번처럼 당에서 선전선동하고 방송차를 동원해서 곳곳에서 방송을 붙어보긴 처음입니다. 제3방송(유선방송)에서 “조선로동당을 믿으시오, 화폐교환에 동참하면 이렇게 잘살게 된다면서 선전해보긴 처음이었던 말입니다. 그렇게 방송차까지 장마당에 와서 선전을 하니까 사람들도 “웬만하면 믿어보자, 이번이야 돈을 안 뺏겠지”하고 생각했는데 돈이 모두 물이 되고 말았던 말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정부도 바쁘게 돼서 생각한 게 뭐냐면 보안서, 분주소를 모두 개편하고 늘린 겁니다. 동당비서도 1명이던 걸 배로 늘렸고, 부를 성으로 다 고치고, 이런 게 민심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껴서 그런 겁니다. 일보신을 통해서 인민들의 생활 곤란과 항의 뭐 이런 것들이 ‘동향문’이요 뭐요 해서 다 올라가기 때문에 김정일이 현 상황을 알고도 납읍니다. 그런데 김정일은 전민이 필요 없다지 않습니까. 군대 얼마에 당원만 있다면 나머지는 죽어도 일 없다는 겁니다.

선군정치가 나오면서 당 조직이 위축됐다고 지적하기도 하지만, 그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당 조직체계는 형식상으로 유지되어 왔다. 문제는 당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추락하기 시작한 점이고,

I
II
III
IV
V
VI
VII

이에 따라 위상도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당 지도부가 경제난을 해결하는데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실제 가시적인 경제실적도 내지 못하면서 당 조직과 당일꾼들의 영향력은 갈수록 약해졌다. 특히 경제관리 개선조치, 화폐개혁 등은 대표적인 실책으로 불신을 받고 있다. 또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변화를 모색해왔다.

선군정치가 나오면서 당조직이 위축됐다고 지적하기도 하지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당조직체계는 형식상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94년에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과 북한 언론이 인민들을 속인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끝나면 락원의 행군을 한다고 했지만 사람들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인민들 자체로 살만 하니까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만들어서 뒤집어 놓았던 말입니다.

이번에도 한 8년 지나서 살만하니까 또 화폐교환을 함으로써 조선로동당이 완전히, 아주 처참하게 실권을 잃었습니다. 옛날에는 독재에 강압으로 끌려갔다지만, 이젠 독재하고 맞설 형편이란 말입니다. 크게 맞서지는 못한다고 해도 이젠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늙은이부터 아이까지 조선로동당이 어떻다고 비난한단 말입니다. 당의 힘은 기울어지고, 강압으로 제압하기는 힘들어졌습니다.

현재 당 조직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더 이상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일반주민들이나 공장기업소의 근로자들도 불만을 공공연하게 표출하고 있는 현상이 적지 않게 목격되고 있다. 이전과 같은 강압적인 조치도 주민들의 반발만 더 불러오고 있다. 결국, 2009년 11월 말에 취해진 화폐개혁은 경제부문 당 조직의 권위를 결정적으로 실추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당간부들의 민심의 동향이 이전과 달리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중앙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지도부의 노력은 미흡한 것으

로 평가하고 있다. 김정은 3대세습에 대한 인식과 전망 모두 부정적이다.

당조직체계가 유지되고 있지만 북한은 조직에서 겉가지 체계를 다 없애버리고, 60년 동안 김일성·김정일 사상만 붙여넣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살아 있을 때는 김정일을 중앙당 조직지도부에서부터 20년 가까이 지도자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같은 경우는 갑자기 내세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김일성·김정일 두 이름만 없으면 숭배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김정일이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세우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질을 먹으면서’(약 올리면서) 오직 장군님밖에 그 속을 모른다고 비유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던 중심이 없어진다면 당조직체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누구하나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북한의 2천만 모두가 강압에 어쩔 수 없이 움직인단 말입니다. 누가 피약벌에 나가서 꺾기모임하고, 누가 비 오는 날에 삼질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거주가 없어지게 되면’(주거의 자유가 주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다 자유를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독재가 무서워서 다 억압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진 나 하나의 소망이 아니고, 북한 전인민이 이런 마음이란 말입니다.

나. 황해도 외화벌이 기업소 지배인의 사례

과거 공장기업소의 생산이 정상화돼 있을 때는 당 조직에서 생산경쟁을 부추기기 위한 전투도 조직했지만, 지금은 이런 것도 없다고 한다. 공장기업소가 생산을 하지 못하니까 현상유지만 하면 된다. 따라서 당 조직에서는 근로자들이 중국으로 도망하거나, 사회 일탈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당원들을 통제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년 공동사설 등을 통해 드러난 경제부문 당일꾼들의 핵심 역할은 당의 경제사상과 이론, 방침을 경제강국 건설의 지침으로 삼고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원칙, 집단주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도록 지도하는

I

II

III

IV

V

VI

VII

일이다.¹¹² 북한 언론매체에서는 경제부문 당 조직은 노동당이 제시한 노선과 정책을 일관성 있게 관철해 나가는 데 적지 않은 역량을 쏟고 있다¹¹³고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당경제정책이나 지침은 제대로 만들어진 것도 없고, 공장기업소에 전달되는 것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금엔 지침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옛날엔 과자공장이라면 무슨 과자 얼마, 사탕 얼마 이렇게 생산이 됐지만 이제는 생산 기업소가 다 없어졌단 말입니다. 우리 기업소도 중국에서 제품을 갖다가 수에 일을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한 달에 액상으로 얼마를 들여놓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초급당 비서한테 이달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계획을 했다고 말을 하려면 100달러라도 보고서에 넣어줘야 “사장동무 맘대로 하라우”입니다. 그냥 보고서를 주면 시끄러워서라도 고인단 말입니다.

경제부문 당 조직은 신년 공동사설에서 제기한 과제 달성을 관철시키는 것을 지원하는 것도 주요 임무다. 하지만 관철 수준은 매우 낮다.

¹¹² 신년사설은 이와 관련해 “우리 경제의 전망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포부, 혁신적 안목을 가지고 과학적인 발전목표와 전략을 세우며 일관성 있게 실현해나가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계획구울, 노동행정 규율을 강화하고 규격화 사업을 짜고들며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방도는 우리 당의 선군영도 업적을 지침으로 삼고 모든 사업을 위대한 장군님식대로 해나가는 데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2006년 1월 1일.

¹¹³ 『노동신문』, 2006년 9월 27일. 이 신문은 ‘당정책을 일관성 있게 관철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자’ 제목의 사설에서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사상과 노선, 정책을 제시했다”며 “당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을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우리 당의 노선과 정책은 그 어느 것이나 다 우리 조국을 부강하게 하고 우리 인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설계도”라며 “당정책을 일관성 있게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서는 애국심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북한도 어찌됐든 국가니까 서민들을 위해서 신년 공동시설 그대로 기본방향을 하라고 하는데, 집행되는 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주민생활 향상'이라는 건 말뿐입니다. 그 소리라도 안 하면 뭐 할게 있겠습니까.

경제부문 당 조직들은 연말 경제실적 목표 달성을 독려하는데 힘을 쏟기도 한다. 생산에 활력을 불어 넣는 동시에 공장·기업소 등 생산단위별로 부과된 연간 생산계획 목표를 달성할 것을 독려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 역시 구호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거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말단기관의 당조직은 허수아비나 같습니다. 당비서에게 배급이나 월급도 못주는 형편이니까요. 그리고 지방산업공장이거나 생산공장의 99%가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하자면 아무 것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자체로 해내는 게 그 무엇도 없단 말입니다.

심지어 연말에 총화를 하면서 생산실적을 조작해서라도 수치로 보여준 경우가 있었으나 지금은 생산 지표 자체도 없다고 한다. 다만, 국가가 거둬갈 납부금만 계획한다.

나라에 지표 자체가 없으니까 할 게 없습니다. 세계에는 어떻게 내보이는지 몰라도 생산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기업소는 ○○에서 해달라는 대로 하니까 목표를 우리가 정하지 못해요. 우리 회사는 도인민위원회가 종업원에게 배급을 못주니까 그 사람들 생활을 위해 국가에서 내놓은 별이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경제계획은 없단 말입니다. 그저 국가에서 계획한다는 게 종업원이 300명이면 한 달에 1인당 30달러씩, 9천 달러를 내라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공장기업소 지배인들은 국가가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

I
II
III
IV
V
VI
VII

지 못하고, 자금을 지원하지 못하면 보다 폭넓은 자율성이라도 허용할 것을 희망하고 있으나, 실제 국가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김정일이 실제로 서민이 잘살길 바란다면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다른 나라하고 거래를 안 하더라도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능력껏 벌어들여주고 하면 벌어들여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한 단 말입니다. 남한은 길거리에서 포장마차도 하고 그러는데, 북한은 장마당 안에서만 팔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는 세금이 없었지만 지금은 집에서 돼지 기르는 것까지 세금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나진선봉이나 신의주로 가서 차로 상품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야 소매라도 할 텐데, 차로 가져오는 걸 두세 번만 하면 국가에서 덮쳐서 회수합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잘살면 고개를 쳐들게 돼 있으니 잘살지 말라는 겁니다.

화폐교환 하는 원인도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여긴 저금을 하면 아무 때나 찾아 쓸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국가에 저금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금소도 지금은 거의 문을 닫았고, 개인이 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돈이 300원밖에 없어도 어떤 사람은 돈을 쌓아놓고 kg으로 뜨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좀 모았다 싶으면 화폐교환을 해서 돈을 몰로 만들고, 그걸로 수평을 잡고 만단 말입니다. 그때 화교들은 돈을 불태우고 강에다 띄우기도 했습니다.

경제부문 당 조직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른바 ‘후방(복지)사업’이다.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고, 각 생산단위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요 공장기업소를 방문할 때 경제부문 당 조직들에게 지시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이 역시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거기는 복지라는 말 자체도 모릅니다. 후방사업이라고 명절 때

종업원한테 1인당 고기 몇 g, 기름 몇 g 주는 게 있기는 합니다. 우리 종업원이 750여 명인데 800kg 정도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버스를 사와서 시외로 가는 버스사업소가 있었는데 그런 데서도 맛내기 800kg, 종이판매소에서 기름 몇 kg 이렇게 모아서 직원들에게 줍니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건 없지만 지배인은 폰트를 받아서 인원수를 늘립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직장에 적을 두고 한 달에 5만 원이면 5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럼 그 돈으로 사회동원 하는데 내라는 것도 내고, 강냉이를 조금 사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는 겁니다. 방송 아나운서, 기계공, 선로공들한테는 한 달에 강냉이 10kg씩은 줍니다.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육은 경제부문 당 조직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다. 가장 최근인 2011년 신년 공동사설은 ‘적들의 책동이 악랄해질수록 사상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는것이 우리 당의 투쟁방식’이라며 ‘각급 당조직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교양을 일관성있게 강도높이 벌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사상진지를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¹¹⁴ 이는 경제부문 당일꾼들에게 주어진 주요 임무이기도 하다.¹¹⁵ 하지만, 다른 부문과는 달리 사상교양사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당 조직이나, 참여자들도 사상교양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사상투쟁 대상이 되거나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¹¹⁴. 북한은 2011년 1월 1일 노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에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에서 결정적 전환기를 일으키자’라는 제목의 신년 공동사설을 발표했다.

¹¹⁵. 북한의 대내 라디오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은 2008년 6월 2일 평양시 각급 당 조직이 ‘일꾼과 근로자들을 집단주의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학습과 강연, 해설 담화, 예술 선동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평양시 평천부재공장에서는 새 세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계급교양관 참관, 목적자·체험자들과의 이야기 모임, 복수결의 모임 등을 통해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닌 계급의 전위투사들’로 준비시키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조선중앙방송』, 2008년 6월 2일.

I
II
III
IV
V
VI
VII

여기 사람들은 “돈 안 주고 쌀 안 주는데 뭐 하러 일하러 나가냐”고 하는데 그게 바로 사상교양사업 대상이란 말입니다. 직장에 무단결근하거나 제대로 안 나오고, 그리고 살기 힘들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냐”하는 소리를 하게 되는데 주위에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개가 어떻다, 뭐라 했다”고 보고하면 사상투쟁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체적으로 사상투쟁회의라는 것도 조직해서 비판을 하게 합니다. 누구나 살기 힘들니까 비판을 안 하려고 하지만, 당에서 사상투쟁회의를 조직해서 마지막에는 철직, 추방을 보내 주고 하기도 합니다. 이 회의에서 “이 사람을 출당 주는데 의견 있는 사람 손드시오”하고 말하지만, 당비서가 손을 안 드는데 누가 감히 손을 듭니까. “의견 없는 사람 손드시오”하면 당비서가 손들고, 그 밑에 사람은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당 조직이 당원들에게 주는 과업, 즉 당적 분공과 ‘충실성사업’을 수행하는 정도도 당 조직 관리와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대개 사회노력동원이나, 강제세금제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당적분공이라는 게 세부담이란 말입니다. 위에서는 세부담을 시키지 말라면서도 당적분공이란 이름으로 개가죽해라, 토끼가 죽해라 그리고, 사회동원도 시킵니다. 우리 기업소 같은 경우는 자기 계획을 다 하고도 2.15, 4.15 이런 때는 ‘충성의 외화벌이’를 해서 5천 달러를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5천 달러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정을 안 하면 없습니다.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한 달에 2~3천 원 타서 살라는 건데, 그건 부정을 하란 소리나 같죠. 결국, 북한은 부정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입니다.

충실성 사업 당적분공하고 거의 같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충실성이란 것이 ‘당에서 “너 죽어라”하면 “네”하고 죽으란 소리와 같다’는 것이다.

농장에서는 충성의 전략미, 애국미, 군사미 이런 걸 걷어 가는데, 우리 기업소도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당에 충실성을 발휘해서 충성의 외화벌이로 1인당 금 2~3g을 하라고 합니다. 그걸 하지 못하면 생활총화 때마다 “당에 충실하지 못하고, 당을 받들지 못하고, 장군님께 심려를 드렸다”면서 비판을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북한에서는 모든 걸 정치적으로 분석한단 말입니다.

우리 기업소도 중국에서 일감이 제대로 안 와서 일을 못하면, 도당에 가면 고개 숙이고 욕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국가에서는 1전도 보장을 안 해주면서도 “당에 충실하지 못하고, 장군님께 심려를 끼친다”는 욕을 먹어야 하니까 처녀아이들도 그걸 제일 속상해 합니다.

북한 돈으로 금 1g에 12~13만 원 하는데, 금 2~3g씩 하려면 3~40만 원씩은 내야합니다. 금으로 못 내면 돈으로 무조건 내라고 한단 말입니다. 결국, 처녀아이들이 아득바득 눈을 밝히며 벌어서 내고, 못 낼 사람은 사회동원이라도 나가라는 겁니다. 동원을 가면 무슨 결사대. 충성의 돌격대 하면서 이름은 잘 붙인단 말입니다.

현재 경제부문 당 조직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더 이상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일반주민들이나 공장기업소의 근로자들도 불만을 공공연하게 표출하고 있는 현상이 적지 않게 목격되고 있다. 이전과 같은 강압적인 조치도 주민들의 반발만 더 불러오고 있다.

김정일이 처음 정권을 잡았을 때는 인민들이 “대통령이 바뀌면 3년은 고생해야한다”고 각오하고 사람들이 꺾꽂 죽어나가도 불만 없이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당에서는 인민들한테 거짓말밖에 안 한단 말입니다. “금년 10월부터는 배급을 주겠다”고 했으면서, 그때 가서는 “어떤 이유로 못 줍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당의 말을 믿지 않게 됐습니다. 도당 책임비서가 장마당에 나와서 “시민여러분 장마당으로 가는 길은 자본주의로 가는 길이고, 공장기업소로 가는 길은 사회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청년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하

I
II
III
IV
V
VI
VII

고 연설을 하면 20대 청년 아이들은 “저 새끼 저거 밥 치먹고 나와서 하는 수작이냐”고 욕합니다. “밥 먹고 일할 거 있으면 누가 여기 나와서 먼지 뒤집어쓰고 있겠냐, 일감을 만들어 놓고 밥 주면서 일 시켜라”하고 공개적으로 말한단 말입니다. 그전에는 이런 말하면 당장 붙잡혀 갔지만 이젠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누가 묶여서 잡혀간다면 “저 녀석은 뭘 잘못해서 잡혀가냐”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먹고살려고 하다가 안타깝게 잡혀가냐”하는 식으로 동정하게 된단 말입니다. 강압적으로 내려 먹이니까 할 수 없이 “예, 예”대답이나 하는 겁니다.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중앙당에 있는 간부친구들도 나한테 “너희 아버지가 남조선 갔다고 그랬지 한 번 찾아보자, 남조선이 잘 산대”하는 소리는 가법게 한단 말입니다. 실제 남한에 와보니까 돈 천 만 원이 큰 건 아닌데, 북한에서 만 달러라면 일생을 살 것으로 생각할 정도입니다.

옛날에는 귀족자들이 제일 잘 살았는데 일본하고 길이 막히면서 화교들이 제일 잘 삽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조선에 친척이 있는 사람이라야 잘사는 길로 북한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한에서 천달러를 보내주면 웬만한 가족은 1년은 가만히 놓고 앉아서도 살 수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천달러가 한 달 월급이잖아요.

그렇다면 ○○○은 현재 김정일·김정은 정권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 개혁개방의 가능성을 논의하기도 한다. 세대교체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아직은 회의적인 견해가 많다.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세대가 다 없어지면 개방도 되겠지”하고 말합니다. 우리 세대는 위에 있는 간부들이 개방 요구를 안 한단 말입니다. 개방되면 그 나라 제도가 무너지는 게 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동부독일을 많이 생각합니다. 동부독일과 서부독일이 자유래왕해서 통일이 됐지만, 동부독일 간부들은 처단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봐서도 이 제도를 굳건히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김정은은 아무것도 모르고, 김정은이가 개방하고 싶어도 밑에 세력이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못한단 말입니다. 김정은을 추천한 사람 자체가 ○○○입니다.

당일꾼들은 그래도 충성심 높은 집단이고 사상성도 높기 때문에 돈보다는 가치나 이념을 여전히 쫓는 경우도 있지만, 돈벌이에 더 관심을 쏟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맥락에서 당일꾼들에게도 중국은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에 처녀들이 많이 가서 식당도 하고, 자기자녀를 중국에 보내려고 하는데 돈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보위부나 안전부, 당일꾼이 되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야 합니다. 북한에서는 외국에 다니는 걸 대단히 여기고 저한테도 간부들이 중국에 다니는 것 가지고 부러워해요. 외국에 나가면 돈을 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앙당 일꾼들은 그네들 제도를 유지해야 자기가 유지되니까 그러겠지만, 지방당 일꾼들은 시키는 대로 그저 할 뿐입니다. 우리 도당 부장들도 “○○○가 나보다 낫다”합니다. 중국을 제 집 문턱 드나들듯 하니까 자기보다 실리가 훨씬 낫다는 겁니다. 명분 같은 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담배 한 꺾이라도 얻어피우려면 나한테 와야 하는 겁니다.

V. 군대의 당 조직 실태



북한의 부문별 조직 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당·장군 및 경제사회부문 기간조직 내의 당 기관 실태를 중심으로

1. 북한군의 당 조직 개요

가. 북한군의 정치기구와 당 조직 형성

북한은 벌써 15년 이상 ‘선군정치’ 시대를 이어오고 있다.¹¹⁶ 북한은 군대의 총대에 의해 그 체제존속을 보장받고 있으며, 체제재생산 역시 군수공업의 힘으로부터 그 원천이 나온다. 북한의 부문별 조직 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에서 군대의 정치조직, 즉 당 조직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북한군은 국방의 영역을 넘어 체제유지의 최고 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며 우리의 관심은 과연 북한군은 어떤 힘에 의해 작동하고 있으며 그 관리의 주체는 어느 기관인가 하는 것이다.

북한군은 육·해·공군의 합동군제이지만 총참모부의 명령보다 총정치국의 결정을 더 중시하는 정치군대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총정치국의 권한이 더 크며 북한군 총정치국장(조명록 생존 시, 그는 2010년 11월 사망)은 군대 서열 1위를 넘어 북한 전체 권력 3위에 거명된 적도 있을 정도로 권한이 막강하다. 군대의 상층부 뿐 아니라 군단, 사단, 연대로 내려가도 당 조직과 정치위원의 권한은 부대장의 권한을 능가하고 있다.

북한군의 특성은 무엇보다 당과 군대의 관계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러한 북한식 군대 조직 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북한군에 있어서 그 통수권은 국가가 아니라 노동당이 가지며 헌법상의 통수권과 실제상의

¹¹⁶ 김일성이 사망하기 전인 1994년까지 김정일의 공식활동 중 군 관련 활동은 4.6% (1/21)였으나 1995년 이후 비약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1995년 57%(20/35), 1996년 64%(35/52), 1997년 67%(40/59), 1998년 70%(49/79), 1999년 59% (41/69), 2000년 29%(20/73), 2001년 47%(39/83), 2002년 38%(37/98) 등 6·15공동선언이 있는 2000년을 제외하곤 40~70%에 달하고 있다.

I
II
III
IV
V
VI
VII

통수권이 다르다는 것이다. 평시에는 인민무력부장이 실질적인 군대의 통수권자가 되지만 전시에는 노동당 총비서가 당군사위원회 위원장,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통수권을 행사한다.

지난해 김정은이 노동당 3차 당대표자회에서 다른 직책이 아닌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란 직책으로 화려하게 등장한데서 그가 다름 아닌 북한 권력의 제2인자임을 알 수 있다. 세습의 수순에서 그는 과거의 김정일이 노동당 조직비서에 오르면서 10위 정도로 등장한 것과 달리 공식적인 2위로 자리를 굳힌 것이다.

둘째, 북한군은 군대 안에서 정치기구 및 정치조직과 정치군관의 역할이 특별히 강조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정치위원과 정치기구를 노동당의 파견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며 북한군의 정치조직은 균유기체의 중요 핵심이다. 북한군은 평화 시 군대의 핵심과제인 군사훈련을 ‘전투정치훈련’이라고 부른다.

이 점은 군사훈련과 목표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즉, 민주국가 군대가 장교의 전문직업적 사회화(professional socialization)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반해 사회주의 국가 군대는 군관의 정치화(politicization)에 목표를 두고 있다.

셋째로 북한군은 비군사적 요인에 의해 군사적 요인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항상 당 조직이 우선하며 군사지휘관의 결심보다 정치위원과 당위원회의 결심·결정이 우선된다. 북한군의 성격을 연대별로 요약해 보면 프롤레타리아군(1948년~1950년), 해방군(1950년~1953년), 체제유지군(1953년~1972년), 체제 및 산업유지군(1972년~1995년), 위기관리군(1995년~2010년), 체제위협군(2010년~현재)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군대가 오히려 체제위협군으로 된 현 시점에서 북한군의 당 조직 및 정치기구를 연구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부문별 조직 실태

및 조직문화 연구를 통해 북한군의 체제위협 요소와 불안정이 북한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해 내는데 이 논문의 연구목적이 있다.

(1) 북한군 내 당 조직 형성의 역사적 배경

북한군은 창설 당시 당 조직을 두지 않았다. 이는 김일성의 군대 내 당 조직에 대한 거부감과 직결된다. 김일성은 1930년대 중국의 동북항일연군 시절 공산당의 유격부대들에 대한 전횡을 체험하고 군대에 대한 당적 통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1948년 2월 8일 북한군 창설 때 군대 안에 정치기구를 두지 않았으며¹¹⁷ 단지 군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문화기구만을 두었다.

군대에 입대하는 당원들은 당원증을 반납하고 군인이 되어야 했다. 이는 당적의 포기가 아니라 군대복부기간 당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부를 정치기구로 동일시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엄연하게 다른 것이다. 문화기구는 민족보위성 안에 문화부장직을 두고 군단, 사단, 연대, 대대에까지 문화부 책임자, 즉 문화부 사단장, 문화부 연대장 등을 두었지만 그 기능을 군인들의 오락이나 전담하면서 사기 증진을 담당하는 것이 전부였다.

남침전쟁 패배의 심각성을 논의한 1950년 12월 2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이후 군대 안에 총정치국을 필두로 정치기구가 신설되었지만 이는 당위원회의 밀받침을 받지 못해 하나의 ‘이름 바꾸기’에 불과했다. 당·군관계의 원형을 지닌 중국군이 참전하고 한국전쟁

¹¹⁷ 물론 이것은 소련군의 교리에 따른 것이었다. 김일성은 한국전쟁 중인 1952년 12월 24일 북한군 고급군관회의에서 “1948년 2월 창건된 우리 인민군은 소비에트 군대의 제원칙에 입각하고 그의 풍부한 경험을 참작하여 조직되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사회과학출판사, 『조선중앙년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53), p. 75.

I
II
III
IV
V
VI
VII

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박헌영 등 반대파에 대한 숙청이 진행되면서 군대에 대한 당적 통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1950년 12월을 기준으로 북한군대의 문화기구들이 정치기구로 바뀌고 당 조직들이 결성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김일성의 명의로 된 이상과 같은 최고사령관 명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한국전쟁 개시 약 2개월 만인 1950년 8월 15일을 기해 내린 최고사령관 김일성의 명령 제82호의 서두에서는 “우리 육해군 전사! 지휘관들과 문화일꾼들”¹¹⁸ 이렇게 시작되고 있으나 그로부터 1년 후인 1951년 8월 15일의 최고사령관 명령 제461호에서는 “우리의 육해공군 병사 하사관 동무들! 지휘관들과 정치일군 동무들”로 바뀌어 있다. 한국전쟁 초기만 해도 강조되지 않던 북한군 정치기구의 기능은 1951년부터 조금씩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1951년 허가이가 당으로부터 축출되고 1952년 9월에는 남로당의 이승엽이 쿠데타를 모의¹¹⁹하는 등 김일성 정권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다. 1956년 노동당 제3차 당 대회와 8월 종파사건을 치르고 난 뒤 군대에 당적 통제는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김일성은 1958년 2월 8일 북한군 창건 10주년을 기념하여 당중앙위원회 위임으로 북한군 제324군부대를 방문하였는데 여기에서 그는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이다”라는 연설을 하였다. 이 연설에서 김일성은 “총정치국의 이전 지도부에는 인민군대는 노동당의 군대가 아니고 ‘통일전선의 군대’라고 주장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¹¹⁸ 김일성, 『김일성 선집, 제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p. 66.

¹¹⁹ 이승엽 등은 1952년 9월의 첫 일요일에 박헌영의 거실에서 그가 없을 때 만나 쿠데타 뒤에 수립할 정부까지 조직했다. 그들은 지도자로서 박헌영을 수상으로 추대하고 주영하와 장시우는 부수상, 박승원은 내무상, 이강국은 외무상, 김응빈은 무력상, 조일명은 선전상, 임화는 교육상, 배철은 노동상, 윤순달 상업상, 이승엽은 새로 창설될 공산당의 제1서기로 각각 내정했다. 서대숙, 서주석 역,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서울: 청계연구소, 1989), p. 114.

인민군대가 청우당이나 민주당의 군대로 될 수 있단 말인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민군 창건 당시에 군대 안에 당 조직을 두지 않았고, 전쟁시기에 비로소 당 조직을 두었다고 해서 문제를 혼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민군 창건 당시에 군대 안에 당 조직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인민군대를 통일전선의 군대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¹²⁰라고 역설하고 있다. 계속하여 김일성은 “인민군대 안에는 오직 노동당 단체만 있습니다. 물론 군대 내에는 당이 지도하는 군중단체인 민청단체(후에 ‘사로청’으로 개칭)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군대 내에 다른 당 조직의 존재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라고 강조함으로써 북한군이 노동당의 유일적 지도 속에 있음을 거듭 강조하였다.

김일성은 연설에서 군대 내 당사업의 주요 결함에 대해 다음과 지적했는데, 그 지적은 당시 북한군 내 당 조직의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다.

군대 내 사업에는 결함이 많습니다. 총정치국은 당중앙에 사업이 다 잘된다고 허위보고를 하였습니다. 군대 내 당 조직 체계도 잘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많은 군관들로 하여금 당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였으며 당의 통제밖에 있게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일부 군관들은 교만해졌으며 그들 속에서 군벌사상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당적 통제밖에 있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안일하고 부화하며 부하들을 시켜 나무나 패게 하고 기율을 위반하고 각종 사고를 저지르고 있으며 조금만 비판을 받으면 감정을 가지고 불평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단장이나 군단정치부장이나 참모장은 보위성 조상학(祖上學)¹²¹에

¹²⁰ 김일성, 『김일성 선집, 제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p. 318.

¹²¹ 윗 기관에서 현직에 있는 아래 기관 간부들을 직급이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조를 묶고 정치실무 자질을 높여 주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직 운영하는 상하. 사회과학

가서야 비로소 몇 마디 비판을 받는 형편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지도하며 교양하며 통제하는 기관이라고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앞으로 인민군대 안에 보위성으로부터 사단, 연대에 이르기까지 당위원회 제도를 내와야 하겠습니다.

(2) 군대 내 당위원회의 정착 과정

북한군 총정치국이란 상부구조는 1950년 12월 한국전쟁의 심각한 교훈으로부터 탄생하였지만 군대 내 당 조직은 그로부터 8년이 지난 1958년에도 정착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56년 4월의 제3차 당대회에서 수정된 당규약 제38조에 “당중앙위원회는 당적 지도를 강화할 목적으로 특수한 기관 속에 정치국을 조직하고 정치국은 당중앙위원회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아 당중앙위원회에 자신의 사업상황을 정상적으로 보고하며 당중앙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다. 정치국이 설치된 부서는 민족보위성, 내무성, 교통성 등으로 군 내 정치기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타부서의 정치기관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군사 단일체라는 틀 속에서 당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최초로 군대 내 정치기관이 당규약에 규정되었다는 의미는 매우 크다.¹²² 제3차 당대회에서는 군인들이 당중앙으로 진입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제3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중에 군인은 만주파가 민족보위상 최용건, 총참모장 김광협, 군단장 최현과 류경수, 해군사령관 이영호(이상 중앙위원), 민족보위성 정치안전국장 석산, 사단장 오진우, 군단장 최광, 최용진, 김창봉(이상 후보위원) 등 10여 명이 넘었다.

출판사, 『조선말대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236.

¹²². 『조선로동당규약』 (제3차 당대회 개정), 『로동신문』, 1956년 4월 29일.

전체 중앙위원 71명 중 10명, 후보위원 45명 중 8명이 현역군인으로 서 군의 권력진입을 대변했지만 그것은 무엇보다도 만주파의 “당적 성장”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제3차 당대회에서 군대를 대표하여 토론에 참가한 것은 최용건과 김광협 2명이었다. 정권기관에서도 군인들의 진출은 억제되고 있었다. 1957년 8월 27일 선거에 의해 제2기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 215명이 선출되었지만 이 중에서 군인은 부수상 겸 민족보위상 최용건, 총참모장 김광협, 민족보위성 부상 최현, 집단군 사령관 류경수와 최용진, 군단장 최광, 집단군 사령관 이권무, 군단장 장평산, 간부국장 이림, 총정치국장 최종학, 여단장 강태무 등 11명뿐이었다.

나. 군대 내 정치기구 및 당 조직의 정착 과정

(1) 당군 관계 전환과 북한군당위원회 설치

1958년 3월 8일 소집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북한 군대 안에 당위원회를 설치할 데 대한 결론은 내렸다. 이 회의에서는 군 내 정치사업에 대한 결정서가 채택되고 그 조직적 조치를 당 조직위원회에 위임한다고 하였다. 북한군 전체에 대해서는 북한군당위원회를 조직하여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지도아래 활동하도록 하고 군단, 사단, 연대에도 각각 당위원회를 설치하며 대대에는 초급당위원회, 중대에는 당세포를 두도록 하였다.

북한군당위원회는 집단군, 군단, 총정치국의 정치간부와 군사간부에 의해 구성되고, 연대 당위원회는 연대장과 정치부 연대장도 망라하도록 하였다. 종래에는 군사 단일체의 원칙하에 각급 당위원회에는 부대장과 정치부대장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제도에서는 모든 간부가

I
II
III
IV
V
VI
VII

당위원회에 소속되고 당의 통제를 받게 만들었다.

당위원회의 책임자는 정치부장이 될 수도 있고 부대장도 될 수 있도록 정해졌는데 이는 현재의 정치위원이 무조건 당 책임비서가 되는 제도와 다른 것이었다. 북한군당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총정치국장이 활동하도록 정해지고, 총정치국에는 북한군당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의무밖에 주어지지 않도록 군당위원회의 사업부서와 위치가 부여되었다. 특히 군 내 각급 당위원회에는 간부들의 당생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모든 군사간부가 당의 통제를 받도록 제도화하였다.

같은 달 말경, 당조직위원회 확대회의가 열려 북한군 당위원회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와 원칙이 확정되었다. 여기서 김일성은 ‘소련식 군사단일제’와 ‘중국식 정치위원제’가 북한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면 ‘이원제’를 실시하도록 제안하여 이원제가 채택되었다. 즉, 최고사령관-민족보위상-총참모장-각급부대 지휘관의 군사명령계통과 당중앙위원회-북한군당위원회-총정치국의 당 명령계통을 병치(併置)한다는 원칙이었다.

이때부터 군대 밖에서 총정치국장이 임명되어 민간 출신 김태근이 그 자리에 올랐다. 이원제를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군 외부에서 총정치국장이 임명된 것이다. 전군의 모든 단위에 당위원회가 결성되고 선거사업이 진행되었다. 북한군당위원장에는 김광협 민족보위상이, 부위원장에는 총정치국장 김태근이 선출되었다. 빨치산 출신자가 있는 부대에는 그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치책임자가 당위원장에 선출되었다. 대체로 정치부장이 당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정치책임자가 아닌 군사지휘관도 당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당시 오진우와 최광, 이을설, 백학림 등 야전지휘관에 김일성의 충직한 부하들이었던 빨치산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I
II
III
IV
V
VI
VII

이원제는 명령계통에 혼란을 가져오고 군대 내 규율을 어지럽혔다. 7 개월 후 군대 내 당위원회 제도를 수습하기 위해 항일빨치산 출신으로서 당시 베트남 대사로 나가있던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서철이 군대로 복귀해 총정치국장(중장)에 임명되었다.¹²³

서철이 총정치국장에 임명됨에 따라 김일이 1950년 10월 한국전쟁 초기 교양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책임을 지고 민족보위성 문화부상 직에서 물러난 후 8년만에 처음으로 다시 만주파가 군대의 총정치국장에 올랐다.¹²⁴ 바로 이것은 북한군대가 항일빨치산의 혁명 전통을 계승해야 한다는 김일성의 사관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군대 내 당위원회제도가 정착하는 것은 1960년대 초반부터이다. 이른바 농업부문에서의 ‘청산리방법’과 산업부문에서의 ‘대안의 사업체계’가 새로운 지도원칙으로 적용되면서 전국적으로 경제부문에서 지배인 유일 관리제가 무너지고 당위원회에 의한 이원적 통제체제가 본격 가동되게 되지만 먼저 군대 안에서 당위원회 통제가 실험적으로 실시된 것이다.

1960년 3월 민족보위성 부상인 허봉학이 상장으로 진급하면서 새로 총정치국장에 임명되었다. 역시 항일빨치산 출신이며 야전사령관이었던 그는 만주파의 새로운 군대 실력자였지만 김일성 직계라기보다 최용건의 부하였다. 1960년 9월 8일 노동당 북한군위원회 확대전원회의가 소집되어 군 내 정치사업에 대해 진지한 토의가 있었지만 허봉학은 김창봉과 더불어 군대를 당적으로 통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인물은 아니었다.

1961년 진행된 노동당 제4차 당대회에서는 당규약에 ‘조선인민군내

123. 『로동신문』, 1958년 10월 18일.

124. 서철은 그 뒤 1970년대에 다시 한번 총정치국장을 지내 최초로 북한군 총정치국장을 두 번씩 지낸 인물로 기록되고 있다.

당조직'에 관한 조항을 공식 설치하였다. 제66조에 “조선인민군은 조선로동당의 무장력이다. 조선인민군대에 산하의 각급 당 조직을 유일적으로 망라하는 조선인민군당위원회를 조직한다. 조선인민군당위원회는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에 직속하여 그 지도 밑에 활동한다”고 규정하였다. 또 제67조에는 “조선인민군내의 각급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가 비준한 지도서에 따라서 활동한다. 조선인민군내의 당사업을 조직집행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을 설치한다”고 명시하였다.

(2) 북한군대 내 당위원회제도의 완성

정착의 기미를 보이던 북한군대 당위원회제도는 1962년 10월 23일 제3차 내각이 들어서면서 다시 유명무실해지기 시작했다. 소련 푸른제 군사대학 유학파로서 3차 내각의 민족보위상이 된 김창봉은 마침 머리를 들기 시작한 경제·국방병진 노선 등 군사우선주의에 힘입어 군대 안에서 지휘관 유일관리제의 강한 제도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서서히 기세를 올리던 정치군관들은 다시 머리를 수그렸으며 군대의 기본 목표인 ‘전투력강화’가 최우선 과제로 강조되었다.

1969년 1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에 걸쳐 평양에서는 북한군당위원회 제4기 4차 전원회의가 개최되었는데¹²⁵ 바로 이를 계기로 북한군대 안의 정치기구와 당위원회제도는 완전히 뿌리내리게 된다. 이 회의를 계기로 소련군식의 군사제일주의를 주장하던 민족보위상 김창봉과 총정치국장 허봉학, 제1집단군 사령관 최민철, 제3군단장 정병갑, 7군

¹²⁵ 여기서 한 김일성의 발언은 1969년 3월 북한군 중위로 있다 월남귀순한 로관봉에 의해 입수되었다. 북한은 김일성의 발언을 비밀자료로 묶어두고 군대 안의 간부 당원들에게만 침투시켰다. 따라서 오늘 북한의 어느 문건에도 김일성의 4기 4차 발언은 나와 있지 않다. 안찬일, 『북한군의 정치기구에 관한 체계론적 연구』 국방대학원 학술용역과제물, 1995년.

단장 김양춘, 해군사령관 유창권 등이 숙청되고 최 현과 오진우 등 김일성 직계들이 군대를 장악하게 된다.

북한군당위원회 제4기 4차 전원회의는 크게 3가지 문제를 지적했는데, 첫째는 군부가 김일성의 유일적 영도에 고분고분 따르지 않았다는 것, 둘째는 정치기구와 당위원회의 역할론, 그리고 셋째가 군벌관료주의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 회의에서 한 김일성의 결론을 보면 그 윤곽이 드러난다.

그들이 범한 해독은 대단히 크다. 그 해독 가운데서도 가장 위험한 것은 군대 내에서 당의 정책과 당의 노선, 당의 사상을 뒤집어 놓은 것이다. 군대 내에서 그 해독은 1956년 8월 종파 때보다 더 크다. 당은 정전 직후부터 북한군대 내에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든지, 남조선에서 사변이 일어나든지 하면 한 번 더 미제와 싸운다는 것을 각오하고 군관들과 간부를 사랑하여 유사시 한 등급 높은 직책을 담당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을 요구했다. 당조직이 마비되면 전투력이 없고, 반대로 인민군대가 전투력이 있는 것은 당조직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무들 가운데 일부 사단장이나 연대장들은 당조직을 깔고 정치간부와 단결이 안 되었다. 무엇 때문에 당에서 수 백만 파운드를 주었더니 쓸데없는 샴시제조공장, 수리공장, 합판공장, 비닐공장을 세웠는가, 북한군대 내에서 합판공장이 무엇하는가, 기껏해서 사단장 집이나 짓겠다는 것 아닌가. 김창봉의 죄악과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데 대하여 결론 지으면 그들은 당을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수정주의를 끌어들이고, 군벌주의를 시도했고, 가족주의를 노렸으며, 나중에는 당을 반대하여 결국은 반혁명 준비를 한 것이다. 북한군대 당조직은 결코 사단장이나 연대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어느 사령관이나 보위상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당에 복종하여야 하며, 매개 당원들은 당조직생활에 충실히 참가할 의무만 있다. 당규약에는 별이 높고 낮고 가리지 않고, 큰 것 작은 것 가리지 않고 당정책과 규약에만 복종하게 되어있다.

이상의 김일성의 결론이 말해주듯 1969년 이전까지 군대 내 당 조직과 그 이후의 당 조직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띄고 있으며, 결국 이 시기를 기준으로 북한군대 내 당 조직이 완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¹²⁶ 북한군당위원회 제4기 4차 전원회의 이후 군대 내에 군단 및 사단, 연대 단위까지 정치위원이 공식 배치되었으며 당위원회 제제도 정례화되었다.¹²⁷

다. 선군정치 시대의 군대 내 당 조직

(1) 선군정치 등장의 배경과 목표

설문조사에 의하면, 선군정치 시대 군대의 전반적 위상은 물론 군대 내 당 조직과 정치기구도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¹²⁸ 북한은 선군정치에 대해 ‘군대를 중시하고 그를 강화하는데 선차적 힘을 넣는 정치’¹²⁹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노동당 지배가 약화되고 체제의 위기가 도래하면서 ‘총대정치’로 사회주의를 고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정치’라고 표현해야 더 정확할 것이다. 또 그것은 레닌식 사회주의에서 변질된 북한 사회주의가 다시 한번 크게 변질되는 악순환이라고 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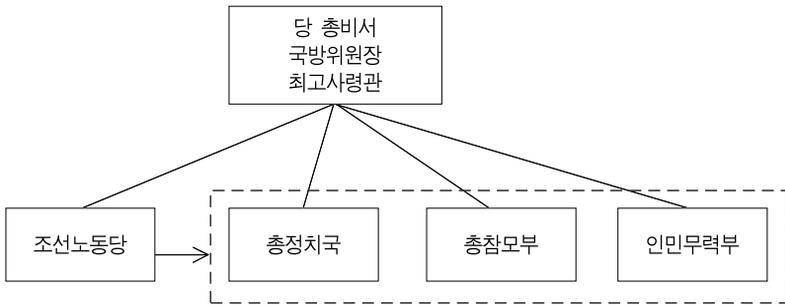
¹²⁶ 위의 글, pp. 48~49 참조.

¹²⁷ 1969년 이전까지 군대는 정치부장이 해당 부대의 정치대표로 당위원회를 지도하는 직위였으나 이후 정치위원 제도가 공식화되면서 일반 사회의 도 당책임비서가 군단 정치위원으로, 군당 책임비서가 사단의 정치위원으로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일반 민간인이 별안간 군복을 입고 부대의 최고위 간부로 임명되면서 북한군은 한동안 혼란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¹²⁸ 북한군 정치지도원 출신인 김나영(중위, 여성)은 북한군 7군단 직속 통신중대의 정치지도원으로 북한군 정치기구의 최말단 단위의 정치군관과 행정군관의 관계, 특히 선군정치 시대 군의 위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하여 주었다. 2011년 9월 17일 인터뷰.

¹²⁹ 고상진,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선군정치의 근본특징,” 『철학연구』 1999년 1호(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9), pp. 17~18.

●그림 V-1 선군정치 하 당·군 관계



있다.

선군정치가 북한의 공식문헌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98년 5월 26일 『노동신문』에서였다. 그러나 이미 1995년 경부터 군을 중시하는 정치방식은 시작되었다. 김일성 사망 후 군에 대한 김정일의 의지는 눈에 띄게 나타났다. 김일성이 생존하던 1994년 김정일의 군에 대한 현지지도는 4.7%에 불과했으나 1995년에는 57%로 대폭 늘어났다. 더욱이 1995년 이후 북한의 공식문헌에서는 ‘선군정치’와 유사한 용어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김정일의 정치사상 및 통치방식을 ‘군사중시의 혁명사상’ 또는 ‘당과 군대·인민의 혼연일체와 군대의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치’로 제시하였고, ‘선군후로’에 이어 ‘선군혁명영도’ 등의 용어가 공식문헌에 자주 등장하였다. 북한이 군대를 중시하는 원칙은 다분히 이중적이다. 하나는 ‘선군정치’의 역사적 주장을 통해 당위성과 충실성을 이끌어낸다면 다른 하나는 실제 군을 앞세울 수밖에 없는 절박성과 관련이 있다. 우선 북한은 ‘선군정치’는 김일성 시대 선군혁명영도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며 그 합리성을 내세운다. ‘조선인민혁명군’이 먼저 창건된 후 이들을 ‘해방’을 이룩하였고 그런 다음 당이 창건되는 ‘선군후당’

I
II
III
IV
V
VI
VII

의 과정을 겪어왔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기존의 사회주의 이론과 다르며 역사적 진실과도 배치된다. 기존의 사회주의 이론은 당연히 ‘선당후군’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¹³⁰ 북한은 이런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군대를 폭력적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군사력을 사회주의 건설과 별개의 위치에 놓았다는 주장을 편다. 그 결과 군사와 정치가 완전히 분리되고 군대에 대한 수령과 당의 혁명적 영도문제를 실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선당후군’이 사회주의 붕괴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러시아와 기타 동유럽 사회주의 붕괴원인을 군대장악 실패로 규정하는 논리다.

(2) 선군정치 시대 군대 내 당 조직

노동당을 대신하여 북한 체제유지를 위해 군대가 나선 선군정치 시대 북한군의 당 조직은 오히려 강화되는 현상을 낳았다. 사회 전반에서 당의 기능이 상실한 것에 대한 반작용이 아닐 수 없다. 결과적으로 ‘북한 체제는 총대가 지키고 군대는 다시 당이 지키는 기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당연히 그 중심에는 군대 내 정치기구가 서 있었다. 이미 1960년대 말에 잘 정비된 북한군의 정치기구는 체제위기를 맞으며 북한 체제유지의 핵심기구, 군사통치의 참모부로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김정일은 1996년 12월 말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기념 비밀연설을 통해 “지금 군대에서는 당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지만 사회의 당 정치사업은 맥이 없습니다”라고 지적하였고, 이어 “당중앙위원회 책임 일군들이 일을 책임적으로 잘하지 못하면 중앙당이 ‘노인당’, ‘송장당’

¹³⁰ 정성임, “북한의 선군정치와 군의 역할,” 『국방연구』, 제47권 제1호 (2004년 6월), pp. 115~116.

I
II
III
IV
V
VI
VII

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하였다.¹³¹ 김정일의 연설을 계기로 군대 내 당위원회와 정치기구는 한층 힘을 받게 되었고 군대 정치기구의 정치사업이 사회에 일반화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었다.

먼저 사회 당 조직이 왜 일시적으로 붕괴되었는지 그 원인부터 살펴 보면, 전적으로 식량위기와 관련된다는 결론부터 내릴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는 이른바 ‘공급’으로 유지되는 ‘배급사회’다. 평소 노동당이 먹여주고 입혀준다는 논리로 버티어온 북한이 일시에 식량배급을 줄 수 없게 되었으니 누가 당의 말을 믿고 따르겠는가. 자연스럽게 당은 지배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군대는 다르다. 북한군은 고난의 행군을 맞으며 오히려 상대적으로 우위의 입장에 서게 되었고 김정일은 군대에 의지해 정권을 지탱하려는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전쟁이 아닌 평화 시기에 군대가 통치의 전면에 나서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북한의 선군정치는 잘 보여주고 있다. 선군정치는 말이 정치이지 위기관리의 최후 수단이며 총대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지배집단의 논리를 합리화한 또 다른 정치적 합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림 V-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노동당은 방대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노동당은 단순한 정책정당이 아니며 65년 이상 한 번도 정권을 내놓지 않은 북한 지배의 정점이며 권력의 중심을 독점한 최고 통치수단이다.

선군시대는 군부로서는 자신의 정치역량을 크게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북한군 병사들 또한 선군정치는 또 다른 기회였다. 북한군 총정치국(북한군 당위원회)은 선군정치 초기 당원비율을 늘렸으며¹³²

¹³¹ 김정일, “우리는 지금 식량 때문에 부정부상태가 되고 있다(1996년 12월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50돌 기념 김정일의 비밀연설),” 『월간조선』, 1997년 4월호, pp. 308~310.

그림 V-2 노동당 조직체계도



군인들은 이것을 신분상승의 기회로 받아들였다. 2005년경까지 북한 청년들이 군 입대를 선호한 것은 노동당원이 되는 길이 군복을 입을 때 제일 빨랐기 때문이다. 선군정치는 한국전쟁과 김정일 체제 등장기(1970년대 초반) 이후 세 번째로 찾아온 군대의 정치역량 강화의 절호의 기회였다.¹³³

¹³² 당원비율에 대한 통보가 아래 단위까지 내려가지 않았지만 보통 당원심사를 진행하는 사단 당위원회에는 공식통보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단 당위원회는 당원 등록과 과를 두고 군관 병사들의 당 입당을 직접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이다. 이철(이남수) 전 북한군 4·25지도국 조직지도원(정치부 고급군관)의 증언. 2011년 9월 24일 인터뷰.

¹³³ 한국전쟁 초기 북한은 '화선'(火線입당)을 통하여 많은 군인들을 노동당원으로 받아들였다. 비당원 병사에게 입당은 명예와 진급을 보장받는 것이며, 당은 이들의

‘고난의 행군’ 이후 사회가 혼란 중에 해말 때 군대는 정치학습과 조직생활 총화 등에서 기존과 똑같은 질서를 유지하였다. 일반 사회는 공장·기업소 가동율이 30%로 감소하면서 근로자들의 출근율이 낮아 당 및 기타 근로단체 활동은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였다. 한편, 김정일은 수시로 군부대를 방문하면서 군사증시의 홍보를 가일층 강화하였다. 군대의 정치조직 지속은 군대에 대한 북한 당국의 경제적 우대를 토대로 하고 있었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지원된 지원물자(식량)들을 우선 군대에 배분함으로써 군대가 체제유지의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담보해주었다. 선군정치는 ‘선군후로’를 강조하면서 우선 군대가 존재해야 경제도 회복할 수 있다는 논리를 끊임없이 강조하였다.

모든 것이 군사력 강화에 집중되면서 일반 경제의 몰락은 그만큼 더욱 파멸의 길을 재촉하게 되었다.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국가전략은 강성대국 건설로 여기서도 사상강국이 가장 우선이다. 다음이 군사강국, 경제강국이다. 사상전선은 항상 정치기관, 즉 당위원회의 전유물이다. 당연히 군대는 북한 전체에서 ‘사상교양의 본보기’로 자리 잡았으며 김정일의 군부대 현지도는 군의 사상체계를 사회에 일반화하려는 새로운 ‘현지도 정치’의 산물이었다. 사상교양은 정치간부들이 하지만, 군대의 초급당위원회와 세포 등 당 조직이 전담하게 된다. 군인들은 입당을 최선의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연 지휘관의 명령보다 정치간부의 지시를 더 중시하게 되며 이것이 북한군의 유지 비결이다.

<표 V-1>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북한군에서 보직 및 진급심

충성과 용맹을 발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는 일치하였다. 전쟁 중 군대에서 당 입당자 수는 당시 전체 군인의 절반에 가까운 14만여 명이나 되었다. (이권무 1958.5.2). 군관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당원이었으며 병사들도 상당수 입당했다. 이는 전쟁 동안 전체 입당자 40여만 명의 1/3을 넘는 수준으로 군의 당원 비율이 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되었다.

I
II
III
IV
V
VI
VII

● 표 V-1 보직 및 진급심사를 결정하는 각급 부대 당위원회 및 발령권자

구 분		추 천	결 정 (발령)
하전사	상등병-상사 특 무 상 사	중대 당세포 연대 당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대 당위원회 • 사단 당위원회 비서처
군 관	위관급 소·중좌급 상·대좌급	사단 당위원회 비서처 군단 당위원회 비서처 북한군당위원회 비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단당위원회 비서처 • 북한군 당위원회 비서처 •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장 령	소장-대장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사령관 명령
원 수	차수-원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중앙군사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원수	대원수	당중앙상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당중앙위원회 • 당중앙군사위원회 • 국방위원회

「출처」 노동신문 및 조선중앙통신 자료를 참고로 작성

하는 해당 당위원회에서 집체적 토의로 결정한다. 이 또한 당 조직의 역할을 높이고 정치군관들의 지위를 보장해주는 군대 조직문화다.

라. 김정은 시대의 북한군 정치기구 및 당 조직 문화

(1) 김정은 체제와 군대 조직문화의 상호관계

김정은은 2010년 9월 28일 노동당 3차 대표자회를 통해 화려하게 등장하였다. 한편, 김정은의 등장을 계기로 노동당은 그 동안 군부에 배분하였던 권력을 되찾아 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¹³⁴ 예상을 깨고

¹³⁴ 노동당 3차 당대표자회 참석자는 총 1,653명으로 그 분포는 다음과 같다. 노동당 673명, 군부 451명, 정부 343명, 과학·보건·문화예술 75명, 핵심당원 116명, 여성

김정은은 노동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란 새로운 직책을 신설하면서 권력승계자로 등장하였다. 특이한 것은 이영호 총참모장이 동 직책을 맡으면서 과거 오진우의 역할을 수행하는 3대 세습의 군부 대표인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영호는 군사위원회 부위원장뿐 아니라 새로 정비된 정치국 상무위원회 멤버로 군 서열 1위 자리를 확보하였다. 북한 당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영호는 사단 참모장, 군단 작전부장, 총참모부 작전국 부국장, 부총참모장, 평양방어사령관 등을 거쳐 총참모장까지 오른 전형적인 작전통이며 포병학을 전공한 포병출신 군인이기도 하다. 만 17세 때인 1959년 입대한 그는 군문에 들어온 지 50년만인 2009년 9월 총참모장에 오르면서 김정은 시대 군을 이끌어갈 대부로 자리 잡는다.

특히 별 둘(중장)은 2002년 4월, 별 셋(상장)은 2003년 9월, 별 넷(대장)은 2009년 2월, 큰 별 하나(차수)는 2010년 9월에 달아 중장에서 차수까지 8년 5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¹³⁵ 이영호의 경우 중장부터 진급의 속도가 빨라졌는데 특히 상장에 오른 2003년 9월은 고영희에 의해 군대 안에서 후계문화가 태동하는 시점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그리고 대장을 단지 7개월 만에 차수별을 달면서 김정은과 동일한 노동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직에 오르게 된다. 중장부터 승진속도가 빨라진 이영호지만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07년 4월 북

149명, 방청 517명이다. 정영태, “북한의 당대표자회 결산: 김정은 권력승계 전망과 과제,” (통일연구원, 2010.10).

¹³⁵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9월 말 현재 북한군의 장성은 총 1,586명으로 이 중 상장 이상은 107명(상장 80명, 대장 18명, 차수 8명, 원수 1명)에 불과하다. 김정은 시대 노동당이 지배권을 회복하면서 앞으로 군의 별들 숫자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군인이 오를 수 있는 최고 계급은 원수(오진우, 최광, 이을설 등)지만 고 김일성 주석한테 부여된 ‘대원수’와 김정일에게 붙여진 ‘공화국 원수’ 계급이 따로 정해져 있다.

I
II
III
IV
V
VI
VII

한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열병지휘관을 맡으면서 두각을 크게 나타내기 시작했다. 당시 이영호의 직책은 평양방어사령관으로 계급은 상장이었다.

노동당의 권력서열상 이영호의 앞에는 1위인 김정일과 2위 김영남(83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3위 최영림(81세, 내각총리), 4위 조명록(83세, 총정치국장, 2011년 11월 사망)등이 있는데 결국, 조명록이 사라짐으로써 이영호는 북한 권력 서열 3위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영호는 김정은이 포병기술을 배운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서 그를 직접 가르쳤고 이런 인연으로 승승장구하게 되었다고 알려졌다.

또한 김정은이 김일성종합군사대학을 졸업한 2007년 직후 이영호가 사령관으로 있는 평양방어사령부에서 군 생활을 하였다고 한다.¹³⁶ 분명한 것은 김정은의 경우 김정일처럼 군대에서부터 먼저 후계구도를 닦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김정일이 오진우와 이용무(당시 북한군 총정치국장) 등의 도움으로 군대 안에서 먼저 세습의 지지와 발판을 닦은 것과 달리 김정은은 국가안전보위부를 중심으로 후계구도를 닦게 되었는데 이는 그만큼 3대 세습이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2대 세습 당시 북한군은 자신들이 북한 혁명을 대를 이어 가며 수행하는 ‘주인공’들이란 자부심을 느끼면서 총대로 옹호한 반면, 이번 3대 세습에서는 다시 반복되는 세습을 단지 멀뚱멀뚱 바라만 보는 ‘객’의 입장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만약에 1970년대 초반의 군의 위상이라면 이번 3대 세습에서 북한군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은 어렵게 되었다. 군은 전력과 능력에서 외

¹³⁶. 일본판 『민족통신』, 2010년 10월 5일.

형적 허장성세에 불과하고 내적으로 권력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 군이 군의 동의 없이도 북한은 3대 세습이든 뭐든 강행할 만큼 권력내부에서 김정일의 힘은 고조되어 있다.

북한군대의 정치기관들과 당위원회들은 3대 세습에 대해 홍보하고 교양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차세대 권력을 맞이하였고, 지금 군대에 대한 고위 인사들의 정리사업 앞에 몸을 사리고 있을 뿐이다. 벌써 50대 중반 이상의 고급군관 상당수가 옷을 벗고 사회로 내쫓기고 있으며 사단 및 군단 급 핵심간부 다수가 교체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군 고위관련 인사는 김정은 후계구도가 진행되던 2007년에도 한 차례 있었는데 도표를 통해 살펴보면 <표 V-2>와 같다. 이 인사를 통해 보면 김영춘 등 군대 내 강경세력이 밀려나는 수순은 이미 김정은 출현 준비단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다만, 그는 인민무력부장이란 실권이 사라진 자리에 임명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으며 군대 권력의 중심은 이영호가 이끄는 총참모부로 옮겨지게 되었다.

● 표 V-2 김정은 후계구도 시험 군 인사

이름	전직	임명	계급	현직	확인
김영춘	군 총참모장	95.10	차수	국방위 부위원장	07.4
박재경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94.9	대장	무력부 대외담당 부부장	07.5
이명수	총참모부 작전국장	97.4	대장	후방 군단장	07.5
김격식	2군단장(황북 평산)	94.10	대장	군 총참모장	07.4
김명국	108기계획군단장(강원안변)	98.4	대장	총참모부 작전국장	07.5
정태근	3군단 정치위원(평남강서)	2005	중장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07.5
김양건	국방위 참사, 당 국제부장	05.6	-	노동당 통전부장	07.5

「출처」 북한의 노동신문, 중앙방송 자료를 토대로 작성

(2) 김정은 체제와 북한군 당 및 정치기구 변화

(가) 김정은 체제 등장과 당원증 교부사업

김정은 등장을 계기로 노동당은 지배구조를 새로 정비하면서 북한 지배의 핵심부로 복귀하였다. 상대적으로 군의 경우 김영춘과 오극렬¹³⁷ 등 군 핵심 인사들이 당 인사에서 소외되면서 권력의 중심에서 약간 이탈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영호의 부상으로 다시 체면은 세우게 되었다. 조명록 총정치국장(사망 전까지)이 여전히 권력의 수위를 지키면서 군대의 정치기구는 건재를 과시했지만 그의 사망 1년이 지났건만 총정치국장은 여전히 공백상태로 남아있다.

향후 어떤 인물이 북한군 총정치국장에 임명되느냐에 따라 군대 내 당 및 정치기구는 위상이 달라질 전망이다. 현재 북한군 총정치국장으로 가장 유력한 인물들을 짐쳐 보면 최용해(대장)가 0순위이고 오진우의 아들 오일정(상장)과 오백룡의 아들 오금철(상장)도 얼마든지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될 수 있다. 다만, 김정은 체제에서 총정치국이 어떤 지위를 보장받느냐에 따라 그 이하의 예상할 수 없는 인물이 총정치국장에 임명될 수도 있다.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정각 대장이 임명될 수도 있고 박재경 대장이 임명될 수도 있다. 분명한 사실은 현재 분위기로 이영호의 위상을 초월하는 인물이 총정치국장에 임명될 가능성은 없다. 일각에서는 김영춘이 총정치국장에 임명될 수도 있다고 예측하

¹³⁷ 당대표자회 개최 소식 이후 북한 전문가들은 최소한 김영춘이나 오극렬이 노동당의 최고 지위(정치국 상무위원)에 오를 것으로 예측했었다. 하지만, 이영호의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오히려 그들은 소외되는 모습이 되어버렸다. 김영춘은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에 오르지 못했으며 군의 대표 자리를 이영호에게 내주고 그 서열 아래로 내려앉았다. 오극렬은 정치국에 진입하지 못했고 김격식 대장 역시 당중앙에서 아무런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 반면, 김경희, 최용해, 김경옥 등 당측 인사들이 대장 칭호를 받으면서 새롭게 부상하였다.

고 있으나 그가 단 한 번도 군대의 정치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는데다 김정은 체제에서 이미 그는 용도폐기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군대의 최고 지위에 오를 희망은 버려야 할 것이다.

북한은 지난 해 3차 당대표자회에서 당규약 개정을 통해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새롭게 규정하였다. 결국,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위상 강화는 단순한 3대 세습의 도구가 아니라 앞으로 군사통치를 당의 통치로 합리화하려는 발상전환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알려진 대로, 1982년부터 노동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중앙군사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면서 당중앙위원회와 수평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당중앙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 다른 권력기관과 공동으로 중요한 정책결정에 참여해 왔다.¹³⁸

이처럼 당중앙군사위원회가 당중앙위원회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2010년 새로운 당규약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된다’는 조항을 추가하게 되었다. 새 당규약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의 달라진 위상은 당중앙위원회가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하는’ 것처럼 당중앙군사위원회도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군사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사업을 당적으로 조직지도’하게 됨으로써 보다 분명하게 드러났다.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에 모두 ‘당의 최고지도기관’이란 지위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두 권력기관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 당중앙위원회가 당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조직·지도하는데 비해 당중앙군사위원회는 특히 군사분야의 사업을 조직·지도한다는 데 있다. 과거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비상설 협의기구’의 성격이 강했는데 새 당규약에 의해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

¹³⁸- 정성장, 『현대 북한의 정치』 (서울: 한울, 2011), pp. 387~388.

에 군사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사업을 당적으로 조직 지도'하는 상설군사정책 결정기구로 변화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당의 최고지도기관의 신설된 부위원장직을 김정은이 맡음으로서 김정은은 군사분야에서 제 2인자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당중앙군사위원회가 국방위원회를 능가하는 새로운 통치기구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리고 선군정치하에서 위기관리 책임은 국방위원회가 아닌 당중앙군사위원회의 몫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기도 하다. 3차 당대표자회 이전 김정일의 군부대 시찰에서는 핵심 엘리트들에 대해 주로 국방위원회 직책들만 소개했으나 3차 당대표자회 이후는 핵심엘리트들의 당중앙군사위원회 직책이 언급되면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들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들보다 먼저 거명되는 분명한 권력이동이 확인되고 있다. 당규약 개정 후인 2010년 10월 26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표단과 중화인민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의 회담'에서는 국방위원회의 그 어떤 직책도 보유하지 않은 이영호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북측의 수석대표 역할을 맡는 이변이 발생했다. 이는 김정은 체제 등장 후 당중앙군사위원회가 국방위원회를 대신해 북한의 국가 국방기관도 대표할 수 있는 파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김정은 체제 등장 후 아직 군대의 당 및 정치기구에서는 어떤 변화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 특별히 바꾸거나 고칠 명분도,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당원들의 새로운 분위기 쇄신을 위한 '당원 100만 명 젊은 피' 교체작업은 군대라고 제외될 수 없었다. 북한 내부의 믿을만한 소식통은 김정은 등장 후 올해 초부터 당원 100만 명을 젊은 피로 수혈하는 '당원증 교체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당원증 교체작업은 북한 노동당이 당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실시해온 당 조직정비의 일환이다.

이번 당원증 교체작업이 과거와 다른 것은 주로 과오를 범한 당원들을 당 밖으로 내보내거나 경고하는 차원이 아니라 ‘젊은 피 수혈’¹³⁹이라는 목표 아래 젊은 당원들을 보충하고 노인 당원들을 당 밖으로 축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100만 명이면 북한 노동당원 수를 300만 명으로 계산할 때 당원 세 명중 한 명을 교체한다는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과거 김일성이 “당원들은 죽을 때까지 당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도 배치된다. 북한군에는 연령으로 당 생활이 문제되는 당원은 별로 없다. 다만, 고위 군 간부를 제거하는데 ‘노당원 교체’는 명분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당원증 교체작업으로 일단 북한군 안에서 정치기관 및 당위원회는 자신들의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당원증 교체 작업 기간 50대 중반 이상의 30여 년 이상 군생활자(대좌급 이상 군인)상당수가 군복을 벗고 사회로 방출되었다. 지난 봄에는 북한군 사단장 1명이 갑자기 군복을 벗고 사회로 방출되었으나 주택을 배정받지 못해 노동자합숙소에 머무르고 있다는 보도(NK지식인연대)가 있어 ‘젊은 피 수혈’이 불러오고 있는 군부 동요를 대변해주고 있다. 군대 안에서도 주로 사단장과 그 이하, 그리고 군단급의 부장(대좌)급 이하가 사회방출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 같은 군사지휘관들과 달리 정치군관들과 당 일꾼들은 거의 군복을 벗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I
II
III
IV
V
VI
VII

¹³⁹ 북한 노동당은 1974년 5월에도 한 차례 당원증 교체작업을 단행해 김정일 체제에 저항요소가 있는 당원들을 당 밖으로 축출하였다. 당시 당원증 교체작업은 당 세포에서부터 당생활에 문제가 있는 당원들을 집중 비판하고 다시 초급당, 사단 당위원회로 불러올려 비판하고 재심사하는 과정을 거쳐 당원증을 돌려주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기회에 약 10%의 당원들이 당원증 교체의 대상으로 되었다.

(나) 군량미 지원사업 중단과 군 조직문화 동요

2010년 9월 28일 노동당 3차 당대표자회 직후 북한군은 한때 크게 동요하였다. 당중앙군사위원회가 10여 년 이상 지속해온 군량미 지원사업¹⁴⁰ 중단지시를 내리고 군부대에 대한 보급이 차질을 빚게 되면서 군인들의 사기와 조직생활에 혼란이 오게 된 것이다. 고난의 행군 뒤 해마다 추수철이 오면 북한의 각 지역 농장마다 군량미를 우선 확보하려는 군대와 1년 애써 지은 농작물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농장원들 사이에 갈등이 컸다.金正은이 등장한 2010년의 경우 특별히 봄철 냉해와 여름 수해로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식량사정은 더욱 긴박했다.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북도 등 군량미를 책임지고 있는 곡창지대에서 워낙 수해 피해가 심해 그나마 작황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함경북도에서 부족한 군량미를 우선 충당하기로 국방위원회는 결정하였다. 이 소식에 접한 함경북도 농민들은 “군량미를 먼저 바치면 주민들에게 돌아갈 식량은 10일 분량도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2010년 10월 30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해마다 최우선적으로 진행하던 군량미 사업을 올해부터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11월 1일 그와 같은 사실을 전체 협동농장들에 통보하였다.

양강도 백암군과 대홍단군, 함경북도 무산 등지의 협동농장들은 이 같은 소식에 크게 환호하였다. 해마다 군량미 우선 차출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의 식량난이 악화되었고, 군량미를 바치지 못하면 ‘장군

¹⁴⁰ 1995년 ‘고난의 행군’ 이전까지 북한에서 군량미 지원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았다. 식량위기가 도래하고 많은 주민들을 굶어죽는 가운데 군인들 속에서도 영양실조 환자가 늘어나자 노동당은 주민들 속에서 군량미 각출을 시도하게 되면서 군량미 지원이란 사업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주민들의 큰 반발을 샀다. 그래서 김정은이 ‘등장선물’로 군량미 지원 중단이란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이다. (사)좋은 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2010년 11월 8일(374호).

님의 선군정치 영도를 따르지 않는 죄인' 취급에 당적,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기 때문에 농민들의 고달픔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군량미 중단 소식에 농민들은 너나없이 입에서 입으로 이 소식을 전하면서 설레이는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한 달 전만 해도, 44년 만에 당대표자회가 열리고 새로운 후계자가 등장했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달라진 것이 없다는 데로부터 반응이 전혀 없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별안간 군량미 지원 중단 소식이 전해지자 '이제야 진정 인민들을 생각하는 지도자가 나타난 것 같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노동당은 여기에 더해 군대원호사업으로 진행하던 고기지원사업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야말로 파격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반대급부는 군대에게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후방공급이 안 되는 군대에 군량미 지원사업이 중단되고 고기(육류: 돼지와 닭, 염소 등) 지원사업이 차단되자 군인들은 굶주림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단결된 조직문화는 균열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3대 세습 나이 어린 철부지 후계자의 군량미 지원 중단 선심공세는 '3일천하'로 끝나고 말았다. 당장 군인들 속에서 영양실조 환자가 급증하고 군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군대가 군량미 지원 중단으로 크게 동요하고 조직가동이 불가능한 국면에 이르자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군량미 지원중단을 철회하였다. 북한 사회만 허약한 경지에 이른 것이 아니라 군대도 식량이 아니면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군량미 지원중단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계기만 대내외에 널리 알려주었다.

군량미 지원 중단 사건에 이어 김정은은 “총알보다 식량이 중요하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해 북한 사회에 또 다른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2010년 10월 3일 김정은은 “과거에는 식량이 없더라도 총알이 없어서

I
II
III
IV
V
VI
VII

는 안됐지만, 지금은 총알이 없어도 식량이 없으면 안 된다”¹⁴¹고 말했다. 김정은의 이와 같은 발언은 노동당 고위간부들에게 배포된 내부 문서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 국내문제에 관한 김정은의 구체적인 발언이 밝혀진 것은 후계자 지명 후 최초의 일이다. 이 같은 김정은의 발언은 그가 함경북도 김책시를 방문했을 때 발언한 것으로 경제회복과 인민생활 수준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된다.

2. 북한군 인민무력부 산하 총정치국 당 조직

가. 인터뷰 대상자 인적사항

다음은 평양의 인민무력부 산하 총정치국 조직부 사무국의 기무문건을 다루는 5과에서 정치지도원(소위)으로 근무하다 2006년에 탈북한 노동당원의 증언을 통해서 북한군 당 조직 운영 및 조직문화 실태를 분석한 것이다.

나. 인민무력부 산하 총정치국 당 조직 구조와 기능

인터뷰 대상자 ○○○가 근무한 곳은 형식상 인민무력부 산하, 행정상은 총참모부 직속의 사무국이지만 하는 일은 내부적으로 총정치국 소속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특성상 행정기관은 당기관의 하위기관이지만 당기관은 형식적 기관에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사실상의 권한을 행사합니

¹⁴¹ 『요미우리신문』, 2010년 10월 25일.

다. 형식상 표현은 인민무력부 총정치국으로 인용하지만, 두 기관 사이에 특별한 상하를 따지는 관계는 아니다. 군단장 밑에 정치지도국이 있지만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서 군단장 독단의 권한보다는 정치국과 상의해야 하는 관계이므로 인민무력부와 총정치지도국 간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민무력부 청사 안에 있었으며 별도의 중대급도 아니고 조직부나 선전부가 별도로 나누어져 있지 않았다. 조직부, 선전부, 간부부라는 것은 대대급 이상 군단급은 별도의 정치국에 있다.

인터뷰 대상자는 총정치국 안 사무국에 따로 부설되어 있는 5과라는 조직에서 근무하였다. 5과는 기밀문서를 다루는 특수조직으로써 비밀 관리 때문에 외부출입통제 등 지정된 숙소에서 생활하고 다 같이 단체 활동이 강요되는 곳이라고 설명하였다.

직책은 특무상사 부소대장으로 있다가 소대장편제와 함께 소대장정치지도원(소위)에 발령 받았고 이는 정치지도원으로서 초급간부 수준이라고 증언하였다.

다. 인민무력부 산하 총정치국 당 조직문화 변화 분석

(1) 당 조직생활

본 연구는 당 조직 문화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김일성 생존시 당 조직생활수준을 100%라고 한다면, 그 이후 어느 정도 이완되었는가를 평가해 보는 것이다. ○○○은 인민무력부 산하 총정치국 내의 당 조직생활의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먼저 김일성, 김정일 등과 관련되는 사진이나 작품인 1호 작품에 대한 관리는 김정일 사망을 기점으로 얼마 기간 동안은 강조되고 활성화된 측면이 있었다.

I

II

III

IV

V

VI

VII

● 표 V-3 인민무력부 산하 총정치국 내의 당 조직생활의 변화

구분	100%	75%	50%	25%	0%
1호 작품 관리 및 참가정형		○	(△)		
수목강연회, 토요일정치학습		○	(△)		
월간 자체학습 및 정리수준		○	(△)		
아침 독보회 수준		○	(△)		
총성의 노래모임		○	(△)		
생활총화 및 월간총화진위		○	(△)		
입당 선호도				○	
당조직 보고체계		○			
사회노력지원 및 정치적 자극		○			
당비 납부 및 재정상황	○				
노작방침지시 침투 조직사업		○			

※ ○ 조직의 지시에 의한 형식적인 운영상황, △ 조직의 지시에 대한 당원들의 내적 욕구상황

김일성사망 전까지 아침총회에서 한 번 역설되던 일호작품이 사망 이후에는 자정 전 다시 한 시간 정도씩 재학습함으로써 하루 2회로 강화되고, 김일성사상연구실의 액자사진의 뒷부분에 습기방지를 위하여 솜가루 부착 등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작업들이 평소보다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만수대언덕의 김일성 동상 정성사업이 특별히 강조되어 평소 5시부터 시작하던 정성 사업을 4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의 시기에 지나면서 인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자 1호 작품에 대한 관리가 느슨해지기 시작하여 탈북할 당시(2006년)에는 상당부분 관리가 소홀해 지는 경향이 심해진 것으로 보았다. 또한 김일성연구실과 같은 일호건물을 개인에게 넘겨 사적으로 이용하게 하

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일성생존 당시에는 김일성로작연구실 같은 곳에 사람들로 붐비고 입장할 때도 흰커버를 신고 입장하는 최대한의 청결함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었지만 김일성사망이 후부터는 연구실출입수가 적어지고 관리자들의 책임성이 약화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탈북당시(2006년)에는 극에 달했어요. 즉, 김일성연구실 같은 일호건물을 개인에게 분양하는 형식으로 장사로 재산을 모은 개인에게 넘겨 가라오케, 식당, 상점으로 개편하여 그 소독의 일정부분을 국가에 바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북한에는 김일성사상 등을 강조하는 건물이 반 정도 차지하므로 시, 도, 구역급의 연구실을 빼고 농촌 같은데 존재하는 연구실은 꽃제비들의 숙소로 이용하는 등 식량난에 따른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축소되는 과정, 즉 시설물 안에 있는 장비들의 처리문제나 행방에 대하여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수목강연회나 토요학습정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상급기관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다르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인민들에게 크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상당수의 당원들조차도 수목강연회나 토요정치학습에 참가하는 것을 싫어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빠지려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고 설령 참가하더라도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참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본인의 사무국당원이라도 토요정치학습에 빠지기 위하여 상급에게 뇌물을 주고 라진선봉으로 장사하러 가는 행태가 발생한다. 이는 100명중 75명만 참여, 나머지 25%는 빠지는 형태였어요. 점점 심해지는 형태이며, 총회결과보고서 또한 형식일 뿐이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20~30%에 불과합니다.

월간 자체학습, 아침독보회, 충성의 노래 모임, 생활총화와 같은 당의 집단적인 사상교육체계는 모두 위에서 언급한 수목강연회나 토요학

I

II

III

IV

V

VI

VII

습정리의 변화와 별반 다르지 않다. 과거 이러한 당을 중심으로 한 조직문화가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이루지고 노력하는 면이 있었다면,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경험하고 이제는 먹고 살기위한 개인적인 삶에 보다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당 조직문화가 등한시 되고 나아가 거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김일성 사망 전에는 100%의 출석률을 보였지만, 이는 김일성에 대한 주민과 군인들의 공통된 인식, 즉 김일성이 주민과 군인을 위하여 무언가 노력하는 부분이 보였기 때문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군대 안에서 아침독서의 경우 70%로 예상됩니다. 과거에는 정치학습을 모든 업무 중 최상위과업으로 취급되었지만 현재는 실용적 삶에 치우쳐 과거 정치학습에 빠진 사람에 대한 태도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총화 충성의 노래모임도 같은 현상을 보입니다. 실질적인 변화는 1996년~1997년부터 시작하여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 군 내에서 노동당 입당선호도는 절대적이었다. 보다 상층부나 보위부와 같은 검열부서·보안기관은 진급과 출세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으나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인민들은 당원으로서 혜택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행동에 제약을 가져오는 굴레로 인식하게 됨에 따라 군 내에서 조차 입당을 원하지 않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는 현재 가지고 있는 당증을 포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1997년~1998년 제대까지만 해도 하전사들 속에서 당입당 못하고 고향으로 복귀해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자살하겠다는 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제대시기를 같이하여(2000년부터) 당생활하기 힘든 상황들로 인하여 과거 같은 심각한 상황은 없어졌습니다. 왜냐면 사로청원들이 한 번 모일

때 당원의 경우는 4~5번씩 모여야 한다는 귀차니즘현상이 생기고 “당원인 며느리보다 장사 잘 하는 며느리가 낫다.”는 사회 속어가 등장했어요. 본인의 하나원 기수는 137기였는데 거기서 총무를 하였는데요, 여기에 탈영한 군인들이 20% 가까이 있었 습니다. 그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거의 (입당선호도가) 0% 가까워졌음을 느꼈어요. 그래도 북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간부로서 승진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의 수치는 20% 정도로 보여지며 입당선호도는 25% 정도로 예상해요. 본인들의 세대까지만 해도 향후 전망을 위하여 당원이 되는 것을 필수로 알고 있을 정도로 소중히 취급됐지만 현재는 ‘당중’을 돈으로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당 조직 보고체계는 형식적인 절차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과거와 비교하여 느슨해 졌다고 보았다. 특히 비판적인 언동에 대한 처벌이 약화되고 뇌물을 통해 보고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어 당 조직 보고체계가 어느 정도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군부대에 세포조직이 있고 청년의 경우 청년비서에 소속되며 청년비서는 정치지도원에게 보고하고 정치지도원은 정치부장에 보고하는 형식적 절차가 있었지만 현재는 많이 느슨해진 상황이에요. 과거 “군에서 입당 못하면 말지 뭐.”라는 발언자체가 사상투쟁의 대상이었지만 현재는 하전사의 발언에 대하여 바로 직속상관이 욕 한 번 먹는 정도로 보면 됩니다.

과거에는 당세포안의 당원이 잘못된 발언을 했을 경우 동료끼리 신고하는 현상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관에게 뇌물을 주어 무마시키는 형식으로 바뀌었으며 이 또한 고난의 행군시기를 벗어나면서 직접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조직 보고체계는 75%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의 입당선호도와 당 조직 보고체계의 변화를 지켜봤을 때 인터뷰 대상자는 다시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면서도 여전히 군 내 당성은 일반 인민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았다.

I
II
III
IV
V
VI
VII

과거와 같은 당성과 조직지도체제를 되찾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며 이는 사람들이 당, 즉 김정일을 믿지 않으므로 회복될 가능성을 없습다. 현재 김정일은 국가의 그 어느 조직보다 군대의 당조직은 견고하다고 단언하지만, 이는 헛소리이며 김정일 하부조직들의 허위된 보고체계로 인한 잘못된 시각입니다. 그러나 군부대의 전체적인 당성약화는 다른 조직, 사회보다는 양호한 편이며 사회는 25%까지 떨어진다면 군대는 70%까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회노력 지원은 상부의 지시에 마지못해 따르고 있지만 하전사들을 중심으로 동원시키는 현상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당비 납부 및 재정상황 부분에서 군 내 당원들은 당비만큼은 철저하게 납부하는 것으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당 조직의 재정상황이 어떤지와 연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았다.

당조직자금을 횡령할 정도로 생활이 급한 상황이라면 탈북하지 당자금을 못내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노작방침지시 침투조직사업에 대해서는 형식은 변함이 없지만 받아들이는 자들의 입장이 과거와 다르다. 관리자들조차 이러한 일에 무관심하여 형식적일뿐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보편적으로 뇌물(돈)이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은 사회모든 분야에 퍼져있으며 이는 75% 가까이 인정됩니다. 출세욕에 가까운 사람들, 즉 당일군은 자신들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과거처럼 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개조하는 일보다는 현상유지를 위하여 자리를 지키는 정도로 그 이미지가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2) 당 조직 지도 및 운영 실태

○○○은 인민무력부 산하 총정치국 내의 당 조직 지도 및 운영 실태의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먼저 당위원회 운영 실태를 보면 충실성이나 참여도에서 과거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 같다. 그러나 당회의의 사전 준비는 과거와 비교하여 약화된 것으로 보았다.

당위원회의 충실성은 100%로 예정입니다. 당위원회의 참여도

● 표 V-4 인민무력부 산하 총정치국 내의 당 조직 지도 및 운영 실태의 변화

구분	100%	75%	50%	25%	0%
당위원회 운영 실태	○				
각종 당회의 사전 준비 실태	○				
간부선발 배치 정형				○	
하부 조직 실태 매주 보고상황				○	
근로단체지도정형 작동상황				○	
당 책별 및 상여기준			○		
당 검열부서의 기능 여부				○	
당 신소담당과의 기능 여부				○	
당 재정 및 외화별이 상황				○	
조직비서와 책임비서의 관계			○		
부서별 본위주의 및 파벌형성			○		
당조직과 보안기관 상하관계			○		
마약이나 성문화 접근성향		○			
선물시혜 정책여부					○

I

II

III

IV

V

VI

VII

도 100%로 예상됩니다. 당회의 사전 준비 실태는 해당 부서정
치부장 정치위원 등을 통하여 사전실태조사가 미리 보고되지만
준비의식과 참여의 열의는 과거처럼 '정중한 태도'에서 벗어나
현재는 느슨한 편입니다.

간부 선발 및 배치에서 인맥과 뇌물을 통한 방법이 늘어난 것은 사실
이나 군부대에서는 여전히 부지런한 열성당원이 다수 승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족 중에 항일투사 경력이 있으면 지식 등 실력을 떠나 대를
이어 간부집안이 되는 거며, 힘이 없는 가족의 경우에는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여 출세하거나 뇌물작전을 쓰는 경우가 대표적입
니다. 자신의 능력이라면 경쟁적인 능력과 인맥을 말하는 것이
다. 저의 경우에는 정말 열성다원이 되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김일성 충성사업을 하고 윗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올라온 케이스
입니다. 군대에서 간부선발문제는 군부대 배치 때부터 나타나고
이어지면서 현재 80%가 그런 케이스로 승진한 걸로 보입니다.

하부 조직 실태의 매주 보고상황은 과거에는 고발에 치중했다면 현
재는 이를 피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과거 당조직지도원은 자신들의 당조직구성원의 잘못을 밝히는
데 치중했다면 현재는 가능한 커버해주려고 하는 입장에서 서
로가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는 현상으로 사회의 30%가
이에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근로단체지도 정형 작동상황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3대혁명훈장을
받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비를 진심으로 소중히 했다면 지금은 전혀
그런 사람이 없으며 형식적인 수준이라고 언급하였다.

당 책별과 상여 중 책별은 뇌물이 작용하나 상은 어렵다고 보았다.

책별에 대하여서는 돈으로 커버되지만 상여부분에 대하여서는
보편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 때문에 공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뇌물이나 돈으로 승진은 가능하지만, 표창수요, 훈장수여는 불
가능해요.

당 검열부서의 기능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격한 편이지만 뇌
물 등이 통하는 만큼 변화가 있다고 보았다.

정치범수용소 입성과 같은 중요사함에 대하여는 엄격한 편이지
만 일반적으로 뇌물이 통하는 상황이에요. 즉, 과거에는 남조선
에서 들여보낸CD라고 하여 청취 즉시 사형한다는 분위기였습
니다. 본인의 경우 '천국의 계단'을 보면서 밤새 눈물을 흘린 경
험 있는데요. CD구입방법은 서로 교환하는 형식으로 구입하고,
당간부집에 있는 일본산 배터리를 뇌물을 주고 빌려서 청취장
소를 옮겨가면서 보고는 했습니다. 한군데에서 계속 볼 경우 위
험하니까.

신소담당과 역시 뇌물이 통하고 신소기관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그
신소를 처리하거나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신고했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신소도 자신이 신고하는 사람의 파워를 알고 해야지 능력도 없
으면서 신고했다가는 거꾸로 걸려드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정치지도원을 신고하여 그를 그 자리에서 떨어뜨리겠다고 생각
하였고 그 사람보다는 힘이 약하다고 한다면 항일투사계열이
있는 집안을 뚫어 그 집에 돈을 찔러줘서 그 노인네를 내세워
신고하는 형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I
II
III
IV
V
VI
VII

당 재정 및 외화벌이 면에서는 외화벌이기관의 상당수가 군부대 산하이며 김일성 시기와 비교해 외화벌이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평가했다.

외화벌이기관은 대부분 군부대의 산하이며 김정일 몰래 빠져나가는 돈은 없습니다. 북한은 김정일보다 우월한 사람은 살기 힘들며 그 어떤 조건을 걸어서라도 파멸시킵니다. 김일성시대에는 국제관계가 좋아서 주민들을 착취하지 않고 규칙대로 모든 것을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외화벌이라는 것이 외국과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국내의 자원을 중국에 헐값에 팔아 넘기는 것인데 이는 외화벌이라고도 볼수 없죠.

조직비서와 책임비서의 관계에서 정치국(부)의 업무와 관련해서 책임비서의 결재를 받고 지시를 이행해야 하는 위치이나 형식적인 반면, 조직비서는 실세라고 언급했다.

책임비서는 형식적이지만 조직비서는 실세이며 조직비서는 책임비서를 누를 수 있지만 책임비서는 조직비서를 누를 수 없습니다. 변화는 2004년부터 김정일의 방침에 의하여 조직비서는 승진을 빨리 시켜서 전체적으로 젊어지는 현상이예요.

부서별 본위주의와 파벌형성 면에서 보면 당기관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경향이 과거에 비하여 더 심해졌다고 평가하였다. 조직부, 선동부 등 물질을 다루는 부서의 부서나 부장이 자금력이 있어 본인부서의 직원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면 그 조직은 탄탄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기관책임자의 능력에 따라 달려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이것이 파벌형성으로까지 보는 것은 다소 무리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당 조직과 보안기관과의 상하관계 면에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으며 서로 강력히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마약이나 성문화 접근 상황 면에서는 마약은 돈으로 되는 일로 인기

가 많은 반면, 성문회는 문란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바뀌는 사회적 인 현상으로 보인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

선물시혜 정책 여부 면에서 본인이 근무한 조직 내 구성원들 거의 모두가 김정일이 내리는 선물에 대한 기대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제는 학교학생들에게 주던 사탕과자는 물론 교복까지 자비부담이라는 면에서 과거 김일성시대와 비교하여 선물시혜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다.

3. 북한군 사령부급 당 조직

가. 인터뷰 대상자 인적사항

다음은 북한군 사령부급 정치부 조직부에서 근무하였으며 노동당원 경력이 약 25년 이상이며 북한군 총정치국 산하 사령부급 당 조직에서 조직부 책임지도원급(중좌)으로 복무하다 2006년 탈북한 노동당원의 증언을 통해서 북한군 당 조직 운영 및 조직문화 실태를 분석한 것이다.

나. 사령부급 당 조직 구조와 기능

인터뷰 대상자가 일하였던 북한군 사령부급 당 조직의 정식명칭은 ‘조선인민군 ○○○군부대 정치부’였다. 이 정치부는 정치부장이 책임자이며 당위원회 조직비서의 역할을 하며 산하에 조직부, 선전부, 간부부로 이루어져 있다. 이 정치부는 60여 명의 소좌급 이상의 간부들이 있었고 정치위원은 대장, 정치부장은 상장, 조직부장은 중장, 선전부장은 소장, 간부부장도 소장, 부부장 급은 대좌 혹은 소장, 과장급은 상좌 혹은 대좌급, 부과장 혹은 책임부원급은 상좌 혹은 중좌였다. 그리고

부원급은 중좌 혹은 소좌다. 당위원회 책임비서는 정치위원, 1비서는 사령관, 2비서는 정치부장, 부비서는 참모부 당비서인 조직계획국장이다.

행정책임자당위원회직위란 무엇이냐면 가령 연대나 중대 대대나 중대장들이 당위원회 부비서 했잖아요. 정치부안에 공군사령부당위원회 공군사령관당위원회부비서직이 있었죠. 부비서는 대부분 행정직으로 되어 있고 정치부장이 제2비서정도 되어 있죠. 그리고 사령부(혹은 부대)당위원회 제1부비서직, 2비서는 정치부장, 부비서는 참모부 당비서인 조직계획국장이다. 정치부안에 60명이 있었다면 조직부는 대체로 30여 명이 있었어요. 우선 당생활지도과 8명, 당원등록과 7명, 검열과 5명, 신소과 4명, 기요과 3명, 총무과 4명, 통보과 2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북한군에는 행정책임자 당위원회 직위가 있다. 즉, 1비서가 공군사령관이고 부비서가 참모부 당 조직 책임자인 참모부 조직 계획국장인 하듯이 모든 군부단위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

제일 권한이 있는 순서대로 하면 당생활지도과가 제일 높다. 당 생활지도과를 실례로 들면 당생활지도과장은 대좌였고 부과장은 상좌였어요. 부원급이 6명이었는데 그중 내부담당부원이 상좌로 1명이었습니다. 사려단에는 당생활을 보고 받고 지도사업을 진행하며 업무 특성상 부과장을 두고 있고 련대에는 부과장 직제가 없어요.

선전부는 대체로 내부업무와 아래 단위에 내려가 강연, 강습을 진행하며 충성의 노래모임, 김일성 및 김정일 정치사상연구실관리 같은 사업을 맡아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선전부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간부부까지 합하여 조직부와 인원수가 거의 비슷하다.

선전부는 선전부장이 대좌였고, 부부장이 2명이었는데 내부부

장이 대좌, 부부장이 상좌예요. 그리고 나머지 지도원이 9명이 중·상좌 편제예요.

조직부의 구성과 임무는 군부대 당 조직의 조직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진행한다. 조직부에서도 권력순으로 보면 당생활지도과, 검열과, 당원등록과, 통보과, 신소과, 총무과 순이다. 간부부는 간부 선발 및 배치를 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곳이다.

당생활지도과에 8명이 있었어요. 당원등록과에 7명이 있었어요. 검열과에 5명 신소과 3명에 기요과에 3명, 총무과에 4명, 통보과에 2명 있었어요.

선전부 간부부, 보위부 다 합해서도 조직부와 비슷하더라구요. 30여 명입니다. 간부부의 임무는 사령부 부장 급 이상은 총정치국 정치부 간부부에서 하고, 그 이하는 사령부 정치부 간부부에서 해요. 사령부 급 간부사업을 진행하는 부부장과 일반담당 부부장 2명이 있어요. 간부부는 군관들의 승진시 문건을 만들고 당생활지도과와 협의하여 그 자료에 기초한 간부 임명에 필요한 신원요해, 간부임명에 필요한 일정한 업무를 주관해요. 군관들에 대한 신원조회 같은 것은 직접 해야 해요. 사령부에서 사단장 급은 임명하지 못하지만, 연대급, 대대급까지는 사령부급에서 합니다. 북한의 우리 부대 연대장급 정도면 대체로 만경대학원 졸업생이 많아요.

참고로 보위부는 사령부 안에서 제기되는 반김정일 및 반체제 문제들을 기본으로 하고 반간첩행위들을 중심으로 산하보위기관을 통해 보고된 관련 문제들을 종합분석해 내부처리하며, 중요한 것은 보위사령부에 보고하고 합동하여 수사 적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보위부는 군 당기관인 정치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단지 보위부는 당생활지도를 정치부에서 받도록 되어 있다.

I
II
III
IV
V
VI
VII

표 V-5 북한군 총정치국 예하 사령부급 정치부의 구조와 기능(보위부)

부서명칭 및 부서장	기능 내용	인원수
정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 명칭은 조선인민군 ○○○군부대 정치부 - 이 군부대 당위원회는 총정치국 예하 사령부급 당위원회임 - 정치위원은 대장, 정치부장은 상장, 조직부장은 중장, 선전 부장은 소장, 간부부장도 소장, 부부장 급은 대좌 혹은 소장, 과장급은 상좌 혹은 대좌급, 부과장 혹은 책임부원급은 상좌 혹은 중좌 	60여 명
조직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력 순 당생활지도과, 검열과, 당원등록과, 통보과, 신소과, 총무과 - 조직부의 권한이 가장 높다. 이유는 위에 올리는 보고가 모두 모이는 곳이기 때문임. 	30여 명
선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업무와 아래 단위에 내려가 강연, 강습을 진행하며 총성의 노래모임, 김일성 및 김정일 정치사상연구실관리 같은 임무를 수행 - 군대 안에서 선전부의 권한은 제일 낮음. - 군악대와 선전대를 여기서는 원래 직속이지만 독립부서 정함 	12명
간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령부 내 간부 선발 및 배치를 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임무 - 조직부와 간부부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지만 보위부와는 조직부가 좋음. - 5과가 없음. 	9명
행정책임자 당위원회 직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비서는 대부분 행정직으로 되어 있고 정치부장이 제2비서 사령부(혹은 부대)당위원회 제1부비서직, 2비서는 정치부장, 부비서는 참모부 당비서인 조직계획국장 - 당위원회 제1비서는 부대 사령관이 겸직 	2명
보위부 (정치부 지도 및 관계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령부안에서 제기되는 반김정일 및 반체제 문제들을 기본으로 반간첩 행위들을 중심으로 산하보위기관을 통해 보고된 관련문제 처리 - 보위부는 정치부의 하위기관은 현재 아님. 그러나 당적 지도는 정치부 조직부를 통해, 행정 지시는 보위사령부에서 받기 때문에 관계가 좋음. - 보위부는 1990년대 중반 이후엔 따로 지시를 받음. 	9명

보위부의 임무는 사령부안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산하 보위기관을 통해 보고된 문제들과 함께 종합분석해 내부처리와 함께 중요한 것은 상부에 보고하고 지시받는 일을 진행합니다. 사령부 보위부장은 소장 편제였는 데 당시는 대좌였고 총 9명으로 구성되었어요. 참고로 사단보위부는 5~6명으로, 연대는 3~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도려단같은 것은 필요에 따라 2~3명으로 구성되기도 해요. 보위부는 상급에서 별도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정치부의 지시를 받지는 않는다. 단 당생활지도는 정치부에서 받기 때문에 사이가 아주 좋다. 1990년대 보위부도 정치부 지시를 받았는데 90년대 중반 이후 보위사령부로 승격이 된 이후에는 따로따로 지시를 받습니다. 보위부는 지금까지 여러 번 호칭을 바꾸어 왔다. 보위부-보위사령부-그후 보위총국, 지금은 보위총국으로 부르는가 봐요.

본부당은 사령관, 정치위원을 포함한 각부의 부장들로 구성되었고 조직부장이 본부당 세포비서를 한다. 이 세포를 1세포라고 부르며 12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정치부 안에 소속된 모든 부서들도 한 개 세포로 이루어졌고 운전기사와 부관들도 각각 1개 세포씩을 구성하고 있어 2세포, 3세포 이런 식으로 부른다. 또한 본부당위원회의 조직비서는 간부부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본부당 성원들의 가족들까지 포함하여 하나의 초급당으로 되어 있다.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정치부에 보고해 처리하는 체계다. 본부당은 3~4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합하여 40여 명 정도다.

당생활지도과는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부당위원회 당원들의 매주 매달 생활에 대하여, 그리고 정치부 산하 모든 당 기관들에 소속되어 있는 당원들의 당 생활에 대하여 각종 회의를 조직하고 지도하면서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하부에서 보고되는 당 생활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처리하고 종합하며 정치부와의 협의하에 비서처로부터 결론을 받아 진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당생활지도과에

는 1명의 대좌급 과장, 2명의 부과장이 상좌급, 부원이 5명이 있고 하부 단위가 5개 부대로 이루어져 있어 매 사람이 한 개 부대씩 맡아서 담당 진행한다.

당생활지도과의 임무는 본부 당원들의 당생활과 하부 단위들에서 올라오는 보고들을 처리하고 그들의 당생활을 조직하고 진행하며 장악하고 통제하는 기능과 필요하다면 일종의 지도기능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보고들을 종합하여 당생활 관련 문제를 종합하여 정치부에 고고하고 합의하여 진행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당생활지도과장은 1명의 대좌, 부과장은 2명의 상좌급, 부원이 5명이 있어요.

당원등록과는 새로 입당하는 당원들의 입당심의와 상위 조직인 총정칙국의 조직부 당원등록부와 합의하여 새 당원증을 발급하는 업무를 기본으로 수행한다. 당원등록과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과장은 1명의 상좌급, 부과장은 2명의 상좌, 부원은 4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2명은 내부(책임급), 나머지 2명은 부원으로 되어 있다.

당원등록과는 새로 입당하는 당원들의 입당심의와 당원증을 발급하는 업무를 기본으로 수행합니다. 당원등록과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과장은 1명의 상좌급, 부과장은 2명의 상좌, 부원은 4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2명은 내부(책임급은 상좌 1명과 중좌 1명), 나머지 2명은 부원으로 되어 있어요.

검열과는 사령부 내 모든 당 간부들의 모든 생활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일단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와 정치부장이 아니라 조직부장이 직속상관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조직부에서 가장 파워가 센 조직이기도 하다. 검열과에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명의 대좌급 과장, 1명의 상좌급 부과장, 3명의 상좌급 부원으로 되어 있다. 신소처리과는 다른 당

조직들의 신소처리과의 기능과 비슷하나 신소처리과장은 사실 편제가 조금 높다. 대신 부과장제가 없다. 또한 총무과가 있다. 특히 통보과는 3선 3일 체계를 철저히 유지한다. 통보과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있으며 부대 내 모든 사실들에 대하여 가장 먼저 제일 정확히 아는 부서이며 과장의 업무는 아주 무겁다.

검열과는 기본적으로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명의 대좌급 과장, 1명의 상좌급 부과장, 3명의 상좌급 부원이 있어요. 사령부 내 5과담당부서는 없어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1970년대 후반에 하전사로 복무하던 시기 사령부 방문한 김일성에게 꽃다발을 주(드리)는 ‘영광’을 안게 되었는데, 인원선발을 5과가 아닌 간부과에서 진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한 정치부도 나름대로 자기의 군부대 대호가 있어요. 신소처리하는 사령부 안에서, 혹은 하부단위에서 올라오는 신소를 종합하여 정치부와의 협의해서 신소문제를 처리하며 심히 엄중한 문제는 상급 기관에 보고해 상부의 비준 하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소처리과정을 보면 신소과장 ⇒ 조직부장 ⇒ 정치부장 ⇒ 정치위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 신소처리과와 통보과, 총무과가 있어요. 그런데 통보과의 중요성을 말씀 드리고 싶은데 통보과는 조직부와 참모부, 그리고 보위부의 특이한 동향에 대하여 3일에 한 번씩 상급 조직비서나 조직부장에게 알리지 않고 직접 상급 당조직 통보과에 보내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단 정치부 조직부는 사령부 구도와 비슷하나 인원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 사단은 각 부의 부부장들이 한 명 수준이다. 그리고 과장들이 세포비서를 겸하고 있다. 특히 사단검열과는 검열과장 1명, 부과장 1명, 부원 1~2명 정도이다. 연대는 과장이 따로 없고 책임부원편제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사령부 청년동맹도 정치부의 지시를 받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상급 청년동맹부서의 지시도 받는다. 청년동맹은 10명 좌우로 청년동맹위원장이 1명(상좌), 부위원장 2명(중좌급), 부원 7~8명의

I
II
III
IV
V
VI
VII

대위 및 소좌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년동맹은 1개의 세포로 되어 있으며 정치부, 즉 당원등록과와 당생활지도과와 매우 친밀하다. 군부 내에서도 청년동맹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높다. 우선 청년동맹이

● 표 V-6 사령부 당 조직부 기능, 활동, 인원수

부서 명칭	기능 및 활동 내용	인원수
본부당위원회 조직부	- 정치부 내 파워 중 본부당이 자연히 가장 세고, 결국 1세 포가 일종의 비서처의 역할을 수행 - 정치위원, 사령관, 비서 2명, 각 부장들 12명 - 간부과가 아예 없고 이에 5과도 없음.	30여 명
당생활지도과	- 중앙당 내 선전선동부나 각 정책부서들의 초급당 당생활 지도(당사업독본 발간), 2일 생활총화 정기화 - 조직부 내 담당, 각 정책부서들의 당생활지도 2개	8여 명
당원등록과	- 내 모든 당원들의 당생활 기록들과 신원요해 및 신원조회 문건 업데이트 사업 조직 - 각급 중앙당내 부서들의 당원등록문건 보관	7여 명
검열과	- 사령부 내 모든 당원들 검열보다는 조직부장의 직접적인 지시대로 움직이는 부서 - 필요한 인원들 임의로 차출권한 부여	5명
통보과	- 각 조직들과 당 생활지도과에서 종합된 보고서 직접 보고 체계 수립(전화나 팩스로) - 통보는 일반적으로 당, 행정, 보위 3선 3일 체계	2명
총무과 ¹⁴²	- 일체 모든 사업 기획하고 그에 대하여 내려온 방침과 보고서들에 대한 정리, 영구보존 및 홍보 등 - 타자수, 통신, 전화, 사무 등 관련 부서들	4명
신소처리과	- 사령부 내 억울한 상황이나 잘못 처리된 상황으로 인해 신소된 문건 관리 - 급한 것은 통보과와 협의하여 직접 상부에 보고함.	3명
기요과	- 모든 비밀문건 관리	3명

¹⁴² 원래 김정일의 친필서명이 된 문건은 영구보존문건으로서 국고에 보관하도록 총무 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추천하는 부대원들을 입당시키며, 다음으로 상급에 추천문건을 올려 보내는 업무와 청년동맹 내 모든 활동을 조직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비중이 높다.

사령부 청년동맹도 정치부의 지시를 받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상급의 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청년동맹은 10명 좌우로 구성되었었어요. 청년동맹은 1명의 소좌급, 부위원장은 2명의 대위급, 부원들은 7~8명으로서 상위급들이 있어요.

사령부는 소좌가 드물어요. 중좌가 제일 많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사단급에는 대체로 조직지도 조직지도부장이 1명이 있고요. 부부장이 2명이에요. 2명인데 그중에 부부장이 1명, 1부부장 1명 이렇게거든요. 1부부장은 당원등록 당생활, 검열과를 담당할거고 일반부부장은 나머지 신소과 총무과 통보과, 기요과를 담당하겠네요. 그 다음에 조직부장이면 직위정도는 대위가 될거겠네요. 참...

다. 사령부급 당 조직문화 변화 분석

(1) 당 조직생활

2006년 6월에 입국한 사령부급 당위원회 정치부 조직부서 당 책임부원 중 한 명이었던 ○○○ 씨는 당원들의 개별적인 당 조직생활의 변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했다(<표 V-7>). 당원들의 당 조직생활이 많이 변했을 때가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나왔을 때였다.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초에 특히 많이 변했다. 그 다음에는 1990년대 김일성 사망 이후 아니면 고난의 행군시절이었고 1990년대 후반부터 중·후반까지, 그리고 2002년 7월 1일 조치 장마당 했을 때가 변곡점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1호 작품 관리 및 참가 정형은 형식적으로는 과거보다 더 잘하고 있

I
II
III
IV
V
VI
VII

● 표 V-7 본부당위원회의 조직생활 상황

구분	100%	75%	50%	25%	0%
1호 작품 관리 및 참가정형 수준	○			△	
수목강연회, 토요정치학습 수준	○	△			
월간 자체학습 및 정리수준	○				△
아침 독보회 수준		○	△		
총성의 노래모임수준	○		△		
생활총화 및 월간총화진위 수준		○			△
입당 선호도			○△		
당조직 보고체계		○		△	
사회노력지원 및 정치적 자극				○	△
당비 납부 및 재정상황	○△				
노작방침지시 침투 조직사업			○	△	

※ ○ 조직의 지시에 의한 형식적인 운영상황, △ 조직의 지시에 대한 당원들의 내적 욕구상황

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체제는 지금 현실적으로 북한 체제의 핵심계층인 당원들은 물론 군부 내 당 조직들의 간부들까지는 내적으로 1호 작품 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히 여기지 않고 있는 것 같다.

1호 작품 관리를 과거보다 형식적으로는 더 잘 하지요. 언젠가 한 번은 하급 단위 정치지도원 부인이 김정일이 현지 시찰하는 사진이 있는 노동신문을 불살라 버리다가 제대로 불태우지 않아 남았던 일이 제기되어 정치부에 상정되었어요. 잘못하면 교양대상이 아니라 정치범으로 보위부 대상인 것이 예요. 그런데 이 정치지도원 아내는 새로 온 정치부장의 먼 친척이 되는 것을 문건을 확인하고 알게 되었죠. 그러니 이런 사실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 누구도 대답을 선뜻 못하게 된 적이 있지요. 또 이러

한 사업은 사실 지금 더 잘하지요. 대신 이전에는 진실로 충성의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돈을 모아서 하는 것이 보통인 것으로 되었어요.

수목 강연회나 토요정치학습 문제는 사령부 당위원회는 토요일 8시간 동안 토요정치학습을 제시간에 진행한다. 토요정치학습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게 되며 직접 강의는 원래 사령부 당위원회 위원급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렇지 않고 있다. 강연회나 정치학습에 가급적 핑계가 있으면 빠지고자 하나 비교적 전반적으로 참석(75% 정도)하는 셈이다. 그러나 강연회나 학습에 대한 열의는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강연회 토론회 학습 이런 건 어느 정도까지 변했다면, 가령 토요일 토의 학습할 때 이전에는 조직부장이 나와서, 선전비서가 나와서 또는 한마디로 세포분공 같은 걸로 대체로 군사령부에서 강의를 한 번씩 하죠? 한 번씩 하던 것에 비해서 그때 나올 때 좀 해서 어느 정도로 형식화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나. 그게 한 십대 원칙이 나올 때보다 많이 좀 낮아졌죠. 켄링 켄링 할라 그럴 것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출장 갔다고 하고 뭐 하루 당생활 지도 내려갔다고 하면서 거짓보고 하잖아요. 그러나 빼먹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게 한 75% 정도 되었어요. 자체로 월간 학습한다면서 '3대혁명붉은쟁취'운동 한다면서 책도 있어야 하잖아요? 근로자학습 방침학습 덕성학습이 있고... 그런거는 우리 때만 해도 매년 정리해야 하고 검열해야 하고 근데 지금 나올 때 좀 해서 어느 정도 되었나면... 그게 한 5%정도... 거의 없어졌어요.

1970~90년대 초반까지는 노작을 비롯한 덕성실기학습을 당조직의 통제에 못이겨 감싸니아적으로 그나마 많은 행사나 활동을 하였지만, 2000년대에 와서는 자체학습은 거의 없어지다 시피 하였고, 덕성실기나 로작학습은 참가 회수나 채우는 식으로 완전히 돌변하였죠. 지금 그러한 학습을 제대로 한다면 아마 소가 웃는다고 말하죠.

I
II
III
IV
V
VI
VII

아침독보회도 그렇게 지난 날처럼 잘 진행되지 않는다. 충성의 노래 모임도 모든 당 조직들이 철저히 3회는 무조건, 그리고 당·국가 창건 절 등 5돌, 10돌 같은 정주년 혹은 자기 부대나 단위에 김정일이나 김일성이 왔던 기념일이 5, 10돌로 께일 때 무조건 해야 한다.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3~4번은 무조건이고 어떤 당 조직은 6번 할 때도 있다. 문제는 김정일이 예술을 좋아해서 많은 부담이 있다. 조직부가 충성의 노래 모임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서 충성의 노래모임에는 대체로 열의를 보인다. 이러한 충성의 노래모임 같은 것은 준비에만 한 달이 걸릴 정도로 부담이 많이 가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침독보회는 한다고 하는데 75% 정도 밖에 안되네요. 대체로 『조선인민군』 신문으로 아니면 위에서 특별한 지시에 기초해서 하게 되는 데… 특별한 제강이라든가 정치제강 내용들이라 대부분 선전 자료를 기초해서 독보회를 하죠. 세포비서가 하긴 하죠, 무조건!?

충성의 노래모임도 4.15, 2.16, 12.24 때 하죠. 사실 12월 24일을 맞으며 가장 크게 해요. 김정일이 최고사령관 된 명절이면서도 김정숙의 생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보통 한달 전부터 하는데, 2월16일에 한다면 1월 초부터 해요. 신년행사가 있잖아요. 신년 1월 중순부터 해요. 사령부 선전대 선전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공군사령부 선전대 선전부서는 선전부 소속이면서도 사실 조직부가 충성의 노래모임만은 정말 많이 관심을 가지죠. 한 20~30명 있어요. 그리고 군악대 20여 명 있지요. 이들이 같이 우리 군관들과 함께 해야죠. 실지로 고위급 군관도 참가하여야 하는데 매번 형식상으로 참가한다. 그것도 합창공연시 맨 앞줄에 부장이나 부사령관이 조금 참가한다. 그러나 군부대에선 아직까지 충성의 노래모임만은 정말 무조건 잘할 수밖에 없죠… 사령부 같은 데는 잘못하면 김정일이 갑자기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허술히 하지 못해요. 사령부 내 생활총화 수준도 꽤 높았어요. 1970~80년대에는 지금에 대비할 수준이 못 돼요.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점점 참가 정도와 수준에서 변화가 급격히 찾아 왔다. 또한 군부대 내 입당에 대한 열의도 1990년대 중반까지는 높았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는 가정환경이 나쁜 군인들은 입당을 못하면 차라리 빨리 제대해서 돈이나 많이 버는 것이 좋다는 사상이 군대 내에서도 흐르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군복무를 중도에서 그만두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돈만 있으면 되지 당원 특별히 되면 뭐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기 시작하였죠. 그래도 50% 정도 되었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간부를 해야 좋은 데 들어가 돈도 더 쉽게 벌여지거든요. 하여튼 우리 간부들의 자식들이나 당시 오는 애들은 반반이던 것 같아요.

당원들의 당 조직 보고체계는 형식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부 당원들은 심지어 군무수행을 하지 않고 사적 용무를 보면서 거짓 보고하는 현상이 나타나곤 하였다. 관련 검열단들도 철저한 검열보다도 ‘적당주의’에 빠져 있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겨우 수행하느라 잠도 설쳤다는 등과 같이 이미 뻔히 아는 거짓말도 그냥 넘어가죠… 우리도 일단 노력하는 것만도 가ung하죠. 참… 문제는 이제는 검열 내려오는 사람들도 서로 담합을 하여 상부에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조금 뇌물만 넣으면 급방 통해요.

군대에서 훈장이나 메달 같은 추천, 수여 같은 것도 김일성, 김정일 생일을 맞아 복무연한을 기준으로, 북한군이 흔히들 말하는 ‘골고루 메달’이 기본이다. 지금은 사회적 노력동원이나 지원 같은 것을 의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해관계가 없는

일에 대해서 이제는 군대 당간부들도 그렇게 진실하게 국가나 당, 나라나 혁명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공로메달, 그 외에 훈련과 공사 현장에서 목숨을 바친 군인들에게 전사영예훈장이나 전사증을 기본으로 훈장을 수여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훈장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 돈이 없으면 제대되어 굶어 죽는 것이 다반사니까요… 이런 나라를 위해, 이런 혁명을 위해 우리가 언 땅에 배를 붙이고 살아 왔는가? 그리고 우리가 오늘 같은 날을 보자고 젊었을 때 피와 땀을 흘렸는가? 하는 반문은 나이 든 당간부들 내에서도 말을 안하지만 다 통하고 있다. 사실 이런 말은 부부간에도 하지 않아요. 이런 대화는 절대로… 그러나 다 알고 있다. 너무 보위부 스파이가 다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표현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군관들은 우선 나라 같은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상황 이예요.

당비 납부 같은 것은 무조건 내고 있으나 당의 재정상황이 매우 나빠져서 전반적인 당원생활도 형식적으로 변한 것이 많아지고 있다. 당의 재정상황 악화는 곧 전반적인 당의 활동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형국이다.

당비납부는 해야 해요. 거의 100%로 한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전에 비해서 위에서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모여 하는 회식식사 같은 것도 많이 줄었잖아요. 이전에 비해 훨씬 많이 낮아졌죠. 많이 없어졌죠. 공급도 많이 떨어지고, 일반 공군 비행사들은 절반수준으로 떨어졌죠. 생활수준 자체도 절반수준으로 되었다. 진짜 옛날에는 초콜렛 먹기 싫어 안 먹었어요. 내다 팔았어요.

지금 노작이나 방침·지시, 침투사업 같은 것은 참가하기는 하지만, 예전만 못하다고 말한다.

(2) 총정치국 예하 사령부급 당 조직 지도 및 운영 실태

당위원회의 운영 실태는 형식적으로는 아주 무난하게 운영되는 것 같다. 나름대로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위원회의 지시에 대하여 그것을 집행하는 당 조직 간부당원들의 열성은 실제로 조금 떨어지고 있다. 각종 당회의 사전 준비 실태 역시 형식상으로는 되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70%도 안 되는 실정이다. 이전에는 회의 전에 사전에 준비할 여러 가지 행사에 동원될 사람들이 한 번만 지시를 해도 잘 되었지만 최근에는 지시를 해도 잘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대충 얼버무리려는 경향이 많다. 그래도 당위원회 운영 실태와 당회의 사전 준비 실태 같은 것은 실제로 당위원회에 내려오는 지시와 지시를 받는 간부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 최근의 당위원회 운영 실태는 회의를 하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잘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각종 당회의는 그래도 75% 정도 참여하며 절반 정도는 회의에 관련하여 긍정하는 상황으로 평가된다.

간부 선발 배치 정형은 표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실질적인 시스템과 당원들이 간부에 선발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측면에서는 이전에 비하여 아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간부 선발과 배치는 시스템적으로는 아직까지 충성심과 출신신분을 따지던 지난 1985년 이전시기와 대비하여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간부가 되기 위한 간부 후보자들은 모두 뇌물에 의해 간부 선발배치가 완전히 결정되고 있다고 한다.

간부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는 충실성이나 출신성분도 중요하지만, 현실은 뇌물이나 인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나 같은 사람도 사실 이런 중요한 부서에 있기 어려워요. 내가

I

II

III

IV

V

VI

VII

● 표 V-8 사령부급 당 조직 지도 및 운영 실태

구분	100%	75%	50%	25%	0%
당위원회 운영 실태	○	△			
각종 당회의 사전 준비 실태		○	△		
간부선발 배치 정형		○			△
하부 조직 실태 매주 보고상황		○	△		
근로단체지도정형 작동상황			○	△	
당 책벌 및 상여기준			○	△	
당 검열부서의 기능 여부		○	△		
당 신소담당과의 기능 여부				○	△
당 재정 및 외화별이 상황	○				△
조직비서와 책임비서의 관계	○				△
부서별 본위주의 및 파벌형성	○				△
당조직과 보안기관 상하관계		○			△
마약이나 성문화 접근성향		○		△	
선물시혜 정책여부			○		△

※ ○ 조직의 지시에 의한 형식적인 운영상황, △ 조직의 지시에 대한 당원들의 내면

간부가 된 것은 우선 김일성이 간부로 키워야 한다는 교시가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있던 자리는 사실 노른자위에 노른자위라는 사령부 급 당위원회 조직부 부원이었다. 배급을 주고, 특수공급을 받지, 그러니 이런 자리를 노리는 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고 또 뺨이 없는 사람이 한 두 명이 아니다... 나도 사실 이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뇌물로 최소한 내 자리가 있는 것으로서 나에게 혜택이 되는 이윤의 최소 30% 정도는 위에다 바쳤었다. 요즘 시대는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죠. 돈 없으면 좋은 것을 유지하기 어렵고 일단 얻은 것도 뺏기기 쉬운 세상이 되었어요.

하부조직들에 대한 지도와 실태파악,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보고와 위로 올라야 하는 보고 행위 등은 이제 거의 70%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시스템의 작동도 내적으로는 50% 밖에 안 된다. 현실적으로 누구나 지금은 밑에 내려가면 옹당히 뇌물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밑에서는 물론 내려오는 간부들에 대하여 적당히 뇌물이나 봉사를 하여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것은 서로 서로 국가의 물자나 군수용물자를 나누어 먹고 서로 담합하여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대세다.

우리 부대에선 돈이 되는 것은 무엇 무엇해도 연유다. 그런데 연유는 전투예비물자로서 최고사령부 작전용만을 따로 관리한다. 그런데 이것은 위에서 내려와서 설마 그것까지 다칠까며 간간히 검열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예비물자를 무슨 이유로 실제로 하지 않은 작전을 하였다고 적당히 보고를 하고 그것을 시장에 내다팔고 엄청난 이득을 챙겨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사령부 급 단위들에서는 쉽게 그런 물자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런 물자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매일 매시각 움직이는 것이 보고 돼요. 그런데 이런 물자를 빼내서 시장에 내다 파는 것까지 제 손으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키면 후에 탄로가 나기 쉬워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항을 잘 알고 이것을 구실로 서로 담합을 하는 겁니다. 즉, 군사부나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검열이 내려와도 우리의 담합은 거의 밝혀내기 어려워요. 이렇게 최근 많은 군 당조직간부들과 군 참모장교들이 담합하여 상부를 속이고 오히려 허위장부를 남기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합니다. 그러니 보고가 모두 가짜일 겁니다.

근로단체지도 작동상황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령부 당위원회 정치부에는 조직부 직속의 청년동맹조직을 관여하는 사령부청년동맹위원회가 있는데 이들 세포까지도 문제가 있다. 특히 요즘 청춘남녀들이 군대에 나오면 수많은 문제들이 야기된다. 당 책벌과 상여 기준,

I
II
III
IV
V
VI
VII

당 검열기준은 거의 뇌물에 의해서 조종된다. 검열과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아래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에서 일정한 압력을 넣어 무마시켜 주고 실태조사차 내려가 군수물자나 양식을 받아먹는 것은 그렇게 큰 일로 여기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 들어와 거의 노골적이다. 그래도 많이 낮아져 있지만 그래도 작동한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요즘엔 대체로 무엇이 걸리면 돈이나 뇌물로 해결될 것처럼 생각할 정도로 많이 변화였다. 그렇다고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우리 부대에 새로운 조직부장이 조동되어 왔는데 그곳은 길영조영웅이 배출된 부대다. 그곳 원산비행기지에는 두 개의 비행련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길영조영웅은 50련대에서 배출되었다. 부대명칭은 5000이다. 그 사람이 그곳에서 근무하던 중 2000년대 중반 이웃 련대 소속 경비중대 대원 2명이 주둔지 량정사업소 창고에서 몰래 량식을 품쳐 나오다가 경비중이던 여성보위대원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나 이런 엄중한 사건에 대해 련대정치위원은 상급에 보고조차 안하고 있던 중 조직부장이 직접 상급에 썼죠(보고). 이로 인해 련대정치위원은 철직제대, 살아남은 1명의 병사도 생활 제대하는 사건을 목격하였다. 이것은 사실 앞의 사건과는 관계가 없지만 역시 보고를 가지고 자기의 앞날에 대하여 고민하였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단 문제가 제기되면 가차없이 제거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요해하기 위하여 상부조직 검열그룹빠가 조직되어 확인하는 등 나름대로의 운영된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일단 사람이 죽는 문제 같은 것을 보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중히 여긴다기보다는 이러한 문제를 상부에 숨기고 있다는 것이 가장 주요한 문제로 삼았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책벌 상여 기준으로 인하여 나름대로 아직까지는 일정한 상황에서 가동되고 있다. 일단 내부에서 고발하여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발로된다면 뇌물로도 통하기 어렵다는 함의도 있다.

참 2006년부터 군 내부적으로 김정일의 방침이 내려와 구타를 하는 군인이나 장교들은 이제는 입당이나 승진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안다. 이것은 그만큼 위에서도 지금 많이 고심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당 신소처리과의 실태는 문제가 있어도 많이 있다고 한다. 우선 신소해서 해결된 사례가 거의 없는 형편이다.

내가 당 조직사업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신소해서 해결된 것을 한 건도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신소를 한 사람은 당 내부적으로 체크대상입니다. 그러기에 아랫단위에서는 될수록 상부에 신소자체를 하지 않아요. 또 상부에 신소를 해도 위에서 아예 묵살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당 재정상황과 외화벌이와 관련된 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형국이다. 돈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런데 지금도 상부에서는 당 재정상황을 충성심으로 해결하라고 지시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인 당 조직간부들의 자세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지금 자기들도 코가 석자인데 이전처럼 충성자금을 바칠 사람이 있겠느냐는 식이다.

외화벌이를 하라고 강요하지만, 실제로 현실은 막막해요. 사령부 내에서 진행되는 외화벌이 목표와 기준이 뚜렷하지 않고 그 방법에서도 매우 어설픈 거지 없어요. 2000년대 중반부터 외화벌이 수준이 높지 않아 현재에는 실제로 계획에 비해 아예 절반은커녕 10%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누가 그런 돈이 되는 것을 외화벌이를 위해 충성자금으로 바칩니까? 그러나 2000년대 후반 이후에는 반짝이나마 돈이 들어오는 모양이다. 전투훈련작전 예비물자로 기름이 그전보다 많이 들어오는 것을 봐서. 하여튼 지금은 이전처럼 당조직이 외화벌이로 올리는 것은 이전에 비해 훨씬 떨어진 것만은 분명해요.

I
II
III
IV
V
VI
VII

조직비서나 책임비서, 그리고 부서 간 파별이나 조직부와 보위부 같은 권력 부서사이 알력 관계가 조성되고 있다. 사실 이 두 가지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형국이다. 이로 인하여 군대 내의 파별조성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예를 들면, 정치위원과, 사령관과, 정치부장과, 보위부장과 등으로 분열되어 이것이 군부 내 파별화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정치부 내 상급과 하급, 정치부장과 조직부장, 조직부장과 정치위원, 정치부장과 정치위원 사이에도 서로 물고 뜯는 관계이다. 2000년대에 들어와 군부 내에서도 회전문 인사등용이 많이 나타나요. 이것이 알력관계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외부적으로 숨겨가면서 내부적으로 묘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근원에는 체계적 단계적 간부양성이나 선발이 아니고 상부의 모모 친척이라는 등 조금이나마 연계된 사람이면 본인의 준비정도가 심히 부족해도 불구하고 인사를 단행하는 현상이 일부나마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로 사실은 조직부와 간부부, 적지만 마찰이 나타나죠. 그러나 여전히 조직부가 모든 것을 정당하다고 우기는 경우가 많다. 선전부는 웬만하면 조직부에 복종하는 관습을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에 90년대 후반부터 조직부와 보위부 사이에는 사실 냉랭한 기운이 흘렀어요. 왜냐면 정치부 자체가 은근히 보위부를 많이 견제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현재 2000년대 후반부터는 보위기관이 기능이 더 높아졌다고 볼 정도로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우리 계통의 조직부의 기능이 사실 녹녹치 않거든요. 때문에 사령부 내에서는 누구는 정치위원과, 사령관과, 정치부장과, 보위부장과, 조직부장과, 간부부장으로 크게 나뉘어 만날 싸우고 있어요. 그것이 아마 정치일지도 모르겠지만.

폭동이나 마약, 성문화 일탈 양상은 심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0년대 말, 함남도 리원군 곡구비행장 소속 고사포대대 청년 동맹위원장(대위, 유부남, 30대 중반)이 고사포중대에 복무하던 이쁘장한 여성군인 한○○를 입당시켜준다면서 자기 사무실에 불러다 부적절한 성관계를 해가지고 임신을 시킨 일이 일어났다. 한가지 첨부할 것은 우리 사령부에는 원래 이쁜 애들이 많이 와요. 애가 통신대에 있다가 질이 안 좋아서 전투병에 내려보낸 앤데 대대 위원장이 오모씨 그 사람도 신혼살림이고 애가 하나 있었어요. 이 하전사는 결국 탄로나서 여성군인은 생활제대되고, 대대청년동맹위원장 오모씨는 철직제대 되었다. 특히 대대 청년동맹위원장의 부인은 결혼 전에 평북도 락원기계공장에서 김일성 방문시 김일성에게 꽃다발을 드린 접견자로서 남편 때문에 가문의 영광에 먹칠을 했다면서 부모들이 와서 강제이혼시켜 친정으로 딸을 데리고 간 일까지 있었다. 당시 부인의 부모는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런 일들이 많아요. 인간 생활인데 통제하니까... 그런거죠. 알게 모르게 여성군관들 같은 것도 임신돼가지고 군 복무하는 군관들도 있어요. 그러나 마약은 보지 못했어요, 마약, 마약하는데.

사령부에서 선물 시혜정책은 예전에는 정말 괜찮았으나 지금은 아예 어려워졌다고 한다.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졌어요. 이전에 조직부장들도 선물 받을 때가 있었어요. 90년대쯤예요. 그런데 이제는 조직부장은 선물 생각도 못해요. 연대장 연대 정치위원만 선물이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사단장이나 정치위원 정도 되어야 탈수 있어요. 거의 절반 인원 이상 이전에 비해 받지 못하는 격이에요.

I
II
III
IV
V
VI
VII

4. 북한군 총정치국 예하 지도국급 당 조직

가. 인터뷰 대상자 인적사항

다음은 북한군 총정치국 예하 ○○○지도국 당위원회 정치부 조직부 책임부원(중좌), 1985년부터 17년 정도 당생활 경력을 가진 노동당원의 증언을 통해서 북한군 당 조직 운영 및 조직문화 실태를 분석한 것이다. 북한군 총참모부 소속 지도국은 북한군 당위원회 총정치국 예하 사령부급 당 조직 수준과 같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총정치국 예하 지도국급 당 조직 구조와 기능

(1) 정치부의 구조와 기능

인터뷰 대상자가 일하였던 북한군 지도국급 당 조직의 정식명칭은 ‘조선인민군 ○○○군부대 정치부’였다. 이 부대는 최고사령관 작전에 비대로서 기동타격부대 사령부급이다. 이 부대의 당 조직은 정치위원(○○○군부대 당위원회 책임비서이며 군사칭호는 중장편제였으나 소장), 이 정치부는 정치부장이 책임자이며 당위원회 조직비서의 역할을 하며 산하에 조직부, 선전부, 간부부, 근로단체부로 이루어져 있었다.

근로단체부에는 공장지도과도 있었고 여기에 9호 담당이 있었다. 이 정치부는 60여 명의 소좌급 이상의 간부들이 있었고 정치위원은 소장, 정치부장은 소장, 조직부장은 소장, 선전부장은 대좌, 간부부장도 소장, 부부장 급은 대좌 혹은 소장, 과장급은 상좌 혹은 대좌급, 부과장 혹은 책임부원급은 상좌 혹은 중좌였다. 그리고 부원급은 중좌 혹은 소좌였다.

지도국 당위원회는 책임비서는 정치위원, 1비서는 사령관, 2비서는 정치부장, 부비서는 참모부 당비서인 부참모장이 하였다.

군단장은 따로 있었어요. 참모부 세포에 붙어 있었어요. 참모부 당위원회에 조직돼 있고… 근데 군단사령부 자체가 연합당위원회 비서지. 1비서지. 정치국 같은 경우는 총정치국에서 파견된 정권대표라고 보면 돼요.

정치위원이 책임비서이고 정치부장이 일종의 조직비서지요. 실제 조직부장이 제2비서겠지. 그렇죠. 조직부 1세포 내에는 정치위원이 같은 세포로… 조직부 지도원들하고 뭐 부부장들, 조직부장하고… 핵심 각 책임지도원? 책임지도원하고… 7명이 있었어요. 원래 간부과는 7명이었어요. 책임지도원 1명, 과로 되어 있지 않고 책임지도원으로 다 되어 있었고… 그리고 지도원들 4명인가 분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총 15명 정도 되겠네. 선전부 소속은… 뭐 어쨌든 군악대든 선전부든 다 소속되어 있어 크죠. 연구실담당, 문화회관, 군악대, 선전대… 그렇게.

선전부는 총정치국에서 내려오는 그때그때 제시되는 강연회와 다음에 행사 맞으면서 각 군단부터 시작해서 사여단과 축하공연을 하는 등, 예를 들어 북한군창건일 행사하기 위해 정치부사인 받고 한다. 각 군단 중대 씨클 들어가고, 가족 씨클 들어가고, 그렇게 행사위주로 된다. 위에서 내려오는 선전 자료들 배포하는 등 적지 않은 일을 한다. 간부부는 원래는 지도국 당위원회 정치부 조직부 소속에 있었다. 총 이 부대 정치부만 60여 명에 보위부, 간부부까지 합쳐 100여 명이 훨씬 넘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조직부 안에 간부부가 있고, 정치부장 밑에 조직부장이 …어쨌든 이게 틀리더라고 정치부장 밑에 조직과가 있고… 어쨌든 간부부 독단은 아니더라고. 그런데 우 리는 간부부가 독단이었어요. 정치군관, 행정군관 담당이지… 간부 부부장 2명(정치간부 부부장, 행정간부 부부장) 있었거든. 그러니까 간부 부장 있었고 16명 내지 17명 되겠네요. 지도원 애들도 있고 뭐… 하여튼 작았어요. 우리 간부부가 규모가 커지면서 중앙당 군사부에 있

던 애가 내려오면서 소장 받고 내려왔더라고 그리고 차를 보면, 01사령관, 02정치위원, 03참모장, 04정치부장, 05보위부장, 간부부장이 06인가 됐어요. 사실 아들이 알맹이지. 북한 사회에서 행정, 정치 다 갖고 있거든.

이 특수부대만큼은 간부부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정치부 내 간부부가 1993~94년도에 독립했다. 그러면서 훈련소 소장급도 원래 총정치국에서 하던 인사를 지도국 수준에서 하도록 바꾸었다고 말하나 객관적으로는 아마도 전투단위에 추천권을 주지 않았나 하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 정도 됐다면, 뭘 말해주냐면 군단 참모장 이하를… 한마디로 여단장급… 여기서 말하면 훈련소장들을 원래 자체 군단에서 못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총정치국에서 했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만큼은 자체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거죠. 훈련소장들이 그 때 다 소장 받았됐거든, 그 갈라질 때가 그 시점이… 내 생각으로 93~94년도… 간부부장 애가… 원래 중앙당 군사부에 있던 애들이 키가 크잖아요. 키가 크고 인물이 잘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머리가 길었어 뒷머리가. 장령모자 쓰고 다니고… 중앙당 군사부에 있던 애라 47? 45?살… 애들이 작았어요. 빨리 출세한 격이에요. 그 때 큰애가 14살 되고, 작은애가 11살쯤 됐어요. 94년도쯤에… 그니까 45정도는 됐겠네. 아들만 둘 있었는데.

보위부와의 상하관계에 대하여 발언하였다. 원래 1995년도 정도에 지도국 정도에 정치부 산하 보위부과로 있던 것을 보위부로 승격되면서 보위부장과 부부장 편제가 만들어지고 각 과로 갈라졌다. 이것은 아마도 총정치국의 지도를 받던 인민무력부 보위국이 보위사령부로 승격되면서 총정치국의 당적 지도와 함께 김정일의 개별적 지시를 더 중요히 받으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올라갔던 보위사령부의 상황과 맞

물린다고 추정된다. 보위부장은 소장 편제로 승격되었고 생활총화나 각종 회의는 다 정치부에서 하지만, 보고체계는 모두 상부에 직보체계로 완전히 바뀌었다. 그때 보위과는 안에 반탐과 수사과로 다시 소규모로 나누어 있었지만 바뀐 순간부터 1부, 2부, 3부, 4부로 나뉘면서 배 이상 불어났다. 이것은 아마도 이러한 특수부대에서 반체제 및 반김정일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또 다른 대책이 이때를 전후하여 강행된 것이라고 확인된다.

보위부하고 관계는 같이 승격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군단 보위과로 나갔었어요. 그런데 지도국 보위부라 하고, 보위부장 있고 부부장 있고 하는데, 부서도 작은 규모로 수사과, 반탐과 이렇게 과로 나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다 부로 나갔어요. 보위부 1부, 2부, 3부, 4부로… 이게 97년? 아니 95년도일 거야. 그 해에 해외 나갔던 내 말이가 우리 부대 왔겠거든. 그때 군단사령관 집에 갔다가 오는데 보위사령부 애들이… 뭐 어쨌든 복잡하고 그랬는데… 개가 95년도에 왔다갔으니까 그 때가 맞아요. 과로 땀던게 부로, 보위사령관이 상장으로 승진되고… 보위부 부서를 보면은… 사령부지. 군단급 보위부지… 한 30~35. 지금 정치부 다 합쳐야 60여 명 밖에 없잖아요. 보위부 아이들은 훈련소담당도 많이 나가있어요. 있는데, 총정치국에서 우리 군단에 직접 파견한 정치위원들처럼, 보위사령부에서도 직접 파견 나가는 애들이 있었어요. 요 전(1995년)까지는 원래 정치부 지도를 좀 받았는데… 근데 보위사령부가 승격되면서 별도의 조직으로 되면서… 따로… 그 전에는 내가 당강습지도원 할 때, 과장들도 와서 자기 있는 사업총화, 비판하고… 내가 올 때까지 하긴 했어요. 당 사업지도… 그거는 우리 군단 정치부 지도를 받지만, 어떤 상황이나 내부 상황이 변하면, 그런건 직보체계였어요. 97년돈가… 6월달에 인민무력부 보위사령부 강습 때, 인민무력부 보위입군대회를 했어요, 우리 군단에서… 그 때 각 육해공군 보위지도원이 다 왔거든. 보위사령부 4차장 애가 내려와서… 소장 박았어… 네. 강습회의 지도를 했는데… 고향이 서울인거예요…

I
II
III
IV
V
VI
VII

● 표 V-9 북한군 총정치국 예하 사령부급 정치부의 구조와 기능(보위부)

부서명칭 및 부서장	기능 내용	인원수
정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 명칭은 조선인민군 ○○○군부대 정치부 - 이 군부대 당위원회는 총정치국 예하 ○○지도국급 당위원회임. - 정치위원은 중장, 정치부장은 소장, 조직부장은 소장, 선전부장은 대좌, 간부부장도 소장, 부부장 급은 대좌 혹은 소장, 과장급은 상좌 혹은 대좌급, 부과장 혹은 책임부원급은 상좌 혹은 중좌 	60여 명
조직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력 순 당생활지도과, 검열과, 당원등록과, 통보과, 신소과, 총무과, 기요과 - 조직부의 권한이 가장 높다. 이유는 위에 올리는 보고가 모두 모이는 곳이기 때문임. 	20여 명
선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업무와 아래 단위에 내려가 강연, 강습을 진행하며 총성의 노래모임, 김일성 및 김정일 정치사상연구실관리 같은 임무를 수행 - 군대 안에서 선전부의 권한은 제일 낮음. - 선전부 산하로 군악대, 선전대 등을 같이 합하여 계산함 	30여 명
간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령부 내 간부 선발 및 배치를 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임무 - 조직부와 간부부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지만 보위부와는 조직부가 좋음. - 5과가 없음. 	16~17명
행정책임자 당위원회 직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비서는 대부분 행정직으로 되어 있고 정치부장이 제2비서사령부(혹은 부대)당위원회 제1부비서직, 2비서는 정치부장, 부비서는 참모부 당비서인 부참모장 - 당위원회 제1비서는 부대 사령관이 겸직 	2명
보위부 (정치부 지도 및 관계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령부안에서 제기되는 반김정일 및 반체제 문제들을 기본으로 반간첩 행위들을 중심으로 산하보위기관을 통해 보고된 관련문제 처리 - 보위부는 정치부의 하위기관은 현재 아님. 그러나 당적 지도는 정치부 조직부를 통해, 행정 지시는 보위사령부에서 받기 때문에 관계가 좋음. - 보위부는 1995년 이후엔 따로 지시를 받음. 	35명

(2) 정치부 조직부의 구조와 기능

지도국 정치부 본부당은 앞에서 사령부급 당 조직과 같이 사령관, 정치위원을 포함한 각 부의 부장들과 참모장과 부군단장 등으로 구성되었고 조직부장이 본부당 세포비서이다. 이 세포를 1세포라고 부르며 이 1세포는 12명 좌우로 구성되어 있다. 정치부 안에 구성된 모든 부서들도 한 개 세포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치부 안에 소속된 부관들과 운전사들도 따로 각각 1개 세포 씩 이루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2세포, 3세포 이런 식으로 부른다. 그리고 본부당은 초급당 수준이며 본부당의 조직비서도 역시 간부부장이 겸하는 것은 다른 사령부급 당 조직들과 비슷하다. 또한 사령부 조직부 안에는 상위 당 조직의 조직부에 있던 간부과가 없고 총정치국 내에서는 간부부가 아예 독립되면서 이 부대 간부부도 정치부에서 독립기관이다. 정치부 산하 모든 당기관들에 소속되어 있는 당원들의 당생활에 대하여 각종 회의를 조직하고 지도하면서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하부에서 보고되는 당생활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처리하고 종합하며 정치부와의 합의 하에 비서처로부터 결론을 받아 진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사령부 안엔 정치부의 역할이 그 어떤 참모부나 후방부와 같은 작전 관련 부서들과 완전히 장악하고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된다. 또한 특수전 부대에 맞게 정치부 소속이 적은 규모이고 단출한 것이 특징이다.

부군단장은 대체로 그렇지. 군사(작전)부사령관, 훈련부사령관 있었고... 그 다음에 후방부사령관... 기술부사령관, 그 다음 후방부사령관 모두 3명...

참모부 내 작전부장...의 역할이 커요. 총참모부에서는 우리 정치부 소속 애들이... 참모장까진 인정해줬지만 작전부 애들은 우리 정치애들한테는... 참모장 없이 작전부장이 일대일이긴 했거든...

I

II

III

IV

V

VI

VII

당생활지도과에는 7명 중 1명의 대좌급 과장, 2명의 부과장이 상좌급 중 책임(내부)부과장과 일반 부과장으로 되어 있다, 부원이 4명입니다. 책임지도원과 일반지도원 3명, 하부 단위가 4개부대로 이루어져 있어 매 사람이 한 개 부대씩 맡아서 담당 진행한다.

당생활지도과에는 과장이 있었고 부과장이 2명, 지도원 3명 있었고... 책임지도원 1명에 일반지도원 하여 총 7명이 있어요...

당원등록과는 새로 입당하는 당원들의 입당심의회 상위 조직인 총정치국의 조직부 당원등록부와 합의하여 새 당원증을 발급하는 업무를 기본으로 수행한다. 당원등록과는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과장은 1명의 상좌급, 부과장이 없고 부원은 3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1명은 내부(책임급), 나머지 2명은 부원으로 되어 있다.

당원등록과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과장은 1명의 상좌급, 부과장은 없고 부원은 4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1명은 내부(책임급은 상좌 1명), 나머지 2명은 부원(중좌)으로 되어 있어요.

검열과에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명의 대좌급 과장, 1명의 상좌급 부과장, 3명의 상좌급 부원으로 되어 있다. 기요과와 신소처리과는 과장 겸 책임지도원 급으로 각각 1명으로 되어 있다. 통보과도 역시 기요과나 같지만 통보지도원이 1명 더 있다.

검열과는 기본적으로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명의 대좌급 과장, 1명의 상좌급 부과장, 3명의 상좌급 부원이 있어요. 기요지도원 1명에 신소처리과도 책임지도원 격으로 1명입니다. 신소 1... 신소처리과는 과장겸 책임지도원... 통보과 있고... 통보과장이 지도원 겸하고 있고... 지도원까지 2명 정도...

표 V-10 지도국급 당 조직부의 구조와 기능에 따른 인원수

부서 명칭	기능 및 활동 내용	인원수
본부당위원회 조직부	- 정치부 내 파워 중 본부당이 자연히 가장 세고, 결국 1세 포가 일종의 비서처의 역할을 수행함. - 정치위원, 사령관, 비서 2명, 각 부장들 12명 - 간부과가 아예 없고 그리하여 5과도 없음.	20여 명
당생활지도과	- 중앙당 내 선전선동부나 각 정책부서들의 초급당 당생활 지도(당사업독본 발간), 2일생활총화 정기화 - 조직부 내 담당, 각 정책부서들의 당생활지도 2개	7여 명
당원등록과	- 내 모든 당원들의 당생활 기록들과 신원요해 및 신원조회 문건 업데이트 사업 조직 - 각급 중앙당내 부서들의 당원등록문건 보관	4여 명
검열과	- 사령부 내 모든 당원들 검열보다는 조직부장의 직접적인 지시대로 움직이는 부서 - 필요한 인원들 임의로 차출권한 부여	5명
통보과	- 각 조직들과 당 생활지도과에서 종합된 보고서 직접 보고 체계 수립(전화나 팩스로) - 통보는 일반적으로 당, 행정, 보위 3선3일 체계	2명
신소처리과	- 사령부 내 억울한 상황이나 잘못 처리된 상황으로 인하여 신소된 문건 관리 - 급한 것은 통보과와 협의하여 직접 상부에 보고함.	1명
기요과	- 모든 비밀문건 관리	1명
청년사업부 (독립)	- 당원 입당과 관련한 추천권, 모든 청년동맹 관련 행사 준비	7여 명

다른 단위 총무과가 하던 것을 당생활지도과가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 청년사업부도 역시 정치부 직속 단위로 되어 있고 중좌가 위원장으로 있었다. 그리고 임무는 다른 단위와 같지만 당원비율이 높아 40~50% 정도라고 한다. 부대 대원 총 6만여 명 중 3만여 명이 당원인 셈이다. 아마도 북한에서 당원 비율이 가장 높은 단위인 것으로 평가된다.

I
II
III
IV
V
VI
VII

그 당시 지도국 사령부 내 당원들이 군단에 대체로 당원들이 한… 군단 전체로 보면 장교는 다 당원이고… 일반 6만으로 봤거든. 하전사들하고… 당원 한 몇 명? 한 3만 명 혹은 한 2만 5천 명 …한 개 군단에 당원들이. 40~50%인 셈인데…

다. 지도국급 당 조직문화 변화 분석

(1) 당원들의 조직생활

총정치국 예하 지도국급 당위원회의 조직문화 변화 분석에서는 실제로 총정치국의 현 상황을 예측해볼 만한 예하 사령부급 당 조직문화의 현 생활을 개별적인 당원들의 당 조직생활과 관련 조직부를 중심으로 당 조직 지도기능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분석해보기로 한다. 위와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북한 당 조직 하부말단에서의 부패와 일탈현상이 과연 1985년 김일성과 공동으로 통치하는 시대, 즉 김정일·김일성 공동정치 시대를 기점으로 그 이전 당 조직생활 수준을 100%로 보고 그 이후 어느 정도 이완되어 오고 있는지를 평가해보려고 한다. 이에 대해 증언한 사람은 2001년 6월에 입국한 사령부급 당위원회 정치부 조직부서 당 책임부원 중 한 명이다. 그는 당원들의 개별적인 당 조직생활의 변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표 V-11> 참고).

군부대 당위원회 당 생활에서도 실제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조직생활을 크게 조직부 사업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개인들의 개체생활, 조직생활하고 지도생활 밑의 조직부 생활, 그래서 개인들 먼저 보죠. 나올 때 당시 또는 북한에서 총 군부당위원회에서 변곡점이 있어요. 제일 크게 툭툭 변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는가면 당생활에서 고난의 행군, 뭐 몇 가지 있나면, 음 … 사실 많이 변했을 때가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나오면서 많이 변했죠, 70년대 후반~80년대 초에 많이 변했어요. 다음 사실은 밑에까지 그 때 기형화됐었니까. 그 다음에는 90년

표 V-11 본부당위원회의 조직생활 상황

구분	100%	75%	50%	25%	0%
1호 작품 관리 및 참가정형 수준		○		△	
수목강연회, 토요일정치학습 수준		○		△	
월간 자체학습 및 정리수준	○				△
아침 독보회수준	○		△		
총성의 노래모임수준			○△		
생활총화 및 월간총화진위 수준			○		△
입당선호도			○△		
당조직 보고체계		○		△	
사회노력지원 및 정치적 자극				○	△
당비 납부 및 재정상황	○△				
노작방침지시 침투 조직사업			○	△	

※ ○ 조직의 지시에 의한 형식적인 운영상황, △ 조직의 지시에 대한 당원들의 내심적 욕구상황

대 김일성 죽은 다음에 아니면 고난의 행군시절, 90년대 후반부터 중 후반까지, 그리고 2002년 7월1일조치 장마당 했을 때...

1호 작품 관리 및 참가 정형은 형식적으로는 과거보다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체제는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북한 체제의 핵심계층인 당원들은 물론 군부 내 당 조직들의 간부들까지는 내심적으로 1호 작품 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히 여기지 않고 있다.

개인들의 당생활에서 1호 작품 관리 및 등... 아침에 일어나서 입당하는 애들은 청소해야 하고... 다 닦고 시작하잖아요. 떠나기 전에 대체 어느 정도까지 1980년대 이전을 100상태라면...

- I
- II
- III
- IV
- V
- VI
- VII

한… 그것도 30퍼센트 정도? 내가 왜 군복을 왜 입는지도 몰랐으니까… 예전엔 조국을 위해 결사각오정신이 있었는데. 이젠 군인가족과 연관된 친인척들이 힘들어서 조사하고 그랬으니 군관들도 힘들어 했지… 또 이러한 사업은 사실 지금 더 잘하지요. 대신 이전에 비해 진실로 충성의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죠.

수목 강연회나 토요일정치학습 문제는 사령부 당위원회는 토요일 8시간 동안 토요일정치학습을 제시간에 진행한다. 토요일정치학습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게 되며 직접 강의는 원래 사령부 당위원회 위원급이 하여야 하겠으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월간 자체학습정리, 3대혁명붉은기 쟁취, 오증흡7연대쟁취 같은 것은 정상적으로 진행은 되지만 질은 가면 갈수록 더 떨어지고 있다.

군단마다 틀리더라고 우리 군단은 일요일은 그냥 놀았어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총정치국에서 내려온 자료가 있고 내가 있을 때 중국에 대한 비방자료 내려 왔더라고. 사회주의 망했을 때… 그래서 내가 얼마 안돼서 달아났으니까… 근데 한국에 와서 김정일이 중국에 간거야. 총정치국이 수목 강연회에서 중국 맹비난하더니 3-4개월 지나서 개나발 치고… 하여튼 토요일날에 대체로 강연은 제대로 하고 그랬지… 그 이완정도가… 내가 떠나기 전에 군단들도 상당히 머리가 돌았더라고. 4명에서 술 한잔 먹는데… 어느 명절이야. 그때 텔레비전에서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이 있으라’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오는 거야. 이것을 보고 같이 참가한 한 조직부 과장이 피식 웃더니 날 딱 보더니(웃음). 나는 가서 새로 군부대 갔으니까 파악이 잘 안되니까… 그게 98년 정돈가… 말은 없지만 암암리에 눈빛이 ‘재수없는 놈이다’는 의미가 있더라고 이때 그랬으니… 많이 변했겠지. 폭압정치에 자기 혼자만 피해를 보면 모르지만 연좌제를 하니까… 어쨌든 군대는 30~40%는 더 떨어졌어. 상상 중장하던 애들도 사회 바깥에 자기 가족들이 말이 아닌 거야. 자기만 홀로 장군이 아니거든. 동생도 있고, 조카도 있고 하는데…

그럼 월간자체학습 정리수준, 3혁명붉은기쟁취운동, 오중흡 7연대 뭐 이런거는 형식적으로는 정상적으로 하긴 했어요.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한 건 어느 정도냐면 오중흡7연대는 군단에서 조직부나 선전부가 기본 나서서 해요. 중대, 대대… 뭐 이렇게 내려가는데. 군단조직부, 선전부 합동해서 내려가잖아요… 판정 기준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잘할 때에 비해 눈에 보이진 않아도 정신적으로 볼 땐 20%? 30% 떨어진 정도… 마지못해 군단대로 무력부에 충성도 평가를 대충 얼버무려 형식적으로 보고를 하니까… 실지 밑에 애들은 간부들이 이정도니아예 막바지에요.

아침독보회도 지난날처럼 잘 진행되지 않는다. 충성의 노래모임도 모든 당 조직들이 철저히 3회는 무조건 하지만, 실내부적으로는 50%에 미치고 있다고 한다. 식량사정이 어려워지고 준비도 한 달 전부터 해야 하는 데 이전에 비해서 물질적 보장이 제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아침독보회는 하긴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실지는 내면적으로는 50~60% 정도 밖에 안되네요. 충성의 노래모임 같은 건 많이 떨어졌어요. 한 50%? 마지못해 하는 정도죠. 뭐가 있어야 하지… 배고픈데 노래는 무슨…

사령부 내 생활총화 수준도 꽤 높았었지만 이제는 많이 변해 40% 정도 떨어졌다. 1970~80년대에는 출장을 갔다 와서 그것부터 보고하고 그랬는데 지금에 대비할 수준이 안 된다고 평가한다.

생활총화하고 월간총화 그 자체도 많이 떨어졌어요. 호상비판은 전체적으로 하려고도 하지 않고, 한 40프로 떨어졌어. 그 자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니까. 예전엔 출장 갔다 오면 그것부터 하고 그랬는데…

I

II

III

IV

V

VI

VII

입당선호도도 떨어져 이제는 필요없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 사회적 분위기이다. <표 V-1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전에 비하여 50% 정도로 떨어졌다고 한다. 이전에는 군대 갔다 와서 입당을 못하면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군대에 나와서 입당을 못해도 돈을 벌려고 하는 경향이 만연되기 시작했다. 그래도 간부 자녀들은 일단 입당을 해야 출세를 할 수 있으므로 개인들 내심적으로는 한 50%는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입당선호도… 그것도 떨어졌어요. 필요 없다고 하지… 절반 떨어졌어요. 이전에는 군대갔다와서 입당 못하면 사람으로도 안 봤는데 이제는 입당 안 해도 살아가는데 도움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지. 오히려 군사복무 때 대체로 국경선 애들은 돈을 장만 할거고, 각 군대 사관장애들은 쌀을 도둑질할거고… 어쨌든 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군관들도 군관학교 졸업하지 못하는 무릎팍상 같은 부류 애들은 돈으로 뭐… 하려고 하지. 자기 군관 할 때 대대장이나 대대 참모까지 하더라도 뜯어먹고 하려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 하전 사들은 굶는 거야. 대대장, 참모급… 정치부 애들하고 하는 애들이… 응… 그렇지. 심지어 보위부 지도원 애들도 제대되면 6개월 만에 집이 박살나는 거야. 그거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북한도 이제 다 된 거야. 부장으로 제대된 양반들도 아들이 변변치 못하고 자식이 변변치 못하면 끝나버려요. 사회 나가서 뭐 할 수가 있어? 배운 게 없잖아…

당원들의 당 조직 보고체계는 형식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간부는 오히려 파워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담합하여 싸고도는 현상이 최근에 더욱 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당비 납부는 무조건 내나 최근에 당의 재정 상황이 매우 나빠졌다는 것은 다음의 사실로 확인된다. 외화벌이 하는 것 자체가 군 전투단위부대에서 없애도록 1997년도에 내부적으로 방침이 내려왔다고 한다.

그 사람들 자신들이 이전에 입당보증인들이나 함께 한데… 같이 어울리잖아요. 뭐 잘못되면… 연좌제식으로 그 당시 그렇게 있었어요. 이전에는 어디 갔다 와서 조직에 특별히 보고하지 않아도 입당보증인이나 세포비서한테 무조건 보고하잖아요. 근데 그게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어요. 내가 있을 땐 쉬쉬했어. 인간적 관계를 위해… 이전에는 관계없이 정치조직사업은 딱딱하게 했는데. 상당히 그게 유연해졌어. 전반적 실태가 자연히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당회의는 가령 1년에 한 번씩 당위원회 선거도 하고 하잖아요. 사령부나 사단대로… 이전에는 실속 있게 했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없어졌어요. 축하해주려고 하고… 뭐 그렇게 없어졌어요. 엄청 떨어졌다는 소리지. 당비납부는 해야 해요. 대체로 거의 100%로 한다. 그냥 월급에서 떼어버려요. 이전에는 월급을 타고 당회의 할 때 새 돈으로 바꾸어 내야 하던데서 이제는 아예 월급에서 떼내죠. 아마 상황이 어려워 돈을 내지 못할까봐 그러는지 모르겠는 데…

현재 노작이나 방침·지시, 침투사업 같은 것은 이제는 그래도 참가하기는 하지만, 예전만 못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내심적으로도 사실 많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 중에서도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확연히 적어지기 시작하였다.

로작방침… 명령 내려오면 갑자기 침투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있을 때는 총폭탄전진… 그게 집중학습제강으로 내려왔었어요. 김정일이 말한 거 직접 침투 받고 정치군관들 참모장까지, 또는 뭐 군단급 정치간부까지, 여단급, 사단급 이렇게… 그 외에 방침들 내려 오잖아요. 중요한 계기 때마다… 이전에 비해 어느 정도 내려오는 가면 한 50~60%는 없어졌지. 애들이 자꾸 피곤해 하는 걸아는 모양인지… 북한 전체가 피곤해 하잖아요. 그런 소리를 긴장해서 듣지도 않고… 총정치국에서 조절했는지 덜 내려왔어요. 즉, 형식적으로도 적어졌어요.

I

II

III

IV

V

VI

VII

(2) 총정치국 예하 지도국급 당 조직 지도 및 운영 실태

이 조사는 북한에서 북한군 총정치국 예하 지도국급 당 조직 지도 및 운영 실태 수준을 사령부급 당위원회 정치부 조직부 책임부원급으로 15여년 이상 재직하였던 인터뷰 대상자를 통해 당 조직 문화의 변화를 분석한 자료라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자료는 1985년 이전 김정일이 후계자가 아니라 영도자로 호칭될 때를 기준으로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였다. 또한 ○표시는 실제로 형식적이거나 진행되는 시스템에 대한 수치이고 △은 그러한 당 조직 실태에 대응한 북한 당원들의 실제적인 대응상황을 중심으로 표면이 아니라 내적인 의식구조를 기본을 표시함으로써 이 차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부문에서 큰 변화로 인한 획기적인 사변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다는 표현으로 분석해드린다고 생각된다. 물론 구체적인 수치는 앞으로 통계학적인 접근으로 이 수치자료를 분석해보아야 하겠지만 현실적인 욕구와 그에 따라 서지 못하는 시스템의 보수성은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인터뷰 대상자 ○○○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당위원회의 운영 실태는 형식적으로는 아주 무난하게 운영되는 것 같지만 <표 V-1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나름대로 이전과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금은 형식적으로 한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그러한 당위원회의 지시에 대하여 그것을 집행하는 당 조직 간부당원들의 내심은 실제로 조금 떨어지고 있다. 각종 당회의 사전 준비 실태 역시 형식상으로는 되고 있지만 내심적으로는 50%도 안 되는 실정이다. 그래도 당위원회 운영 실태와 당회의 사전 준비 실태 같은 것은 실제로 당위원회에 내려오는 지시와 지시를 받는 간부들 사이 큰 차이가 없다. 최근의 당위원회 운영 실태는 회의를 하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잘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각종 당회의는 그래도 75% 정도 참여하며

● 표 V-12 북한군 총정치국 예하 지도국급 당 조직 지도 및 운영 실태

구분	100%	75%	50%	25%	0%
당위원회 운영 실태		○	△		
각종 당회의 사전 준비 실태		○	△		
간부선발 배치 정형		○			△
하부 조직 실태 매주 보고상황	○				△
근로단체지도정형 작동상황			○	△	
당 책벌 및 상여기준			○	△	
당 검열부서의 기능 여부		○	△		
당 신소담당과의 기능 여부				○	△
당 재정 및 외화별이 상황	○				△
조직비서와 책임비서의 관계	○				△
부서별 본위주의 및 파벌형성	○				△
당조직과 보안기관 상하관계		○			△
마약이나 성문화 접근성향		○		△	
선물시혜 정책여부		○	△		

※ ○ 조직의 지시에 의한 형식적인 운영상황, △ 조직의 지시에 대한 당원들의 내심적 욕구상황

절반 정도는 회의에 관련하여 긍정을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간부 선발 배치 정형은 실질적인 시스템과 당원들이 간부에 선발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측면에서는 이전에 비하여 아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간부 선발과 배치는 시스템3적으로는 아직까지 충성심과 출신신분을 따지던 지난 1985년 이전시기와 대비하여 실제로 간부 후보자들은 모두 뇌물에 의해 간부 선발배치가 완전히 결정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특이한 것은 뇌물은 이제는 돈과 함께 일종의 ‘성’을

I
II
III
IV
V
VI
VII

이용한 봉사도 나타나곤 한다는 것이다.

간부 선발하는 건 뇌물이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했죠. 거기에 인간관계와 병합되어야지. 그건 군단 간부사업뿐만 아니라 총정치국에서 사람 뽑을 때, 평양시 주변 군단에서부터 뽑아요. 거기 애들이 총정치국에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게 다리다리 걸쳐서 서로 해먹었지. 아니면 내 마누라 예쁘면 위에 애들이 또 한잠 자고… 그리고… 그럼 또 올라가기도 하고…

하루는 아침에… 우리 참모부 안에 도서실이 있었는데 서장이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남편이 출장 가 있었는데… 훈련부에 있었는데… 누가 소개했는지 그냥 어디에 초빙되어 갔다 오더니 이후 남편이 평양에 승진되었죠. 이후 한 번 총정치국에 출장 올라갔는데 총정치국 애들이 말해주더라고요. 근데 실제 그렇게 사고칠 수 있는 사람이 적지는 않지요… 한 번 승진하는데… 너무 쉽잖아요…

하부조직들에 대한 지도와 실태 요해,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보고와 위로 올려야 하는 보고 등은 <표 V-12>에서 보여주듯이 이제는 거의 형식적으로는 70% 정도이고 이러한 시스템의 작동도 내심적으로는 아예 보고를 만들어서 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 실질적인 것은 보고를 하지 않는다. 또 잘못된 정보를 올려 위에서 검열이 내려온다거나 복잡해지면 사실 정치위원이나 정치부에서 조직문제를 삼아 다른 곳으로 조동시킬 우려도 있는 것이니 아예 적당히 정치부의 눈치를 보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원래 통보과장이 상부에 올리는 통보는 정치부나 조직부의 사인이 없이 직보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들의 권한이 낮지는 않다. 그러나 이들도 결국, 부대 당위원회와 정치부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사실 마음대로 올려 보내지 않는다.

통보지도원이 매번… 실질적인거까지 하지는 않고 비현실적인

게 많지. 실질적인 건 깎아버리고, 검열그루빠 내려오고 하면 피곤해지니까… 통보과가 정치위원에게 잘못 눈에 띄면 또 다른 데 가야하니까 적당히 맞춰주지. 통보지도원은 통보를 올려 보낼 때 누구의 사인도 받지 않고 통보과장의 사인만으로 조직 부장이나 정치위원도 모르게 통보과장이 독립되어 있지요. 현실적으로 통보과장의 권한이 당생활지도과장 외에는 제일 괜찮다. 조직부장은 항상 조심해야 할 스타일이지만 통보과장은 간단치 않게 봤어요. 어쨌든 보고만 올리면 끝나잖아요. 잘못해도… 통보과장을 조직부 부장이 들여다 놓은 애들이니까 다 통하는 거지. 지도국정도의 통보과장이 되면 충청치국에서 직접 뽑아야 하는 거 아니고 간부사업을 그렇게까지 않았어요. 정치부 자체로 할 수 있었어요. 이게 다른 일반 부대랑 차이나는 거예요. 우리는 위에서 내려오는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격부대들을 김정일이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딱 멍쳐있지.

당 책별 및 상여기준, 당 검열부서의 기능, 당 재정 및 외화별이(형식적으로 운영은 100%이지만 실제로는 최하수준까지 떨어진 것)은 <표 V-12>에 보여준 바와 같다. 중요한 것은 신소처리는 아예 하지 않는데 이것은 그만큼 당 조직이 당원들이나 일반 하전사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객관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한가지 첨부할 것은 사령부급에 검찰소 검사가 있는데 이들은 정치부의 지시를 받지 않고 사령관과 참모장의 행정지시를 받는다.

책별 주는 거 있잖아요. 엄격하게 많이 떨어졌지요. 이전보다… 11훈련소 애가 제대 앞두고 고참이라 하니까 아마 사람들이 모여 있는 바깥에 나갈 시간이 있게 되었어요. 나갔다가 여자를 보니 확 덮쳐 일어난 단순 강간미수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대 흥검사라고 있었는데 나랑 같은 고향이고… 11훈련소에서 나와서 제대 앞두고 사고친 애도 나랑 같은 고향인거야. 그래서 애를 징역 아니면 교도소 보내야 하는데… 검사하는 애랑 같은 출장길에 가게 된 적이 있었을 때. 그 양반하고 집에 하전사 고향집에 가게 되었어. 할머니가 있더라고. 거기 들어갔

I
II
III
IV
V
VI
VII

는데 손자를 그렇게 기다리더라고. 손자를 보면 지금 눈 감아도 여한이 없겠다고 하는데… 언제 오는가 물어보는데 손자를 어떻게 감옥에 가기 때문에 볼 수 없다고 얘기해? 가슴이 아프더라. 17살에 군대에 뽑아가서 한창 성욕이 흘러 넘치는 애들을 산골짜리에 잡아넣었는데, 여자를 보는 순간… 아차 했던거겠지… 내가 “이를 어떻게 처리하겠나?”… 홍검사가 딱 보고 문건을… 바꾸었던거야. 이 애가 없으면 집이 박살나지… 그래 사람 잘 만나야 사는거야… 인정이 많다고 하는데… 야… 생각을 해봐. 저 할머니는 손자를 보면 죽어도 원이 없다고 하는데 교도소에 2년을 넣어야 하는데… 그 애가 없으면 가정 자체가 아예 박살나는 걸로 해서 문건을 만들어서…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후보당까지 내려가게끔 하고 제대되어 갔어요. 이후 개가 한번 영창에 바로 들어온거 봤어요. 어떤 놈인가하고 본 적이 있는데 지금도 눈에 선해요.

김정일에게 선물도 올리고 하기 위한 외화별이는… 이젠 군단 외화별이는 다 깨졌어요. 무력부 통틀어서… 군단에 외화별이 할 땐 자체로 비리도 많이 생기고… 근데 김정일이 방침으로 군단 외화별이 다 없애고 무력부나 총참모부 혹은 총정치국에서 통합시켜놨잖아요. 충성의 외화별이 마치고 하는거. 지금은 자체 군단 군상관리소가 관할해서 손대더라고… 4훈련소가 양덕에 있다고 하면 거기 군인들 동원해서 뿔나무, 참나무를 해서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군단 자체 외화별이 땐 한 개 두 개 대대가 모집돼서 외화별이만 하는데, 이제는 싹 없어 졌죠. 그게 97년도에… 그때 외화별이 때문에 보위사령부가 승격하면서 없애 치웠어요. 그래서 우리 부대 같은 것은 총참모부에 통합시켰지. 총참모부나 무력부에서만 하도록…

조직비서와 책임비서 간, 부서별 본위주의 및 파벌형성유무는 겉으로 봐서는 아주 평온하고 이전에 비하여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밀바탕에 완전히 금이 가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내부적으로는 이제는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당 조직과 보안기관 사이는 사실 부대 내에서는 크게 나쁘지는 않았다. 근로단체지도 작동상황은 더 한심하다. 청년동맹은 나름대로 괜찮게 진행된다.

5. 북한군 총정치국 직속급 당 조직

가. 인터뷰 대상자 인적사항

다음은 북한군 총정치국 직속급 부대 정치지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노동당원 경력이 약 10년 이상이며 2009년 탈북한 노동당원의 증언을 통해서 북한군 당 조직 운영 및 조직문화 실태를 분석한 것이다.

나. 총정치국 직속급 당 조직 구조와 기능

(1) 총정치국의 구조와 기능

인터뷰 대상자가 일하였던 북한군 사령부급 당 조직의 정식명칭은 ‘조선인민군 ○○○군부대 총정치국’이었다. 이 부대의 당 조직은 총정치국장(○○○군부대 당위원회 책임비서이며 북한군 당위원회 위원장, 군사칭호는 차수), 이 총정치국은 제1부국장이 실질적인 책임자이며 당위원회 조직비서의 역할을 하며 산하에 조직부, 선전부, 간부부로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총정치국은 500여 명의 중좌급 이상의 간부들이 있었고 정치위원은 차수, 총정치국 제1부부장은 대장, 조직부장은 대장, 선전부장은 대장, 간부부장도 대장, 부부장 급은 상장 혹은 중장, 과장급은 소장 혹은 대좌급, 부과장 혹은 책임부원급은 상좌 혹은 대좌였다. 그리고 부원급은 상좌 혹은 중좌이었다.

당위원회는 책임비서는 총정치국장, 1비서는 무력부장, 2비서는 정치부장, 부비서는 총참모부 당비서가 하였다. 총참모장은 북한군 당위원회 위원이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으로서 이번에 개편된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하여 군부 당위원회를 지도하는 격으로 된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 군부에는 행정책임자 당위원

회 직위가 있다. 즉, 1비서가 부대사령관이고 부비서가 참모부 당 조직 책임자인 참모부 조직계획국장이 하듯이 모든 군부단위들에 그렇게 되어 있다. 역시 총정치국도 마찬가지이다.

북한군대의 총정치국은 군대를 직접 통제하는 노동당의 집행기구입니다. 그래서 북한군대의 지휘체계는 노동당에서 직접 통제하는 군당조직의 지휘체계와 국방위원회의 직속기관으로 군사지휘체계가 둘로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아무리 총정치국장이 실제적 군부의 당기관 기관장으로서 최고 높이에 있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군 지휘체계는 무력부장이 1번이고 2번이 총참모장이고 3번이 작전국장입니다. 그리고 정찰총국장이 4번, 그리고 총정치국장이 5번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국방위원회가 노동당에서 분리되면서 노동당과 최고인민위원회, 내각을 초월한 위치에 있게 되었죠. 사실 김일성 시대 주석부와 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이런 이유로 노동당에 의한 군부의 통제공식은 잘 안맞아요.

2010년 9월 제3차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개정된 노동당 당규약은 이미 군부 총정치국을 당중앙위원회의 한 기관과 같은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놓았다는 것을 정식문건으로 확정했다. 다시 말하여 기존 당규약 제7장 46조에서 이미 북한 사회에서 군대와 당의 위치에서 큰 차이를 보여준다는 것을 명문화하였다. 즉, 기존 제6차당대회에서 규정된 당규약에서는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다”에서 새로 개정된 당 규약에서는 “조선인민군은 위대한 수령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 속에서 몸소 창건하신 혁명적 무장력이다. 조선인민군은 당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을 무장으로 옹호 보위하는 수령의 군대,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맨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혁명의 핵심부대, 주력군이다. 조선인민군은 모든 정치활동을 당의 령도밑에 진행한다.”라고 밝히면서 ‘당의

혁명적 무장력’에서 ‘수령의 군대’라는 것을 먼저 명문화함으로써 최근 군대의 북한 사회에서 위치와 역할이 무엇이 우선인가를 암시했다. 즉, 수령의 군대 다음에 당의 군대이며 한편, 군대는 수령의 군대, 당의 선군혁명영도를 맨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혁명의 핵심부대, 주력군’이라는 것을 명문화함으로써 북한 군대가 이전 김정일·김일성 시대에는 북한 사회에서 혁명의 참모부로서 당의 핵심적 역할처럼 군대 조직 자체가 이젠 북한 사회를 맨 앞장에서 이끌어나가는 향도적 역할을 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는 하나의 완성된 조직체이며 그런 핵심세력안의 핵심조직인 군부 내 당 조직은 이미 북한 사회에서 북한 사회의 일반 당 조직보다는 상위 조직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도 당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는 것을 은근슬쩍 앞에서 말한 주요한 발언 뒤에 함으로써 이전의 당의 지도전통을 유지한다는 것을 내밀었다.

가장 중요하게는 기존의 당규약 47조에서 “조선인민군당위원회는 도(직할시) 당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조선인민군당위원회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직속하며 그 지도 밑에 사업하고 자기 사업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에서 새로 제정된 규약 49조에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은 인민군 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당중앙위원회 부서와 같은 권능을 가지고 사업한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아래 각급 정치부들은 해당 당위원회 집행부로 당정치사업을 조직집행한다”라고 밝힘으로써 앞으로 총정치국 각 부서들이 중앙당 각 책임부서들의 지도를 직접 받는데서 오직 김정일이나 김정은 같은 수령이나 당의 선군혁명영도를 실현하는 수령의 후계자의 지시만 받도록 군에 대한 지휘 및 지도체계를 바꾸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문서적으로 내포시켰다.

I
II
III
IV
V
VI
VII

명문적으로 이전에는 총정치국장이 조선로동당 산하 하부당조직 책임자로 군대를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에는 아주 당의 통제를 받기 보다는 사회당조직들을 군대가 통제하는 식으로 실제로는 많이 변했어요. 언제인가는 오히려 북한 군대 각 정치위원들이 각 지역 시, 군당 및 도당 조직들에 지도를 하는 상황으로 잠시 동안 매일 사회에서 제기되는 보고를 받은 적도 있어요. 1990년대 후반 쯤에… 하여튼 실제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은 노동당중앙위원이면서도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이번에도 당정치국 상무위원으로서 김정일, 김영남 다음에 호명되었잖아요. 총참모장 앞에, 김정은 앞에 호명되었어요. 이것이 엄청 중요해요. 특히 당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총정치국 내 조직부도 마찬가지로 제일 세요.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인 현철해가 항상 김정일하고 같이 다니는 것처럼, 또 국방위원회 상무국장인 것처럼 말이예요.

이러한 총정치국은 전군의 김일성주의화, 군대 내에서의 당의 유일 사상체계 공고화, 군대 내의 당 및 청년동맹 조직활동의 장악 통제, 3대 혁명 및 붉은기 쟁취운동, 오증흡7연대쟁취운동, 간부의 보직 및 인사 문제 등 매우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군대 내 정치기관이다. 이러한 북한 군대에서의 정치조직은 당위원회와 집행기관이 중첩되어 운영되고 있다. 즉, 당위원회는 대대급 이상 부대에 설치되어 있고, 중대에는 당세포, 소대에는 당분조 형식으로 존재한다.

사단과 연대에는 정치위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 정치위원들은 모든 전투훈련 명령서들에도 서명하도록 권한¹⁴³을 부여받고 있어 북한 군부 일반 전투행정지휘관들이 단독으로 명령을 내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오히려 이들에 대한 모든 움직임을 정치부 조직부를 통하여

143. 명령서에 정치위원들이 서명하는 제도는 1969년 북한군 당제4기4차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군당위원회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채택한 것이다. 이민룡, 『김정일 체제의 북한군대 해부』, (서울: 황금알, 2004) p. 194.

표 V-13 북한군 총정치국의 구조와 기능¹⁴⁴(보위사령부)

부서명칭 및 부서장	기능 내용	인원수
총정치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 명칭은 조선북한군 총정치국 - 북한군 당위원회는 총정치국이 집행부서 - 총정치국장은 차수(현재 공석)였음, 제1부국장은 대장(김정각), 조직부국장은 대장(현철해), 선전부국장은 상장(한동근), 간부국장도 상장(류홍근¹⁴⁵) 	500여 명
조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력 순 당생활지도부, 검열부, 당원등록부, 통보부, 신소부, 총무부 - 조직국의 권한이 가장 높다. 이유는 위에 올리는 당조직들과 당원들의 기능과 생활관련 보고가 모두 집결되어 처리되는 곳이기 때문임. 	240여 명
선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업무와 아래 단위에 내려가 강연, 강습을 진행하며 총상의 노래모임, 김일성 및 김정일 정치사상연구실관리, 4.25문화회관, 4.25예술영화촬영소, 공훈합창단, 군악단, 조선인민군 출판사, 조선인민군신문사 관리 같은 중요한 임무를 수행 - 군대 안에서 선전국의 권한은 제일 낮음. 	120여 명
간부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령부 내 간부 선발 및 배치를 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임무 - 조직부와 간부부는 사이가 좋고, 보위사령부와는 조직부가 좋지 않음. - 5과가 없지만 자체로 군단장이상급에는 담당한호장교들을 선발하는 시스템이 존재함. 	140여 명
행정책임자 당위원회 직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군 당위원회 부비서는 대부분 행정직으로 되어 있고 정치 부장이 제2비서, 2비서는 정치부장, 부비서는 총참모부 당위원회 비서 - 북한군 당위원회 제1비서는 무력부장이 겸하고 있음 - 특이하게 총참모장이 당정치국상무위원으로서 북한 군부를 지도하는 격으로 되어 있고 실제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지시를 받는 것으로 확인됨. 	2명
보위사령부 (정치부 지도 및 관계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대에서 제기되는 반김정일 및 반체제 문제들을 기본으로 반 간첩 행위들을 중심으로 산하보위기관을 통해 보고된 안보관련 문제들만을 김정일의 직속명령으로만 처리 - 보위사령부는 총정치국의 하위기관은 현재 아님. 그러나 당적 지도는 총정치국 조직국을 통해, 행정 지시는 국방위원회에서 직접 받기 때문에 관계가 형식적으로는 좋음. 그러나 한편, 중앙당 행정부의 정책적 지도를 동시에 받는 것으로 확인됨 - 보위사령부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따로 지시를 받음. 	400여 명

I
II
III
IV
V
VI
VII

상부에 보고하는 업무를 통제하는 정치조직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 군사지휘관 위에 있다. 연대급 이상 부대에 있는 정치위원은 군정치조직과 별도로 당비서국에서 직접 파견되고 있으며 실제로 연대급은 사단급 당 비서처에서, 사단정치위원은 군단사령부급 당 비서처에서 파견된 각 급 당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지도하는 격이다.

그러나 조직적으로는 총정치국 산하에 있는 각 상설적인 조직부서들의 활동에 의하여 이러한 북한 군부에 대한 당 조직들에 대한 정치적 지도가 보장된다. 즉, 당원들과 군인들의 조직사상생활, 적군와해작전을 위한 공작임무, 그리고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업무 등도 관할한다. 이러한 부서들은 조직국, 선전국, 간부국, 사로청지도국, 적공국, 총무국, 검열국, 판문점대표국, 자료국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도 바로 조직국과 선전국, 간부국 그리고 적공국 등이 핵심적인 당 조직 참모부서¹⁴⁶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중 가장 파워가 있는 부서로는 응당히 다른 군부 당 조직들처럼 조직국이다. 조직국은 현재 200여 명으로 보인다. 선전국은 대체로 정치사상교육과 관련된 내부업무와 아래 단위에 내려가 강연, 강습을 진행하며 선전선동사업을 지도하며 총성의 노래모임, 김일성 및 김정일 정치사상연구실관리, 군악대, 4.25문화회관관리 같은 사업을 맡아 수행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선전국은 총정치국 내에만 1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간부국은 140여 명으로 추산된다. 간부국은 간부 선발 및 배치를 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총정치국 내 모든 부서들의 과장정도까지는 모두 총정치국에

144. '도표: 총정치국의 주요 부서조직' 참고, 위의 책, p. 195.

145. 최근 정보에 의하면 현재 2011년 9월 현재 류홍근이 인민보안부 제1국 정치위원에서 총정치국 간부부국장으로 승진되었다고 한다.

146. 위의 책, p. 195.

서 간부추천서를 올리면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간부 3과에서 김정일의 사인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최근 정보에 의하면, 이러한 규정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직접 당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으로 진행된다는 설도 있다. 하여튼 확인된 것은 사령부급 당 조직 과장까지는 총정치국 간부부에서 직접, 사령부급 당 조직 부과장정도와 사단급 과장까지는 사령부급 간부부에서, 사단급에서는 연대나 대대까지의 과장을 포함하여 모든 정치군관(장교)들의 승진 해임 및 철직과 관련한 모든 인사사업을 관할한다. 조직국의 구성과 임무는 말 그자체로 군부대 당 조직의 모든 조직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진행한다. 조직부에서도 권력 순으로 보면 당생활지도과, 검열과, 당원등록과, 통보과, 신소과, 총무과가 있고 특히 종합과가 따로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 총정치국 조직국의 구조와 기능

당생활지도부에 80여 명 정도가 있다고 봐요. 당원등록부에 40여 명, 검열부에 30여 명 신소처리부 10여 명, 기요부에 15여 명, 총무부에 20여 명, 통보부에 15여 명 정도 있었어요. 특히 종합과가 특별하게 있는데 이부서에 10여 명이 있어요. 선전부와 간부부 다 합해서도 조직부와 비슷하더라고요. 총 200여 명입니다. 간부국의 임무는 사령부급 당조직 과장급 이상은 총정치국 간부국에서 하고, 그 이하는 사령부 정치부 간부부에서 사단급 과장정도까지 해요. 참... 사령부급에서 사단 정치위원 급은 임명하지 못하지만, 런던급, 대대급까지는 사령부급에서 합니다.

I
II
III
IV
V
VI
VII

VI. 근로단체의 당 조직 실태



북한의 부문별 조직 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당·장군 및 경제사회부문 기간조직 내의 당 조직 실태를 중심으로

1. 근로단체 조직 특성 및 현황

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하 ‘청년동맹’으로 표기)은 중앙위원회, 도, 시, 군 청년동맹위원회 대학, 학교, 공장·농장 초급사로청위원회, 초급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청년동맹은 노동당의 지도를 받는다. 청년동맹에는 14세부터 30세까지의 청년들이 의무적으로 망라된다. 그러나 당에 입당하거나 여성들이 시집가면 청년동맹에서 당·직맹 혹은 여맹으로 전맹하게 된다. 또한 30세가 넘어도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35세까지 청년동맹조직에 남을 수도 있다. 보통 입당을 할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이 직맹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청년동맹에서 당원으로 직접 전맹할 것을 희망해서 남는다.¹⁴⁷ 현재 청년동맹은 청년동맹원 500만, 소년단 300만 등 800만 명의 청소년을 망라하고 있다고 한다.¹⁴⁸

(1) 조직의 기본임무와 사명

북한은 청년동맹을 노동당의 영도를 받들어 김일성주의 위업실현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명시하고 있다. 청년동맹은 규약에 명시한대로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을 받들고 전체 구성원들이 사상적 무장과 조직적 단련을 실행할 것을 주요 임무로 내세우고

¹⁴⁷ 북한에서 1970년대 이전에는 직맹에서 당에 입당하는 경우가 없었다. 때문에 특히 남자성인이 입당하지 못하면 사람값에 넣지 않는 조건에서 직맹은 입당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으로 보는 시각이 농후하다. 지금은 직맹원도 입당시키지만 그러한 관점이 아직도 남아있어 기왕이면 청년동맹원에서 당원이 되는 것을 선호한다.

¹⁴⁸ 이는 1989년에 있는 사로청 8차대회에서 조직의 명분과 선전효과의 극대화과정에서 발표된 통계로 현재 인원과 는 차이가 있다.

I
II
III
IV
V
VI
V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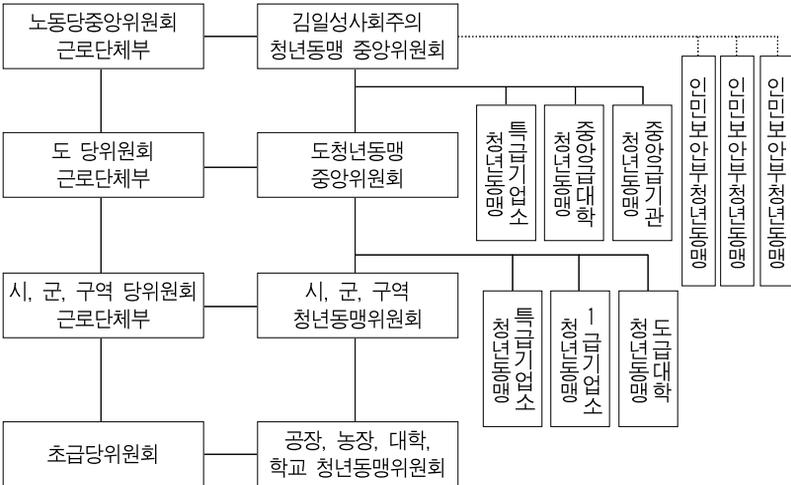
있다. 또한 사회주의승리와 조국통일을 위하여 본분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년동맹은 핵심표어로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 끝없이 충직한 청년 전위가 되자’를 제시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전체 청소년대중을 ‘우리수령제일주의’와 ‘수령결사옹호정신’으로 일체화시키고 당의 전위적 조직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당의 인전대 후비대로서 모든 청소년들을 선군정치를 받드는 주력군으로 키우는 것을 당면과업으로 규제하고 있다. 청소년들을 선군정치 옹호자로 키워내고 자본주의사상을 배격하며 경제건설에서 주력군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을 현 시기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청년동맹은 중앙조직인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와 도

그림 VI-1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직도



* 실선은 직접지도, 점선은 간접지도

청년동맹위원회, 시·군 구역 청년동맹위원회, 공장청년동맹위원회, 농장청년동맹위원회, 대학청년동맹위원회, 학교청년동맹위원회로 조직되어 있다. 특급, 1급기업소, 도급대학은 도청년동맹에 직속되어 있다.

(2) 조직 구조

(가) 중앙위원회 조직구조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위원회는 500여 명의 상근간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년동맹위원회는 조직부, 선전선동부, 간부부, 사적자료부, 대학생청년부, 학생소년부, 노동청년부, 체육부, 국제부, 총무부, 재정경리부,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는 부비서가 관할하고 있으며 부를 직접 책임진 부장이 있다. 그 밑에 국장이 있어 국을 책임지고 있으며 국 밑에 과가 있다.

중앙청년동맹은 각도청년동맹에 대한 지도와 청년동맹 전반 사업을 지도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청년동맹의 핵심부서는 조직부와 선전선동부이며 청년들의 조직사상생활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다.

그 외 중앙청년동맹은 청년들을 대표하여 외국의 청년들과 연계를 맺고 있다. 중앙청년동맹은 재정경리부산하에 외화별이 기관을 두고 직접 무역에 관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무역기관은 은별무역회사이다. 은별무역회사는 산하 도·시·군 청년동맹에 지사를 두고 수출원천을 동원하여 외국에 판매함으로써 동맹운영에 필요한 외화를 벌고 있다.

중앙청년동맹은 산하에 금성정치대학을 두고 직접 청년간부를 양성하고 있으며 금성청년출판사, 청년전위신문사, 청년문화회관, 청년취주악단 청년기동예술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송도원국제야영소를 비롯하여 중앙소년단야영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소년궁전,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직속시켜 관리하고 있다.

I
II
III
IV
V
VI
VII

그림 VI-2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조직구조



(나) 도 청년동맹(철도국 청년동맹 포함) 조직구조

도청년동맹 조직은 중앙청년동맹과 크게 차이가 없다. 다만, 규모가 작다보니 일부 부서가 통합되었고 국제부가 없을 뿐이다. 양강도는 청년동맹원 8만여 명, 소년단원 5만 5천 명, 입단 전 학생 1만 5천 명 포함 15만 명이 소속되어 있으며, 도청년동맹 위원회 산하 시·군 위원회 12개, 연합기업소위원회 3개, 1급 단위 14개를 포함한 초급단위 200여개, 대학 5개, 전문학교 18개, 중소학교 210개, 각 급 유급간부 1,500여 명, 기층단위무급간부 4,0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청년동맹의 유급간부는 도에 소속된 청년동맹원의 숫자에 비례하여 선정되는데 양강도 120여 명, 평안남도 180여 명, 함경남도 150여 명 등이다. 북한에서 청년동맹원이 가장 많은 도는 평안남도, 평양시, 함경남도 순이며 가장 적은 도는 양강도이다.

모든 사업은 당의 방침인 김일성의 유훈교시, 김정일의 말씀지시, 당 중앙의 지시에 준한 청년동맹중앙위의 사업방향에 따라 조직 전개한다. 청년동맹중앙위는 중앙당 근로단체부와 조직부, 시·군위원회는 도청년동맹위원회와 지역당의 근로단체부와 조직부에서 2중으로 하달되는 방침과 지시에 기준하여 일한다. 기층단위인 초급위원회는 청년동맹 시·군위원회와 해당 초급당에서 지시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총화하는 전일적인 사업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각급 청년동맹 위원회들은 당의 방침과 상급조직의 지시에 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하부조직을 지도관리하며 규약과 규범에 따라 정기적인 회의 총회를 열고 사업결산을 정상화하며 당에서 사업검토, 대책 수립 등 모든 과정이 정규화되어 있다.

청년동맹의 기본 사업내용은 크게 조직사업, 사상사업, 학생사업, 경제활동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조직부는 청년동맹의 핵심부서로 도 내

I
II
III
IV
V
VI
VII

● 그림 VI-3 도청년동맹의 조직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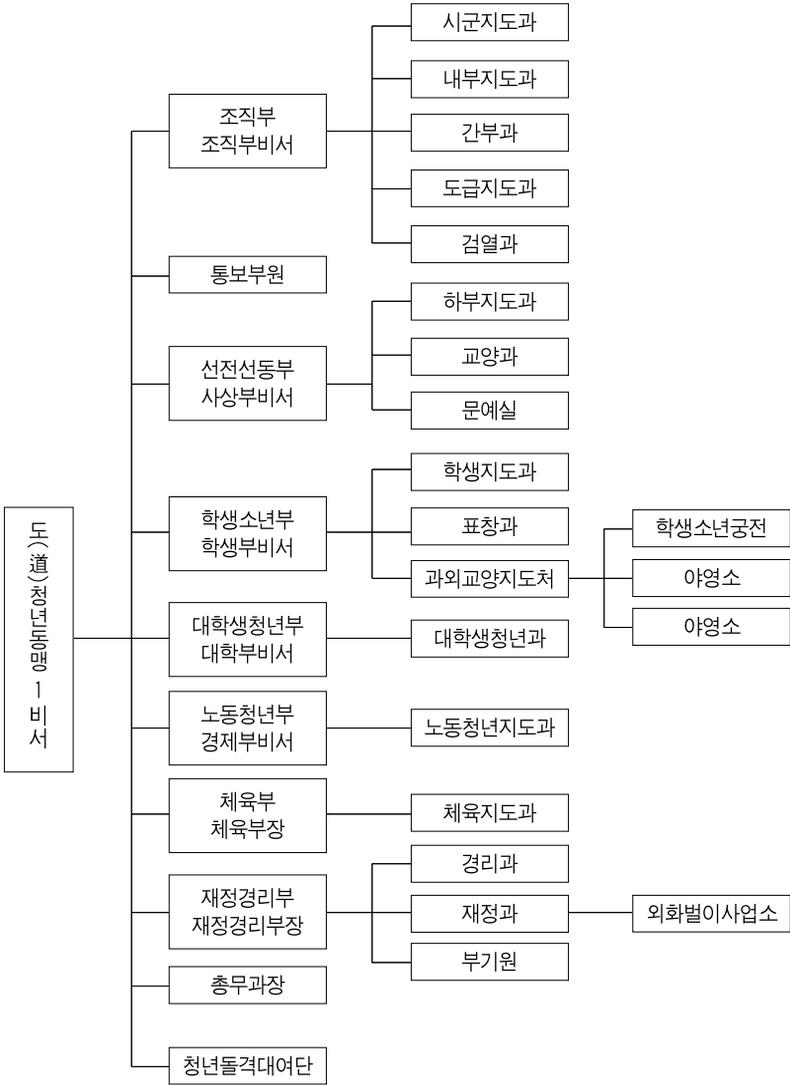


표 VI-1 도청년동맹의 부서별 업무(평안남도)

부서명 (책임자)	내부부서	책임자	부서 직원	임무와 역할	비고
조직부 (조직부 비서)	하부지도과 (시·군지도과)	부부장	25	하부 청년동맹의 조직생활정형지도 및 검토 기타 부서에 대한 장악 통제	
	내부지도과	부부장	4	하부청년동맹 맹원통계와 장악 청년동맹원 국가수훈 및 표창사업 등	
	간부과 (인사과)	부부장	5	도 내 유급 청년동맹 간부의 이동 배치 임명 사업	
	도급지도과	과장	3	도급 기관 청년동맹 조직생활지도	
	검열과	과장	6	하부 조직에 대한 검열지도	
선전선동부 (사상부 비서)	선전부지도과	부부장	17	하부 청년동맹의 당의 방침과 교시 말씀 집행정형 검열통제 동맹원들의 사상교양사업에 대한 지도 및 통제사업	
	교양과	부부장	8	김일성, 김정일 영도업적을 따라배우기 위한 교양사업	
	문예실	실장	6	도청년동맹 해설대, 공장기업소 청년선전 대 기동대 등 청년예술단체사업 조직집행 및 지도	
	해설대	대장	15	도내 공장기업소에 나가 선전활동 진행	
학생소년부 (학생부 비서)	학생부 지도과	부부장	9	시·군 청년동맹 학생부 지도 학교청년동맹 소년단 사업 지도	
	표창과	부부장	6	도내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표창사업	
	과외교양 지도처	처장	12	모범적인 학급 학생들을 각급 야영소에 추천 및 조직 소년궁전 운영 지도	
대학생 청년부 (대학부 비서)	대학생부	부부장	8	도안의 대학, 시·군의 전문학교 단과대학 동맹원들의 조직사상생활지도 대학생들의 혁명전적지 등 답사사업 조직	
노동청년부 (경제부 비서)	노동청년부	부부장	7	도 안의 공장 기업소 돌격대 및 사회주의 경쟁 지도 도 안의 청년동맹원들의 경제과업수행 지도 협동농장 청년분조 청년작업반운동 지도	

I
II
III
IV
V
VI
VII

체육부		부장	3	도내 학교들의 체육사업 지도	
재정경리부 (재정경리 부장)		경리 지도원 재정 지도원 부기원	25	사무용품 보장 건물관리, 직원들에 대한 특별물자 공급 생활비 지급, 맹비수급, 재정운영	20 명의 노동 자
총무과		과장	5	위원회 안의 내부 사업 종합 보고 도청년동맹 문서관리 당의 지시 방침 집행	
청년돌격대 여단	정치부 참모부 후방부	여단장	1,400	도 안의 중요 대상 건설	군의 1명

청년들의 조직생활을 지도하는 부서다. 조직부는 시·군지도과 도급지도과 내부지도과 간부과로 구성되어 있다.

시·군지도과는 도내 각 시·군의 청년동맹과 동맹원들, 도급지도과는 도에 직속 청년동맹 조직과 동맹원들의 조직생활을 장악 지도한다. 조직생활지도에서 기본은 조직생활, 즉 조직 운영상황, 생활총화, 청년동맹에 대한 당의 노선과 방침관철 정형, 청년들의 이탈 현상 등에 대한 장악과 지도이다.

조직생활지도를 위해 시·군지도과 도급지도과는 각 시·군, 도급기관에 책임부원을 두고 있다. 책임부원들은 보통 시·군에 1명씩 배치되나 작은 군은 2개씩 담당한다. 책임부원들은 월 20일 동안 담당기관 시·군에 내려가 생활하면서 지도한다.

도, 시·군지도과는 도청년동맹 부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서이며 또 가장 ‘힘’ 있는 부서이다. 시·군지도과 부원들이 시·군에 내려가면 위에서 파견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보고에 따라 아랫단위의 사업 정형이 평가된다. 때문에 아랫단위 간부들은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게 되며 따라서 그들의 말은 ‘힘’이 있다. 도 청년동맹에서는 명

절공급 같은 것은 책임부원들에게 과업을 주어 해결한다. 그들이 군 청년동맹에 말하면 군 청년동맹에서는 농장청년동맹에 과업을 주어 되지 한두 마리씩은 다 보장해준다.

시·군청년동맹 담당부원은 시·군 당에서도 홀대하지 못하는 존재다. 청년동맹도 일보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시·군청년동맹사업을 소홀히 한다는 보고를 올리면 비판을 받게 되고 자신의 사업평가에 하자가 되기 때문에 관계를 좋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내부지도과는 맹원들을 관리하는 부서이다. 맹원 숫자를 정상적으로 체크하며 출맹, 전(傳)맹을 관리하며 수훈사업을 한다.

간부과는 내신부원, 등록부원, 양성부원이 있다. 내신부원은 중앙으로 승진하는 간부, 도청년동맹 부비서, 부장과 시·군 청년동맹 1비서 간부사업을 담당한다. 양성부원은 도당학교, 금성정치대학 등 간부양성기관 추천사업을 담당한다. 등록부원은 도 내 유급청년동맹원들의 이동 배치 임명사업을 담당한다. 간부과는 힘 있는 부서지만 하부지도과보다는 못하다는 평이 나있다. 간부과는 유급청년동맹간부만 대상하기 때문에 하부지도과보다 관할하는 인맥이 적다.

2002년까지 현직에 있는 간부의 증언에 의하면, 청년동맹 간부과에서 뇌물로 인한 승진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도급청년동맹간부들의 승진에서는 뇌물수수보다 본인의 충성심과 능력을 크게 본다고 한다. 그러나 이하 인사에서는 그 당시에도 뇌물과 인맥이 만연했다. 검열과는 산하단위의 청년동맹에 대한 검열을 맡아 수행하는 부서로 분기 2개 이상의 시·군 청년동맹의 조직사상생활정형, 학생사업 동맹 내부사업 등을 검열한다.

선전선동부는 도청년동맹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부서이며 청년동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과 사상동원을 담당하고 있다. 선전선동부는

선전부 지도과, 교양과, 문예실, 해설대로 구성되어 있다. 선전선동부지도과는 도 내의 청년동맹의 사상교양사업정형에 대한 장악과 지도를 맡고 있다. 이를 위해 선전부도 조직부처럼 시·군 청년동맹과 도급기관 청년동맹을 전임하는 책임부원을 두고 월 20일 이상 하부 지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선전부 인원은 조직부보다 작으므로 시·군 담당 부원은 조직부보다 수적으로 적다. 규모가 큰 군에는 1명, 작은 군은 2~3개 군에 한 명씩 파견된다.

교양과는 김일성·김정일의 혁명활동을 따라 배우는 사업을 직접 조직진행하거나 하부에서 진행하는 정형을 장악·지도하는 부서이다. 배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에 대한 행군 조직을 통하여 청소년들을 교양하고 있다. 문예실은 도청년동맹 해설대와 공장 기업소 청년기동선전대 등의 문학예술 창작사업과 공연활동 지도를 담당한다.

학생소년부는 중학교, 인민학교, 청년동맹, 소년단원들의 조직사상 교양사업을 지도하는 부서다. 학생부지도과는 시·군 청년동맹의 학생부와 학교청년동맹, 소년단 사업을 지도한다. 표창과는 도내 학교와 학생들의 표창사업을 전임한다. 소년영예상, 7.15최우등상을 비롯한 표창수훈사업을 관할한다. 과외교양지도처는 모범적인 학교 학생들을 국제소년단 야영소, 중앙야영소, 도야영소에 추천하며 견학도 조직한다. 표창과는 청년동맹 내에서 선망받는 부서다. 최근 북한에도 출산율이 낮아 가구당 아이가 1~2명이다.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자식을 내세우려는 부모들의 관심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표창과에서는 소학교 학생들의 입단도 주관하는데 소년단입단을 어디에서 하며 몇 차에 하는가에 따라 학생의 명예가 좌우된다. 때문에 평양에서는 2월 16일 보통 체육관에서 열리는 전국소년단연합대회에서 입단하는 것을 최고로 치며 지방에서는 역시 2월 16일 보통 동상앞

에서 열리는 도연합단체대회에서 입단하는 것을 제일로 생각한다. 여기에 자기 아이를 내세우기 위해 부모들이 뒷거래를 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또한 7.15최우등상을 받으면 마음에 드는 대학에 추천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최우등을 한다고 모두 이 상을 받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자식이 최우등상을 받게 하려고 ‘사업’을 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때문에 표창과의 위상이 높다.

대학생부는 도내 대학, 단과대학, 전문학교 학생들의 동맹조직과 조직사상생활을 지도하는 부서다. 또한 대학생들의 혁명전적지 답사도 조직한다.

노동청년부는 공장, 농장 청년동맹 조직과 동맹원들의 조직사상생활을 지도하는 부서다. 노동청년부는 특히 공장 기업소 청년동맹을 통해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그들의 경제과업수행을 고무하며 그들이 맡겨진 생산과제를 수행하도록 추동한다.

또한 농촌의 청년분조 청년작업반 사업을 지도한다. 현재 노동청년부의 위상은 매우 약화되었다. 이전에는 청년동맹에 자금이 많아서 공장에서 생산계획수행을 추동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자주 조직하고 상품도 크게 걸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금이 없다보니 이러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전에 공장이 가동할 때에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자가 많다보니 청년동맹에서 요구되는 물자를 공장을 통해 해결하곤 했다. 그러나 현재는 공장이 거의 멎다보니 그것이 불가능해졌다.

또한 맹비수입도 많이 줄었다. 공장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노임을 적게 받다보니 절대적인 맹비수입이 줄었을 뿐 아니라 직장에 정상 출근하지 않는 동맹원들의 수도 늘고 있어 실질적인 맹비 납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체육부는 도내 학교에서 진행되는 체육사업을 담당지도하는 부서다.

I
II
III
IV
V
VI
VII

재정경리부는 청년동맹사업에 필요한 서류와 자재를 보장하며 사업 보장을 위한 건물관리, 보일러, 합숙 청사관리 등을 한다. 또한 도내 청년동맹 간부들의 생활비를 지급하며 그들을 위한 후방보장 사업을 담당한다. 또한 맹비를 수금하고 중앙에 입금하며, 맹비납입정형을 검열하며 청년동맹 사업에 필요한 각종 선물과 체육예술활동 비용조달, 학생들의 꼬마자금 관리 자금을 보장한다. 외화벌이 사업소를 두고 외화를 벌여 재정을 충당한다.

총무부는 1비서 산하 부서로 청년동맹안의 모든 사업을 종합하여 비서에게 보고하고 동맹 문서를 관리하고 상부에서 내려오는 당의 지시 방침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도에는 청년돌격대 한 개 대대가 조직되어 있으며 도 청년동맹에 소속되어 있다. 청년돌격대는 도당과의 연계하여 도에 부과된 기본건설 대상 건설에 동원된다. 평안남도 청년돌격대 대대는 4개 대대, 각 대대 3중대로 조직되어 있으며 여단장, 정치부장, 정치부, 참모부, 후방부가 있다. 그리고 운수기자재로 승리58트럭 8대, 체코산 15톤 화물트럭 1대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에서 청년돌격대는 중앙청년돌격대와 도청년돌격대가 있다. 중앙청년돌격대는 9개 여단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인원은 각도에서 충원하고 있다. 인원은 7만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중앙청년돌격대는 국가적인 주요 대상건설에 동원되는 조직이다.

도청년돌격대는 중앙청년돌격대와 별도로 도청년동맹과 도당이 관리하는 조직이다. 청년돌격대는 청년동맹원위주로 조직되지만 주요 책임자는 당원이며 청년돌격대는 다른 일반직장에 비해 상부에서 정해주는 입당 성원수의 비율이 높다. 때문에 청년돌격대는 군대에 가지 못한 청년들이 입당하기 위한 대안으로 선택되는 곳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입당도 많이 시키지 않는데다 청년돌격대의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모두 기피하고 있다. 때문에 청년돌격대를 청년동맹과 함께 당적으로 밀어주고 있다. 평양남포 고속도로 건설시 각도청년돌격대에 할당된 구간을 완공하기 위해 각 도당에서는 청년돌격대 인원을 각 기관·기업소에 의무 할당시켰고 해당 당 조직에서는 청년돌격대 자원진출자가 없어서 청년동맹원, 직맹원, 당원 가리지 않고 순번제로 할당인원을 보충했다.

모든 예산과 자금 자재가 계획적으로 보장되던 1970~80년대와는 달리 현 시기 당적 과제로 하달되는 각종 건설과제는 과정과 결과에서 심각한 내적 문제를 낳고 있다. 8.28청년돌격대를 포함한 중앙주도돌격대 규모의 유지와 대상건설, 도·시·군 지역별 돌격대 공장과 농촌 리대학과 중학교 조직들에 이르기까지 각종 명목의 동원 조직 운영은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사명의 급격한 저하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되고 있다.

청년동맹은 북한군 초모 연령기 대상들에 대한 집중교양사업, 조직추천심의 일인동향평정 초모사업협동보조 등 군 초모사업의 질적 양적 강화책임을 맡고 있다. 전민복무제 정책실행 후 군 초모대상들의 교양과 통제를 바로하지 못하여 군기피자 생활귀가 도주자들이 늘어나는 문제를 총정치국은 청년동맹사업의 책임소제로 제기하고 있다. 또한 청년동맹은 주둔군부대 각종 지원운동, 청년근위대 조직동원, 전시가 상예비군 정치조직체 사업동원 등 지원협동책임을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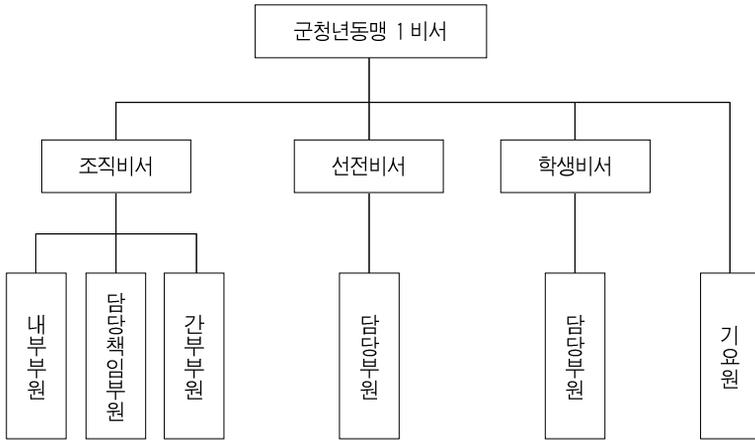
(다) 시, 군(구역) 청년동맹의 조직구조

군 청년동맹의 유급간부는 보통 10~30명 규모다.

함경북도 회령시 청년동맹에는 1비서와 조직비서 선전비서, 학생비서가 있으며 조직부에는 내부지도원 한두명과 담당지도원 수명, 간부

I
II
III
IV
V
VI
V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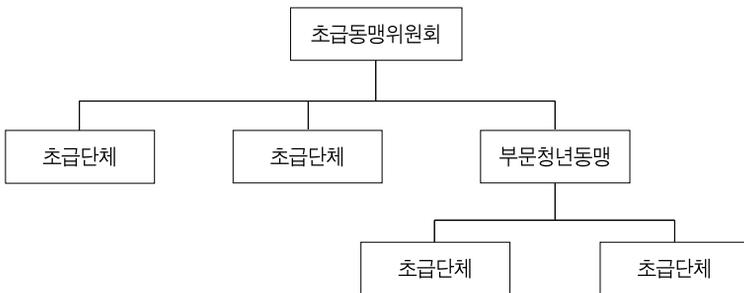
●그림 VI-4 군청년동맹의 조직구조



지도원 등 5~6명이 있다. 선전부에는 담당지도원 3~4명, 학생부에 3명, 기요지도원 1명이 있다. 군 청년동맹의 사업내용은 도청년동맹과 군당근로단체부의 지도하에 군 내 청년들의 조직, 사상생활을 장악 통제하며 시기마다 제기되는 정치, 경제과업들을 집행하는 것이다.

청년동맹의 하부말단조직은 초급청년동맹이다. 초급청년동맹위원

●그림 VI-5 초급청년동맹의 조직구조



회는 부문청년동맹, 초급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2, 3급기업소, 대학, 학교 청년동맹에는 유급 간부가 보통 1~2명이며 이들은 해당 당위원회세포에 소속되어 당 생활을 진행한다. 초급동맹비서는 보통 무급이며 당원 또는 청년동맹원이 맡는다.

(3) 조직생활과 운영 실태

청년동맹은 북한에서 당 다음으로 높다. 그 이유는 우선 청년동맹이 북한 체제유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청년동맹은 인원이 많다. 당원 300만이라고 하지만, 청년동맹은 800만이다. 때문에 청년동맹은 관리하는 대상이 직맹이나 여맹, 농근맹은 물론 당보다 훨씬 많다. 또한 청년의 연령상 감수성이 예민하고 패기와 정열에 넘친 집단이다. 때문에 북한에서는 청년사업을 중시했고 그들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했다. 청년동맹을 내세워주고 권한을 주었다. 간부사업권을 준 것이 그 대표적 예다. 청년동맹의 규모가 크다보니 다른 단체에 비해 상근인원도 많다. 청년동맹 상근직이 180여 명인 도에서 도직맹 상근인원은 30~50명, 여맹은 18명이었다. 청년동맹의 위상이 강화된 것은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다. 평양남포 간 청년도로 건설도 청년동맹의 위상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청년동맹은 1998년 최용해 청년동맹1비서의 해임으로 위상이 하락했다. 그 뒤를 이은 김경호도 차사고를 낸 것이 빌미가 되어 해임되었다. 그러면서 청년동맹의 권한이 상당히 약화되었다. 청년동맹을 일으키기 위해 김정일은 평양남포 고속도로 건설을 청년동맹에 맡겼다. 도로건설 완공과 함께 청년동맹의 위상은 조금 부상했지만 이전수준으로 되돌아 가지는 못하고 있다.¹⁴⁹

¹⁴⁹ 김영철 증언 2011년 10월 8일.

I
II
III
IV
V
VI
VII

청년동맹의 위상이 강한 것은 청년동맹 간부와 도당간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청년동맹 1비서는 보통 전직 도당 간부중에서 선발된다.¹⁵⁰ 청년동맹 간부들은 졸업하면 도당간부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중앙에서도 청년동맹 간부들이 중앙당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 간부들이 청년동맹 간부를 무시하지 못한다. 청년동맹에는 간부 자녀들이 많이 들어온다. 청년동맹 비서였던 최용해는 최현의 아들이고, 장성택의 조카인 장성우의 아들 장용철은 중앙청년동맹 국제비서를 거쳐 조직비서를 했다. 도청년동맹에도 간부들의 자식들이 많다. 도당간부들은 자식들을 청년동맹 간부로 임명해 놓았다가 자기가 퇴임할 때 당으로 전근시키는 방법으로 권력의 대물림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위부 안전부 등 도의 세력있는 간부들의 자식들이 매우 많다.

청년사업은 당이 중시하는 사업이다. 청년동맹의 구조는 당의 조직구조와 비슷하다. 때문에 일보체계가 수립되어 있고 군당책임비서가 청년동맹사업에 무관심하다는 보고가 제기되면 이는 도당 조직부에 통보되게 되며 해당간부는 비판대상이 된다. 때문에 청년동맹 간부들을 무시할 수 없으며 이는 곧 청년동맹의 위상으로 된다. 청년동맹원들의 조직생활은 상대적으로 매우 약화되었다.

조직생활에서 기본으로 되고 있는 생활총화가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청년동맹 생활총화를 종이에 써서 바치고 문건상으로 생활총화를 한 것으로 만들어놓는 초급단체가 매우 많다. 청년동맹조직중에서 가장 조직생활이 강한 곳은 대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평성의대 학생들의 생활총화참가율은 50%, 평성사범대학 학생들은 생활총화를 한 달에 한 번정도 하고 문건상으로 완비해 놓는 방법으로

150. 평남도의 경우 지금까지 청년동맹1비서는 모두 전임 당간부출신이다.

대치해놓고 있었다.

양강도에서 입국한 대학청년동맹원의 증언에 의하면 생활총화에 빠지는 학생이 많아 주로 회의록을 잘 정리하는 방법으로 대치했다고 한다. 생활총화 진행과는 관계없이 문건을 잘 만들어놓으면 무난히 넘어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조직책임자의 역할에 따라 상대적으로 강한 조직생활을 하는 곳도 있다. 평성이과대학과 청진2사대 청년동맹은 매우 조직규율이 강해서 거의 90% 이상의 참가율을 보인다고 한다.

송평구역 압연공장은 4급기업소로, 종업원 60명 중 청년동맹원이 6명 정도이다 보니 어떤 때는 2명이 모일 때도 있고 3명이 모일 때도 있다. 그래도 형식상으로는 회의록을 정리해야 함으로 모였다 헤어진다 고 한다. 직맹도 역시 마찬가지다. 직맹원들이 거의 40명 정도인데 주 동맹 생활총화는 하긴 하지만, 회의록 정리를 위한 생활총화이므로 그저 형식상에 불과하다고 한다.

송평구역 압연공장 내의 초급단체의 현재 인원은 9명인데, 공무작업반 세포 비서의 말에 따르면 생활총화를 한다고 사로청 동맹원들이 모이기는 모이는 것 같은데 제일 빨리 끝나는걸 봐서는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고 시늉을 내는 것 같다고 한다. 상호비판에 대해 물으니 “젊은 애들은 그런 걸 안해”라고 말했다. 청진 은하피복공장(수출기업) 청년동맹 생활총화는 70% 참가율을 보인다. 초급단체는 보통 15명으로 조직되는데 조직에 따라 참가율이 저조한 단체는 7~10명 이상씩 생활총화에 빠지며 모범적인 단체는 3~5명이 빠진다.

강연회나 학습은 더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원래 청년동맹 강연회나 학습은 1990년대 이전에도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 많지 않았고 당 조직이 진행하는 학습회와 강연에 참가했다. 즉, 간부학습반이나 노동자 학습반에 망라되어 학습도 하고 강연회도 참가했다. 현재 노동자

I
II
III
IV
V
VI
VII

학습반의 강연회나 학습 강도는 매우 약화된 상황이다.

청년들의 의식정도를 체크하는 단계라 볼 수 있는 입당선호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1980년대에는 모든 청년들이 입당을 희망했다. 그러나 현재 청년들의 입당희망도가 급격히 감소하여 30% 정도의 청년들은 입당하면 돈 버는데 지장이 된다고 하면서 입당을 회피하고 있다. 지금 입당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구태어 돈을 지불하면서 입당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다.

최근 북한은 청년동맹원들의 사상적 해이에 불안을 느끼고 이를 단속통제로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1990년대를 전후로 출생한 새세대의 의식과 동향문제는 당내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중앙청년동맹 검열이 ‘청소년 학생검열 그루빠’(그룹)와 ‘불량청소년 그루빠’(그룹)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청년동맹 학생검열대가 기습적으로 각 학교들을 돌며 학생들의 소지품부터 옷차림까지 샅샅이 검열하고 있으며, ‘불량청소년 그루빠’는 무직자들과 밀수꾼들을 마구 잡아들이고 있다. 9월 7일 혜산시 위연지구 강안중학교에서 진행된 검열에서는 올해 15살인 8총국(군수동원총국) 대대장의 딸에게서 필로폰이 적발되고 위연역 차량대 초급당 비서 아들 등 많은 남학생들의 몸에서 필로폰 흡입기구와 담배,ライター 등이 발견돼 큰 충격을 줬다. 인민보안부 산하 청년동맹원들로 조직된 ‘불량청소년 그루빠’는 혜산시 혜탄동에 있는 ‘노동단련대’ 내부에 사무실을 정하고 무직자 청년들과 밀수행위에 가담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다.¹⁵¹

그러나 통제와 관계없이 북한청년들의 사상은 계속 변하고 있다. 아래의 글은 평양에서 탈북해서 남한에 온 청년이 올린 글이다.

¹⁵¹- “北, 이번에는 ‘중앙청년동맹’ 검열...‘주민들 불만’”, 『노컷뉴스』, 2011년 9월 17일.

내가 살던 곳은 평양이었다…

그때 상당히 유행되던 유머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말을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난다. “물에 빠지면 주머니부터 뜯다.” 뭘소린고 하니 결국, 돈이 기본이라는 말이다. 펄럭이는 건 기발이 아니고 지폐이고 물에 빠지면 돈이 없는 주머니가 가벼워 그 어느 것보다도 먼저 떠오른다는 얘기로써 돈의 힘을 간단히 표현하는 말인 것이다. 결국, 돈으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뜻을 내포하고있는 것이다.

그때 가장유행이었던 드라마가 ‘가을동화, 겨울연가’였다. 여자아이들은 그때 송승헌이나 배용준을 ‘매력투성이’라고 불렀으며 당시 영상앨범들도 많이들어와 그것을 보는 게 사회적 풍조로 되었다. 또 서울말씨가 유행으로 번져서 전화를 걸면 상당히 이상한 억양(너무도 짬뽕이라서 상당히 듣기가 부담스러운)이 많이 들렸다. 당시 액션영화를 좋아하던 남자애들도 친구들끼리 모여앉아 며칠 밤을 새면서 드라마를 볼 정도였으니 그 인기가 과히 하늘을 찌를었다.

친구의 생일이나 모임때 북한노래는 거의 들을수가 없었으며 남한의 발라드나 트로트가 널리 애창됐다. 그때당시 나도 ‘애모, 존재의 이유’ 등 여러 가지 남한노래를 불렀으며 지금도 즐겨듣는다. (그러나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면 죽어도 안 부른다. 불렀다간 순간에 촌스러움의 극치가 되기에…) 또 패션도 근사하게 유행되어 겨울연가에서 배용준이 입었던 외투스타일이 유행으로 되어 수많은 부모님들의 돈을 앗아갔다. 여자애들은 달라붙는 쫄바지를 입고 다녔고 생머리를 하고 싶어 난리도 아니었다. 그에 발맞춰 단속대가 조직됐는데 이들은 9시부터 6시까지 길거리단속을 다녔다. 당시 청년동맹에 있던 나는 그런 여자애들이 잡혀오면 간단히 대화하고 강제노동을 보내는 일을 맡고 있었는데 참 웃긴 건 나도 그 드라마나 노래를 부르곤 내위에 상급들도 거의 같은 수준이었던 것이다…

단속에 따른 대응법도 생겨 여자애들은 9시전에 출근했다가 6시 이후에야 퇴근길에 오르곤했었다. 매직을 하고 싶어 엄청 안달을 떨던 여동생을 보며 약을 올리던 그 시절이 그립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하고싶어하는 그 모든 행동이 멋있고 세련되어 보이는 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머리를 길게 기르고 긴 외투에 가방을 메고 눈 오는 거리를 걸어 다니는 내모습을 상상하며

I
II
III
IV
V
VI
VII

실없는 웃음을 짓기도 하던 그때였다. 생활충화시간이라고 하는 자아비판의 날인 경우 동맹이로 넘기고 말씀전달이라고 하는 김정일의 개소리를 읽어주는 시간이면 턱방아를 찧는 건 모두 내 나이또래 젊은 애들이었다. 거기에 30대 후반까지도 속하기는 한다. 야회가 열리는 밤이면 감기에 걸려 열이 불덩이처럼 나다가도 별떡 일어나 뛰어나가고 '6.25 미제 반대투쟁의 날'과 같은 집회를 하는 날이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힘없이 나가는 애들이 바로 젊은이들이었다. 앞에서는 '장백산 즐기즐기'(김일성장군 노래)를 부르고 뒤에서는 '당신은 나의 남자여'(애모)를 부르는 아이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¹⁵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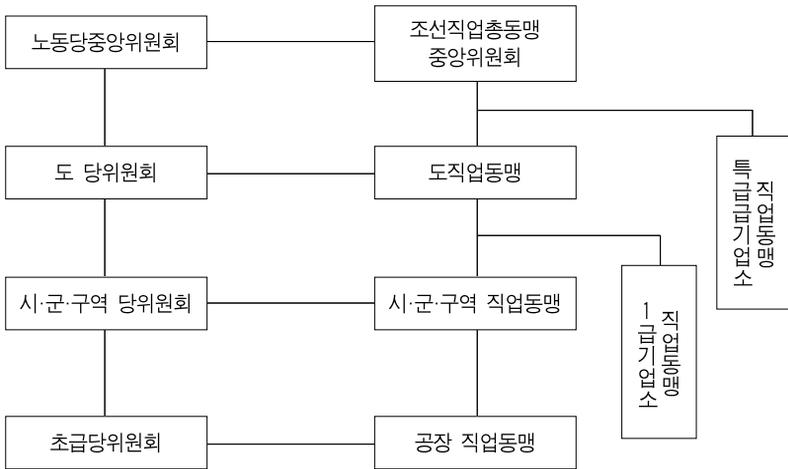
나. 조선직업총동맹

조선직업총동맹은 150만 명의 노동자들을 망라하고 있는 북한에서 제2위의 근로단체이다. 조선직업총동맹은 노동당 근로단체부의 지도하에 운영된다. 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는 직총중앙위원회-도직업동맹-시·군·구역 직업동맹-공장직업동맹의 체계로 조직되어 있다. 하부조직은 상급조직의 지도와 해당 당위원회의 지도하에 움직인다. 특급기업소는 중앙직업동맹에 직속되어 있으며 1급기업소는 도직업동맹에 소속되어 있다. 기타 모든 공장은 시·군·구역 직맹에 소속되어 있다.

산하단체로 산업별 직맹으로 경공업노동자직업동맹, 상업부문일꾼 직업동맹, 교육문화보건일꾼직업동맹, 공무원직업동맹, 수산노동자직업동맹, 금속기계공업노동자직업동맹, 화학공업노동자직업동맹, 건설업노동자직업동맹, 운수항만노동자직업동맹, 광업동력노동자직업동맹이 조직되어 있다는 보고도 있으나 실제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라 국

¹⁵² 탈북자동지회, “북한청년들의 정신상태와 행동-푸른바다,” 2006년 8월 25일, <<http://www.nkd.or.kr/news/story/view/634>>.

● 그림 VI-6 조선직업총동맹의 조직구조



제직업연맹에 가입하면서 여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형식상 만들어놓은 조직으로 보인다.

(1) 조직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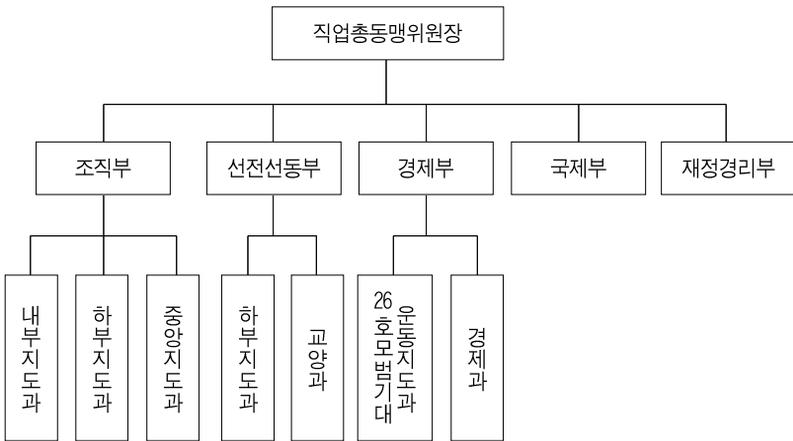
(가) 중앙위원회

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는 조직부, 선전부, 경제부, 국제부, 재정 경리부로 구성되어 있다. 각부서는 담당부위원장이 있으며 그 밑에 담당부장과 과장이 있다. 직업총동맹 위원장은 현재 현상주로 비서국 비준 대상이다.

조직부는 직맹원들의 조직생활을 지도하는 부서이다. 직맹원들의 조직생활지도는 하부지도과에서 담당한다. 하부지도과 부원들은 각도의 직맹을 담당하여 지도한다. 매달 20일씩 하부에 내려가 현실을 요해하고 그 상황을 위에 보고하며 비정상적인 현상을 바로잡는 것을 사명으

I
II
III
IV
V
VI
VII

● 그림 VI-7 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조직구조



로 한다. 조직부 내부지도과는 직맹원의 맹원을 등록하고 통계를 내며 이동을 장악한다. 또한 아래 단위에서 일보고를 받고 그를 종합하여 중앙당 근로단체부에 보고하며 대책을 수립한다. 직맹원들의 국가수훈과 표창사업도 관할한다. 현재 여성들의 대다수가 직장을 그만두고 장사에 나서다 보니 직맹원 숫자도 감소했다. 현재 직맹원 숫자는 160만 명이라고 하지만, 재확인할 수 없었다.

간부과는 직총 비준대상의 간부를 선발 요해 검토 비준하는 사업을 담당한다.

선전부는 직맹원에 대한 사상교양을 담당하는 부서다. 하부지도과는 각 도직맹의 선전부사업에 대한 지도를 담당한다. 각 도별 담당부원이 있으며 월 20일 하부지도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양과는 직맹원들을 위한 교양자료를 만들어 내려 보내며 직총예술선전사업을 지도한다. 김부자의 생일과 각종 기념일을 계기로 예술 축전을 진행하고 기념공연을 진행하며 공장의 기동선전대 활동을 지도한다.

경제부는 직맹원들의 생산활동을 장려하는 부서다. 공장별 사회주의 경쟁 조직, 순회우승기 수여와 같은 활동을 통해 직맹원들이 맡은 계획을 수행하도록 고무한다. 직총은 26호모범기대관리운동을 담당지도한다.¹⁵³

국제부는 국제직업총연맹을 비롯한 다른 나라 직업동맹과의 협조관계를 담당하고 북한직업동맹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사업을 담당한다.

재정경리부는 직맹원들의 맹비를 수납하고 직총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다.

(나) 도직업동맹의 조직구조

평안북도 직업동맹은 조직부, 선전부, 경제부, 경리과로 조직되어 있다. 직업동맹 간부는 경리과 노동자 3명, 기요원 포함하여 50여 명이다. 각부서는 부위원장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매 과에는 담당 부장이 있다. 조직부는 15명 정도이며 내부담당부원, 하부담당책임부원, 간부부원이 있다. 선전부는 하부담당부원이 10여 명 있으며 창작실에 실장, 작곡가, 연출가 3명이 있다. 또한 별도로 선전원도 한 명있다. 경제부에는 26호모범기대운동 지도과, 경제과 도합 10여 명의 부원이 있다. 경리과에는 과장, 재정지도원, 부기원, 운전수, 보일러공, 식당취사원 등이 있다.

¹⁵³ 북한에서는 2011년 4월 20일 선군시대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선구자대회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2011년 3월 30일에 발표한 노작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요구에 맞게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발전시킬데 대하여》를 전달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기간 1만여개의 직장, 1만 1,800여개의 공장, 기업소들이 26호모범기대, 2중26호모범기대단위로 되었으며 890개의 직장과 1,600여개의 공장, 기업소, 농장이 26호모범기대영예상을, 100여개의 직장과 공장, 기업소들이 2중26호모범기대영예상을 쟁취하였다고 성과를 언급했다.

I
II
III
IV
V
VI
VII

● 그림 VI-8 평안북도 직맹의 조직구조



(다) 시·군·구역 직맹위원회의 조직구조

시·군·구역 직맹위원회는 직맹의 말단 지도기관이다. 시·군·구역 직맹위원회는 7~15명 규모로 조직되어 있다. 직맹위원회는 직맹위원장과 조직부위원장, 선전부위원장, 경제부위원장과 그 밑에 수명의 부원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에는 상부는 비대하고 하부는 왜소한 조직구조를 갖

고 있어 하부로 내려오면 지시사항은 더 많고 집행인원은 적어 하부관리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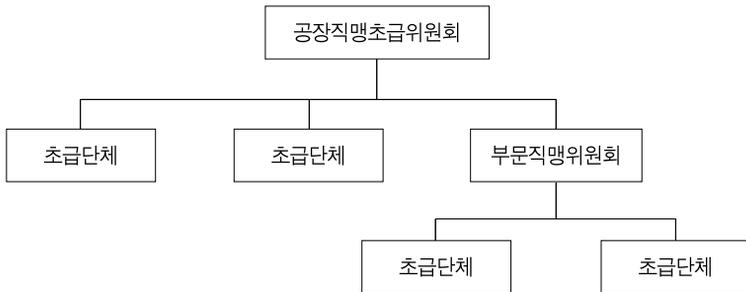
(라) 직맹초급위원회 조직구조

직맹초급위원회는 공장, 기업소에 조직되어 있는 직맹의 말단조직이다.

직맹초급위원회는 직맹부문당과 초급단체로 조직된다.

직맹원이 800명 이상인 기업소에서는 공장직맹위원장이 유급이며 그 이하는 무급직맹위원장을 둔다.

● 그림 VI-9 직맹초급위원회 조직구조



(2) 조직 운영 실태

북한의 직맹조직은 1960년대부터 사상교양단체로 변하면서 급격히 약화되어 왔지만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계기로 한층 약화되었다.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고 장기간 복구되지 못하면서 직맹원들의 직장일탈, 생계의 어려움 등이 가중되면서 직맹조직도 급속히 와해되고 있다.

I
II
III
IV
V
VI
VII

현재 직맹조직은 자기의 주사업인 직맹원들을 조직적으로 결속하고 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은 형식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다. 직맹에서는 시기마다 제기되는 행사적 성격을 띠는 사업을 집행하기에도 힘이 부치는 상황이다.

직맹이 진행하는 사업은 당중앙전원회의가 열리면 그 내용을 되받아 언급하고 주요 기념일을 계기로 충성의 결의모임, 예술경연, 종합공연을 진행하며 사회주의경쟁운동, 26호 모범기대운동과 같은 사회주의운동 조직 등을 맡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직맹의 위상이 급격히 하락하다보니 직맹은 최근 농근맹이나 여맹에 비해볼 때도 많이 위축되고 있다. 2011년 1월부터 10월 17일까지 노동신문에 게재된 기사의 숫자는 여맹 30건, 농근맹 18건, 직맹 9건으로, 직맹의 위상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직맹조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생활총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평성시 안의 기업소에서 주간 직맹생활총화를 기업소들에서 정상적으로 하는 곳은 단 한곳도 찾아보기 힘들다. 주간 직맹총화는 물론, 매월 마지막 주에 하게 되는 ‘월 직맹생활총화’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위에 있는 상급단위에서 검열을 나오기 때문에 이것 역시 직맹 초급단체위원장이 회의록 정리만 해놓고 있을 뿐이다. 검열 나오면 동맹원들에게 회의록을 베끼도록 해 피하고 있다.¹⁵⁴

송평구역 압연공장은 종업원도 60명 중 직맹원들이 40여 명이다. 공장 초급당 부비서가 직맹위원장을 겸하고 있는데 여성직맹원이 많아 생활총화에 절반 정도가 참가하고 있다. 상호비판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¹⁵⁵ 함흥시 2.8비날론 공장에서는 직맹생활총화는 주일 월 매번 진

¹⁵⁴. 2010년 10월 현지 확인자료.

¹⁵⁵. 위의 자료.

행된다고 한다. 그렇지만 참가율은 6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¹⁵⁶

직맹원에 대한 사상교양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직맹조직별 학습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당에서 조직하는 노동자학습반과 강연회에 겨우 참가하는 형편이다. 그 참가율도 매우 저조하다. 우선 공장의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노동자들이 8.3제품 생산을 핑계로 직장에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이나 강연회에 빠지게 된다. 또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들도 출근등록만 하고는 개인용무 특히 장사를 직접 하거나 부인들의 장사를 거들어야 살 수 있는 상황이어서 학습이나 강연회 같은 것이 제기되어도 사적인 일이 생기면 참가안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직맹에서는 배급도 주지 못하고 월급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인 상황에서 강하게 요구할 수도 없고 특히 직맹간부들부터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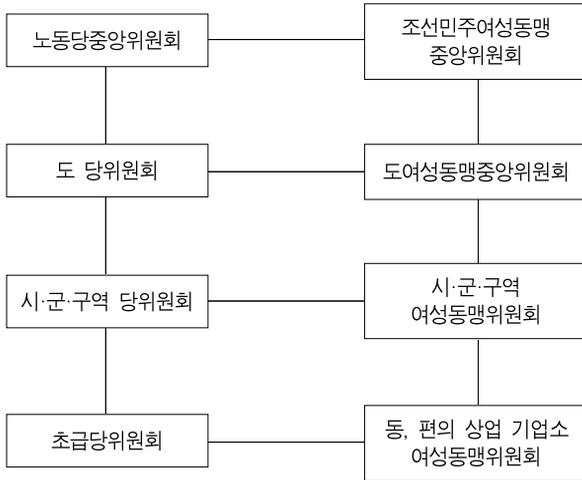
직맹원들의 사상동향은 좋지 않다. 원래 직맹은 당에 들 수 없는 사람들이 가는 조직이어서 주로 토대가 나쁘거나 전과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입당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여성들이 모인 집단이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다 직맹원일 수밖에 없다. 직맹원들은 출세할 길이 막힌 사람이며 따라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같은 것은 거의 관심이 없고 돈이 최대의 목적으로 되고 있다.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행의 상당수는 직맹원들이 범한 것이다.

조선민주여성동맹의 조직체계는 다른 근로단체와 거의 유사하다. 여성조직은 중앙에서 말단까지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중앙, 도, 군에 여성동맹위원회가 있고 말단인 동과 편의사업소, 급양관리소에는 여성동맹초급위원회가 있다.

¹⁵⁶. 위의 자료.

I
II
III
IV
V
VI
VII

●그림 VI-10 조선민주여성동맹의 조직체계



2. 근로단체 당 조직 문화 및 당 조직 운영 변화 실태

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평안남도위원회

(1) 당 조직 구조와 기능

(가) 인터뷰 대상자 인적사항

인터뷰 대상자 ○○○의 노동당원 경력은 약 12년이며 2004년에 탈북하였다. ○○○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평안남도위원회에서 근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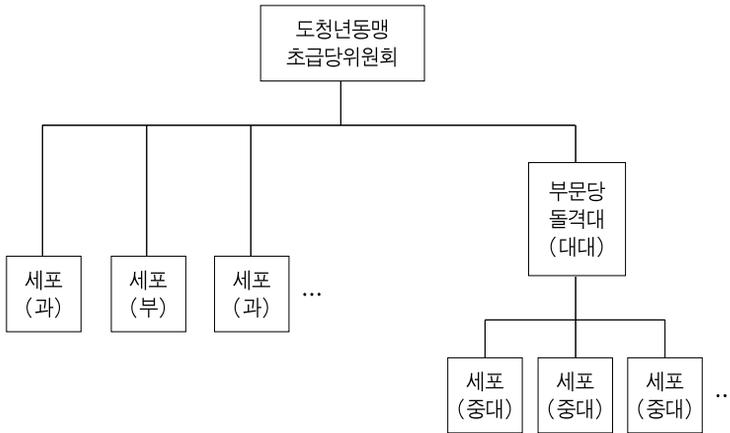
(나) 도 청년동맹 내 당 조직 구조

도청년동맹은 중앙청년동맹과 도당에 2중으로 종속되어 있다. 도청년동맹은 중앙청년동맹의 조직생활지도와 행정적 지도를 받는다. 중앙

청년동맹은 간부인사권도 가지고 있다. 도청년동맹은 또한 도당 조직부와 선전부의 당생활지도를 받으며 도당 근로단체부의 행정적지도를 받는다. 도청년동맹의 당 조직 명칭은 도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초급당위원회이다. 도청년동맹 간부는 몇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당원이다. 당원이 아닌 몇 사람도 당원으로 될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며 몇 년 경력을 쌓으면 입당하게 된다. 도청년동맹 초급당위원회는 부문당과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도청년동맹 초급당비서는 2002년 전까지는 청년동맹 조직비서가 겸하였지만 2002년 이후부터 유급 당 일꾼이 담당하고 있다.¹⁵⁷ 도청년동맹 당위원회는 당원수에 따라 5~7명으로 구성된다. 부비서는 청년동맹 조직비서가 겸한다. 초급당위원회는 보통 초급당비서, 도청년동맹 1비서, 청년동맹조직비서, 돌격대여단장, 정치부장이 망라되며 부부장

그림 VI-11 도청년동맹 초급당위원회 조직구조



157- ○○도에는 도당 검열과장이 초급당비서로 파견되어 왔다.

가운데 2명이 선발된다. 도청년동맹 1비서는 도당집행위원이다. 도당 집행위원회는 도급간부 비준을 비롯하여 도내에서 제기되는 주요문제를 토의하는 도 내의 최고 결정기구이며 여기에는 도당책임비서 조직비서, 도보위부장, 도안전부장이 소속되어 있다.

도청년동맹 초급당은 직속세포와 부문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년돌격대는 부문 당이며 과 또는 부 단위로 당원 수에 따라 세포가 조직되어 있다.

(청년동맹 1비서는)청년동맹 조직부 하부에서 생활총회를 하게 돼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자기가 속해 있는 데가 있죠. 세포가. 우리는 하부에 붙어있었어요.

과별로는 없고, 간부와 내부 검열과 합해서 한 개 세포. 조직비서가 참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부(하부지도과)는 워낙 인원이 많아요. 1비서가 같이 해요.

비서는. 세포비서는 부부장들이 다 했고. 부비서는 이제 같이 일반지도원도 해요. 뭐 부부장이 비서할 수는 없고.

도청년동맹은 속도전청년돌격대 한 개 대대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1,400여 명 규모이며 부문 당이 조직되어 있다. 부문 당비서는 돌격대 정치부장이다. 북한에서 직맹이나 농근맹, 여맹 같은 근로단체들은 행정적으로만 상급조직의 지시를 받을 뿐 당 생활지도와 간부사업은 해당 거주 지역 당이 독점하고 있는 것과 달리 청년동맹만은 조직생활지도와 간부사업권이 상급조직에 있기 때문에 다른 조직에 비해 권한이 있고 위력이 있다. 이를 북한에서는 ‘당의 신임이 크다’고 표현한다. 즉, 김정일이 청년동맹에 권력을 크게 나누어 주었다는 뜻이다.

부부장은 도에서, 도에서 하는데 도청년동맹 비준대상은 도고, 합의는 근로단체에 가서 합의를 보고, 이 사람 부장 시키려고

한다. 문건 갖고 가서 어 그래, 다른거 뭐 없나, 그러면 1비서가 그냥 결제한 건 거의 빠꾸되는(부결되는) 건 없어요. 결론권은 없으니까.

(2) 당 조직생활 변화 분석

아래의 <표 VI-2>는 피면담자가 1970년~1980년대의 당 조직생활 정형을 100%로 했을 때 탈북 할 당시의 상황을 %로 표시한 것이다.

1호 작품, 즉 김일성·김정일의 사진, 석고상 등의 관리는 이전보다 약화되었다. 도청년동맹에는 1호 작품을 관리하는 방이 하나 있는데 조직부 내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거기에는 안쓰는 초상화나 청년동맹 깃발 등을 보관하는데 주단을 까는 등 보관관리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이전보다는 약화되었다고 평가했다.

● 표 VI-2 도청년동맹의 당 조직생활 실태

구분	1-100%	2-75%	3-50%	4-25%	5-0%
1호 작품 관리 및 참가 정형		○			
수목 강연회, 토요일정치학습	○				
월간 자체학습 및 정리수준			○		
아침 독보회 수준		○			
총성의 노래모임	○				
생활 총화 및 월간총화진위	○				
입당 선호도		○			
조직보고체계		○			
사회노력지원 및 정치적 자극				○	
당비 납부 및 재정상황			○		
노작방침지시 침투 조직사업		○			

초상화도 이제와 같이 사무실 이제 그 사무실이 늘었다 줄었다 하니까. 안쓰면 초상화 내리지 않아요. 1호 작품이거든요. 1호 작품은 이제 같은 것도 건사하고 청년동맹 같은 건 것발에도 다 초상화 붙어 있잖아요. 다 따로 건사하는 데가 있죠. 거기는 주단 깔고 뭐하고 잘해서 보관하는 장소가 있어요. 조직부 내부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옛날보다는. 지금은 1호 작품 잘못되면 소각하잖아요. 옛날엔 큰일 냈거든요. 옛날에는 초상화 찍으면 진짜 완전 정치범수용소 간다고 난리 났는데 지금은 다 소각이에요, 자체소각. 그러니까 낮춰진 거지.

청년동맹 간부들은 수요강연회와 토요일학습은 반드시 참가하고 있다. 토요일학습 수요 강연회는 1비서와 부비서들은 도당에 가서 별도의 학습반에 망라되어 참가하고 나머지 성원은 청년동맹 자체 내에서 상급 당에서 내려오는 제강에 근거하여 진행한다.

지금, 당비서가 생기면서 조일 건 그것밖에 없어요. 저희가 간부권이 없기 때문에. 맨날 뭐 분기당 생활총화요 뭐 맨날 비판무대에 올라가서. 거의나 다 참가해요. 그리고 빠진 건 개별적으로 참가하면 그건 참가한 걸로 봐줘요. 생활총화도 개별보고하면 그건 참가한 걸로 봐주거든요. 동맹일꾼들은 어디 가서, 시군지도 사업 갔다가 빠지면 개별보고를 해요.

그것도 이제 도청년동맹마다 이제 뭐 당비서들이 얼마큼 조이는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검열과장이 당비서로 나왔었어요. 도청년동맹 당비서를 도당검열과장이 나왔었는데 그 사람이 안주 남흥청년화학공장 청년비서 했었어요. 그러다 당일꾼 갔다 도당왔다 검열과장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검열 다니던 사람이니까 좀 그런데가 있거든요. 암팡지게 파고들고 그거 가지고 따지고 들고. 그러니까 웬간하면. 그렇게 하고 청년동맹 졸업할 때 도당으로 가던 보위부로 가던 검찰소 가던지. 졸업할 때 잘 안써준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하거든. 평정서 잘 써주나 봐라. 그렇게 조직생활하면. 후회하지 말라. 강박을 하거든요. 웬간하면 다 참가하죠.

그러나 자체학습과 독보회는 이전에 비해 강도가 많이 약화되었다. 자체학습은 학습과제를 남이 한 것을 형식적으로 베껴서 바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고 아침독보회는 매일 하다시피 하지만, 형식적이라고 평가했다. 청년동맹 간부의 하루 일과는 아침 7시 반에 출근하여 아침 달리기와 독보를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아침달리기는 좋아하지 않지만 총무부에서 장악하고 총화하기 때문에 모두 참가하는 편이며 독보도 긴급사안이 제기되지 않으면 보통 매일 진행한다.

매년 김일성·김정일 생일을 계기로 진행되는 충성의 노래모임은 참가수준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도청년동맹 내 간부들이 모두 참가하는데 청년동맹간부들이 잘하지 못하면 하부에 잘하라고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참가율이 이전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 도청년동맹에서는 생활총화도 이전이나 다름없이 철저히 진행했다.

생활총화, 그 지도사업하는 데인데 그걸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죠. (청년동맹은) 생활총화 지도하는 데예요. 조직생활 관리하는 데인데, 안되죠. 조직생활 지도하는데인데. 아니 밑에 내려가서 사로청원들 생활총화 바로 하라고, 호상비판 무조건 하라고 하고 바로 하라고 하면서 저희가 잘못하면 그게 뭐.

청년동맹간부의 입당선호도는 아직도 치열하다. 북한에서 간부가 되려면 입당은 필수적인 것이다. 도청년동맹에서 일한다는 것은 앞으로 간부로 발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입당은 반드시 해야 한다. 또한 모든 직원이 다 당원인 환경에서 소수가 비당원이므로 소외감도 생긴다.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 입당하려는 욕구가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도청년동맹에서는 입당이 타 직장에 비해 쉬운 편이다. 그러나 최근 입당선호도는 조금 조금 약화되었다고 한다.

I
II
III
IV
V
VI
VII

도사로청에 입당한다면 해설대가 있어요. 해설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여자종합지도원들은. 남자들은 거의나 군에 나갔다가 다 대학 나오고 그쪽이 많으니까. 휴간 돌격대에 있다 온 사람들이 있는데. 몇 %는 안 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하죠. 여자들 같은 경우도 청년동맹은 무조건 입당하고 시집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안 하고도 좋은 자리 있으면 가더라고요. 입당 안하면 시집도 안갔는데 가더라고요.

당 조직에 대한 보고체계는 여전히 잘 가동되고 있다. 특히 도청년동맹 간부들은 하부지도가 많아서 출장이 잦은 편이다. 그러다보니 외부에 나가 생활한 정형을 항상 보고해야 한다. 모든 간부들이 외부에 나갔다 들어오면 생활정형을 무조건 보고하는 체계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하는 강도는 이전에 비해 약화되었다.

보고체계는 어차피 시·군 다니고 뭐하고 하다나면. 친하게 되고 인간적으로 친하게 되면 거짓말로 보고해 주는 것도 있고 무조건 보고체계를 하는데. 어차피 사람작업 아니겠어요. 똑같죠. 밑게 보이면 똑같은 내용 가지고도 후에 잘한다 못한다.

사회적인 노력동원은 이전에 비해 많이 약화되었다. 농촌동원기간에 동원도 되고 금요노동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농촌동원이요 뭐요 다 해요. 금요로동이요 뭐요 나가요. 그런데 빠지는 율이 많죠.

좀 특수한 걸 내세워서 빠지는 게 많죠. 기본적인 농촌동원은 우리는 다 시군에 나가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농촌동원 나가지 청년동맹 전체적으로 나가기 쉽지가 않아요. 지도사업 하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얼마 나오라고 떨어져요. 이래서 빼고 저래서 빼고 그 기간에 또 청년동맹 할 거 있으면 떼 놓고 이렇게 하고. 조절해서 내보내죠.

도청년동맹 간부들은 당비납부를 100% 하고 있다. 월급이 거의 정상화되어 있어 당비납부를 하지 못할 근거가 없다. 그러나 당의 재정상황은 매우 어렵다고 했다.

네, 그래서 당비납부는 100% 안 할 수가 없어요. 도청년동맹 일꾼들이 다 간부로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비 납부 안 하는 사람들은 없는 거고 그 밑에 재정상황을 얘기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39호실 외화벌이 엄청 됐는데, 지금은 39호실도 문 닫는 데가 많아요.

39호실이 문 닫는 게 아니고, 39호실에 5호관리소요 뭐요 이게 다 39호실 산하인데. 시·군에는 5호관리소, 그리고 사금 광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문 닫는 것들이 많고 까또 사용 같은 건 일본아들들꺼 가지고 하곤 했는데, 기름도 없고 기계도 그래 그러니까 많이 축소됐어요. 어쨌든 나라 경제살림이나 당재정 살림이나 같은 거예요 이제. 경제가 돌아가야지, 당비도 자기 수입의 2%를 바치게 돼 있는데. 월급을 뭐 많이 타야지 당비도 올라가고 뭐하고 하는 거지. 월급을 조금 타는데 뭐, 당비를 바칠 수가 없잖아요. 동청년동맹은 월급은 거의나 다 주다시피 했지만, 옛날보다 못하죠. 재정상황은 어쨌든 못해요. 충성의 외화벌이요 뭐요 하는 것도 좀 많이 약화됐어요. 옛날에는 세포별로 돈 모아서 사다 넣고 했거든요. 충성의 외화벌이 하는 거. 다른 데도 다 같아요. 공장기업소도 사금 같은 거 막 사다 넣었죠.

당의 방침이나 지시 침투는 이전과 같이 100% 진행하지만, 받아들이는 관점에서는 변화가 생겼다. 무조건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침투가 약화된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뭐,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곧 법이고 당의 명령이다 이랬는데 참가는 해서 듣되, 집행은 어차피.

I

II

III

IV

V

VI

VII

(3) 당 조직 지도 및 운영 실태

아래의 <표 VI-3>는 피면담자가 북한 도청년동맹 내 당 조직 지도 및 운영 실태를 1970년대~80년대 초반과 비교해서 평가한 것이다.

당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열리고 있다. 매달 1회 운영은 기본이고 필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 비해서는 약화되고 있다. 각종 당회의 사전 준비도 마찬가지다. 토론을 자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 준비를 시키고 지명토론을 하고 있다. 원래는 윗간부들부터 토론했지만 점차 윗사람은 빠지고 아랫간부들부터 내다 세우고

● 표 VI-3 도청년동맹 내 당 조직지도 및 운영 실태

구분	1-100%	2-75%	3-50%	4-25%	5-0%
당위원회 운영 실태		○			
각종 당회의 사전 준비 실태		○			
간부 선발 배치 정형			○		
하부 조직 실태 매주 보고상황		○			
근로단체지도정형작동상황					
당 책벌 및 상여기준			○		
당 검열부서의 기능여부		○			
당 신소담당과의 기능여부				○	
당 재정 및 외화벌이 상황				○	
조직비서와 책임비서와 관계			○		
부서별 본위주의 및 파벌형성			○		
당조직과 보안기관 상하관계					○
마약이나 성문화 접근성향					×
선물시혜 정책여부					○

비판시키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당위원회? 어차피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잖아요. 조직체계가 약화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북한이 뭐, 당기관이 무너질 정도로 약화된 건 아니고 옛날보다는. 옛날은 뭐, 이제 같이 10대 원칙에 준수해서 뭐 어떻게 보면 엄청 섰던게 지금 많이 약화된거죠.

사전 준비라는 게 회의하게 되면 준비를 하잖아요. 총회를 하던,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할 사람들도 지명해 놓고 사실은 뭐 자율적인 토론이어야 되는데 거의 다 지명토론이에요 이제. 부장들부터 다 하란 소리 못하고 그 밑에 과장들이 만만하죠.

간부 선발배치는 인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청년동맹은 자체 내에서 간부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위에서, 즉 도당을 비롯하여 상급에서 내려먹여 인사를 하는 경우가 다분하다.

간부선발배치는 뭐 이제같이 당원칙적으로 하라니까. 원칙적인 것보다도 인맥으로 많잖아요. 여기서 내려먹이는 거 저기서 내려먹이는 거, 좀 원칙과 벗어나는 게 있으니까.

청년동맹에는 당을 모방한 하부조직 실태보고체계가 수립되어 있다. 청년동맹에는 어느 부서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통보지도원이 1명 있는데 조직생활만 조직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통보지도원은 도청년동맹 1비서의 승인이 없이도 도청년동맹에 수집된 정보를 중앙당에 직접 올려 보낼수 있다. 도청년동맹의 하부담당지도과 지도원들의 주요임무는 공장·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보고하는 것이다. 또한 각 시·군 담당과의 종합지도원을 통해서도 일일사업총화를 통해 종합된 보고가 도청년동맹 각 부서로 들어온다. 통보지도원은 이를 중앙당에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계속 작동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많이 이완되었다. 이전에는 통보 지도원이 도청년동맹 간부들의 비행도 서슴없이 보고하였으나 지금은 그러한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그의 조직생활이나 간부사업을 도청년동맹이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윗사람이나 동료와 사이가 나빠지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아랫단위에서는 사업평가에서 지적받을 결함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다. 이러한 하부 조직 실태 보고체계는 도청년동맹의 활동에 관한 것이지 도청년동맹간부들의 당생활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당 조직생활에서도 문제가 제기되면 보고내용에 첨부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고체계 또한 많이 약화되었다.

전반적으로 다 약화, 조직체계가. 북한체제가 전반적으로 옛날과 같이 딱 쪼인 체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보고하기는 해도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 많아졌단 말이죠.

당 책벌 및 상여기준도 많이 약화되었다. 현실에서 현황이 어려워지다 보니 이전처럼 강하게 통제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웬만한 것은 눈감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나 검열부서의 활동은 여전히 다. 그들의 임무가 검열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검열의 기준도 약화되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공장기업소도 일 안 나가고 하면, 여기로 말하면 반성문, 비판서 쓰고 엄격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뭐 공장이 일 못하고 뭐하고 하니까. 어쨌든 모든게 다 약화됐잖아요 통제능력이 상실된 거죠 이제. 경제가 어려워서 배급 제대로 못주고 직장도 출근 제대로 안 하면서 통제능력이 약화된거죠. 그 사람들은(당검열부서) 이제 자기네 사업이 올해 몇 개 단위를 검열해야 된다고 돼 있으니까 하는 건 하죠. 당연히 하죠.

그런데 내려가서 보면. 옛날 책대로 규정대로 하면 안 걸려들 사람이 없으니까 이젠 잣대를 좀 늦춰줬으니까 뻔수 있는 거예요.

당신소담당과도 작동하고 있으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이 신소를 했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소를 잘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소가 제기되면 문제처리는 하고 있다.

책임비서와 조직비서와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러나 도청년동맹 내에서는 다르다. 도청년동맹 내에선 도청년동맹 1비서는 중당당 비서국 대상이고 책임비서는 도당 비준대상이기 때문에 1비서에 도전할 수가 없다.

우리는 상관없는데. 당기관은 원래 잘 안 맞아요. 시군당은. 도당은 기관당비서가 따로 있지만 시군당은 책임비서가 조직비서에요. 안 맞아요. 어차피 책임비서 자료를 조직비서가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간부와 자체가 조직부 간부과거든요. 간부권을 조직비서가 직접, 책임비서. 마지막에 최종결론자는 책임비서지만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뭐하고 하는 건 조직비서 손끝에서 많이 놀죠 이제. 청년동맹은 안 그래요. 1비서가 엄청, 급수 차이가 많이 나죠. 초급당 비서는 도당비준 대상이죠.

보안서는 도청년동맹의 활동에 거의 간섭하지 못한다. 보안서는 도당에서 간부사업을 하고 당 조직생활 지도를 받기 때문에 도당의 활동에 간섭하지 못하며 마찬가지로 청년동맹 사업에도 간섭하지 못한다. 그러나 도보위부는 당 조직도 독립되어 있어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최근에는 크게 간섭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못하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행정부가 보잖아요. 이제. 행정사업에 대한 건 그 사람들은 한쪽으로 도급 안전부가 보안성에서 받으면서. 옛날에는 사회안전부 댔던거 보안성으로

지금 고쳤는데. 보안성에서 받으면서 한쪽으로는 도당행정부가 행정적 지도 사업을 해요. 당사업 지도는 도급지도과가 또 나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요 뭐.

보위부는 옛날에 도급지도과에서 보던 건데, 보위부를 떼서 지금은 옛날에 정치보위부일때 당에서 보위부를 상관 못했어요. 그러다 국가보위부로 되면서 당의 지도를, 지방당 지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보위부는 이중적으로 자기네 국가보위부 지시를 받으면서 한쪽으로 당적지도를, 도당에서 도급지도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도당에서 상관 안 해요. 자기네 보위부 계통에서 하거든요. 당지도 까지도.

당에 와서는 절대 안 그러죠. 담당지도원이 있어도 있으나 마나예요. 형식상 있기는 있어요.

안 빼쳐요. 왜 그러냐면, 거 있다가 당에 가든 보위부 가든 검찰 가든 다, 쉽게 말하면 미래 간부로 검증된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는 집단이니까. 거기에 불순분자가 있다고는 생각안하죠 차라리.

마약이나 성문화 접근성향은 자신이 탈북한 2004년까지 목격한 것이 없다고 증언했다. 간부들의 선물 받는 정도는 예전이나 크게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나 일반 간부들에게 특별로 물품공급을 하던 4호 상점은 폐쇄되었다.

도1비서는 새해 때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비서국대상이니까 선물을 타요. 기름박스를 타든 껌을 타든, 뿔하든 타요 계속. 나머지 비서들은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4호 관리소라고 있었거든요. 4호 대상자라고 이제같이 간부들 급수에 따라서 담배도 주고 뭐 했던 건데, 다 없었어요. 그 자체를.

저희는 도당책임비서, 조직비서 비서들 주고 그 다음에 기관 책임자들 줘요. 기관 책임자라면 청년동맹1비서, 여맹1비서, 직맹1비서 그건 크던 작던 머리들은 줘요.

나. 도 직업총동맹 내 당 조직 구조와 기능

(1) 인터뷰 대상자 인적사항

탈북자 중 직맹에서 유급간부로 일한 사람을 찾기 어려웠다. 인터뷰 대상자 ○○○의 노동당원 경력은 약 15년이며 1998년에 탈북하였다. ○○○는 도청년동맹에서 일하다가 1995년부터 조선직업총동맹 평안북도 위원회에서 근무하였다. 당생활연한은 15년이다.

(2) 당 조직구조

도직맹 상근간부는 모두 당원이다. 도직맹에는 도당이 직접 관할하는 초급당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평안북도 직맹위원회의 경우 초급당위원회는 무급이다.¹⁵⁸

평안북도직맹위원회의 초급당비서는 직맹 조직부위원장이 겸하며 세포비서는 해당과에서 한 명이 선출된다. 대체로 세포비서는 하부지도를 내려가지 않는 주로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을 선출한다.

그림 VI-12 도직맹위원회 조직구조



¹⁵⁸ 유급초급당과 무급초급당은 초급당간부의 유무급을 기준으로 해서 부르는 명칭이다. 유무급의 기준은 해당조직에 망라되어 있는 당원의 숫자다. 보통 당원 100명당 1명의 유급당간부를 두게 되어 있으며 이는 조직의 중요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초급당비서는 조직부위원장이 해요.

밑에 세포비서들은 돌아가면서 하더라고.

네, 추천해 가지고. 보통 그 안에. 내부 앉아 있는 전화치, 전화
통 지키는 내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통 세포비서하죠. 다른
것들은 계속 나가서 지도하잖아요. 지도하고 들어오고 하니까.

초급당비서의 권력은 도직맹위원장보다 약하다. 무급당이다 보니 자
체 내에 간부사업권이 없어 간부임명은 도당 비준을 받아야 하고 근로
단체가 하부단체의 조직사상생활을 지도하는 정치조직이다보니 자연
히 총책임자인 직맹위원장의 권한이 더 강할 수밖에 없다. 강연회는 도
당간부강연에 참가하며 당 학습은 자체 내에서 세포별로 진행한다. 도
직맹은 자체 내에 연구실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학습이 진행된다.

(3) 평북도직맹 내의 당 조직생활 변화

아래의 <표 VI-4>는 피면접자가 북한에서 생활하던 도직맹 내의
조직생활정형을 1970~80년대 초와 비교하여 정도를 표시한 것이다.

도직맹간부들은 1호 작품 관리를 여전히 정상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 관리는 매일 아침 관습적으로 진행되는 것일 뿐 충성심으로부터 나
온 것은 아니다.

도당에서 나와서, 이게 당의 외곽단체이기 때문에 와서 검열하
고 그런 건 없어요. 이것도 사실 정치기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자기네끼리 하는 거지 그걸 갖다가 뭘. 그리고 선전부, 조직부
에서 와서 검열하고 그러지 않지. 자기 부서 자체가 그건 기본적
으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먼지가 있다 그러면 내
부지도원이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청소 안했으면 그 놈이 나쁜
놈이지. 그리 되는 거지 뭐.

그거 검열 안 하지, 안 하는데. 의무적으로 청소할 때마다. 청소
일단 하면 그것부터 초상화부터 닦는 거니까.

● 표 VI-4 도직맹 내의 조직생활 실태

구분	1-100%	2-75%	3-50%	4-25%	5-0%
1호 작품 관리 및 참가 정형		○			
수목 강연회, 토요일정치학습		○			
월간 자체학습 및 정리수준			○		
아침 독보회 수준			○		
총성의 노래모임	○				
생활 총화 및 월간총화진위		○			
입당 선호도					
조직보고체계			○		
사회노력지원 및 정치적 자극		○			
당비 납부 및 재정상황		○			
노작방침지시 침투 조직사업		○			

이건 뭐 의무적이지 뭐, 충성심에 뭐 그래 가지고. 이젠 몸에 뻐다고 할까 그렇게 봐야지.
 관리원 없고. 선전부 관리하는 지 뭐. 석고상 하나 김일성이 절 반짜리 하나 해놨더라고. (그거 누가 청소랑 하나.)
 뭐 조직부에서 맡아서 하겠죠. 여자들 있잖아요. 강사도 있고 선동원 강사도 있고. 기요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강연회나 정치학습에는 모두 참가한다. 참가정형을 체크하고 빠지는 경우 문제로 삼기 때문에 참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참가해서는 별로 듣지 않는다. 년간 자체학습과제도 수행한다. 그러나 검열을 마치기 위해서 돌려가며 제목과 내용을 베껴서 넘기는 방법으로 넘긴다. 아침 독보회는 별로 한 기억이 없을 정도로 더러 하기도 했지만 하지 않은 날도 많았다.

I
II
III
IV
V
VI
VII

그러나 충성의 노래모임은 반드시 진행했다. 특히 피면담자는 도직맹 선전부 문예실장으로 일했기 때문에 충성의 노래모임에 대한 강한 기억이 있었다. 생활총화는 매번 진행했고 100% 비판에 참가했다. 그러나 상호비판은 상대방에 대한 진실한 비판이기보다는 횡수를 채우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었다. 일부러라도 하나씩 적당한 비판을 하며 또 비판을 받았다고 자극을 받는 것이 아니다. 도직맹은 100% 당원이며 비당원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입당 때문에 관심가지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직맹에 오니까 세포비서도 계속 내려가 있고 좀 흐지부지야. 지방 내려가서 계속, 지도원이니까. 내부지도원이 그냥 지금부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충분히 돌아가는 거야 그냥.

처음에 김일성 교시하고 김정일 말씀 해야되고. 그 다음엔 워낙 구실이 없어 가지고 학습 안 했다고 거짓말 치고. 한 번은 빨리 퇴근했다고 거짓말 치고. 한 번은 약간 늦었다고 거짓말 치고. 그 다음에 와서 청소 안 했다고 거짓말 치고 뭐 다른 거 없잖아. 그거 밖에 할 게 없죠.

당의 방침을 놓고 볼 때 거기에 맞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되는데, 공부도 하지 않고 당의 방침도 공부도 안 했기 때문에 밑에 실제로 전달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거짓말 하고. 그 다음에 원인은 뭐 있잖아. 혁명을 하자. 잠시나마 혁명을 할 생각을 잊고 나태한 생각을 했던게 원인이라고. 앞으로 고치겠다는 거지 뭐. 사상비판 하겠습니다. 아무개 오다가 늦어지고 농촌지원 가서 늦어지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별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고치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호상비판도 100% 다 해야지. 왜 그러냐면, 그건 일부러라도 하나씩. 네가 나 비판할 거 없으니까 대충 하나씩 권태적인 거지, 이게 무슨 저 새끼 나 비판하나 이게 아닌 거라고. 그러니까 뻔뻔스레 지나가는 거라고 그렇게.

우리 선전부 사람이 몽땅 한 개 세포니까. 열명정도 넘었던 거 같아요.

(참가하는 인원은) 절반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내려가 있고 하

니까. 빠지게 되지. 따로 와서 개별보고 해야 되는데 개별보고 안 하지요 뭐. 써서 바치지만 형식이지요 뭐. 다 형식이예요. 안한 거 같아요. 분공은 주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요. 크게 분공이라고 하게 되면 뭐, 말씀이 나왔다하면 그 말씀을 암기 안한 다든가 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크게 들어온다는 건 생각이 안 나는데.

당 조직 보고체계도 많이 이완되었다. 피면담자는 생활정형에 대한 보고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고 했다.

당조직보고 체계.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선전부 예를 들어서 부부장이 있잖아. 나는 부부장이 직접적으로 나하고 관계된다. 그런데 이 안에 세포비서가 또 있다고 이 새끼가 자꾸 뭐 하는게 싫은 거야. 그런게 있다고. 보고 잘 안 해 난. 그랬다고 침체기 쪽이지. 내가 잘못된 게 뭐가 있어. 딱 보고해야 될 건 하지. 여기로 말하면 경찰들 자꾸 전화 오잖아. 그거랑 마찬가지로.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처럼.

사회적 노력지원은 위에서 요구하면 다 가는 편이라고 했다. 주로 농장동원이 많았다. 당비도 100% 납부하고 있다.

가긴 가요.
나가라면 그냥 지도원들 시골에 내려간 사람들 내놓고는 다 나가요.
이것도 다 바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도급기관 농촌동원 다 나가라 그런다고 그럼 꾸러꾸러 나가지 뭐. 작업반 어디가서 일하라 그러면 밥 싸가지고 나간다고.
하부 나가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런데 하부지도고 뭐고 일제히 다 동원하라 그런게 있잖아요. 그럼 정 저거 뭐 이제, 피치 못할 건 나가지 말고. 나가야죠.
네, 하긴 하는데. 불쌍해요. 선전부 지도원들은. 진짜 불쌍하다

I

II

III

IV

V

VI

VII

고, 완전히 굶다시피하는데. 와이프가 어디 도당식당에서 일하는데. 자긴 먹잖아요. 근데 지금 배급이 없으니까 하여튼. 그리고 어디 동원되잖아요. 그땐 제일 좋아한다고. 동원되면 밥도 주잖아요. 그루빠 동원되도. 그렇게 하면서 그냥 가더라고. 뭐 안하면 어떻게 할거야.

당의 방침과 지시도 제때에 전달·침투하고 있었다. 그것을 기본 사명으로 하는 조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전에는 충성심을 가지고 받았고 집행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한다고 했다.

침투해요.

그래도 이게 약한 거니까.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지. 하긴 하지만. 충성심을 가지고 했지만 이걸 안 하면 죽겠는데 어떡해, 무조건 해야 되잖아. 노작 방침 하고 침투, 조직사업하고 그게 기본 선전부면 선전부, 조직부면 조직부에서 기본 일하는 게 이거 가지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안할 수가 없지. 밑에서 계속 전화 와 가지고 얼마나 집행이 됐냐. 계속 해 가지고 또 위에 보고하고 그렇잖아요.

특히 직맹은 간부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자리고 생활보장이 되지 않아 간부들의 충성심이 낮은 곳이라고 한다.

이건 뭐 당간부는 아니니까. 조직부위원장도 그렇다고 해서 부부장 정도로 출세할 수 있기는 하지만. 도당 같은 거나 뭐 큰 차이가 나지. 부부장이 나한테 담배 얻어 피는데. 부부장이 담배도 없이 말야. 그런 판이거든 거기는.

크게 무슨 그렇게 뭐. 그렇지. 마지막 했으니까. 부위원장도 죽겠는데 뭐하는데 좀 도와주라. 가서 술한잔 먹고 말 할게. 아, 됐어 안 갈래. 그러지 말고 고춧가루 1kg만 좀 도와줄래. 판이 이 판이라고.

너 좋고, 나 좋고 약간 비스르한 그런 쪽이지. 거기에 무슨 큰 날 세우고 그런 건 아니지. 사로청하고 틀려요.

(4) 도직맹 내의 당 조직 지도 및 운영 실태

아래의 <표 VI-5>는 피면접자가 자신이 소속되었던 당 조직의 운영 실태에 대해 1970~80년대를 기준으로 대비하여 평가한 것이다.

당위원회는 매 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직맹도 당과 같이 정치 조직이기 때문에 당위원회를 운영하고 회의준비 등은 규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간부선발배치에서는 그리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뇌물이 통한다고 했다.

● 표 VI-5 도직맹 내의 당 조직지도 및 운영 실태

구분	1-100%	2-75%	3-50%	4-25%	5-0%
당위원회 운영 실태	○				
각종 당회의 사전 준비 실태	○				
간부 선발 배치 정형	○				
하부 조직 실태 매주 보고상황		○			
근로단체지도정형작동상황			○		
당 책별 및 상여기준				○	
당 검열부서의 기능여부	○				
당 신소담당과의 기능여부	○				
당 재정 및 외화별이 상황			○		
조직비서와 책임비서와 관계		○			
부서별 본위주의 및 파벌형성		○			
당조직과 보안기관 상하관계			○		
마약이나 성문화 접근성향					○
선물시혜 정책여부		○			

I
II
III
IV
V
VI
VII

직맹에는 그닥 뇌물이 안 통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같은 토대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해도 뇌물이 작용하면 좀 그게 있죠. 난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잘만 해서 올라오는 사람도 있더라고. 도당에 기여가지고 내려 먹이는 식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다고. 군에 있던 사람이 도로 올라오고.

직맹에서는 하부 조직 실태에 대한 보고체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보고하는 주 상급은 중앙직맹이며 동시에 도당 근로단체부에도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때 당시는 다 보고를 했어요. 직맹위원장이 유급도 있고 받는 것도 다 있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앉아서 내부지도원들이 1보를 계속 받잖아요. 또 몇 십분 마다 전화 계속 해서 어떻게 됐나 침투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조직부는 조직부대로 뭐야, 선전부는 선전부대로 중앙에 연결돼 가지고 매일 보고하는 거 같더라고. 봤을 때는, 그 내부지도원들이 다. 사로청 같은 것도 1보가 따로 있잖아요. 직맹은 일보가 없어. 작은 기구니까. 그러니까 그것만큼 자기네 조직에서 보고하는 거지.

당 책벌에 대해서는 직맹에서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이전에 청년동맹에 있을 때 그런 경우를 보았다. 당 검열부서도 계속 내려온다고 했다. 그러나 이전보다는 좀 드물어졌다고 했다. 도직맹은 외화벌이를 별도로 진행한 것이 없었다. 도직맹의 인원이 50여 명밖에 없어 따로 동원할 여력이 없었다고 했다.

우리 간부들 중에서 특별하게 얘기하는 건 못 봤다고. 출당 당하고 그런 건 못봤고 만약 되면 뭐 큰 사로청에서 되지. 내 친구들이 김일성 죽은 다음에 답사갔다가 돼지고기 목따가지고 지

방으로 좌천되어 내려간것도 있고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외화벌이 안 했어. 내가 있을 때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 이것도 한 50명
밖에 안 되는데 통제하고 할 사람들인데 가서 외화벌이 하게
되면 누가 뭐, 그렇게 안 되지. 지금은 아마 도당도 도당이지만,
이 사람들 배급은 둘 거라고. 배급 안 주게 되면 나가서 장사할
수밖에 없잖아.

조직비서와 책임비서의 마찰은 있을 수가 없다고 했다. 직맹은 당
조직이 유급이 아니어서 직맹조직위원장이 겸하고 있어 갈등에 대해
논할 것이 못된다. 구태어 당비서와 직맹위원장의 관계에 대해서 말한
다면 직맹위원장의 권한이 훨씬 크고 조직부위원장은 직맹위원장의 지
시를 받는 사람이어서 비서라고 해서 직맹위원장에 맞서는 경우가 없
다고 한다. 부서별 파벌이라고 할 것은 없지만 부서 본위주의는 있다.
조직부와 선전부 사이에 경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조직부하고 선전부인데. 선전부는 사람들이 조금 조
직부보다 사람들이 좀 유순해요. 그러니까 조직부 사람들이 혼
들어댄다고. 조직부는 책임지도원이 있고 선전부는 담당지도원
이라고. 그런데 내가 지방 내려가서, 시골에 내려가면 그 사람들
이 대하는 태도가 틀리다고. 선전부보다 조금 세다고 봐야지.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선전부면 선전부, 조직부면 조직부 따로
따로 노니까. 명절날에도 뭘 가져오게 되면 자기네끼리 갖다가
자기네 부서끼리 나눠먹어요.

선물은 직맹위원장만 명절 때 받고 있다. 그리고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선물은 반드시 내려왔다고 한다.

직맹위원장. 매달 아니지. 명절 때. 꼭꼭 받더라고. 그런데 보통
고급 양복지, 예를 들어서. 부부지간에. 그리고 이쪽 여자는 뭐라
그래 비단저고리. 그 다음에 고급술 들어가 있고. 혁피같은 거.

I
II
III
IV
V
VI
VII

그 다음 이제 남방과일 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통조림 몇 개 들어가 있고 계속 주지 않았어요. 그거 해야지 유지가 되는 거지.

(5) 3대 권력세습 및 북한정세

아래의 <표 VI-6>는 피면접자가 3대세습의 안정성 요소를 1980년대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다.

핵심엘리트의 충성심은 대부분 변함이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들은 이에 회의를 가지고 마지못해 따라갈 것이라고 했다.

내가 봤을 때는 좀 핵심적인 권력가들은 김정은한테 넘어가는 걸 좀 상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김정일이 지금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그러면 어떤 놈이 하긴 해야 되잖아. 자기네는 토대 성분도 좋고 하기 때문에 계속 밀어나가야 되는데 어찌면 김정일이 죽어서 나라가 망했다. 만약에. 자기네는 반대로 뒤집어 엎어지게 되면 자기네가 자리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핵심엘리트, 그러니까 거기서 황선생 처럼 똑똑한 사람, 좀 개인 사람들은 정말 이견 아닌 거 같다. 아무리 토대가 좋고 그렇다 해도 백성들 못 먹이고 하니까, 그런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긴 있겠지만 전반적인 성분이 좋은 사람들은 3대 세습을 당연하게, 하지 않겠다고 그래도 그렇게 같거라고,

● 표 VI-6 3대 세습의 안정성 요소

구분	1-아주 견고	2-견고	3-중간	4-약화	5-아주 약화	비고
핵심엘리트 충성도			○			
일반주민들 충성도				○		
내부적 요인				○		
외부적 요인			○			

바랄 거라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남한 사람들이야 뭐 김정일이
 가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는 믿지 않지. 거기 희망이 없
 으니까. 미련을 안 갖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놈이 하겠으면 하
 고 말겠으면 말고. 마지못해 따라가는 거지. 순응, 맹목적으로.
 (고난의 행군 하면서 못 살았는데, 배고프면서.) 그래도 바보치
 럼, 그 지도원 새끼들도 바보더라고 내가 ‘미사일이냐 뭐인지 하
 나 있다던데 팔아서 강냉이나 사오지.’ 하나 ‘야 그거까지 팔게
 되면 팬티까지 다 벗기는 건데, 그거야 어떻게 못 팔지.’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 선전부 지도원이란 자식이. 군관 체대군인인데.
 지금 놓고 볼 때, 아무리 내가 토대 성분이 좋다고 해도 현실은
 현실이거든 실지 말해서. 사람들이 굶어죽는 상황에서 자기는
 배부른 척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막 욕해. 그런데 이걸 놓고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양심이라는 게 항상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막 욕했어, 이거 어떻게 살라고 그래 사회주의 뭐구 말이야. 이
 렇게 말을 했어. 그거 어떻게 할거야. 옛날 같으면 배급이나 주
 고 했었으니까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배급도 못 주니까 그 사람
 들이 말을 할 수가 없는거야.

그러니까 실지로는 엘리트 쪽도 마찬가지예요. 성분이 아무리
 좋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딱 자기가 생활하는데 충족이 못되
 면 의견을 표출을 하게끔 돼 있다고. 보위부가 그렇게 돼 있다
 고 안전부 같은 건 뭐 막 빼앗아 먹는데, 보위부는 빼앗아 먹을
 수 없잖아요 어찌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거 없으면 너
 한테 바칠 거 없어. 그러니까 장사도 못하고 딱 그거 가지고 먹
 게 돼 있는데 보위지도원들 이런 사람들이 더 어찌면 살아가기
 힘들지.

옛날보다는 중간이라고 그러나, 중간 정도 간부들이 많이 성향
 이 충성도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
 니까 일반 사람들이 막 흥을 봐도 눈감아 주고 모른척 한다고.
 이것은 그만큼 이 사회가 나쁘다는 걸 인식하면서 할 수 없이
 끌려간다고 그렇게 봐야겠지.

중국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실지 러시아 하고 남한은 상관없잖
 아요. 중국이 이제라도 마음을 먹으면, 마음만 바꾸면 북한에
 뭐 주지 않잖아요. 그럼 북한은 몇 년 못 버텨요. 그런데 계속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랬으
 니까 중간쯤으로 보는 거지 뭐.

I
II
III
IV
V
VI
VII

김정일이 사망하면 야스민 혁명의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했다.

김정일이 죽으면 조금 가능성은 있어요. 김정일 죽으면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기득권 세력들이 김정일이나 김정은을 죽이고 개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개방을 만약에 한다면 자기네 세력을 더 공고히 하면서 재를 제거하고 좀 더 그렇게 할 수 있는 세력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김정일이 정치를 잘 했으면 괜찮은데 김정일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했고, 완전 폭압정치로 사람들 계속 죽이지 않았어요 사람들. 이번에도 박남기요 뭐요. 중앙당 재정 부장이랑 다 죽이지 않았어.

신의주 이번엔 시당 책임비서랑 다 죽이지 않았어. 계속 저렇게 갈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렇게 안 하게 되면 자기가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그만큼 하면 그만큼 많은 적들이 만들어진다고.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나도 언젠가는. 사람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세력이 있고 직업이 있을 때, 많은 부를 축적해야 되는데 언젠가는 저렇게 된다 생각하면 저놈들에 대해서 당장 듣게끔 돼 있지. 그리고 이제 놓고 볼 때 김정일처럼 김일성이 토대 위에서 정권을 완전히 잡았다고 볼 수 없다고, 이놈이. 어찌면. 김정일이 죽으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럼 이제 혁명 무슨 원로들 다 숙청을 해야 되는데 어찌면, 개네 마음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거지.

피면담자는 북한에 있을 때 김정남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다. 그것도 한국방송을 통해서 알았다고 했다.

VII. 종합 평가 및 결론



북한의 부문별 조직 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당·장군 및 경제사회부문 기간조직 내의 당 기관 실태를 중심으로

1. 부문별 종합평가

가. 중앙당 본부당 부문

(1) 당 조직생활 실태

본부당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 내에 근무하는 모든 비서들과 부장 및 부부장들, 기타 간부들과 성원들의 당 생활을 지도하고 있는 기관이다. 여기에는 중앙당 일꾼들의 조직생활을 지도하는 과와 사상생활을 지도하는 과, 비밀 정보사업을 지도하는 과를 두고 당중앙위원회의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 생활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의 사생활과 동향, 일거수일투족, 모든 언행을 감시·통제하고 있으며 간부들과 그 가족들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체제불만, 가족주의, 종파주의 등 반당행위나 요소들, 비조직적이거나 무규율적 현상들, 부정부패와 비리 등에 대해 김정일에게 직접 보고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본부당위원회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안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간부들과 성원들, 이들의 가족들에게 가장 두려운 대상이 되는 ‘당조직 중 당조직’이라 할 수 있다.¹⁵⁹

이러한 당 조직 당원들의 생활은 외양적으로는 보기에는 충실한 조직원으로서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수령에 대한 충성도를 표현하는 1호 작품 관리 및 참가정형, 정치적 쇄뇌를 위한 정치학습(수목강연회 및 토요정치 학습, 월간 자체 학습 및 정리 등), 충성도 함양을 위한 충성의 노래모임 그리고 당생활 총화는 1985년 이전과 차이없이 철저한 공식 이행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정치적 지침이나 방침을 이행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다.

¹⁵⁹ 현성일, “북한 노동당의 조직구조와 사회통제체계에 관한 연구,” pp. 37~39.

I
II
III
IV
V
VI
VII

육체적 심리적 부담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의례적 이행(ritualistic performances)¹⁶⁰만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적으로는 본부당 조직의 당 생활은 이중성을 띠는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식적으로는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내적으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의문시하거나 반신반의’하거나 ‘당의 방침을 무조건 그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권력에 눌러 맹종맹동하면서 당의 방침과 어긋나게 하는 현상’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¹⁶¹ 본부당 당원들의 당 생활은 기본적으로 열정, 충실성, 진실성은 점차 퇴색되고 있는 반면 형식주의, 이기주의, 부정부패, 허위보고 등과 같은 부정적 행태로 채워지고 있다. 이것은 억압적 체제 하에서 개인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출세를 위한 최우선 전략으로 추구되는 이중성의 발로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당 사람들의 입당 선호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입당을 해야 계속 권력기관에 있게 되고, 그래야 일정한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부당 사람들의 입당선호도에는 차이가 없지만 예전처럼 자식들을 어렵고 힘든 곳에서 ‘혁명화’나 ‘로동계급화’를 통해 입당해야 한다는 열정이나 치열함은 사라져 가고 있다. 입당이 수령에 대한 충성이나 혁명을 위한 충실성의 표현이라기보다 개인의 영달을 위한 개인주의적 필요성을 충족시켜주는 조건쯤으로 생각하고 있다.

160.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 사회』 (서울: 나남출판사, 1995), p. 347.

161. “혁명이 간고할수록 투철한 신념과 순결한 양심을 가지고 경애하는 최고 사령과 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참된 충신이 될 데 대하여,” 『학습제강(군관, 장령용)』,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1999).

(2) 당 조직 지도 및 운영 실태

전반적으로 볼 때, 본부당위원회의 조직 지도 및 운영 실태는 비교적 정상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당원들의 의식 상태와 활동정형은 다소 약화되거나 비정상적인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당위원회는 잘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 질적으로 조금씩 저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이한 변화는 회의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정치 구호수준을 넘어서 현실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위원회 준비에 있어서는 열의가 결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부선발의 경우 그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충실성, 출신성분, 전문성이 본래의 순위였다면 이제는 국가를 위한 경제적 성취도가 최우선이 되고 이어 충실성, 출신성분, 전문성 순으로 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경제적 결핍현상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준다. 비공식적으로는 간부선발에서 뇌물이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

또한 북한 당 조직 운영의 핵심은 보고체계가 어떻게 획일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잘 이루어지는가이다. 상부조직에 대한 보고 상황은 규정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보고 형식에 있어서도 우왕좌왕하는 형편이다. 하부조직에 대한 실태 보고 수준은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 허위보고가 거의 일상화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 조직의 상별이나 책별 기준도 뇌물과 인맥 기준으로 이행되고 있을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본부당 검열부서도 형식적으로는 보다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검열 목적이 비정상적이다. 뇌물을 챙기기 위해서 검열을 강화하거나 빈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점차적으로 당 조직의 지도나 운영은 혁명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가 보다 이 역시 의례적 이행(ritualistic performances)과 뇌물 챙기기와 같은 당원 개인의 이기주의적 행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요약된다.

I

II

III

IV

V

VI

VII

나. 보안부문

(1) 당 조직생활 실태

인민보안부 도 보안국 당원들의 당 조직생활 실태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북한 체제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1985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인민보안부가 김정일 정권의 보위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치학습, 생활총화, 아침독보회 등 보안국 내 당원들의 당 생활은 과거보다 많이 해이해져 참석율도 매우 저조하고 거의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당원들의 당 생활이 해이해진 이유로는 첫째, 학습이나 강연 등이 심각한 경제난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로지 당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고 있어 당원들의 마음속에 반감이 자리 잡고 있으며 둘째, 북한 사회에 보편화된 뇌물 등 부정부패가 당원들의 당 조직생활에도 작용하여 뇌물로 당 생활을 면제받으려는 행위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외적으로는 인민보안부가 김정일 정권 유지의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엄격성 때문에 보안국 내의 당 생활은 비교적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인민보안부가 군과 같은 체제이기 때문에 당의 근간조직체계인 1호 작품 관리, 당 조직 보고, 당비 납부, 입당선호도, 충성의 노래 모임 등은 과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당의 근간조직체계가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첫째, 인민보안부가 군대조직으로 계급체제이기 때문에 당의 근간조직체계를 무시하거나 기울을 어길 경우 진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 두려워하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특히 입당선호도나 당비 납부 등은 진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북한 내에 사회통제기능이 아직은 제대로 작용하고 있어

당과 정권의 근간에 해가 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경제난 등으로 인해 북한 내부가 불안정해지면 질수록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더욱 강요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인민보안부의 당 조직생활을 종합평가하면 당의 조직체계는 과거와 다름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실제 노동당이 체제를 유지하고 주민들을 지도하는 기능은 상당히 해이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노동당이 당원들의 충성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공포정치, 당원개개인의 이해관계, 뇌물 등 사적인 이익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당 조직 지도 및 운영 실태

인민보안부가 정권과 체제보위의 근간조직으로서 북한 사회의 다른 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조직되고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민보안부 내 당 조직 지도 및 운영은 1980년대 이전보다는 해이해졌지만 그런대로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인민보안국 내 당위원회 운영이나 하부 조직 실태의 보고체계, 당 검열부서의 기능, 당 재정 및 외화벌이, 파벌형성 등 당의 근간조직체계는 1980년대 이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뇌물과 부정부패는 인민보안부의 당 조직도 예외는 아니어서 간부선발이나 배치, 책별, 검열 등은 거의 뇌물로 이루어지는 등 부패가 일상화되어 있다. 또한 북한 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반영하듯 권력기관인 인민보안부 간부들의 도덕적 해이는 더욱 심각하여 성문화가 문란한 상황이다. 특히 인민보안부 내 인사는 과거에는 당에 대한 충성도 등이 주요 기준이었으나 최근에는 거의 상관에게 바치는 뇌물의 양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본다면, 김정일 정권 유지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인민보안부 조차도 김정일이나 노동당에 대한 충성심은 거의 없고 뇌물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노동당이 존재하고 또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승진, 검열 등 조직 지도의 근간이 뇌물에 의해 기능한다는 것은 당 조직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 군대부문

(1) 당 조직생활 실태

군사부문에서도 여타 부문과 마찬가지로 수령에 대한 충성도를 표현하는 1호 작품 관리 및 참가정형, 정치적 쇄뇌를 위한 정치학습(수목강연회 및 토요정치 학습, 월간 자체학습 및 정리 등), 충성도 함양을 위한 충성의 노래모임 그리고 당생활 총화는 1985년 이전과 차이 없이 공식적인 이행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1호 작품 관리는 김일성 사망을 기점으로 얼마 기간 동안 강조되기는 하였지만 고난의 행군시기를 거치면서 인민생활이 어려워지자 1호 작품에 대한 관리도 느슨해지기 시작하였다. 정치학습에는 점차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싫어하고 각종 핑계로 빠지려고 하며 참가하더라도 마지못해 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군대에서 노동당 입당선호도는 절대적이었으나 점차 입당에 대한 열의가 식어가는 형국이다. 사회진출에 있어 당원으로 굴레를 지고 가는 것보다 비당원으로 외화벌이나 장사와 같이 자유롭게 경제적 이익이 많은 부문에 진출하기를 더 바라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군대의 당성은 일반인민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당비 납부 역시 정상적이다. 군대 당 조직 보고체에서도 형식적으로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고 있지만 과거와 비교해서 많이 느슨해졌다. 관련 처벌이 많이 약화되고

뇌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 탓에 당 조직 보고체계는 어느 정도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노작방침지시 침투조직 관련, 형식적으로는 변한 것이 없지만 받아들이는 자들의 입장이 의례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다.

(2) 당 조직 지도 및 운영 실태

당위원회 조직 지도 및 운영은 충실성이나 참여도 면에서 과거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당위원회 회의 사전 준비는 예전만 못하다. 간부선발 또한 인맥이나 뇌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성 당원이 다수 승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부조직 실태 보고는 고발에 치중했던 과거에 비해 이를 피하려는 경향이 늘었다. 당의 책벌은 뇌물로 해결되는 비정상적인 경우가 많으나 표창 및 훈장 등 상수여는 실질 행위에 따라 정해진다.

이와 같이 군사부문의 경우 군대가 체제 지탱 세력이기 때문에 군대 내의 당 조직 지도 및 운영이 크게 변질된 것은 없다. 내용이 많이 축소되고 질이 떨어진 것 뿐이나, 형태는 유지하고 있다. 다른 사회 조직 일반에 비해서는 1985년 이전이나 이후 큰 차이가 없다. 당 조직을 정보나 교환하는 장소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김정일이 경계하는 게 당 조직이 구락부(단체,클럽)로 전락하는 것이다. 아직 군대 내의 당 조직은 ‘구락부’로 전락할 정도는 아니다. 감시체제가 잘 되고 있다. 사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있고 배급도 안 되고 있다. 군대에는 정도는 덜하지만, 뇌물과 부정부패는 사회 못지않게 있다. 배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I

II

III

IV

V

VI

VII

라. 경제(기업소)부문

(1) 당 조직생활 실태

사상교양사업은 가장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영역이다. 탈북자들은 당 조직부, 당 조직의 지도체계가 가장 안정되어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른 부문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곳이 많지만, 당 내부 사업만은 예외라는 지적이다. 특히 사상교양사업, 군중궐기 등의 내부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당원은 당적과제를 무조건 주 한 번씩은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 당적 분공이라는 것이 세 부담이다. 상부에서는 세 부담을 주지 말라고 지시하고 있으나, 당 조직에서는 당적분공이란 이름으로 ‘개, 토끼 가죽을 갖다바쳐라’고 요구하고 있고, 사회동원도 시키고 있다. 심지어 충성의 외화벌이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당원의 의무로서 ‘충실성 사업,’ ‘1호 작품 관리’라는 것들도 있는데 이 사업 역시 “100%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충실성 사업도 당적분공하고 거의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매주 수, 목요일에 열리는 강연회와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토요일정치학습 등도 정상적으로 열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당 조직 보고체계도 철저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노동당 조직부나, 당회의, 기관당 등도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간부선발, 배치 같은 것도 규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당 기관에서 주관하는 학습, 선발, 간부대상 부류사업, 선전문제 등도 마찬가지다. 당위원회도 철저히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간부선발 배치는 당 조직에서 주관하는데, 다만 이제는 뇌물의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원들의 당비 납부도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당비는 당원들의 기본노임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노임을 못 받아도 당비는 내야 된다. 당비는 당 재정의 토대가 되고, 국가외화벌이를 통한 수입도 당 재정으로 편입된다. 하부조직 실태에 대한 매주보고도 당 조직에서 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면, 근로단체에 대한 지도도 정치 사업으로 간주되고 있다.

한때 일반 주민들에게 노동당원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제 입당은 젊은이들의 최대 목표가 아니다. 오히려 당원을 부담으로 느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다.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당비를 내는 것도 부담스럽고, 당원으로서 짊어지는 각종 의무들도 거추장스럽게 인식한다. 그러나 여전히 입당은 출세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권력기관에 근무하려면 입당은 여전히 필수적인 조건이다.

경제부문 당일꾼이라고 해서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는 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는 어렵다. 적은 보상을 받고도 국가사업에 헌신한다는 측면에서는 당일꾼들은 여전히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 기둥이라고 해도 지나친 평가는 아닐 듯하다. 실제로 일부 당일꾼 출신들은 북한에서 경험했던 당간부로서의 자긍심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당일꾼은 여전히 북한에서 특권층이다. 그렇지만 특권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 당일꾼들은 돈벌이에 관심이 많고, 각자의 능력과 수완에 따라 부정행위 등을 통해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경제부문 당일꾼들이 개인 상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면서 적지 않은 이익을 챙긴 사례는 많이 발견된다. 당일꾼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충성심, 사상성도 높기 때문에, 돈보다는 가치나 이념을 여전히 쫓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으나, 금전적 인센티브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주목할 대목은 당간부들도 김정일·김정은 체제에 의존하기 보다는

I
II
III
IV
V
VI
VII

독자적인 생존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미래를 위한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2) 당 조직 지도 및 운영 실태

기업소의 당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각종 당대회 준비도 비교적 철저히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간부선발이나 당 책별 상여제도가 정상적으로 되기보다는 뇌물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당 검열부서도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만, 이젠 이마저도 돈이 좌우하고 있다. 하부 조직 실태는 매주 보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그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과장된 보고, 그리고 거짓보고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공장은 다 폐허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부문 당일꾼들도 무기력 해졌다. 지침 전달은 형식화되어 버린지 오래다. 따라서 정책이나 지침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았다는 경제부문 당간부의 고백은 하부조직 실태 보고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를 말해 준다. 당비를 꼬박꼬박 내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다른 부문의 예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 당비를 꼬박꼬박 내는 것조차 형식적인 당적 태도의 한 전형으로 받아들여진다. 당비를 내는 것은 자발적인 충성의 표현이라기보다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사실에 대한 공개적 충성과정의 표현에 불과하다.

마. 근로단체 부문

(1) 도 근로단체조직의 당 조직생활 실태

1990년대 중반 이후 조직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우선 조직

생활시스템이 여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청년동맹과 도직맹간부들은 외형상으로는 1970~80년대 초와 같은 당 조직생활을 하고 있다. 1호 작품 관리사업, 아침독보, 간부학습과 강연회, 생활총화 비판과 자기비판, 자신의 조직생활정형보고, 당비납부, 방침전달 등 1970년대에 만들어 놓은 당생활시스템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조직생활시스템 작동의 수준과 강도는 낮아지고 이완되고 있다. 도직맹과 청년동맹에서 당 생활을 한 두 피면담자는 모두 당 생활수준이 1970~80년대에 비해 약화되었고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저 검열과 통제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 앞으로 출세를 생각해서 규정을 준수하고 있을 뿐 충성심으로부터 당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없다고 했다. 그러나 1980년대 초만 해도 충성심을 가지고 생활했다고 회고했다.

또한 조직생활수준은 조직의 특성과 단위에 따르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타 근로단체와는 달리 청년동맹 간부들의 당생활은 비교적 철저하게 진행되는 편이다. 청년동맹은 간부사업을 자체로 한다. 도청년동맹은 동맹 내 부부장까지 간부들과 시·군 청년동맹, 1급기업소 이상 청년동맹 비서들의 간부사업을 한다. 또한 청년동맹간부는 일생 직업이 아니며 일시적으로 거쳐 가는 중간 과정이다. 청년동맹간부는 40세가 지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될수록 빨리 청년동맹을 졸업하고 다른 곳으로 승진해야 한다. 도청년동맹 간부들이 배치받기 희망하는 곳은 도당, 도보위부 도검찰소 같은 곳이다. 다른 곳으로 승진하려면 생활을 잘 해야 한다. 때문에 청년동맹 간부들은 모든 생활을 위에서 요구하는 대로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특히 2002년 이후 유급초급당비서제로 전환되면서 당생활요구가 더 높아졌다. 청년동맹의 초급당비서는 다른 기관 당비서보다 권한이 약

I
II
III
IV
V
VI
VII

하다. 당비서의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권인데 도청년동맹의 초급당비서는 인사권이 없다. 때문에 절반짜리 당비서라고 한다. 도청년동맹의 인사권은 청년동맹 1비서가 가지고 있다. 도청년동맹 당위원회에는 집행위원회가 없다. 도청년동맹 비서의 권한에 비해 도청년동맹 초급당비서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낮다. 도청년동맹 초급당은 당원들의 당생활 지도만 한다. 당비서는 당생활지도밖에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보니 생활총화, 학습회, 강연회, 독보회 같은 것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위상을 높이려 하고 있으며 따라서 당생활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당생활통제는 주로 생활총화에 얼마나 성실히 참가했으며 상호비판은 몇 회 참가했는가, 토요학습이나 강연회에 성실히 참가하는가, 자체학습은 몇 건 했는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중앙과 도청년동맹 내 간부들의 당 생활은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큰 변동 없이 진행되었다. 생활총화도 위에서 요구하는대로 철저히 진행하는 편이다. 청년동맹간부들의 사상은 좀 이완되었으나 외형적으로 조직생활은 이전과 다름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도직맹간부들의 조직생활은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진행되었다. 도직맹간부들은 앞으로 출세할 곳도 없고 마지막 자리다보니 자리지킴을 하려는 경향이 강했고 서로 좋게 지내려고 하다보니 웬만한 결함은 눈감아주는 경향이 있어 편안하게 생활했다. 조직생활이 이완되는 이유는 우선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것과 관련된다.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도청년동맹 간부들은 배급을 전량 공급받았다. 도청년동맹은 직접 도인민위원회에서 수입식량을 배정받거나 협동농장 청년 분조에 별도의 식량공급지령서를 내려 보내 식량을 확보하고 기관에서 직접 배급을 주었다. 거기다 자기 담당 농촌에 내려가 식량을 사적으로 착복하기 때문에 굶는 사람이 없었고 조직생활도 그만큼 강했다. 도직맹은

간부들에게 배급도 주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간부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생겼고 간부들의 동요도 상대적으로 크고 그에 상응하게 당 생활도 적당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북한의 미래에 대한 확신, 당의 위업에 대한 정당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된다. 간부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래 사람의 불만이 당연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며 거기에 대해 강경하게 요구만 할 수 없다. 따라서 당 조직생활에 대한 요구도 이전처럼 강하게 할 수 없으며 당생활이 점차 이완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2) 도 근로단체조직의 당 조직 지도 및 운영 실태

북한의 도청년동맹과 도직맹의 당 조직 지도 및 운영은 당규범의 요구대로 진행되고 있다. 당위원회 운영 각종 당회의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으며 위로부터 방침을 제때에 전달받고 있고 그 집행정형에 대한 보고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당 조직 지도 및 운영도 많이 이완되고 있다. 당 조직 운영에서의 특징은 당 조직 운영에서 뇌물과 인맥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당재정이 악화되고 간부들의 생활조건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다보니 간부들은 자기의 지위를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당생활에 대한 통제도 실질적으로 당원들이 당에 충실하라는 통제라기보다는 통제를 강화해서 뇌물을 바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면이 강하다. 또한 간부사업도 본인의 능력이나 충성심보다는 뇌물이나 인맥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당 조직 운영에서의 특징은 또한 하부에 대한 검열과 통제를 비롯한 강제적인 운영의 비중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간부들의 자각성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인 사상교양과 학습은 다른 항목에 비해 악화되고 있으나 조직 실태에 대한 보고, 검열부서의 통제는 상대적으로 강하

다. 당 조직 운영에서의 특징은 간부들의 충성심을 돈으로 유도하는 경향이 위에서부터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는 고난의 행군시기 나라의 형편이 어려운 중에도 책임간부들에 대한 선물은 빠짐없이 공급했다. 그러나 당 조직에서 파벌과 본위주의, 당 조직과 보위부서와의 갈등 같은 것은 미약하고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2. 결론

북한에서는 노동당의 근본사명을 ‘수령을 자기의 최고 수위에 모시고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받들어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를 실현하는 것’¹⁶²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수령을 중심으로 한 당의 강철 같은 통일과 전체 인민의 반석 같은 정치사상적 통일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승리의 결정적 담보’¹⁶³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수령에 대한 이러한 믿음은 점차적으로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1호 작품 관리 및 참가나 충성의 노래 모임 등이 형식적 또는 가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많다는 사실이 수령에 대한 신뢰와 충성도의 약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수령을 중심으로 한 당의 통일과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 통일노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다. 현재 북한의 노동당내에는 자유방임적이며 무규율적인 현상이 점증하여 ‘수령의 사상체계, 수령 중심의 단결체계일 뿐만 아니라 수령의 영도체계’로 선전되고 있는 유일사상체계가 붕괴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에 수령의 명령,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 규율이 무너짐

¹⁶². 사회과학출판사, 『령도체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119.

¹⁶³. 위의 책, p. 84.

으로써 수령 또는 당의 영도력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당에 대한 형식적 복종 모습이 주를 이루고 있을 따름이다.

노동당 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일성은 “당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입니다. 다시 말하여 간부들과 당원들과 균중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무장시켜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을 당 정책 관철에로 조직 동원하는 사람들과의 조직 정치적 사업이 바로 당 사업입니다.”¹⁶⁴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람과의 사업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각종학습과 독보회, 생활총화 등이 수행되어 왔다. 당 활동 역시 예전 같지 않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많은 경우가 같은 당 활동에 만성적으로 대하면서 건성으로 참가하는 정형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북한 당국이 바라는 ‘온 사회를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는 구호 속에서만 맴돌게 될 가능성 커졌다.

또한 북한 당국은 ‘우리는 … 중앙으로부터 세포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당 조직 체계를 확보하며 당의 조직적 및 사상적 통일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강력히 전개’¹⁶⁵해 왔음을 밝혔다. 이 같은 ‘정연한’ 당 조직 체계는 중앙집권제로 설명되고 있다. 중앙집권제는 ‘당원은 당 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하급 당 조직은 상급 당 조직에 복종하며 전당은 수령과 당중앙에 절대복종하는 엄격한 혁명규률, 당의 로선과 정책에 의무성, 상급 당 조직에 자기의 사업정형의 정상적인 보고’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¹⁶⁶ 그런데 북한에서는 당원들의 당 생활과 당 조직들의 활동에서 이 같은 당의 중앙집권제가 형식적으로 견지되는 이중성이 노정되고 있다. 당 조직체계는 통보과에서 담당하며 상부의 지시사

164. 위의 책, p. 133.

165. 위의 책, p. 140.

166. 위의 책, p. 143.

I
II
III
IV
V
VI
VII

항을 접수하여 담당부서에 전달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집행결과를 받아서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다. 당 조직체계가 마비된다면 정치적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과거와 다름없이 당 조직 보고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부 조직 실태 보고서 뇌물이 작용되어 변질되고 있는 현상이 많다고 한다. 하부조직은 매주 상부 보고해야 하지만, 보고하지 않고 뇌물로 적당히 넘기는 현상이 그것이다. 당사업의 하부지도체계에서도 이중성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당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주민들에 대한 자발적인 순응과 강제적인 순응을 창출해 내는 기능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당의 이 같은 두 가지 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북한의 노동당은 다른 사회주의 체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당의 활동을 벌여 주민들의 순응기능 창출을 최대화하고자 한다. 순응기능 창출을 위한 대표적 활동이 당의 다양한 정치활동 및 교육활동이다. 정치활동이나 교육활동은 체제에 대한 순응에 더하여 강력한 충성도 제고를 위한 내용이 추가 된다. 이 때문에 각종 충성심 또는 체제 순응심 제고를 위한 정치적 동원 및 교육 등이 활발하게 전개된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당의 활동이 예전 같지 않다는 판단이 당원 또는 당 관료 경력을 지닌 탈북자들의 증언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일성시대와 김정일시대의 당의 활성화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북한의 각 부문의 당 구성원들은 진실된 감정이나 사상을 견지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에 대한 형식적 복종을 연출하는 의례만으로 당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경향이 짙어져 가고 있다. 이들 당원들의 의식에는

혁명성이 그 만큼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혁명이 단기간에 급속한 개혁과 변화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대중성과 역동성을 갖게 되지만 혁명이 특별한 성취물이 없이 그 구호만 한없이 지속될 경우 이미 혁명성을 잃게 되고 그 행위들은 일상으로 되어버린다. 혁명의 일상화(routinization)가 그것이다.¹⁶⁷ 이렇게 볼 때, 북한에서의 혁명은 이미 일상화되어 혁명적인 효율성이 지극히 약화된 상태에 놓여 있다. 체제 내의 많은 정보에 접근하고 있는 노동당 당원들에게는 ‘항일유격대 빨치산 혁명전통’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역동성을 지니고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체제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북한의 형식적 강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의미하고 형식적이지만 반복하는 과정에서 북한 체제가 유지된다. 시스템 유지 정도는 조직과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다. 돈에 따라 직무 중요도가 결정된다. 아무리 중요한 자리라도 돈이 안 들어오면 중요하지 않다. 수입 여부에 따라 조직의 중요도가 결정된다. 당의 정당성도 흔들리고 있다.

사회주의 하고 있다고 인식한 시기는 1980년도 중반까지 밖에 안된다. 사회주의 하고 있다고 여긴 건 1980년대 중반까지고 그 이후에는 흔들린다. 평양에서는 그래도 지켜지고 있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분위기가 판판이다. 북한 사람들이 정당성을 갖고 사는지 의문일 정도다. 당원이든 아니든 자기가 하는 일에 신심이 없어졌다. 정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객관적인 정당성에 대한 확신이 다 무너졌고 신념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다. 강제적 시스템으로 운영되지만, 그게 무너지면 사람의 마음을 잡을 수 없다. 북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집단

¹⁶⁷- 위의 책, p.154.

주의를 배운다. 간부들도 집단주의사상이 강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진짜 조직과 집단을 위해 하는 일이나 물으면 모두 아니라고 할 정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라는 표현이 1980년대부터 사용됐다. 경제적 문제도 있지만, 그 당시 김정일 체제로 넘어가면서 북한 부모들은 아버지 어머니 얼굴을 못 볼 정도로 일을 했다. ‘열심히 일하면 잘 살 거다’라는 의식이 있었고, 그 결과 1960~70년대 경제적 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그 노력의 대가가 북한 주민들에게 골고루 안 가고, 당 사람들이 게 갔다. 그러다 보니 노력이 골고루 안가고 ‘이런 이런 사람’한테만 간다는 불평등 의식이 생겼다. 상대적 박탈감이다. 사회적 성분, 평등 인식이 깨진 것이다. 평등이 깨진 것이 중요한데, 특히 1980년대부터 외화 상점이 생겼다. 하나는 선물, 하나는 외화 상점, 이 두 가지가 평등을 깨뜨렸다. 여기에 더하여 고난의 행군까지 겪고 나서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를 믿지 않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냥 이런 상태로 북한 체제가 그럭저럭 이끌어져 오고 있다. 북한의 신념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외형상 시스템이 강제적으로 자리잡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선군정치가 나오면서 당 조직이 위축됐다고 지적하기도 하지만, 그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 당 조직체계는 형식상으로 유지되어 왔다. 문제는 당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추락하기 시작한 것이고, 이에 따라 위상도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당 지도부가 경제난을 해결하는데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실제 가시적인 경제실적도 내지 못하면서 당 조직과 당일꾼들의 영향력은 갈수록 약해졌다. 특히 경제관리 개선조치, 화폐개혁 등은 대표적인 실책으로 불신을 받고 있다. 또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변화를 모색해왔다. 현재 당 조직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더 이상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다. 일반주민들이나 공장기업소의 근로자들도 불만을 공공연하게 표출하고 있는 현상이 적지 않게 목격되고 있다. 이전과 같은 강압적인 조치도 주민들의 반발만 더 불러오고 있다. 현재 다수의 당일꾼들은 김정일·김정은 정권의 미래를 대체로 비관적으로 본다는 점도 특징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당 조직생활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수준의 문제다. 진정성 문제는 차이가 있다. 어쨌든 형식과 제도는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조직지도부가 여전히 핵심 역할을 하고 있고 권력이 강한 기관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조직지도부도 결국 당 자금이라든지 돈이 뒷받침이 돼야 힘을 얻는다. 늘 압력으로 자체 당 자금을 확보하던지 혹은 개인 자금으로 굴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문제다. 이렇다 보니까 당원들이 갖는 비루감과 자괴감이 (인터뷰를 하면서) 많이 드러나 보였다. 북한의 엘리트로서 (생활지도관 출신) 조직지도부 중에서도 당 생활지도과가 가장 강력한데, 갈수록 그렇게 하지 못하니 자괴감이 더 큰 것처럼 보인 것이다. 화폐개혁이 근로자들의 이반과 당원들의 이반을 많이 불러와서 당적 지도를 하기에 어려움이 더욱 노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척이라도 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게 문제되기 때문에 당생활은 어느 정도 유지가 안될 수가 없다. 당비 납부도 잘 되고 있다. 당비는 어떤 수단 방법으로라도 제출하고, 새 돈으로 낸다. 당원에 대한 희망사항(되고자 하는 열망)에는 변화가 있다. 내적으로는 이중성을 띠는 게 많다. 1985년을 기점으로 한다면, 그 이전에는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과 자발심으로 했다면 최근으로 올수록 이중적 인식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당 간부 중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충성심과 자발심이 유지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당에서 권한과 힘도 실어주고 하기 때문에 당 간부 스스로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I
II
III
IV
V
VI
VII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소수 있다. 아직 빨간 물이 80~90%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게 혼재하고 있다. 여전히 입당은 출세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권력기관에 근무하려면 입당은 여전히 필수적인 조건이다.

3대 권력세습의 안정성은 이전 김정일 세습 때보다는 많이 약한 것이 현실이다. 경제사정이 어렵고 간부들이나 주민들이 이전처럼 진심으로 당에 충실하지 않는다. 간부들은 상대적으로 자기 운명에 대한 걱정 때문에 체제에 충실하려는 생각이 주민들보다는 높지만 그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동요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에서 밑으로부터의 혁명이 당장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정권을 장악하게 될 때에는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김정일의 후계구축은 전적으로 당에 의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권 장악을 통한 체제유지가 곧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의 가장 큰 특징이다. 사상의 단일화를 이루어 내기 위해 유일사상체제가 확립되었고 이것이 김정일의 후계체제를 위한 당권장악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유일사상체제 10대 원칙은 김일성 개인의 ‘신격화’, 김일성 권위의 ‘절대화’, 김일성 교시의 ‘신조화’, 교시집행의 ‘무조건성’이라는 ‘4대 원칙과 함께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과 주민들이 지켜야 할 사고방식, 활동방식, 생활방식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이 원칙은 김일성에 대한 충성과 복종을 강조하였지만 실제로는 김정일을 지켜야 할 ‘계율과 금기’로 이용될 수 있었다.¹⁶⁸

그러나 김일성에 대한 4대원칙과 지침들은 내적으로 이제 북한의 일반인민이나 당원할 것 없이 모두에게 상당히 퇴색해 가고 있는 실정이

¹⁶⁸- 현성일, “북한 노동당의 조직구조와 사회통제체계에 관한 연구,” pp. 17~23.

다. 이에 기반한 당의 정체성도 지속적으로 약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당의 정체성 약화는 점차적으로 당의 자발적 순응기제의 약화로 이어지면서 강제적 순응기제로만 전락하게 될 경우 당을 통한 주민들의 충성심 도출로 체제를 유지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김정은은 당을 통한 정권 유지는 어렵게 되면서 군사력과 같은 폭력수단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는 말과 같이 폭력수단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결국 폭력수단 자체의 ‘역반발’(군부 쿠데타)을 가져와 체제가 전복될 가능성이 크다.

I

II

III

IV

V

VI

VII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가. 단행본

- 김갑식. 『김정일정권의 권력구조』. 서울: 한국학술정보(주), 2005.
- 서대숙, 서주석 역.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서울: 청계연구소, 1989.
-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 사회』. 서울: 나남출판사, 1995.
- 손광주. 『김정일 리포트』. 서울: 바다출판사, 2003.
- _____. 『김정일-북한의 최고 권력자 김정일의 모든 것』. 서울: 바다출판사, 2003.
- 이도기. 『현대 중국 공산당의 이해, 역사·지도·영도』. 서울: 통일신문사, 2008.
- 이승열. 『김정일의 선택』. 서울: 시대정신, 2007.
-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 이찬행. 『김정일』. 서울: 백산서당, 2001.
- 이한영. 『김정일의 로열패밀리』. 서울: 시대정신출판사, 2004.
-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제기구 고찰-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03-14, 2003.
- 정성장. 『현대 북한의 정치』. 서울: 한울, 2011.
- 정창현. 『결에서 본 김정일』. 서울: 김영사, 1999.
- 조창현. 『북한의 권력구조의 특징에 관한 연구』. 서울: 육군교육사령부, 2000.
-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선인, 2007.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서울: 시대정신, 2006.
_____. 『어둠의 편이 된 햇별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서울: 월간조선사, 2001.

나. 논문

- 고상진.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선군정치의 근본특징.” 『철학연구』. 1999년 1호(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9).
- 곽인수. “노동당 당적 지도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길화식. “북한 공안기관의 특성과 향후 전망.” 『통일과 법률』. 2010년 5월호.
- 김광용. “북한 ‘수령제’ 정치체제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 김선호. “국가안전보위부의 실체 (상).” 『자유』. 통권 440호.
- 김영희. “거미줄처럼 짜여진 체제지킴이(탈북인사대담 87, 2004년 12월).” 『통일한국』.
-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칼 맑스 탄생 165돐 및 서거 100돐에 즈음하여 발표한 논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학회, 1983.5.3.
- 백영규. “권력의 시녀 국가안전보위부의 정체(상).” 『북한』. 2007년 10월호.
- 송봉선. “북한의 장기집권 요인에 관한 분석연구-신권체제 모형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7.
- 이민룡. 『김정일 체제의 북한군대 해부』. 서울: 황금알, 2004.
- 이성현. “북한 인민보안성 당위원회와 정치국의 조직체계와 역할.” 『북

- 한조사연구』. 제6권 2호. 2002년 12월.
- 정성임. “북한의 선군정치와 군의 역할.” 『국방연구』. 제47권 제1호. 2004년 6월.
- 정영태. “북한의 당대표자회 결산: 김정은 권력승계 전망과 과제.” 통일연구원, 2010년 10월.
- 한영진. “노동당 10호실의 정체-철저한 주민감시 속에 변하지 않는 김父子 이상화.” 『北韓』. 2006년 2월호.
- 현성일. “북한 노동당의 조직구조와 사회통제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다. 기타

- 『노컷뉴스』.
-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http://www.nksis.com/>>.
- (사)좋은 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 『요미우리신문』.
- 이윤걸.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국회의원 박선영, 사)북한민주화운동본부. 2011.10.7.
- 탈북자동지회. “북한청년들의 정신상태와 행동-푸른바다.” 2006년 8월 25일. <<http://www.nkd.or.kr/news/story/view/634>>.

2. 북한문헌

가. 단행본

- 김일성. 『김일성 선집, 제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 _____. 『김일성 선집, 제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 _____. 『김일성 선집, 제2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 사회과학출판사. 『령도체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_____. 『령도체계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9』.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_____. 『조선말대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 _____. 『조선중앙년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53.

나. 논문

- 김일성. “조선로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김일성고급당학교 창립 40돐에 즈음한 강의록).” 『김일성 선집 제9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_____. “조선로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 서대숙 편. 『북한문헌연구』 제1권, 조선로동당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문제연구소, 2004.
- 김정일. “당사업에서 낡은 틀을 마스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74년 2월 28일).” 『김정일 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 _____. “당사업에서 낡은 형식을 버리고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1974년 2월 28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_____. “우리는 지금 식량 때문에 무정부상태가 되고 있다(1996년 12월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50돌 기념 김정일의 비밀연설).” 『월간조선』. 1997년 4월호.
- _____. “정무원 위원회, 부 당 조직의 사업을 개선 강화할데 대하여(1974년 6월 10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당의 방침에 대하여.” 『학습제강(당원 및 근로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2.
- “혁명이 간고할수록 투철한 신념과 순결한 량심을 가지고 경애하는 최고 사령과 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참된 충신이 될 데 대하여.” 『학습제강(군관, 장령용)』.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1999.

다. 기타

『로동신문』.

일본판 『민족통신』.

『조선로동당 규약』. 제2장 제11조 2항, 2010.9.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연구총서

2009-01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전성훈	7,500원
2009-02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황병덕, 신상진	9,000원
2009-03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전현준 외	10,000원
2009-04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임강택	9,000원
2009-05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여인곤 외	10,000원
2009-06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9-07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박형중 외	10,000원
2009-08	북한 개방 유도 전략: 목표, 기본방향 및 단계별 과제	최진욱 외	10,000원
2009-09	북한주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전략적 인권외교의 방향	홍우택 외	6,500원
2009-10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영 외	9,000원
2009-11	북한인권 침해구조 및 개선전략	이금순, 김수암	7,500원
2009-12	통일대계 탐색연구	조민 외	8,000원
2009-13	Modernization and Opening-Up of North Korean Economy: Roles and Efforts of Neighboring Countries	김규륜 외	7,500원
2009-15	Peace-Keep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Commissions	Gabriel Jonsson	20,000원
2010-01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박형중 외	9,500원
2010-02	탈사회주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포스트-김정일 체제에 대한 시사점	최진욱, 김진하	8,000원
2010-03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7,000원
20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7,500원
2010-0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배정호 외	12,500원
2010-06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이금순, 전현준	8,500원
2010-07	라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김영윤, 추원서, 임을출	8,000원
2010-08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박종철 외	11,500원
2010-09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외	6,000원
201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홍우택	5,000원
2010-11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정영태 외	11,000원
2010-12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조정아 외	17,000원
2010-1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의 대북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수영	7,500원
2010-14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김규륜 외	10,000원
2010-15(1)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1)	김규륜 외	13,000원

2010-15(I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II)	김규륜 외	13,000원
2011-0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전성훈	14,500원
2011-02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이교덕 외	11,000원
2011-03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최진욱, 김진하	5,500원
2011-04 북한의 부문별 조직 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정영태	16,000원
2011-05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이규창, 정광진	8,000원
2011-06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김수암 외	12,000원
2011-07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협력적 위협감축(CTR)의 적용방안	박종철 외	10,000원
2011-08 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	홍우택 외	6,000원
2011-09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허문영, 마민호	10,000원
2011-10 북한 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 핵전략	배정호 외	11,000원
2011-11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박영호 외	13,500원
2011-12(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 외	15,500원
2011-12(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2부	황병덕 외	13,500원
2011-12(I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3부	황병덕 외	18,000원

학술회의총서

2009-01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6,500원
2009-02 북핵 일괄타결(Grand Bargain)방안 추진방향		5,500원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2010-02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6,000원
2010-03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5,500원
2010-04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7,000원
2011-01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4,000원
2011-02 제1차 사이오 인권포럼-북한인권 실상과 개입방안		8,500원

협동연구총서

2009-15-01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8,500원
2009-15-02 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	박형중 외	10,000원
2009-15-03 북한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김정수 외	10,000원
2009-15-04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장형수 외	10,000원
2009-15-05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이종무 외	9,000원
2009-15-06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양현모 외	10,000원
2009-16-01 북장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000원
2009-16-02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이교덕 외	8,000원
2009-16-03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이 석 외	9,000원
2009-16-04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민병원 외	8,000원
2009-17-01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총괄보고서)	여인근 외	7,500원
2009-17-0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박종철 외	8,000원

2009-17-03 비핵·개방·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조민외	9,000원
2009-17-04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함택영 외	7,500원
2009-17-05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외	7,000원
2009-17-06 비핵·개방·3000 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이금순 외	7,500원
2010-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2,000원
2010-14-0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황병덕 외	14,000원
20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황병덕 외	13,000원
20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총괄보고서)	여인근 외	9,000원
20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박영호 외	9,500원
2010-15-03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실천방안	허문영 외	7,000원
20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남궁영 외	7,500원
2010-15-05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전재성 외	9,500원
2010-15-06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수훈 외	7,500원
20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이교덕 외	7,000원
20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전현준 외	7,500원
20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조정아 외	14,000원
20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민병원 외	7,500원
2011-14-01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500원
2011-14-02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上)	황병덕 외	13,000원
2011-14-03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中)	황병덕 외	12,000원
2011-14-04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下)	황병덕 외	13,500원
2011-15-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국제사회의 경험 분석(총괄보고서)	임강택, 이상연	11,000원
2011-15-02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박형중 외	10,000원
2011-15-03 체제전환국의 시장-민주제도 건설 지원	박영호, 캐스린버티니, 린리	13,000원
2011-15-04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과 협력체계 연구	장형수, 김석진, 김정수	9,500원
2011-15-05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 전략과 사례	이중무, 김태균, 송정호	9,500원
2011-15-06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이상준, 남경민, 임을출	9,0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d. 18, No. 1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d. 18, No. 2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d. 19, No. 1 (2010)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d. 19, No. 2 (2010)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2011)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0, No. 1 (2011)	2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9	이금순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i>	이금순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2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1	김국신 외	17,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i>	김국신 외	17,500원

기타

2009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Suh, Jae-Jean	5,500원
2009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8		15,000원
2009	The U.S.-ROK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Bae, Jung-Ho, Abraham Denmark	10,000원
2009	북한의 주요현안과 한-미 전략적 공조	배정호	10,000원
2009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10,000원
2010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9		15,000원
2010	2010 독일통일백서		13,000원
2010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10,500원
2010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13,500원
2010	NPT 체제와 핵안보		13,000원
2010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15,000원
2010	통일 환경 평가(통일대계 연구 2010-01)	박종철 외	18,000원
2010	통일비전 개발(통일대계 연구 2010-02)	조 민 외	12,000원
2010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통일대계 연구 2010-03)	황병덕 외	16,000원
2010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후 발전상과 한반도통일-중국, 베트남 및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체제전환 중심(통일대계 연구 2010-04)	황병덕 외	15,000원
2010	전환기의 북한과 통일담론(통일대계 연구 2010-05)	배정호 편저	11,000원
2010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국(통일대계 연구 2010-06)	최진욱 편저	11,000원
2010	Korean Unification and the Neighboring Powers(통일대계 연구 2010-07)	최진욱 편저	13,000원
2011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2)	조 민 외	6,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통일대계연구 2011-03)	박종철 외	13,000원
2011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4)	최진욱 외	13,000원
2011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2011-05)	최진욱 편저	12,000원

2011	2011년 통일예측시계구축	박영호, 김형기	7,500원
2011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과 역할	배정호 외	6,500원
2011	Korean Unification and the Positions and Roles of the Four Neighboring Powers	배정호 편	8,500원
2011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편	12,000원
2011	2011 Unification Clock: When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Ho, Kim Hyeong Ki	4,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9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9~2010	7,000원
2010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0~2011	7,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08-12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9-0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2009-02	하반기('08년 7월~12월) 북한의 정세 분석	최진욱,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2009-03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2009-04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전현준
2009-05	2008년 북-중무역의 주요 특징	임강택, 박형중
2009-06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정영태
2009-07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2010-03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배정호, 박영호, 전병곤
2010-04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정아
2010-05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황병덕
2010-06	야로슬라블 한-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여인곤
2010-07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김진하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황병덕 외
2011-04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이규창
2011-05	최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임순희
2011-06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임강택, 최진욱
2011-07	중동 민주화 혁명과 한반도 전략적 함의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이기현
2011-08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임순희, 김수암, 이규창
2011-09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최진욱, 임강택, 임순희, 정영태, 김진하, 한기범

KINU 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09-01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김규륜 외
2009-02(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손기웅 외
2009-02(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제안 검토	손기웅 외
2009-03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조한범 외
2009-04	통일 예측 시계 구축	박영호, 김지희
2009-05	북핵일지 1955-2009	조민, 김진하
2009-06	미국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이원웅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2010-02	2010년 통일예측시계	박영호 외
2010-03	북한 경제개방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2010-04(I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I): 정책제안	손기웅 외
2010-04(IV)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V): 2010년 「코리아 접경포럼」 자료집	손기웅 외
2011-01	재스민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박종철 외
2011-02	창지투(長吉圖) 선도구와 북한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림금숙
2011-03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박종철 외
2011-04	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예외의 함의: 리비아 및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중심으로	조정현
2011-05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이윤식
2011-06	DMZ 총람: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	손기웅 외
2011-07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손기웅 외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1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2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윤,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2호	김국신,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1호	김수암, 전현준, 이규창

Studies Series

비매품

2009-01	The Evaluation of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 Scenario Workshop Choi Jin Wook, Kim Kook Shin, Park Hyeong Jung, Cheon Hyun Joon Cho Jeong Ah, Cha Moon Seok, Hyun Sung Il
---------	--

- 2009-02 Develop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Lim Kang Teag, Kim Kyu Ryoon, Jang Hyung Soo
Cho Han Bum, Choi Tae Uk
- 2009-03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Cho Jeong Ah, Suh Jae Jean, Lim Soon Hee, Kim Bo Geun, Park Young Ja
- 2009-04 North Korea's Regime Maintenance Policy Since the Kim Jong-il Regime and Prospects
for Change Chon Hyun Joon, Jeung Young Tae, Choi Soo Young, Lee Ki Dong
-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 Wook, Lee Kyo Duk, Cho Jeong Ah, Lee Jin Yeong, Cha Moon Seok
-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 2011-01 A New Approach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Park Jong Chul, Hong Woo Taek, Lee Kyu Chang, Kim Philo, Chun Chae Sung
Cho Seong Ryoul, Hong Ilh Pyo, Hwang Sun Hye

기타

비매품

- 2010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 Ho
- 2010 In Search of Ne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yoon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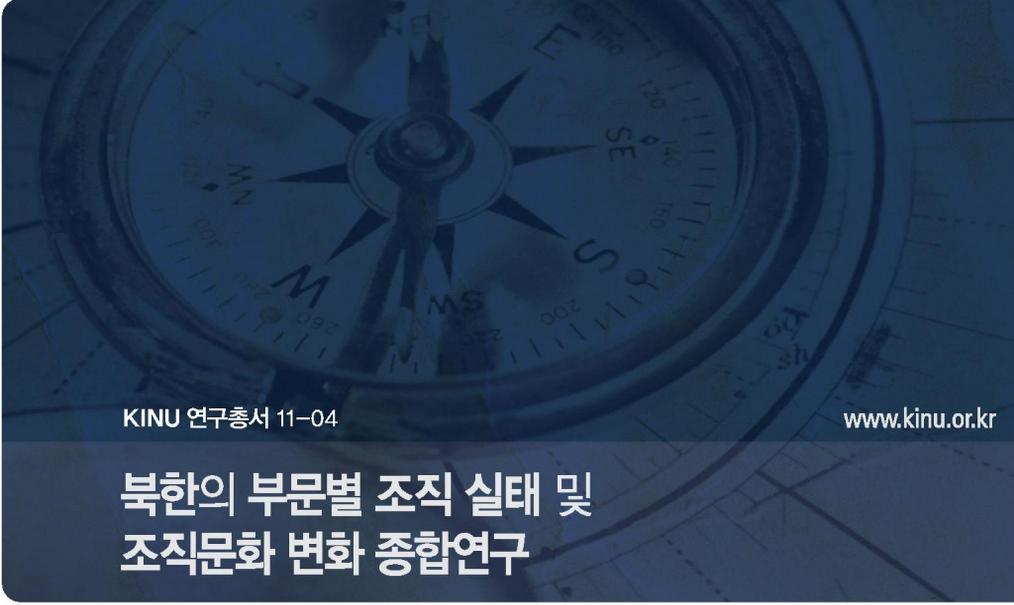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KINU 연구총서 11-04

www.kinu.or.kr

북한의 부문별 조직 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정영태 · 김진무 · 안찬일 · 이영종 · 이윤걸 · 임을출 · 현인애